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說文解字》篆文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徐 權

2010年 08月



# 《說文解字》篆文研究

指導教授 安 在 哲

徐 權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08月

徐 權의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委 員 \_\_\_\_\_ ①

濟州大學校 大學院

2010年 08月



# A Study on the 《shuowenjiezi》zhuanwen

QUAN-XU

(Supervised by professor Jae-cheol a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terature

August, 2010

Department of Dept. of Chinese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 目次

I. 敘論	1
1. 問題提起	1
2. 研究目的	4
3. 研究方法	6
II. 《說文解字》篆文의 概念과 種類	1
1. 各種 篆文에 대한 既存學界의 認識	1
1-1 籀文	1
1-2 大篆	6
1-3 史篇	10
1-4 小篆	12
1-5 古文	16
2. 《說文解字》의 篆文	20
2-1 古文과 籀文	20
2-2 篆文	26
III. 《說文解字》 篆文 分析	34
1. 正文	34
1-1 李斯의 小篆	34
1-2 許慎의 篆文	38
1-2-1 小篆을 省改한 篆文	38
1-2-2 大篆을 省改한 篆文	41
1-2-3 古文을 省改한 篆文	44
1-2-4 漢篆을 省改한 篆文	46
1-2-5 其他 書體를 省改한 篆文	51
2. 重文	60
2-1 古文	60
2-1-1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古文	61
2-1-2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古文	76
2-1-2-1 後世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되는 古文	76
2-1-2-2 出處가 不透明한 古文	78
2-1-2-3 其他	82
2-2 籀文	86
2-2-1 古文으로 確定이 되는 籀文	86
2-2-2 籀文으로 默認되는 籀文	116
2-2-3 籀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籀文	126

2·2·3·1 後世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되는 籀文 .....	127
2·2·3·2 其他 .....	143
IV. 結 論 .....	151
參考文獻 .....	156
中文提要 .....	160
附錄 .....	162
1. 中の 古文資料 .....	162
2. 古文이라고 밝힌 글자 .....	166
3. 經典을 引用한 古文 .....	181
4. 籀文이라고 밝힌 글자 .....	203



# I. 敍論

## 1. 問題提起

後漢 許慎이 지은 《說文解字》<sup>1)</sup>는 漢字의 形·音·義를 體系的으로 考察하고 解說하였는데 “部首法”이라는 原則에 따라 正文과 重文을 그룹별로 分流한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體系가 完整한 가장 오래된 字書 中の 하나이다.

許慎은 “今敍篆文, 合以古籀”라는 前提아래 正文에는 篆文을, 重文에는 古文과 籀文을 두는 方法으로 《說文》의 體系를 세우고 있다.

첫째, 許慎이 《敍》에서 “及周宣王太史籀著大篆十五篇”라고 한 말에서 學者들은 一般的으로 籀文, 大篆 및 《史籀篇》을 모두 同一한 書體로 認識하고 있다. 아울러 “籀”가 太史의 이름이라는 데에 2천 여 년래 異見이 없었지만 王國維가 처음으로 反對意見을 내 놓기도 하였다.

實際로 《說文》의 本文에 籀文외에도 大篆과 《史篇》이라는 名稱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史篇》을 引用하여 解說한 글자는 “𠄎”, “𠄎”와 “𠄎” 세 글자인데, 이 《史篇》이 곧 周宣王 때 만들어진 《史籀篇》이라고 默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세 글자의 字形은 “篆文”과 다름이 없고, 또 甲骨文이나 金文같은 古文字 資料가 不足하므로 《史籀篇》으로 認定하기에는 證據가 不充分하다.

《說文》 “艸部”의 “蒜”자 以後의 53개의 正文과 2개의 重文이 “從艸”일 때는 “篆文”이고 “從隹”일 때는 “大篆”이라고 하였다. 이에 段玉裁는 楷書體로 “從隹”의 글자를 만들어 넣고 “籀文作某”라고 說明하고 있다. 筆者는 段玉裁가 古文字 資料가 不充分한 狀況에서 篆文도 아닌 楷書로 字形을 만들어 넣고 籀文이라고 일컫는 것은 非科學的이며 믿을 바가 못 된다고 생각한다.

1) 許 慎, 《說文解字》, 江苏广陵出版社, 1997. 이하 《說文》이라 略稱한다. 아울러 《說文》의 敍文은 《敍》라고 略稱한다.

아울러 段玉裁가 楷書體로 “從跣”의 籀文을 만들어 넣은 것은 字體와 書體를 區分하지 못한 데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古文과 籀文의 正確한 숫자는 모호할 뿐만 아니라, 두 文字의 出現 時期 또한 學者에 따라 意見이 紛紛하다.

古文과 籀文에 대한 여러 學者들의 統計數字가 다소 差異가 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明代의 楊慎이 지은 《六書索引》에서는 “古文은 모두 316개이다.”라고 하였으며; 清代의 蔡惠堂이 지은 《說文古文考證》에서는 “古文은 모두 4백 여 개다.”라고 하였다. 王國維가 지은 《說文所謂古文說》에서는 “古文은 모두 5백 여 자이다.”라고 하였고, 曾憲通이 지은 《三體石經古文與說文古文合證》에서는 “說文의 重文 古文은 모두 429자이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古文과 籀文의 正確한 數字가 把握되지 않고 있는 原因은 《說文》의 正文이 모두 篆文이 아니고, 重文은 또한 모두 古文과 籀文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울러 正文과 重文에는 古文과 籀文이 두루 섞여 있지만 모두 許慎에 의하여 하나의 統一된 書體-篆文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 出處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識別할 방법이 없다. 즉 《說文》의 文字는 許慎이 “篆文作某”, “古文作某” 혹은 “籀文作某”라고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篆文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籀文 혹은 古文이 存在하였을 可能性이 있는 商, 周 時期부터 春秋戰國時代의 文獻資料의 總集合이라고 할 수 있는 《古文字詁林》<sup>2)</sup>에서도 籀文 혹은 大篆 등 用語는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說文》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書體이다.

筆者는 古文과 籀文의 正確한 數字를 把握할 수 없고 篆文 속에 섞여 있을 때 名稱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識別할 方法이 없는 것은 篆文, 古文, 籀文의 書體의 特徵이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本稿를 記述코자 한다.

셋째, 阿辻哲次の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sup>3)</sup>, 陸宗達의 《說文解字通論》<sup>4)</sup>, 李敦柱의 《漢字學總論》 등에서는 篆文, 古文과 籀文 그리고 小篆, 大篆 등

2)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2000.

《古文字詁林》에는 《續甲骨文篇》, 《甲骨文篇》, 《金文篇》, 《古匋文字徵》, 《睡虎地秦簡》, 《包山楚簡》 등 古文字 資料뿐만아니라, 《石經》, 《汗簡》, 《古老子》, 《古尚書》 등 傳抄古文字가 총 망라되어 있다.

3) 沈慶昊 譯, 阿辻哲次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회문화사, 1996.

文字들을 모두 書體라고 부르고 있다.

反面에 陳夢家, 顧實, 唐蘭 등이 지은 《中國文字學》, 高明이 지은 《中國古文字通論》 등은 字體라고 부르고 있다.

字體와 書體는 嚴然히 區別되는 서로 다른 概念이다.

字書에서는 字體와 書體를 다음과 같이 規定짓고 있다.

字體: 文字의 不同體式. 如漢字有篆書, 隸書, 楷書, 草書, 行書等.

자체: 文字의 다른 형체이다. 예를 들면 漢字에는 전서, 예서, 해서, 초서, 행서 등이 있다.

書體: 由有代表性的著名書法家所形成的風格獨特的字體.<sup>5)</sup>

서체: 대표적인 저명한 서법가에 의하여 형성된 풍격이 독특한 자체를 서체라고 한다.

또한 篆書의 概念은 다음과 같다.

篆書: 甲骨文, 金文, 大篆, 小篆等初期古文字總稱.<sup>6)</sup>

전서: 갑골문, 금문, 대전, 소전을 비롯한 초기 고문자의 총칭이다.

字體와 書體의 概念으로 보면 《說文》의 篆文, 古文, 籀文은 모두 篆書<sup>7)</sup>라고 하는 한 가지 字體에 속한다. 비록 이것들이 한 가지 字體이지만, 세 가지가 서로 不同한 書法家에 의하여 쓰여 서로 다른 書風을 띠게 되었다면 이것들은 서로 다른 書體라고 한다. 따라서 本稿에서 筆者는 字體 혹은 書體라는 名稱을 明確히 區分하여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混亂을 피하고자 한다.

넷째, 許慎이 《說文》의 本文에서 단 한번도 正文이 小篆<sup>8)</sup>이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根據도 없이 스스로 《說文》의 正文은 小篆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4) 陸宗達, 《說文解字通論》, 北京出版社, 1981.

5) 羅竹風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出版, 1986.

6) 啟功, 《書法大字海》, 中國海南出版社, 1978.

7) 篆書: 여기서 말하는 篆書는 許慎이 <敘>에서 말한 秦篆이나 小篆을 뜻하는 篆書가 아니라 漢字의 다섯 가지 字體인 篆書, 隸書, 楷書, 草書, 行書에서의 篆書이다.

8) 《說文·勹部》의 "勹"의 重文에 小篆이 있지만, 古文으로 確定이 되며, 李斯의 小篆과 다르다. 때문에 이 小篆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예를 들면 趙平安의 《說文小篆研究》, 王寧의 《說文與漢字學》, 《漢字構形學講座》; 李國英의 《小篆形聲字研究》, 裘錫圭의 《文字學概要》 등에서 모두 《說文》의 書體를 小篆이라고 부르고 있다.

小篆에 대하여 許慎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斯作《倉頡篇》，中車府令趙高作《爰歷篇》；大史令胡毋敬作《博學篇》，皆取史籀大篆，或頗省改，所謂小篆也。”<sup>9)</sup>

이사는 《창힐편》을 지었고, 중거부령 조고는 《원력편》을 지었으며, 태사령 호무경은 《보학편》을 지었는데, 비록 “창힐”로 그 이름을 삼았으나, 모두 《史籀篇》의 대전을 취하여 어떤 것은 다소 덜어(간화) 고쳤으니 이것이 이른바 소전이다.

上記 引用文을 보면 小篆은 李斯, 趙高, 胡毋敬 等 세 사람에게 依하여 만들어 진 것이다. 同一한 字體라고 하여도 不同한 書法家에 依하여 風格이 서로 다른 不同한 書體가 생기게 된다. 즉 李, 趙, 胡 세 사람은 비록 同一한 “小篆”이라고 하는 字體로 各各 《倉頡篇》等 三篇을 지었지만 그 書體는 서로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傳해져 내려오는 《泰山刻石》, 《嶧山刻石》, 《琅琊刻石》, 《芝罘刻石》, 《碣石刻石》等 刻石들은 모두 李斯 한사람의 筆跡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小篆의 代表者로 李斯를 指目하고 있으며 小篆이 곧 李斯의 書體라는 것이 一般的인 認識이다.

筆者는 이 部分에서 다음과 같은 異見을 提起한다. 小篆이 모두 大篆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原來대로 大篆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달리하여 小篆이라고 부르고 있다. 똑 같은 이유로 만약 《說文》의 9353 글자에 달하는 正文이 모두 小篆(《倉頡三篇》)에서 비롯되었다고 假定을 하더라도, 그 小篆은 모두 大篆을 취하여 簡化시킨 것이므로, 반드시 小篆이라고 불려야할 理由가 없으며, 특히 許慎은 《說文》에서 分明히 篆文이라고 하는 새로운 名稱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篆文이 《倉頡三篇》과 관련된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篆文이 곧 小篆이라는 認識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물며 書體의 變化는 時代的, 地域的, 書寫方法, 書法家 等に 依하여 생기기에

9) <敍>

秦나라 때의 李斯의 小篆이 300餘年 以後 後漢의 許慎에 이르러서 分明히 書體的 變化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風格을 所有한 書體로 變化되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許慎은 《說文》의 書體를 篆文이라고 이름 짓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無視하고 “小篆”이라고 부르는 것이 果然 올바른 名稱인가 하는 疑問을 提起한다.

## 2. 研究目的

上述한 問題點에 着眼하여 本稿는 《說文》의 篆文에 대한 既存의 認識을 살펴봄으로써 小篆, 大篆, 篆文, 古文, 籀文 등 術語를 整理하여 使用에서의 混亂을 避免하고 篆文의 概念과 意味를 鞏固히 하고자 한다.

王平은 《說文重文研究》에서 새로운 概念을 導入하여 《說文》의 正文을 “正篆”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는 讀者들에게 至大한 混亂을 주고 있다. 上述한 問題點들과 王平 등의 이와 같은 理論은 모두 篆文에 대한 書體的 概念이 明確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混亂이라는 것이 筆者의 생각이다.

筆者는 《說文》의 正文과 重文에 篆文, 古文, 籀文 등 여러 書體가 섞여 있고, 특히 正文에는 이 세 가지 書體가 分別없이 두루 섞여 있는 것에 注目하고 《說文》의 書體는 곧 篆文이라고 判斷하고 許慎이 “今敍篆文, 合以古籀”라고 말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正文은 하나의 統一된 書體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重文의 古文과 籀文도 똑 같은 書體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는데 正文의 書體的 特徵과 다소 區別되고 있다. 하지만 古文과 籀文이 正文속에 있을 때는 正文과 同一한 書體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許慎이 正文과 重文을 區別하기 위하여 人爲的으로 書風의 變化를 주었기 때문이다.

《說文》은 正文으로 9353 글자, 重文으로 1165 글자에 달하는 방대한 篆字를 收錄하고 있지만, 맨 처음 글자 “一”에서부터 마지막 글자 “亥”에 이르기까지 흐트러짐 하나 없이 完全히 統一된 書法體系를 이루고 있다. 이는 許慎이 平生의

精力과 刻苦의 努力으로 이뤄낸 成果이다.

즉 正文과 重文의 主軸을 이루는 篆文, 古文, 籀文은 모두 篆書라는 同一한 한 가지 字體로서, 원래는 비록 서로 다른 세 가지 書體였지만, 許慎에 의하여 다시 “或省改”<sup>10)</sup>되어 《說文》에 收錄되면서 새로운 書體로 誕生하게 된 것이다.

《說文》은 文字學, 音韻學, 訓詁學, 考古學, 哲學 등 여러 분야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敍>에 記錄되어 있는 文字의 起源과 六書에 대한 기술, 여러 書體에 대한 說明으로 말미암아 書法藝術에서도 卓越한 價値가 있다. 때문에 《說文》의 篆文은 文字學 등에서 뿐만 아니라 書體的으로도 充分히 重視를 일으켜야 한다.

### 3. 研究方法

Ⅱ章에서는 먼저 既存 學界에서 小篆, 大篆, 篆文, 古文, 籀文 등 여러 書體에 대한 認識을 살펴보고자 한다.

一般的으로 《說文》의 篆文은 곧 小篆이며, 大篆과 籀文, 《史籀篇》은 同一한 概念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아울러 古文과 籀文은 明白히 區別되는 書體라고 認識하고 있다. 字體와 書體의 區別도 明確하지 못한데, 段玉裁는 楷書體로 所謂 籀文을 만들어 넣는 誤謬도 서슴없이 범하고 있다.

이와 같은 認識은 書法的인 觀點으로써 《說文》의 書體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文字學과 書法은 完全히 獨立인 學問이라고 생각하지만, 漢字 發展過程에서 서로 不可分의 關係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文字發展의 歷史는 곧 書法史이기도 하다고 할 것이다. 書法에서 字體와 書體는 엄연히 區別되는 두 가지 概念이다. 《說文》의 모든 文字는 “篆文”에 속하는 同一한 字體이며, 다만 正文과 重文의 風格이 다르기에 서로 다른 書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筆者는 Ⅱ章에서 書法的인 觀點을 가지고 篆文의 概念에 대하여 살펴보

10) 省改: “줄이고 고치다”의 뜻으로서 “整理”하였다는 뜻도 있는데 本稿에서는 뜻을 풀이하여 쓰지 않고 許慎 原文대로 省改라는 表現을 使用한다.

고자 한다.

Ⅲ章에서는 먼저 《說文》의 正文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筆者의 篆文에 對한 認識을 再確認하려고 한다.

李斯의 小篆과 許慎의 篆文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을 통하여 篆文이란 《說文》의 書體이며 李斯의 小篆과 서로 다른 書體라는 筆者의 主張을 導出한다. 書體變化의 重要한 原因 中の 하나는 不同한 時代와 不同한 書家라고 할 수 있다.

<敍>에 따르면 小篆은 “皆取史籀大篆”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許慎의 篆文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出處가 明確하지 않다. 때문에 篆文의 出處에 대한 分析과 書體의 特徵에 대한 分析을 통하여 篆文의 概念에 對하여 一定한 意味를 附與하고자 한다.

다음, 《說文》의 重文에 對한 分析을 하고자 한다.

古文과 籀文은 서로 完全히 다른 書體라는 既存의 認識에 對하여 筆者는 異意를 품고 있다. 古文과 籀文은 비록 그 이름은 다를지라도, 모두 許慎의 손을 거쳐 《說文》에 收錄될 때 이미 許慎의 書體로 變하였기 때문에, 篆文의 一種이 된 것이라고 主張한다.

이외에도 古文과 籀文에 대한 具體的인 分析을 통하여 그 出處를 밝히고 眞僞를 자려내는 作業을 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古文과 籀文은 現在 거의 唯一하게 《說文》속에만 存在하는 書體라고 할 수 있으며, 여러 難解한 古文字를 考證하는 데에 아주 貴重한 資料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分析과 研究를 통하여 本稿의 研究目的에 到達하며 最終적으로 “拋磚引玉”의 效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本稿에서 引用한 古文字는 모두 李圃 主編의 《古文字詁林》의 다음과 같은 資料에서 복사 및 스캔의 方法을 통하여 얻은 것이다:

《甲骨文編》, 《續甲骨文編》, 《金文編》, 《古匋文字徵》, 《先秦貨幣文編》, 《古幣文編》, 《侯馬盟書字表》, 《包山楚簡文字編》, 《古璽文編》, 《漢印文字編》, 《石刻篆文編》, 《汗簡》, 《古孝經》, 《古老子》, 《古尚書》등.

古文字에 대한 解釋은 다음과 같은 學者들의 研究結果를 따른다:

羅振玉 《殷墟書契考釋》，王國維 《觀堂集林》，郭沫若 《甲骨文字研究》，《殷契粹編》；商承祚，《說文之中古文攷》，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李孝定 《甲骨文字集釋》，于省吾 《甲骨文字釋林》；黃錫全 《汗簡注釋》，吳其昌 《殷墟書契解詁》，徐中舒 《甲骨文字典》 등.

本稿의 研究範圍는 篆文, 古文, 籀文을 위주로 하며 기타 或體, 奇字, 俗字 등은 除外한다.



## II. 《說文解字》篆文의 概念과 種類

### 1. 各種 篆文에 대한 既存學界의 認識

#### 1-1 籀文

許慎이 <敍>에서 “及周宣王史籀大篆十五篇，與古文或異”라고 한 말에서 籀文, 大篆 혹은 《史籀篇》等 名稱이 생겨났으며, 古文과 籀文은 서로 다른 書體라고 認識하게 되었다. 아울러 籀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論爭으로 이어지고 있다.

馬敘倫은 《說文解字研究法》에서 말하기를:

周宣王太史籀著大篆十五篇，與古文或同或異，則籀文即大篆。<sup>11)</sup>

주나라 선왕 때 대사가 大篆으로 된 15편을 지었는데, (대전은)고문과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즉 주문은 곧 대전이다.

라고 하였다. 馬敘倫은 <敍>의 原文 “史籀大篆”을 “太史籀著大篆”으로, “與古文或異”를 “與古文或同或異”로 理解하고 있다. 이는 比較的 正確한 認識으로, 太史가 大篆十五篇을 籀著하였다는 뜻이며 古文과 大篆은 같은 것도 있고 서로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籀文即大篆”이란 말은 깊이 있게 論議하여야 할 問題로서, 다음 章節에서 詳細히 論하기로 한다.

普通 “及周宣王史籀大篆十五篇”을 줄여서 《史籀篇》이라고 부른다. 王平은 《說文重文系統研究》에서 다음과 같이 王國維 著書 《史籀篇疏證·序》를 分析하여 말하기를:

王國維認爲“籀文”不是書體之名，而只是取材於《史籀》一書，故謂之籀文。這種說法是有

11) 馬敘倫: 《說文解字研究法》, 上海商務印書館, 1933, p21.

一定道理的.<sup>12)</sup>

왕국유는 “주문”이 서체명이 아니며 《史籀》라는 책에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籀文이라고 부른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일정한 도리가 있다.

라고 하였다. 史籀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데에 對하여 2千餘年 이래 아무런 異說도 없었다. 하지만 王國維(1877-1927)가 그의 著作 《史籀篇敍錄》<sup>13)</sup>에서 처음으로 史籀가 사람의 이름이 아닐 可能性이 있다는 異義를 提起하였다.

古代에 籀와 讀은 同聲同義 글자였고, 讀書는 모두 史事였다. 옛 사람들은 字書를 지을 때 첫 구절은 大概 “太史籀書”로 시작하였는데 後世사람들은 그 첫 구절의 史籀라는 두 글자를 취하여 책 이름을 지었다. “太史籀書”는 곧 太史讀書와 같은 뜻을 갖는다. 以上은 어디까지나 王國維의 假設이다.

《史籀篇》의 첫 句節이 “太史籀書”라는 것은 考證된 바가 없다. 古書, 이를테면 《尚書》, 《論語》, 《春秋》, 《易》 등은 모두 책의 內容으로 책 題目을 달았다.

王國維는 또 《史籀篇》의 時代에 對한 疑問을 提起하였다. 그는 《史籀篇》이 周 宣王 때가 아니라 春秋戰國 시대에 秦나라 사람이 이를 만들어 兒童들을 가르쳤던 책이라고 斷定하였다. 그러므로 王國維는 古文과 籀文은 戰國時代에 同時에 使用되고 있던 書體로서 다만 그 使用 地域만이 다를 뿐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兩者는 時間的 先後 關係가 아니라 같은 時期에 東方의 나라(齊·魯等)에서 使用되고 있던 것이 古文이고, 西周의 故地, 뒤의 秦나라 附近에서 使用되고 있던 書體가 籀文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古文·籀文은 結局 東西 二土에서 使用한 文字의 異名이라고 結論지었다.<sup>14)</sup>

만약 王國維나 王平의 말대로 籀文이 書體名이 아니라면 篆文과 古文도 書體名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說服力이 不足한 論理이다.

篆文, 古文, 籀文은 책 이름인 同時에 書體名이다. 이를테면 古文이란 古代 文體로 된 古文經書를 뜻하는 同時에 그에 쓰인 書體를 뜻하는 것이다.

12) 王平: 《說文重文系統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p41.

13)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 商務印書館, 1940.

14) 李敦柱: 《文字學總論》, 博英社, 1992, p79;

阿辻哲次/심경호,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희문화사, 1996, pp105-106.

王國維의 말대로라면 古文과 籀文은 同時代에 使用된 文字이며 地域만 다를 뿐이다. 王國維의 이와 같은 觀點은 많은 學者들이 同感하고 있지만 異見을 提起하는 學者들도 있다. 容庚은 《中國文字學形編》에서 말하기를:

今以彝器證之, 齊魯之彝器文與秦固無大異,<sup>15)</sup>

지금 출토된 金文이 증명하다시피 齊, 魯 등 지역의 金文과 秦의 金文은 크게 다른 것이 없다.

라고 하였다. 郭沫若은 《信陽墓的年代與國別》에서 말하기를:

自西周以來通行於各國統治者之間的文字有一種正規的體系,<sup>16)</sup>

서주 이래 전국의 통치자 사이에서 통행된 문자는 일종의 정규적인 체계를 갖춘 것이었다.

라고 하였다. 뜻인 즉 西周 時期부터 이미 統一的인 規格이 있는 文字가 사용되었으며 王國維의 “東西二土” 說은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籀”의 뜻은 주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籀는 讀과 같은 뜻이 있다.

《說文》에서는 “籀, 讀也.”라고 解釋 하였다. <敍>에서는

太史試學童, 能諷籀書九千字以上, 乃得爲史,<sup>17)</sup>

학생들은 태사가 보는 시험에서 9천자 외워서 읽을 줄 알면 비로소 작은 기록관으로 될 수 있었다.

라고 하였다. “諷籀書”는 곧 “諷書”와 “籀書”라는 뜻인데, 諷은 외우다의 뜻이고 籀는 글자를 읽는다는 뜻을 갖고 있다.

무릇 史官이 되려는 學生들은 반드시 나라에서 定한 試驗用 教科書를 외우고 익혀야 하는데 그 教科書가 곧 《史籀篇》이었다.

15) 容 庚: 《中國文字學形編》, 文字改革出版社, 1959, p126.

16) 郭沫若: 《信陽墓的年代與國別》, 文物出版社, 1958.

17) <敍>

그리하여 班固가 말하기를:

史籀篇者, 周時史官教學童書也.<sup>18)</sup>

《史籀篇》이라고 하는 것은 周나라 때 史官이 學童을 가르치는 책이다.

라고 하였다.

둘째, 籀는 著述한다는 뜻이 있다.

《敍》에서 말하는 “籀著大篆十五篇”과 “史籀大篆”에서의 籀는 모두 “짓다(作)”의 뜻이다. 許慎이 “及宣王太史籀著大篆”이라고 하였고, 班固는 “宣王太史作大篆”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籀著”와 “作”은 같게 쓰이고 있다.

籀자는 搆(뺨 추)자를 따르는 글자이다. 《說文》에서는 “搆는 끌어당기다(引也). 搆를 혹 抽로 쓰인다.”라고 하였다. 抽자를 《揚子·方言》에서는 “抽는 읽는다(讀也).”라고 解釋하였다. 이와 같은 解釋으로 볼 때 籀를 太史의 이름으로 보는 觀點은 正確하지 아니 한 것이다.

셋째, 籀는 글씨를 쓴다는 뜻이 있다.

籀는 “끌어당기다(抽引)”의 뜻이 있다. 《說文》에서 “篆은 끌어당기다(引也)”라고 解釋하였으니 籀와 篆은 같은 뜻을 갖고 있다.

王國維는 《史籀篇疏證》에서 《說文》 중의 籀文 220자를 收錄하였는데 甲骨文과 金文과 서로 印證을 한 結果 아래와 같다:

籀文同于甲骨文和初期金文者	十分之三·五弱	35%
籀文同于西周金文者	十分之四·五强	45%
籀文同于東周金文者	十分之二弱	20% <sup>19)</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籀文이 西周 晩期에 使用되었으며 東周보다는 훨씬 일

18)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48.

19)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52.

적 사용된 文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王國維가 籀文의 時代를 春秋戰國時代라고 것은 成立되지 않는 假設이다. 때문에 籀文은 班固나 許慎의 말처럼 周 宣王 時期에 만들어진 字書라는 것이 더욱 信憑性이 있는 말이다.

“籀”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알 수 있다. 현재까지 사람의 이름으로 書體 이름을 命名하는 일은 全無하다. 大篆을 만들었고 學童들을 가르치는 教科書를 만든 歷史的인 人物이라면 文獻에서 마땅히 빼 놓을 수 없는 것이다. 西周시기에 相當히 많은 史官이 있지만 “史籀”라고 하는 이름은 찾아 볼 수 없다. 《周書》, 《左傳》, 《周語》, 《呂覽》, 《史記》, 《六韜》, 《論語》, 《晉語》, 《莊子》, 《韓非子》…… 사서들에서 史佚, “史局”, “太史辛甲申”, “太史周任”, “左史戎夫”, “史角”, “史伯”, “內史過”, “內史叔興”, “內史叔服”, “太史儋”, “史大弓皮” 등 史官의 이름은 있지만 “史籀”라는 이름은 찾을 수 없다.

《藝文志》에도 “史籀”가 사람의 이름이라는 說明이 없다. 아울러 文字學術界와 考古學者들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새로운 發見과 證據를 찾지 못하고 있는 狀況이다. 때문에 “史籀”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은 明確한 일이다.

15篇으로 된 《史籀篇》은 東漢初期에 이미 9篇만 남아 있었다. 15篇은 모두 3천 여 글자로 推定이 되는데 當時에는 2천 여 글자만 남아 있는 狀態였으며 晉代에 이르러서는 完全히 消失되었다. 때문에 現在 우리가 볼 수 있는 籀文은 《說文》의 것이 唯一하다.

籀文의 數字에 대하여 여러 學者들의 統計 數字가 不同하다. 淸나라 때의 馬國翰의 《王函山房輯佚書·經輯小學類》는 《說文》 重文의 籀文이 219 글자, 葉德輝는 《說文籀文考證》은 徐鉉의 《說文》에 根據하여 籀文이 210 글자; 王國維는 《史籀篇疏證》에서 《說文》의 籀文이 모두 223 글자이며 重文 2 글자를 합하면 모두 225 글자라고 하였다. 啓功의 《古代字體論稿》에서 《說文》의 籀文이 225 글자; 趙衛의 《說文籀文研究》의 統計는 214 글자 등 여러 學者들의 統計가 비슷하나 엇갈리고 있다.<sup>20)</sup> 上記와 같은 籀文은 모두 《說文·艸部》의 53개 大篆을 包含하지 않은 數字이다.

20) 王 平: 《說文重文系統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p43.

## 1·2 大篆

一般的으로 大篆이 곧 籀文이라고 既存學界에서는 認識하고 있다.

《說文》의 本文에는 籀文과 上述한 史篇 외에도 大篆이라는 名稱이 나오고 있는데 “艸部”의 “蒜”자의 다음과 같은 解說에서 알 수 있다.

艸部 蒜: “葷菜. 從艸祚聲. 蘇貫切. 左文五十三, 重二, 大篆從艸. 21)

뜻인 卽 “蒜”자 以後의 53개의 正文과 2개의 重文이 “從艸”일 때는 “篆文”이고 “從艸”일 때는 “大篆”이라는 것이다.<sup>22)</sup> 이 말에 對하여 王國維는 다음과 같이 分析하였다.

出大徐本, 小徐本無此十一字. 案敍云, 周宣王太史籀著大篆十五篇, 是許君以籀文爲大篆也. 然說解中皆云籀文不云大篆, 蓋此五十三字不出史籀篇, 而出自他書漢書藝文志小學類有八體六技一書.<sup>23)</sup>

大徐本에는 “左文五十三, 重二, 大篆從艸”와 같은 11글자가 있지만 小徐本에는 없다. 《敍》에 의하면 “周 宣王 때 太史가 大篆 15편을 지었다.”라고 하였는데 許慎은 籀文이 곧 大篆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해설하는 과정에서 전부 籀文이라고 하였고 大篆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53개의 글자가 《史籀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른 서적 卽 《漢書·藝文志》에서 말한 《小學》類의 “八體六技一書”와 같은 책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王國維는 이 “大篆”이 《小徐本》에는 없고 《大徐本》에만 있으며 《史籀篇》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假設을 내 놓았다.

이 53개의 글자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蒜 葷菜. 從艸祚聲.
- (2) 芥 菜也. 從艸介聲.

21) 《說文艸部蒜》

22) “左文”: 《說文》 원본의 書寫 순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方法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左文”이란 “蒜”자 이후의 53개의 正文과 2개의 重文을 가리키는 것이다.

23)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 商務印書館, 1940, pp2170-2173

- (3) 蔥 菜也。從艸蔥聲。
- (4) 藿 艸也。從艸霍聲。《詩》曰：“食鬱及藿。”
- (5) 葷 亭歷也。從艸單聲。
- (6) 苟 艸也。從艸句聲。
- (7) 蕨 鼈也。從艸厥聲。
- (8) 莎 鎬侯也。從艸沙聲。
- (9) 蒹 蘋也。從艸汧聲。
- (10) 葶 艸也。根如薺，葉如細柳，蒸食之甘。從艸堇聲。
- (11) 菲 芴也。從艸非聲。
- (12) 芴 菲也。從艸勿聲。
- (13) 薊 艸也。從艸鷲聲。
- (14) 藿 藪也。從艸萑聲。
- (15) 葦 大葭也。從艸韋聲。
- (16) 葭 葦之未秀者。從艸段聲。
- (17) 萊 蔓華也。從艸來聲。
- (18) 荔 艸也。似蒲而小，根可作畝。從艸荔聲。
- (19) 蒙 王女也。從艸冡聲。
- (20) 藻 水艸也。從艸從水，巢聲。《詩》曰：“於以采藻？”
- (21) 菉 王芻也。從艸錄聲。《詩》曰：“菉竹猗猗。”
- (22) 曹 艸也。從艸曹聲。
- (23) 藎 艸也。從艸箇聲。
- (24) 菝 艸也。從艸沼聲。
- (25) 菩 艸也。從艸吾聲。《楚詞》有菩蕭艸。
- (26) 範 艸也。從艸汜聲。
- (27) 芴 艸也。從艸乃聲。
- (28) 苴 艸也。從艸血聲。
- (29) 荀 艸也。從艸匄聲。
- (30) 芑 白苗嘉穀。從艸己聲。
- (31) 蕘 水鳥也。從艸賣聲。《詩》曰：“言采其蕘。”
- (32) 芄 艸也。從艸冬聲。
- (33) 藿 藿虞，藜。從艸藿聲。
- (34) 苕 艸也。從艸召聲。
- (35) 蘇 艸也。從艸楸聲。
- (36) 菅 艸也。從艸冒聲。
- (37) 菲 梟葵也。從艸非聲。《詩》曰：“言采其菲。”
- (38) 荼 苦荼也。從艸餘聲。
- (39) 藜 白蒿也。從艸繁聲。
- (40) 蒿 藪也。從艸高聲。
- (41) 蓬 蒿也。從艸逢聲。𦵏，籀文蓬省。
- (42) 藜 艸也。從艸黎聲。
- (43) 藜 藜實也。從艸歸聲。
- (44) 葆 艸盛兒。從艸保聲。
- (45) 蕃 艸茂也。從艸番聲。
- (46) 茸 艸茸茸兒。從艸，聰省聲。
- (47) 萍 艸兒。從艸津聲。

- (48) 叢 艸叢生兒。從艸叢聲。  
 (49) 草 草斗，櫟實也。一曰象斗子。從艸早聲。  
 (50) 葷 麻蒸也。從艸取聲。一曰葷也。  
 (51) 蓄 積也。從艸畜聲。 醜六切  
 (52) 萑 推也。從艸從日，艸春時生也；屯聲。  
 (53) 蕪 艸多兒。從艸狐聲。江夏平春有蕪亭。

53개의 文字 중에서 唯一하게 “蓬”자가 籀文이 있는데 그 字形은 蓬<sup>24</sup>와 같다. 하지만 보다시피 艸을 따르는 字形이 아니며 大篆이 아니라 籀文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蓬<sup>24</sup>이 글자가 許慎의 말대로 籀文이고 艸을 따르는 蓬<sup>25</sup>와 같은 글자가 大篆이라고 한다면, 籀文과 大篆은 서로 다른 書體일 可能性이 相當히 크다.

唐蘭은 《中國文字學》에서 지적하여 말하기를:

從前學者總把大篆跟《史籀篇》混而爲一，是錯的。《史籀篇》只是用大篆寫的一本書，跟《倉頡篇》是用小篆寫的一本書，情形正同。《說文》所採用籀文出于《史籀篇》，而徐鉉本艸部有大篆從艸的五十三字，這五十三字的中間就有一个 蓬<sup>24</sup>字是籀文，可見籀文跟大篆，并不相等的。<sup>24)</sup>

이전에 학자들은 늘 大篆과 《史籀篇》을 같은 것이라고 混沌하였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史籀篇》은 大篆으로 쓰인 한 책일 뿐인데, 《倉頡篇》이 小篆으로 쓰인 것과 같은 것이다. 《說文》에서 채용한 籀文의 출처는 《史籀篇》이다. 徐鉉本의 艸部에는 53개의 大篆이 있는데, 이 53개 글자 중에 蓬<sup>24</sup>이 곧 籀文이다. 여기서 가히 알 수 있는 것은 籀文과 大篆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에 王平은 全的으로 支持하면서 말하기를:

我們完全支持唐蘭的觀點，認爲：籀文是用大篆字體寫成，它代表著大篆字體的風格，後世以籀文稱大篆是以部分代全稱。<sup>25)</sup>

우리는 唐蘭의 觀點을 완전히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인식하고 있다: 籀文은 大篆이라는 字體로 쓰인 것으로서 大篆 字體의 風格을 대표하고 있으며, 後世에서 籀文이라는 이름으로 大篆을 부르는 것은 부분으로 전체명칭을 대체한 것이다.

24) 唐 蘭: 《中國文字學》, 上海世紀出版集團, 2005, p126.

25) 王 平: 《說文重文系統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p24.

라고 하였다. 王平은 唐蘭의 말을 理解하지 못하고 있으며 籀文의 正確한 概念을 모르고 있으며, 書體와 字體를 區分하지 못하고 있다.

唐蘭의 主張은 正確한 것이다. 《史籀篇》은 大篆으로 쓰인 책이고, 《倉頡篇》은 小篆으로 쓰인 책이며 大篆과 籀文은 서로 다른 書體이다. 같은 道理로 《說文》은 篆文이라는 書體로 쓰인 책이다. 籀文은 許慎이 大篆으로 된 《史籀篇》의 글자를 《說文》에 收錄하면서 새로운 風格으로 썼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을 命名하여 籀文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즉 籀文이란 許慎의 書體이며 《說文》에만 存在하는 書體이다.

段玉裁는 《說文·注》에서 말하기를:

籀文<sub>籀</sub>應爲古文, 籀文作<sub>籀</sub><sup>26)</sup>

籀文<sub>籀</sub>은 마땅히 古文이어야 하며 “籀文은 <sub>籀</sub>이다.

라고 하였다. 卽 <sub>籀</sub>은 籀文이 아니라 古文이라는 것이다. 段玉裁와 같은 學者들의 誤解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理由 중의 하나는 《說文》의 古文과 籀文은 完全히 同一한 風格을 띠고 있어서 肉眼으로는 區別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段玉裁는 이 53개의 篆文에 卽을 따르는 字形을 만들어 넣고, 原來의 “大篆”이라는 두 글자를 “籀文作某”이라고 고쳤다.

예를 들면:

萑, 籀文作<sub>籀</sub>;

蔥, 籀文作<sub>籀</sub>;

萍, 籀文作<sub>籀</sub>;

董, 籀文作<sub>籀</sub>.

.....

26) 段玉裁, 《說文解字注》, 世界出版社, 1962.

等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篆文이 아닌 楷書로 되어 있는데, 이는 書體의 變化를 준 것이 아니라 아예 完全히 다른 字體로 所謂 籀文을 만든 것이다.

敍論에서 言及하였다시피 漢字의 字體는 篆, 隸, 楷, 行, 草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 段玉裁가 이른바 楷書體로 籀文을 만든 것은 字體와 書體의 概念을 混同한 것이며 文字發展의 規律에 符合되지 않는 것이다.

現有의 古文字 資料를 근거로 하면 이 53개의 文字 중 “𠂔” 혹은 “𠂔”을 따르는 글자는 모두 다섯 개 뿐이다.

- (1) 萑 萑: 甲骨文 𠂔, 𠂔;
- (2) 芳 芳: 甲骨文 𠂔, 𠂔, 𠂔, 𠂔 等, 金文 𠂔, 𠂔, 𠂔, 𠂔 等;
- (3) 蕪 蕪: 金文 𠂔, 《漢印》 𠂔, 𠂔 等;
- (4) 蒿 蒿: 甲骨文 𠂔, 𠂔, 𠂔, 𠂔 等, 金文 𠂔, 𠂔 等.
- (5) 蕪 蕪: 甲骨文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等.

이와 같이 甲骨文이나 金文이 “𠂔” 혹은 “𠂔”을 따르는 글자일 때는 가히 “大篆”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段玉裁는 古文字 資料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53개의 모든 글자에 이른바 𠂔을 따르는 籀文을 만들어 넣었는데, 篆文과는 거리가 멀고 說服力이 없기에 非科學的인 態度라고 생각된다. 또한 만들어 넣은 글자가 楷書體로 되어있는데 이는 字體와 書體를 區分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錯誤이다.

### 1-3 史篇

《說文》의 本文에서 甌, 匄, 姚 等 세 글자를 解說할 때 《史篇》을 引用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𪛗: 酉部 𪛗 盛也. 從大從酉, 酉亦聲. 此燕召公名. 讀若郝. 《史篇》名醜. 詩亦切.

徐鍇曰: “《史篇》謂所作《倉頡》十五篇也.” 𪛗, 古文𪛗.

(2) 缶: 缶部 匊 瓦器也. 從缶, 包省聲. 古者昆吾作匊. 案: 《史篇》讀與缶同. 徒刀切.

(3) 姚: 女部 姚 虞舜居姚虛, 因以爲姓. 從女兆聲. 或爲姚, 媯也. 《史篇》以爲: 姚, 易也. 餘招切.

여기에서 引用한 《史篇》이 周 宣王 때 太史가 지은 《史籀篇》인지는 確實하지 않다.

古代字書皆由太史所寫定用以教習并考試學童之欲爲史者, 所以一切字書統可爲史篇.<sup>27)</sup>

고대의 자서는 모두 태사가 지어서 학동들을 교습·고시하여 “史者”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자서를 史篇이라고 할 수 있다.

史篇이란 名稱은 古代 여러 冊子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漢書·平帝紀》: “徵天下通知……小學史篇.”

《漢書·王莽傳》: “徵天下……史篇文字.”

《漢書·揚雄傳》: “史篇莫善于倉頡.”

《揚子·法言》: “或欲學倉頡史篇.”

이와 같은 引用文에서 말하는 史篇이 곧 《史籀篇》이라는 證據는 없다. 하지만 徐鍇의 註釋처럼 《史篇》이 《倉頡篇》일 可能性은 크다. 萬若 이 세 글자가 《倉頡篇》이라면 곧 李斯의 小篆이다.

이 세 글자가 《史籀篇》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𪛗”, “缶”와 “姚”는 곧 大篆인 것이다. 하지만 이 세 글자가 大篆이 確實한지는

27)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50.

確定할 수 없다.

아울러 《說文》의 體制는 篆文, 古文, 籀文으로 構築되었기 때문에 籀文이라는 名稱 외에 또 “史篇”이라는 名稱을 使用하였다는 것은 許慎의 一貫된 敍述方法이 아니기 때문에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 1·4 小篆

《說文》의 書體가 “小篆”이라는 것이 學界의 共通的인 認識이다. 筆者는 이런 既存의 認識과 다른 見解를 가지고 있다. 卽 小篆이란 어디까지나 秦나라 때의 李斯의 書體일 뿐이지 後漢 許慎의 書體가 아니라는 見解이다.

<敍>에 따르면 小篆이란 곧 秦나라때의 統一文字로 秦篆 혹은 篆書라고도 부르는데 李斯 등이 《史籀篇》에 根據하여 지은 《倉頡篇》의 文字이다.

《說文》의 正文은 모두 9353개, 重文은 모두 1165개라는 것은 周知하는 바이지만 小篆의 數字가 도대체 얼마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所謂 秦篆(小篆)으로 쓰인 倉頡三篇은 모두 20章(《倉頡》 7章, 《爰歷》 6章, 《博學》 7章)으로 되었다. 《藝文志》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漢興, 閭里書師合倉頡, 爰歷, 博學三篇, 斷六十字以爲一章, 凡五十五章, 并爲倉頡篇.<sup>28)</sup>

한나라가 세워진 이래 閭里 書師들이 《倉頡》, 《爰歷》, 《博學》 三篇을 合하여 60자를 한 章으로 총 55章으로 된 《倉頡篇》을 지었다.

《倉頡篇》의 具體的인 글자 數에 對하여 陳夢家는 말하기를:

考漢初倉頡篇三篇五十五章, 章六十字, 共三千三百字.

漢나라 초기의 倉頡三篇을 살펴본 결과 55장으로 되었으며 매 장에 60자로 되었으니 모두 3300자이다.

28)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57

라고 하였으며, 宋易麟이 말하기를:

漢《倉頡篇》共五十五章三千三百字.<sup>29)</sup>

漢나라의 《倉頡篇》은 모두 55장 3300자이다.

라고 하였다. 《倉頡篇》은 《史籀篇》에서 비롯되었으니, 《史籀篇》의 글자 數도 대략 3300자 內外라는 것을 推定할 수 있다.

《藝文志》에 따르면 또 아래와 같은 記錄이 있다:

揚雄《訓纂篇》, 順續倉頡, 又易倉頡中重複之字, 凡八十九章. 臣(班固)復續揚雄作十三章, 凡一百二章, 無復字, 六藝群書所載略備矣.<sup>30)</sup>

揚雄이 《訓纂篇》을 지었는데, 그것은 《倉頡篇》에 이은 것으로서 重複된 글자들을 간추리고 총 89장을 만들었다. 班固가 《訓纂篇》에 이어서 13장을 添加하여 총 102장을 만들었는데 重複된 글자가 없고 六藝와 群書에 실린 內容들을 두루 갖추게 되었다.

《倉頡三篇》이 55장으로 되었고 매 章에 60字로 구성이 되어서 總 3300字일 때 《訓纂篇》은 89장, 매 章 60字로 총 5340자이며; 班固가 거기에 이어서 102장을 만들었으니 매 章에 60字씩 總 6120字라는 것을 推算할 수 있다.

班固의 이후 許慎이 14篇으로 된 《說文》을 지었으니 글자 數는 總 9353字에 達한다.

《倉頡篇》과 《史籀篇》의 글자 數가 3300餘 字라는 것을 隸書가 만들어 질 때의 數字를 통하여서도 確認 할 수 있다.

《說文·敍》에서 隸書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言及하였다:

秦始皇帝使下杜人程邈所作也.<sup>31)</sup>

진시황제가 下杜人<sup>32)</sup> 程邈을 시켜서 만든 것이다.

29)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59:

宋易麟: 《說文解字今注》, 江西教育出版社, 2004, p5.

30)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59

31) 《說文·敍》:

32) 下杜: 下邳라고도 한다. 漢代, 三國시대의 지명이다.

唐나라의 張懷瓘은 그의 著書 《書斷》에서 다음과 같이 程邈의 隸書에 對하여 말하였다:

傳邈善大篆，初爲縣之獄吏，得罪始皇，系雲陽獄中，覃思十年，損益大小篆方圓筆法，成隸書三千字，始皇稱善，釋其罪而用爲禦史，以其便於官獄隸人佐書，故名曰“隸”。<sup>33)</sup>

전하는데 의하면 程邈은 大篆에 능하였다. 縣의 獄吏였던 그는 秦始皇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雲陽의 한 옥에 갇히게 되었다. 십 년 간의 옥살이를 하면서 大篆과 小篆의 둥글고 모난 筆法을 고쳐서 3000여 자에 달하는 隸書를 만들었는데 秦始皇帝가 기뻐하여 그의 죄를 면해주고 禦史로 임명하였다. 이 書體가 官府 감옥의 하졸들이 문서를 작성하는데 편리하므로 隸書라고 이름을 지었다.

字體는 어느 한 사람에게 依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許慎이나 張懷瓘이 말하는 “程邈이 隸書를 만들었다”는 것은 程邈이 그 當時 이미 流行되던 大篆이나 小篆의 簡便 書法을 整理 整頓하여 標準化 하였다는 뜻이다. 마치 李斯 등이 《史籀篇》의 大篆을 省改하여 小篆으로 만든 것과 같은 道理다.

여기서 重要的 것은 程邈이 만들었다는 隸書가 “3000字에 達한다.”는 대목이다. 程邈은 大篆과 小篆의 書法에 能하였다고 傳해진다. 卽 程邈은 《史籀篇》과 《倉頡篇》에 對하여 아주 깊은 造詣가 있었다는 뜻이다.

《史籀篇》과 《倉頡篇》의 글자 數가 위에서 分析한 것처럼 3300자라고 할 때 程邈이 만든 隸書의 數字가 3000餘 字라는 것은 결코 偶然한 一致가 아니며 가히 믿을만한 數字이다. 왜냐하면 程邈은 분명히 大篆과 小篆에 根據하여 隸書를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結果的으로 分명한 것은 小篆의 數量은 3300餘 字에 不過하다는 것이다. 勿論 許慎이 分明明히 이 重要的 文字를 《說文》에 收錄하였을 것이라고 믿어 疑心치 않는다.

現在 우리는 《說文》의 篆文 屬에서 3千餘 字에 達하는 小篆을 가려낸다는 것은 不可能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李斯의 小篆”이 許慎의 손을 거쳐 《說文》에 收錄될 때 이미 許慎의 篆文으로 變化되었기 때문이다.

33) 唐代, 張懷瓘, 《書斷》, 台北:華正書局, 1988.

〈敍〉에 따르면 《倉頡篇》의 小篆은 모두 大篆으로 된 《史籀篇》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위에서 살펴본 數字적 統計로도 一致가 되며 가히 믿을 만한 理論이다. 하지만 《說文》이 《倉頡篇》에서 비롯되었다는 記錄이 전혀 없고, 許慎도 《說文》의 本文에서 “小篆”이라는 말을 전혀 言及하지 않고 있으며 “篆文”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使用하고 있다. 萬餘字에 達하는 《說文》의 篆文은 小篆의 數字보다 훨씬 더 많으므로 數字적으로도 不一致한다.

李斯<sup>34)</sup>의 《倉頡篇》이란 字書가 지어진 때부터 許慎<sup>35)</sup>의 《說文》에 이르기까지 삼백년이란 긴 歲月이 흘렀다. 때문에 小篆 本來의 모습 그대로 《說文》에 收錄된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書體的인 特徵도 많은 變化를 가져오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分明한 事實이다.

《說文》의 本文에서 “小篆”이 한번 나오는데, 鬲部·鬻의 重文을 指稱하고 있다:

 (鬻), 五味盃羹也. 從鬲從羔. 《詩》曰: “亦有和鬻.” , 鬻或省. , 或從美, 鬻省. , 羹.  
 小篆從羔從美.

重文 속의 或體, 小篆, 篆文 등은 모두 同一한 書體로 나타나고 있으며 古文과 籀文과 다른 風格이다. 《說文》의 本文에서 단 한번의 “小篆”이 나오는 것은 後世 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이라는 疑心을 한번 해 볼 必要가 있다. 하지만 唐蘭이 大篆과 籀文이 서로 다르다고 判斷하는 것처럼 小篆과 篆文 역시 서로 다른 것이라는 筆者의 判斷이다.

34) 李斯: 대략 BC280-208년.

35) 許慎: 대략 57-147년.

## 1·5 古文

<敍>에 古文이란 單語가 모두 10次例에 걸쳐 나오는데, 그 中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부터 古文이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한다.

1) 郡國亦往往於山川得鼎彝, 其銘即前代之古文, 皆自相似.

郡國에서도 왕왕 산과 들에서 금속으로 된 술이나 술병을 발굴하게 되었는데, 그 위에 새겨진 글자가 前代の 古文과 모두 흡사하였다.

2) 孔子書六經, 左丘明述春秋傳, 皆以古文.

孔子가 六經을 짓고 左丘明이 春秋傳을 지었는데 모두 古文을 使用하였다.

3) 是有六書, 一曰古文, 孔子壁中書也.<sup>36)</sup>

六書 중의 하나인 古文은 孔子壁中書이다.

여기서 우리는 “許愼이 말하는 古文이란 바로 漢대에 발굴한 각종 金文을 비롯하여 古代的 經典에 쓰인 書體를 가리킨 듯하다.”<sup>37)</sup>는 것을 알 수 있다.

壁中書라고 하는 것은 秦나라 때 焚書를 避하여 숨겨둔 여러 經書를 말한다.

陳夢家是 古文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定意를 내리고 있다.

我以為古文之名也許起于秦世. 秦世以小篆爲今文, 六國文字爲古文.<sup>38)</sup>

내가 보기에는 古文이란 명칭은 아마도 秦나라 때 만들어 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秦나라 때는 小篆을 今文, 六國文字를 古文이라고 하였다.

春秋戰國時代 諸子百家의 詩書와 百家語의 文字 체제는 古文으로 쓰인 것으로 小篆과 符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古制를 提唱하는 內容으로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古文은 詩書와 百家語에 쓰인 古文字를 意味하는 한편, 古制를 提唱하는 書籍이라는 뜻 있다.

36) <敍>

37)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0, p77.

38)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170:

古文이 今文과 다른 點은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字形이 서로 다르다.

《藝文志》에 이르기를: “古文字讀皆異”라고 하였다. 卽 古文的 字形과 讀音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古文的 字形과 讀音이 서로 다른 것은 傳寫 過程과 歷史 發展에 依하여 文字가 變化 發展되었다는 것을 說明하며, 아울러 地域的 方言에 依하여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려준다.

둘째, 字義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說文》에서 “疋”자를 解釋하기를: “古文以爲詩大疋字.”라고 하였다. 卽 古文에서 “疋”은 《詩大雅》의 “雅”자로 쓰인다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說文》에서 “哥”자를 解釋하기를: “古文以爲謠也.”라고 하였다. 卽 古文에서 “哥”는 歌詠이라고 할 때의 “謠”자의 뜻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셋째, 音讀이 서로 다르다.

《藝文志》에서 말하는 “古文字는 모두 다르게 읽는다.”, 《史記·儒林傳》에서 말하는 “孔씨에게는 古文 尙書가 있는데 安國은 今文으로 읽었다.”라는 대목에서 古文과 今文의 讀音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說明하고 있다.<sup>39)</sup>

古文이 도대체 어느 시대의 文字인가에 對하여 여러 가지 說들이 있다.

吳大澂(1835-1903)은 말하기를:

竊謂許氏以壁中書爲古文, 疑皆周末七國時作, 言語異聲, 文字異形, 非復孔子六經之舊簡, 雖存篆籀之跡, 實多訛僞之形.<sup>40)</sup>

내 생각에는 許慎이 壁中書를 古文이라고 한 것은, 周나라 말 7국 때에 지어진 책으로서 언어가 서로 다르고 글자의 형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된다. 비록 篆籀의 흔적이 보이기는 하지만, 孔子가 지은 六經 舊簡의 글자 그대로 復舊한 것이 아니라 瓦전 되어 본래의 模樣을 잃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위에서 이미 言及하였듯이 王國維는 籀文은 秦의 文字로서 周와 秦의 地域인

39)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pp171-173.

40) 吳大澂: 《說文古籀補敍》, 中華書局, 1975.

西土에서 사용되던 文字이며, 壁中書로서의 古文은 같은 時代 東土에서 사용되던 文字라는 假設을 提起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王國維 個人的 主張이며 贊反의 論難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敍>에 이르기를: “史籀大篆 15편은 혹 古文과 다르다.”<sup>41)</sup>라고 하였다. 小徐本 《說文》, 魏書 《江式傳》, 郭忠恕 《汗簡》, 元 李文仲 《字鑑》 等에서는 許慎의 “或異”라는 말을 “與古文或同或異”라고 풀이하었다. 卽 古文과 籀文이 同一한 것도 있고 相異한 것도 있다는 것이다.

段玉裁는 《說文·注》에서 古文과 籀文의 관계, 籀文과 小篆의 關係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省者, 減其繁重; 改者, 改其怪奇……云取史籀大篆, 或頗省改者, 言史籀大篆則古文在其中. 大篆既或改古文, 小篆復或改古文大篆. 或之云者, 不盡省改也, 不改者多, 則許所列小篆, 固皆古文大篆. 其不云古文作某, 籀文作某者, 古籀同小篆也; 其既出小篆, 又云文作某, 籀文作某者, 則所謂或頗省改者也. <sup>42)</sup>

“省”이라고 하는 것은 번잡한 字形을 보다 단순한 字形으로 줄였다는 뜻이고; “改”라고 하는 것은 기괴한 字形을 알기 쉬운 字形으로 고쳤다는 뜻이다. “史籀大篆”에서 취하였고 매우 줄이고 고쳤다고 하는 것은 “史籀大篆”중에는 古文도 포함되어 있는 뜻이다. 大篆은 이미 古文을 고친 것인데, 小篆은 다시 古文이나 大篆을 或 고친 것이다. “或”이라고 하는 것은 小篆 전부가 省改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치지 않은 것도 많은데, 곧 許慎이 列舉한 小篆은 모두 古文과 大篆인 것이다. 許慎이 “古文作某”, “籀文作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古文과 籀文이 小篆과 같기 때문이다. 許慎이 小篆이라고 말하고 또 “古文作某”, “籀文作某”라고 말하고 있을 때는 소위 “或頗省改”한 것이다.

段玉裁의는 大篆이 古文에서 비롯되었으며 小篆은 또 古文이나 大篆에서 비롯되었다고 認識하고 있다. 卽 段玉裁는 古文의 시대를 籀文 이전 혹은 大篆과 同一한 時代로 보고 있다. 아울러 古文과 籀文이 完全히 서로 다른 書體라는 王國維를 비롯한 여러 學者들의 既存 認識과 다른 主張이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王國維는 《說文》의 古文은 春秋戰國時代에 東方의 六國에서 流行되던 문자라고 하였다. 商承祚가 말하기를:

41) <敍>: “史籀大篆十五篇, 與古文或異.”

42) 段玉裁: 《說文解字注》, <敍>, 上海古籍出版社, 1981.

古文者, 壁中書也. 許氏所據, 尙得其眞, 婁經傳抄, 遂多失型.<sup>43)</sup>

고문이란 벽중서이다. 허씨가 보유하고 있던 것이 아직 진면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여러 번 베껴 쓰면서 전해 내려오는 과정에서 점차 원래의 면모를 잃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曾憲通은 말하기를:

《說文》古文與石經古文乃同一系統文字, 是導源於商周而通行於戰國的文字.<sup>44)</sup>

《說文》의 고문과 石經의 古文은 한 계통 文字로서 商, 周의 맥을 이어 戰國時代에 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通行된 文字이다.

라고 하였다. 王國維는 古文의 使用 時代와 地域을 六國에 局限시킨 反面에 曾憲通은 古文이란 商, 周나라에서부터 발전하여 내려온 文字이며 戰國時代에 通行된 文字라고 範圍를 크게 넓혔다. 筆者는 曾憲通의 말에 完全히 支持하는 立場이다. 現在 우리가 《說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古文과 籀文은 完全한 하나의 體系를 갖춘 同一한 書體이다. 이는 偶然의 一致가 아니라 古文과 籀文 모두가 商, 周 時期로부터 戰國時代까지 通行된 文字로서 許慎이라는 特定된 作家에 의하여 《說文》에 收錄되었기 때문에 서로 不可分의 關係를 形成하고 있다.

43) 商承祚: 《說文中古文考》, 上海古籍出版社, 1983, pp1-2.

44) 曾憲通: 《三體石經古文與說文古文合證》, 中山大學出版社, 2005.

王 平: 《說文重文系統研究》,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08, pp38-39, 再引用.

## 2. 《說文解字》의 篆文

### 2-1 古文과 籀文

<敍>에서 許慎은 “周宣王太史籀著大篆”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大篆이라는 名稱이 나오고 있지만 籀文이라는 名稱은 없다. 籀文이라는 名稱은 許慎이 《說文》의 本文을 說明하기 위하여 새로 導入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說文》 <艸部·蒜> 아래 53個의 文字가 “從艸”일 때 “大篆”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具體的인 大篆의 字形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段玉裁가 비록 “從艸”의 字形을 만들어 넣었지만 “楷書體”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書體와 字體의 概念을 무시한 것으로서 信憑性이 없는 것이며, 또 古文字 資料가 不足한 狀況에서 任意로 만들어 넣은 것이기에 科學的 根據가 없다.

唐蘭은 《史籀篇》은 大篆으로 쓰인 책이고, 《倉頡篇》은 小篆으로 쓰인 책이며 大篆과 籀文은 서로 다른 書體라고 하였는데 筆者는 이 말에 전적으로 同意하는 立場이다. 아울러 曾憲通이 王國維의 主張과 달리 古文이란 商, 周 時代의 文字로서 春秋戰國時代에까지 전해져 내려오면서 通行된 文字라고 한데에 대하여서도 完全히 同意하는 立場이다. 唐蘭과 曾憲通의 말을 綜合하여 보면 古文과 籀文 모두 商, 周 時期의 文字로서 許慎에 의하여 《說文》에 收錄되게 되었으며 同一한 風格을 띠게 되었다.

《說文》에서 奘, 匍, 姚 세 개의 글자는 《史篇》을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지만 이 《史篇》이 곧 周 宣王 때의 《史籀篇》과 同一한 字書인지는 確實하지 않으며 또 證明할 方法이 없다. 만약 《史篇》과 《史籀篇》이 同一한 한 책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史篇》의 글자는 곧 大篆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 《說文》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이 세 글자는 모두 篆文의 形體이므로 大篆인지는 確實하지 않다.

許慎이 籀文, 大篆, 史篇 등과 같이 名稱을 통일하지 않고 一貫性이 없는 著述을 할 可能性도 매우 稀薄하다. 때문에 史篇을 引用한 이 세 글자는 籀文이 아니며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文字일 可能性이 크다.

大篆과 史篇을 제외하면 古文과 籀文이 남는다.

筆者의 統計에 따르면 籀文이라고 明示한 글자는 198개인데 現在 오직 《說文》에서만 保留하고 있다. 아울러 《說文》에서는 그 出處를 하나도 밝히지 않고 있다. 唐蘭이 認識하는 것처럼 《史籀篇》이 大篆으로 쓰인 것이고, 또 大篆과 籀文이 서로 다르다면 籀文의 實體는 무엇인가?

唐蘭, 曾憲通 등 學者들은 古文과 籀文을 商, 周 時代의 文字로 보고 있다. 段玉裁는 《說文·注》에서 “大篆既或改古文, 小篆復或改古文大篆.”라고 하였는데, 뜻인 즉 大篆은 古文에서 비롯되었으며 小篆은 다시 古文과 大篆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段玉裁의 말이 事實이라면 古文의 시대는 大篆보다 앞선 時代이다. 周 宣王 때 사용된 文字가 大篆이고 그 뒤의 戰國時代에 사용된 文字가 古文이라고 한다면 段玉裁의 理論은 成立 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古文은 大篆(籀文)보다 더 일찍 사용된 文字거나 적어도 同時代 文字일 可能性이 크다.

<敍>에서 古文의 出處에 대해 言及할 때 “漢대에 發掘한 各種 金文을 包含”한다는 內容이 있었다. 啓功의 《書法大字海》, 劉正成의 《中國書法全集》<sup>45)</sup> 等 字書들에서는 “金文大篆”이라는 말로 金文의 書體는 곧 大篆이라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때문에 <敍>에서 言及하는 古文이 金文을 包含하고 있다는 것은 곧 大篆을 包含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說文》 古文의 概念을 整理하여 보면 古文이란 大篆과 經書의 書體를 모두 包含하고 있다. 金文의 種類는 相當히 많으며 風格도 一致하지 않다. 卽 大篆의 風格은 매우 多樣하다고 할 수 있으며 어느 것이 大篆을 代表하는 것이라고 確定 지을 수 없다.

45) 啓 功: 《書法大字海》, 中國海南出版社, 1978.

劉正成: 《中國書法全集》, 中國榮寶齋出版社, 2003.



西周 早期金文(署王)<sup>46)</sup>

石鼓文 拓本1

위의 그림은 西周의 金文과 石鼓文<sup>46)</sup>이다. 金文은 크기가 一定하지 않고 字形이 不規則인 反面에 石鼓文은 漸次 篆文의 字形을 갖춰가고 있는 것이 눈으로도 確認 할 수 있지만 서로 完全히 다른 風格을 띠고 있다.

石鼓文에 대한 《辭海》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中國現存最早的刻石文字。在十塊鼓形的石上，每塊各刻四言詩一首內容歌咏秦國君游獵情況，因也稱獵碣 所刻書體，爲秦始皇統一文字前的大篆，即籀文。<sup>47)</sup>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돌에 새겨진 문자이다. 열 개의 둥근 북 모양의 돌 위에 각각 4언 시 한 수를 새겼는데, 내용은 진나라 왕이 유렵하는 정황을 노래한 것이며, 그로 인해 獵碣라고도 불린다. 석고문의 서체는 진시황이 문자를 통일하기 전의 大篆으로서 곧 籀文이다.

위의 그림에서 보는 西周 早期金文은 아기자기 하면서도 틀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自由奔放한 風格이라면, 石鼓文은 精製된 모습 속에서도 大凡하고 豪放한 風格을 띠고 있다.

書風이 다른 것은 時代가 다르고 書寫方法이 다르며 書法家가 다르기 때문이다.

大篆(籀文)의 範圍가 相當히 크고 여러 가지 不同한 風格이 있는 反面에 古文經

46) 李敦柱: 《漢字學總論》, 博英社, 2000, p79.

47) 夏征農: 《辭海》, 上海辭書出版社, 1980, p1633.

書에 쓰인 書體는 比較적 統一된 書法的 特徵을 갖추고 있어서 “蝌蚪文”<sup>48)</sup>이라는 別名이 있다. 卽 古文經書에 쓰인 古文은 올챙이처럼 획의 중간이 굵고 꼬리로 가면서 漸漸 가늘어 지는 特徵이 있다.

예를 들면:

戎		戰		戲		或(域)	
							
							
							

《傳抄古文字編》 p1265

現在 가장 많은 古文을 收錄하고 있는 字書는 《傳抄古文字編》<sup>49)</sup>이라고 할 수 있다. 李零, 劉新光的 《古文四聲韻》, 孫海波의 《魏三體石經集錄》; 高延龍의 《尚書文字合編》, 郭忠恕의 《汗簡》; 施安昌의 《唐代石刻篆文》 등 數十篇 字書의 傳抄古文이 《傳抄古文字編》에 收錄되어 있다.

《傳抄古文字編》을 통하여 古文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蝌蚪文”의 特徵을 어느 程度 把握할 수 있는데 字形이 不規則的이며 一定한 틀이 없이 自由롭다는 것이 特徵的이다.

現在 우리가 《說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古文과 籀文은 모두 同一한 風格이다. 그 原因 중의 하나는 許慎이 大篆을 《說文》에 收錄할 때 모두 古文의 風格으로 썼으며 籀文이라고 命名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可能性이 있을 수 있다:

첫째, 古文의 時代는 段玉裁의 말처럼 大篆보다 앞선 時代일 可能性이 크다. 혹은 唐蘭의 말처럼 古文과 大篆은 모두 商, 周 時代 때부터 使用된 文字로서 大篆은 官書이고 古文은 民書이기 때문이다.

48) 趙立偉: 《魏三體石經古文輯證》,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p219.

49) 徐在國: 《傳抄古文字編》, 線裝書局, 2006.

둘째, 金文大篆의 風格은 매우 一定하지 않기 때문에 許慎은 大篆을 廣範圍하게 收錄하여 《說文》에 실을 때 모두 古文의 風格으로 썼다.

셋째, 古文學者로서의 許慎은 많은 經典을 접했으며, 이미 “蝌蚪體”의 特徵을 갖춘 古文의 書體에 熟練되었기 때문에 籀文도 古文의 風格을 띠게 쓰게 되었던 것이다.

넷째, 許慎의 時代에는 寫眞, 複寫 등과 같은 現代的인 技術이 없었고 만 여 자에 달하는 수많은 古文字를 모두 손수 손으로 쓸 수밖에 없었는데, 許慎은 自身이 익숙한 書體로 쓰는 것이 最上의 方法이었을 것이다.

許慎은 大篆을 古文의 風格으로 썼을 뿐만 아니라, 大篆이라는 固有의 概念을 使用하지 않고 籀文이라는 새로운 概念을 導入하여 《說文》을 著述하고 있다.

	醬	堂	𧈧	臣	西	雷	煙
篆文	𩇛	堂	𧈧	𧈧	𠂔	雷	煙
古文	𩇛	堂	𧈧	𧈧	𠂔	雷	煙
籀文	𩇛	堂	𧈧	𧈧	𠂔	雷	煙

《說文》에서 篆·古·籀가 동시에 존재하는 文字의 예

圖表에서 보다시피 古文과 籀文은 完全히 같은 風格을 띠고 있으며 篆文과 確然이 區別된다.

篆文은 획의 굵기가 一定하고 양끝이 둥글다. 이것은 中鋒<sup>50)</sup>과 藏鋒<sup>51)</sup> 筆法을 爲主로 使用하였기 때문이다. 古文과 籀文은 中鋒과 露鋒<sup>52)</sup> 筆法을 使用하여 劃의 가운데가 굵고 양끝으로 나가면서 漸次 가늘어 지고 뾰족한 “蝌蚪文”의 風格을 띠고 있다. 이는 許慎이 正文과 重文을 明確히 區別하기 위하여 일부러 筆法의

50) 中鋒: “鋒”이란 붓끝을 뜻하는데 筆鋒이라고도 한다. 中鋒이란 붓으로 획을 그을 때 筆鋒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획의 가운데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  
 51) 藏鋒: 藏鋒이란 말 그대로 筆鋒을 감춘다는 뜻인데 起筆과 收筆할 때 붓끝이 겉에 드러나지 않게 획 속에 감춘다는 뜻이다. 藏鋒필법으로는 둥글거나 모난 획을 만들 수 있다.  
 52) 露鋒: 筆鋒이 획의 밖에 드러나게 하는 필법인데 필요에 따라 뾰족하게 예리한 획 끝을 만들 수 있다.

變化를 준 것이다.

許慎은 金文과 같은 大篆을 改良하여 古文의 風格으로 만들고 籀文이라고 命名하였다. 하지만 古文이라는 名稱은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說文》을 살펴보면 本文에서 “先古後籀”의 順敍대로 敍述하고 있다.

예를 들면:

火部 煙: 烟, 或作烟; 古文作𤇑, 籀文作𤇒.

蟲部 蚘: 蚘, 古文作𧈧, 籀文作𧈨.

申部 申: 申, 古文作𠄎, 籀文作𠄏.

等과 같은 글자들은 모두 古文과 籀文이 同時에 存在하는 글자인데 許慎은 古文을 앞에 두고 籀文을 뒤에 두고 있다. 이와 같은 “先古後籀”의 敍述方法은 《說文》의 一貫된 方法이며 古文과 籀文의 眞僞與否를 가리는 重要的 冢대로 使用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重文에 古文과 篆文이 同時에 存在하는 境遇에도 古文을 앞에 두고 篆文은 뒤에 두는 順敍로 敍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旱部 𤇑, 長味也. 从旱, 鹹省聲. 《詩》曰: “實覃實吁.” 徒含切. 𤇒, 古文覃. 𤇓, 篆文覃省.

鹿部: 麗, 旅行也. 鹿之性, 見食急則必旅行. 从鹿丽聲. 《禮》: 麗皮納聘. 蓋鹿皮也.

郎計切. 𠄎, 古文. 𠄏, 篆文麗字.

く部: 𠄎, 水小流也. 《周禮》: “匠人爲溝洫, 相廣五寸, 二相爲耦; 一耦之伐, 廣尺, 深尺, 謂之く.” 倍く謂之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く. 凡く之屬皆从く. 姑茲

切.  古文く从田从川.  篆文く从田犬聲. 六畝爲一畝.

古文을 篆文이나 籀文보다 優先視 하는 것은 段玉裁의 말처럼 古文이 大篆보다 앞선 文字이며, 唐蘭의 말처럼 古文과 大篆이 商, 周 時代의 文字일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욱 큰 原因은 《說文》에 收錄된 古文이 바로 “孔子壁中書” 爲主이기 때문이며 許慎이 바로 古文學者이기 때문이다. 古文學者로서의 許慎은 經書에서 비롯된 古文을 감히 다른 이름으로 命名않고 古文이라는 名稱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

## 2·2 篆文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小篆, 古文, 籀文은 모두 原來 모습 그대로 《說文》에 收錄된 것이 아니라 許慎의 손을 거쳐 省改되면서 書體의 變化를 가져오게 되며 새롭게 篆文이라는 書體로 태어났다.

書體變化의 原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時代에 따라 變化한다.

時代가 不同함에 따라 文字도 不同한 形體를 지니게 된다. 商代의 甲骨文은 西周 初期의 金文과 形體가 吸사하지만 秦代의 篆文과는 거리가 멀다.

例를 들면:

“爲”의 甲骨文은  (明藏145),  (後2·10·11),  (庫1687) 등이 있는데 모두 코끼리(象)를 牽引하는 模樣을 그린 “文”이다.

金文의 爲자는  (百鼎),  (益公鼎),  (弘鐘),  (周窓鼎) 등과 같은데 甲骨文과 多少 差異가 있자만 象形性은 그대로 保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秦漢의 篆文은 𤝵, 𤝶, 𤝷 等과 같이 原來의 象形性을 漸次 잃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爲의 初文을 보지 못한 許慎은

母猴也. 其爲禽好爪. 爪, 母猴象也. 下腹爲母猴形<sup>53)</sup>

어미원숭이다. 원숭이란 짐승은 손가락으로 잡기를 좋아하는데, 爪는 어미원숭이의 形象이며, 아랫배 부분도 어미원숭이의 形象이다.

라고 잘못 解釋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篆書는 甲骨文, 金文, 大篆, 小篆 等 初期文字의 總稱”이라는 定意로부터 우리는 甲骨文에서 小篆으로 變化되기 까지는 모두 篆書의 範圍 내에서의 變化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時代發展과 함께 變化 發展한 文字는 篆”文”에서 漸次 篆”書”로 變化하였다. 하지만 그 風格의 變化가 있는 것이지 形體가 完全히 다른 模樣으로 變身한 것은 아니다.

書寫的 尿素가 缺乏하고 칼이나 송곳으로 새기듯이 써야만 하는 “篆文”의 要素가 多分한 小篆이 完全히 書寫的인 隸書의 形體로 바뀔 때 비로소 字體의 變化를 가져오게 된다. 卽 篆文에서 篆書로, 다시 篆書에서 隸書로 바뀌게 되며, 그 以後 草書, 行書, 楷書 等과 같은 여러 가지 字體가 나오게 되는 法이다.

## 2) 地域에 따라 變化한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地域일수록 變化가 더욱 크게 된다. 例를 들어 戰國時代는 7개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說文·敍》에서 말한 것처럼 “言語異聲, 文字異形”이었다. 이는 각 地域이나 國家에서 人事의 날로 번거로워 짐에 따라 複雜하고 쓰기 힘든 文字를 簡略하여 書寫에 便利하게 할 때 一定한 約束이 없었기에 自然的으로 文字가 서로 다른 形態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秦이 나라를 統一하고 나서 不得不 文字를 統一하지 않으면 안 될 地境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實際로 現在 韓·中·日은 모두 漢字圈에 속하는 나라로, 使用하는 漢字는 같은

53) 《說文·爪部·爲》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도 많다. 中國은 漢字를 改革하면서 現在는 所謂 簡化字를 使用하지만 韓國과 日本에서는 繁體字 爲主로 使用하고 있다. 아울러 自己 나라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漢字도 相當數 使用하고 있다. 예를 들면 韓國에는 𪛗(뽕), 𪛘(돌), 𪛙(골)과 같은 한글 發音을 그대로 적은 音譯漢字가 있는가 하면, 日本에는 讀(讀), 兩(兩) 馭(驛) 등과 같은 日本漢字가 있다.

### 3) 書寫의 方法에 따라서 變化한다.

古代 文字書寫의 方法은 契法, 鑄法, 印法, 書法 等이었다. 칼이나 송곳 같은 道具를 利用하여 甲骨, 金石, 玉陶 等 위에 直接 글자를 새기는 것으로 第一 原始的인 方法이라 할 수 있다.

鑄法은 글자가 새겨진 母型을 만들어 그 위에 쇠 或은 구리를 녹인 물을 注入시켜 글자가 새겨진 靑銅器와 같은 그릇을 만드는 方法이다.

印法은 鑄法과 같이 먼저 母型을 만든 다음 圖章을 찍 듯이 陶瓷器를 만드는 硯硯위에 글자를 찍어내는 것이다.

書法은 곧 붓으로 竹片, 비단 혹은 종이위에 글자를 쓰는 것이다.

書寫의 方法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材料와 工具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書寫의 材料를 보면 甲骨, 金石, 玉陶, 竹木, 縑帛 等の 구별이 있다. 글자를 새길 때에는 칼이나 송곳과 같은 공구를 使用하지만 글자를 쓸 때에는 붓을 사용하는 等 區別이 있다. 卽 契法, 鑄法, 印法 이 세 가지 “書寫”방법은 “文”에 주로 쓰이고 書法은 주로 “書”에 쓰인다.

### 4) 書法家가 다름에 따라 變하는데 그 原因은 다음과 같다.

첫째, 書는 生命이 있는 사람과도 같다.

蘇軾은 《唐氏六人書後》에서 書法을 사람에게 比喻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眞如立, 行如行, 草如走. 書必有神, 氣, 骨, 肉, 血, 五者闕一, 不爲成書也.<sup>54)</sup>

楷書는 (사람이)서 있듯, 行書는 걷듯, 草書는 달리듯 써야 한다. 書는 만드시 神, 氣,

54) 蘇 軾: <唐氏六人書後>, 潘運浩: 《唐宋書論》, 中國·湖南美術出版社, 2001.

骨, 肉, 血 다섯 가지가 있어야 하며 어느 것 하나 모자라도 글가 이루어 지지 아니 한다.

라고 하였다. 蘇軾은 글씨란 사람과 같이 生命이 있는 것으로 作家의 基本功과 精神修養이 묻어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理論은 훗날 많은 書家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미쳤는바 漢字를 單純한 글씨쓰기로부터 書法藝術로 昇華하는데에 一定한 役割을 하였다.

清代의 劉熙載는 말하기를:

書, 如也. 如其學, 如其才, 如其志, 總之曰如其人而已.<sup>55)</sup>

“書, 如也”라고 한 것은 글씨가 그 사람의 학문, 재능, 포부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 같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蘇軾이 글씨를 사람의 形體構造와 連貫시켰다면 劉熙載는 글씨를 사람의 內面世界와 連貫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後世 사람들은 글씨를 한 사람의 藝術的 個性, 藝術的 風格, 藝術的 水準 등을 綜合的으로 評價할 수 있는 基準으로 삼고 있다.

둘째, 書는 作家의 意志를 反映한다.

글씨는 書家의 意志, 情緒, 追求 등을 잘 나타낸다. 그리하여 劉熙載는 또 말하기를:

寫字者, 寫志也.<sup>56)</sup>

글자를 쓴다는 것은 곧 뜻을 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좋은 書法作品은 사람들에게 作家의 思想과 情趣를 느낄 수 있게 하며 詩的인 感受를 받게 한다. 이것이 아마도 書法藝術이 數千年을 내려오면서 興盛할 수 있었던 重要한 要素 中の 하나라고 생각된다.

55) 劉熙載: <藝概>, 潘運浩: 《唐宋書論》, 中國·湖南美術出版社, 2001.

56) 劉熙載: <藝概>, 潘運浩: 《唐宋書論》, 中國·湖南美術出版社, 2001.

셋째, 쓰는 書家의 心境을 表現 한다.

쓰는 事物의 外的인 것을 表現 할 뿐만 아니라 書家의 心境을 表現하기도 한다.

歷代로 書聖이라고 불리는 王羲之의 《蘭亭敘》<sup>57)</sup>는 “天下第一行書”로 불리고 있다. 傳하는데 의하면 東晉 穆帝 永和九年 3月 3日에 王羲之, 謝安, 孫綽 등 41명의 文人들은 山陰(지금의 中國 浙江紹興)의 蘭亭에 모여서 “修禊”<sup>58)</sup>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은 저마다 詩를 지어 책으로 묶게 되었는데 王羲之는 그 자리에서 詩集의 敍文을 쓰게 되었다고 한다. 敍文에는 蘭亭 周圍의 아름다운 山水와 여러 親舊들이 모여 앉은 歡樂의 情, 그리고 人生은 짧고 즐거움은 오래 가지 못함을 아쉬워하여 感慨無量해 하는 作者의 感情을 그대로 表現하였다. 酒興이 滔滔하여 鼠毫 붓으로 양가죽 종이에 一筆揮之 하여 지은 이 敍文은 “中華十大名帖” 中の 最高로 손꼽히고 있다. 草稿이다보니 쓰다가 지우고 다신 쓴 痕迹도 있어 술이 깬 이튿날에 다시 쓰려고 아무리 애써도 原作보다 못하여 失敗로 돌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蘭亭序》는 그날 王羲之가 醉中에 自身의 心境을 잘 表現해 낸 草稿라고 한다. 때문에 쓰는 書家의 心境을 잘 드러내느바, 훌륭한 書法作品을 通하여 사람들은 作家의 喜怒哀樂을 어느 程度 느낄 수 있다.

넷째, 쓰는 書家의 人品을 신고 있다.

“書如其人”이라는 名言으로부터 사람들은 書品은 곧 人品이라는 品評 基準을 스스로 定하고 있다. 글씨를 통하여 그 사람의 爲人됨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君子와 小人을 가려 낼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誇張된 말이긴 하지만 우리 祖上들이 애초부터 글씨쓰기를 얼마나 重要視 하였는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上述한바와 같이 “書”는 書法家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으며 “書”는 곧 그 사람이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不同한 書法家에 依하여 不同한 風格의 書體가 誕

57) 王羲之: 《蘭亭敘》, 吉林文史出版社, 2007.

58) 修禊: 부정을 씻기 위해 목욕계하고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닦고 계율을 지키는 행사.

生하게 된다. 《史籀篇》의 大篆은 周 宣王 때의 太史의 風格을 띤 서체이고, 《倉頡篇》의 小篆은 秦나라 때의 李斯의 風格을 띤 書體이며, 《說文》의 篆文은 許慎의 風格을 띤 書體이다.

《說文》의 本文은 正文과 重文으로 나뉘고 있다. 范進軍은 《大徐本重文初探》에서 重文에 대하여 말하기를:

用今天的話說, 重文就是異體字. 因爲重文的音義與正文重複只是形體有別, 所以叫作重文.<sup>59)</sup>

지금의 말로 하면 重文이란 곧 異體字이다. 重文的 音과 義는 正文과 중복되지만 形體가 다르기 때문에 重文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다. 裘錫圭는 《文字學概要》에서 말하기를:

異體字就是彼此音義相同而外形不同的字.<sup>60)</sup>

異體字는 서로 音義가 같고 外形이 不同한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서로 音義가 같고 外形이 不同한 글자”란 뜻은 正文과 重文이 “서로”가 異體字라는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正文에는 篆文, 重文에는 正文의 異體字인 古文과 籀文을 두고 있다. 篆文의 異體字는 古文 혹은 籀文이며, 또한 古文 혹은 籀文의 異體字는 篆文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許慎은 說明의 必要性에 의하여 《說文》의 正文과 重文에 篆文, 古文, 籀文 등 書體를 두루 섞어서 쓰고 있다.

許慎은 正文과 重文을 區別하기 위하여 同一한 書體이지만 筆法에서 圓筆과 尖筆<sup>61)</sup>을 使用하여 形體는 같으나 筆劃의 模樣은 다르게 하고 있다.<sup>62)</sup>

古文과 籀文이 說明의 必要性에 依하여 正文에 놓일 境遇 許慎은 篆文과 同一

59) 范進軍: 《大徐本重文初探》, 河南大學出版社, 1991, p385.

60) 裘錫圭: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1988, p205.

61) 圓筆: 획의 양 끝이 둥근 模樣.

尖筆: 획의 양 끝이 뾰족한 模樣.

62) “《說文》에서 篆古籀가 동시에 존재하는 文字의 예” 참조.

한 筆法을 使用하여 完全히 篆文의 模樣으로 쓰고 있다.

古文이 正文으로 된 境遇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上部: 上, 高也. 此古文上, 指事也. 凡上之屬皆從上. 時掌切. 𠂔, 篆文上.
- (2) 上部: 下, 底也. 指事. 胡雅切. 下, 篆文下.
- (3) 艸部: 折, 斷也. 從斤斷艸. 譚長說. 食列切. 折, 籀文折從艸在彡中, 彡寒, 故折. 折, 篆文折從手.
- (4) 丰部: 隸, 習也. 從丰彡聲. 羊至切. 隸, 籀文隸, 隸, 篆文隸.
- (5) 臣部: 頤, 顛也. 象形. 凡臣之屬皆從臣. 與之切. 頤, 篆文臣. 頤, 籀文從首.

籀文이 正文으로 境遇의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 旱部: 覃, 長味也. 从旱, 鹹省聲. 《詩》曰: “實覃實吁.” 徒含切. 覃, 古文覃. 覃, 篆文覃省.
- (2) 鹿部: 麗, 旅行也. 鹿之性, 見食急則必旅行. 从鹿麗聲. 《禮》: 麗皮納聘. 蓋鹿皮也. 郎計切. 麗, 古文. 麗, 篆文麗字.
- (3) 𠂔部: 𠂔, 水小流也. 《周禮》: “匠人爲溝洫, 相廣五寸, 二相爲耦; 一耦之伐, 廣尺, 深尺, 謂之𠂔.” 倍𠂔謂之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𠂔. 凡𠂔之屬皆從𠂔. 姑茲切. 𠂔, 古文𠂔从田从川. 𠂔, 篆文𠂔从田犬聲. 六畎爲一畝.
- (4) 廌部: 𠂔, 刑也. 平之如水, 從水; 廌, 所以觸不直者; 去之, 從去. 方乏切. 𠂔, 今文省. 𠂔, 古文.

重文에 篆文만 있고 古文이나 籀文이 없어서 正文이 古文인지 籀文인지 確實하

지 않은 境遇도 있다.

이와 같은 境遇는 正文이 古文 혹은 籀文인지 不確實하지만 모두 篆文의 模樣으로 나타난다.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采部: 采 悉也. 知采諦也. 從采從采. 徐鍇曰: “采, 覆也. 采, 別也. 包覆而深別之. 采, 悉也.” 式荏切. 采 篆文采, 從采.

(2) 鳥部: 隹 籀也. 象形. 七雀切. 隹 篆文隹.

(3) 虍部: 虍 鐘鼓之柝也. 飾爲猛獸, 從虍, 異象其下足. 其呂切. 虍 篆文虍省.

(4) 市部: 市 鞮也. 上古衣蔽前而已, 市以象之. 天子朱市, 諸侯赤市, 大夫蔥衡. 從巾, 象連帶之形. 凡市之屬皆從市. 分勿切. 鞮 篆文市, 從韋, 從友.

(5) 泉部: 泉 三泉也. 闕. 凡泉之屬皆從泉. 詳遵切. 泉 篆文從泉.

(6) 飛部: 飛 翬也. 從飛異聲. 與職切. 翬 篆文從羽.

(7) 黽部: 黽 匱鼃也. 讀若朝. 楊雄說: 匱鼃, 蟲名. 杜林以爲朝旦, 非是. 從黽從旦. 直遙切. 黽 篆文從皂.

上述한 세 가지 例로부터 우리는 古文, 籀文이 正文속에 있을 때는 完全히 篆文의 同一한 書體的 特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篆文이 重文으로 될 境遇에는 原來 篆文의 書體的 特徵을 그대로 保有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아울러 《說文》의 모든 文字는 許慎에 依하여 統一된 書體-“篆文”이지만 正文과 重文으로 나뉠 때에는 筆法의 變化를 주어 書體的 特徵을 달리 하였고 名稱을 달리 하고 있을 뿐이다.

### Ⅲ. 《說文解字》 篆文 分析

#### 1. 正文

《說文》은 正文과 重文으로 나뉘는데, 위에서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正文 속에는 篆文, 古文, 籀文이 두루 섞여 있으며, “今敍篆文合以古籀”라는 敍述의 原則에 따라 正文을 一般的으로 “篆文”이라고 부른다.

篆文은 後漢時代의 許慎이 300餘年前 秦나라 時代 李斯의 小篆을 省改하여 만들어 낸 《說文》의 書體이다.

#### 1·1 李斯의 小篆

秦始皇은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이 서로 霸權을 다투던 戰國時代를 統一하고 나서 여러 重要的 政策들을 내 놓았는데 그 中에서 本稿과 連貫性이 있는 것은 바로 文字統一이다. 文字統一에 대해 阿辻哲次는 말하기를:

漢字 그 字體의 체계는 불변이므로 여기에서는 書體의 통일을 말한다.<sup>63)</sup>

라고 하였다. 則 字體가 變換한 것이 아니라 書體가 變換하였다는 것이다. 傳해지는 대로 大篆이 小篆으로 變化되었다고 하여도 “篆”이라는 字體는 變化가 없이 書風이 “大”에서 “小”로 變化하였을 뿐이다.

文字統一의 中心에는 李斯가 있었다. 現在 傳해지고 있는 秦나라 때의 石刻의 “小篆”은 모두 李斯의 筆體이다. 이를테면 泰山刻石, 峯山刻石, 瑯琊刻石… 등은

63) 阿辻哲次/심경호: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희문화사, 1996, p31.

모두 李斯가 직접 쓰고 刻石한 것이라고 傳해진다.

원래의 각석들은 2천년 이상 지난 오늘 날에는 일부만 겨우 잔존할 뿐이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拓本이나 淸의 王昶의 《金石萃編》 등의 金石文考釋書에 실려 있는 模寫本에 의거하여 그 文字를 살필 수가 있다. 그 석비에 새겨져 있는 書體가 전국적 기준이었던 小篆이다.

전통적인 설에 의하면 小篆은 李斯가 만들었다고 한다. 시황제의 유능한 고문이었던 그는 악명 높은 “焚書”를 제의한 인물로 後世에 酷評되었다.

하지만 文字學 혹은 書法史에서 李斯는 탁월한 업적 때문에 殊功 칭송되어 왔다. 그의 업적이란 小篆과 《倉頡篇》의 작성이다.<sup>64)</sup>

<敍>에 따르면 李斯가 《倉頡篇》을 짓고 趙高가 《爰歷篇》을 지었으며 胡毋敬이 《博學篇》을 지었다고 한다. 則 小篆이 李斯 한 사람에게 依하여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依하여 收集되고 整理되었던 것이다.

<敍>에 따르면 李斯 등의 李斯 등이 作成한 《倉頡》 등 3篇은 “大篆을 매우 줄이고 고쳐서 만든 것”인데 “小篆”, “秦篆” 혹은 “篆書”라고도 불린다.

小篆의 代表作으로는 泰山刻石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시황제는 전국으로 통하는 간선도로를 정비하고, 그 길을 따라 전국을 시찰하였다. 이것을 “巡獵”이라고 한다. 예부터 천자는 순렵하다는 명분으로 천하를 시찰하는 것을 관례화 하였는데, 시황제도 그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 在位 28년(기원전 218)에 동으로 가서 山東의 鄒嶧山에 다다른 그는, 그 지역의 유學者들에게 자문을 구하여 태산에 올라 封禪의 제사를 봉행하였다. 봉선이란 하늘로부터의 사명을 받아 지상을 주재하는 자에게만 허용된 제사이다. 제왕이 된 자로서 지상에 군림하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최고의 제사를 마친 시황제는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진나라의 위엄과 자기의 공덕을 찬송하는 문장을 새겼다. “태한각석”이라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사기》 진시황 本紀에 收錄되어 있다.<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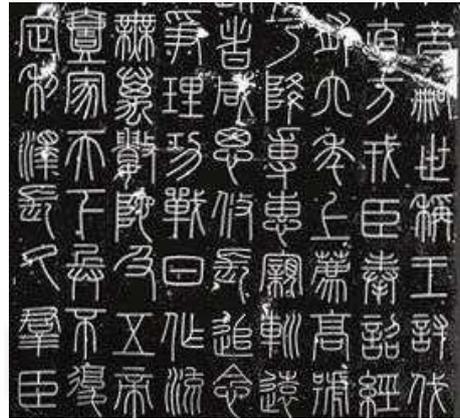
그 碑石의 글씨가 바로 아래 그림에서 提示한 李斯의 小篆이다.

64) 阿辻哲次/심경호: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회문화사, 1996, p33.

65) 阿辻哲次/심경호: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회문화사, 1996, pp31-32.



李斯 峰山刻石1



李斯 峰山刻石2

政治家, 文學家, 書法家로서의 李斯는 荀子の 弟子로 法家로 有名하다. 秦始皇을 도와 나라를 統一하는 데에 一助한 그는 훗날 秦나라의 丞相이 되어 秦나라의 각종 法을 制定하였다.

法家로서의 李斯의 透徹한 精神은 小篆이라는 書體에서도 잘 나타난다. 小篆은 豪放한 가운데 嚴格하고 강하면서도 柔軟한 面貌를 갖췄으며 秀麗하면서도 迫力 있는 形體를 兼備하고 있다. 李斯가 古文經書를 “焚書”하기까지 이른 데에는 그가 古文의 書體 “蝌蚪體”를 싫어한 原因도 分明히 作用했을 것이다. “蝌蚪體”는 李斯의 小篆에 比하면 自由스럽고 重厚한 멋이 없어 보인다.

淸나라의 王澐는 李斯의 小篆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評하고 있다.

小篆開自李斯, 省大篆之繁縟以趨簡易, 三代以來風氣至此一變. 蓋李斯筆法敦古, 於簡易中正有渾樸之氣. 66)

小篆은 李斯가 창시한 것인데 大篆의 번거로움을 簡易하게 한 것으로 三代이래 風氣가 小篆에 依하여 一變하게 되었다. 대체로 李斯의 筆法은 도담고 고졸하며(敦古), 簡易하면서도 꾸밈(渾樸)이 없는 기운이 있다.

《史記·始皇本紀》의 記載에 의하면 秦始皇은 執權 後 모두 다섯 次例 地方을 巡察하면서 泰山, 嶧山, 琅琊, 芝罘, 碣石, 會稽 等 여섯 곳에 일곱 個의 刻石을 남겼는데 모두 李斯가 쓴 것이라고 傳해진다.

66) 淸 王澐: 《虛舟題跋》, 上海書店出版社, 1994.

하지만 다 毀損되고 泰山刻石만이 唯一하게 전해 내려오는 眞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李斯의 泰山刻石은 中國 石刻 制度가 어떻게 變化되어 왔는가를 研究하는 重要한 資料가 되기도 한다.

小篆은 漢字가 네모반듯한 方形文字로 定着을 하는 基礎的이면서도 肯定的인 作用을 하였다. 甲骨文, 金文과 같은 先秦時期의 文字들은 統一된 規格이 없이 들쭉날쭉하였고 異體字가 亂舞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大篆이라 불리는 書體의 “大”의 特徵이다.

小篆(文字 통일) 이후의 隸書, 行書, 楷書 等 字體는 물론 草書까지도 모두 小篆의 形體 特徵을 따르고 있다.(아래그림 參照)

그 중 隸書는 글자의 높이가 낮고 넓이가 넓은 特徵을 지니고 있고 草書는 틀에 매우지 아니하고 比較的 活潑한 章法을 構思하고 있지만 모두 네모반듯한 方形文字의 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있다.

小篆							
隸書	皇	帝	立	國	維	初	在
楷書	皇	帝	立	國	維	初	在
行書	皇	帝	立	國	維	初	在
草書	皇	帝	立	國	維	初	在

五大字體比較

小篆의 風格을 分析하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特徵을 찾을 수 있다.

- 1) 結構는 大體로 方正하고 整齊하며 對稱的인 構造를 形成하는 것이 特徵이다.
- 2) 筆劃은 纖細하고 飽滿하면서도 굵기가 均一한 것이 特徵이다.
- 3) 筆法은 주로 中鋒과 藏鋒을 使用하여 劃의 兩끝이 둥글게 한 것이 特徵이다.
- 4) 章法은 글자의 크기가 一定하며 長方形 안에 對稱的이면서 均一하게 글자를 按配하는 것이 特徵이다.

## 1·2 許慎의 篆文

<敍>에는 許慎이 《說文》을 著述하게 된 動機와 文字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생각하건대 文字란 學問(經藝)의 근본이며, 군왕에 의한 통치의 기초이다. 또한 앞 시대 사람들이 後世에 모범을 드리우는 도구이자, 동시에 後世 사람들이 앞 시대를 배우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論語》 <學而>편에서는 “근본이 정해짐으로써 비로소 도가 생겨난다.”고 하였고, 《易》 <繫辭傳>에서는 “천하의 진실로 심오한 것을 이해하면서, 더욱이 혼란시키는 일이 없다.”고 말하였다

경서는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범을 서술한 책인데, 그것도 궁극적으로는 文字에 의하여 구축된 것이다. 그러므로 경서의 올바른 解釋을 얻기 위해서는 文字 한 글자 한 글자의 올바른 解釋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說文》을 만든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다.<sup>67)</sup>

許慎은 小篆의 基礎위에서 古文과 大篆을 廣範圍하게 收集 整理하고 省改하여 《說文》에 收錄하게 되었으며 마침내 篆文이라는 書體가 誕生하게 되었다.

### 1·2·1 小篆을 省改한 篆文

앞에서 이미 論議하였다시피 小篆은 李斯의 書體이다.

李斯는 不規則的이던 大篆을 省改하여 거의 完熟에 가까운 小篆이라는 書體로 만들었다.

許慎은 다시 李斯의 小篆을 省改하여 《說文》에 收錄하면서 小篆의 不足點을 補完하고 自身の 審美的 觀點을 附與하여 보다 成熟된 書體的 風格을 띤 篆文이라는 書體를 만들었다. 때문에 許慎의 篆文과 李斯의 小篆은 大同小異한 風格을

67) 阿辻哲次/심경호: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이희문화사, 1996, p93.

떠고 있다.

李斯 《峯山刻石》							
許慎 《說文》	皇	帝	太	國	維	心	士

李斯의 小篆과 許慎의 篆文 비교

許慎의 篆文은 李斯의 小篆과 書體의 特徵이 비슷하지만 結構와 筆劃의 長短에서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는 許慎의 審美觀과 文字觀이 이미 篆文속에 녹아들었기 때문이며 또 그 時代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이다.

許慎의 文字觀은 《說文·敘》의 六書에 對한 技術에서 알 수 있다. 六書의 理論이 어느 때 생겨난 것인지 現在 正確한 起源을 알 수 없지만 現存하는 文獻에 依하여 漢代에 이미 六書의 理論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象形、象事、象意、象聲、轉注、假借 (班固《漢書·藝文志》)
- (2)象形、會意、轉注、處事、假借、潛聲 (鄭以注《周禮·地官》)
- (3)指事、象形、形聲、會意、轉注、假借 (許慎《說文·敘》)

象形、指事、會意、形聲是造字之法。<sup>68)</sup>

상형, 지사, 회의, 형성은 글자를 만드는 방법이다.

一般的으로 漢字는 象形文字로서 六書에서 “象形”을 맨 앞에 놓는 것이 常識的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許慎은 “指事”를 班固나 鄭以注의 順敘와 달리 指事를 맨 앞에 놓고 있다.

指事는 象形字에 人爲的으로 點劃을 더하여 만든 글자이다. 古文學者로서 人本主義 思想이 濃厚하였던 許慎지 指事를 六書의 첫머리에 놓은 것은 어찌 보면 當

68) 唐 蘭: 《中國文字學》, 上海古籍出版社, 1983.  
 顧 實: 《中國文字學》, 東南大學叢書, 1924.  
 高 明: 《中國古文字通論》, 北京大學出版社, 1987.  
 陳夢家: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2006.

然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人本主義 思想과 文字觀으로 許愼은 李斯의 小篆을 省改하여 自身の 書體인 篆文으로 만들었다.

위에서 提示한 “李斯의 小篆과 許愼의 篆文 비교” 圖表를 爲主로 小篆과 篆文을 比較分析하면 다음과 같다.

1) 劃 間의 間隔을 均等하게 處理하였다.

(1) 皇과 皇:

李斯의 小篆 皇자의 皇은 두 번째 가로획은 윗부분에 치우쳐 있지만 許愼의 篆文은 王과 같이 세 개의 가로획 間隔을 均等하게 處理하였다.

(2) 社와 社:

李斯의 小篆 社자의 左側 두 가로획은 아주 가까운데 許愼의 篆文은 反對로 社처럼 두 劃 사이의 거리를 띄워 平衡을 잡았다.

2) 筆劃의 길이를 다르게 만들었다.

(1) 𠄎과 𠄎:

李斯의 小篆 𠄎은 위의 劃이 길고 둥근데 許愼의 篆文은 反對로 𠄎처럼 짧고 곧게 만들었다.

(2) 社와 社:

李斯의 小篆 社는 左側의 아래 劃이 짧은데 許愼의 篆文은 反對로 社처럼 두 가로획의 길이가 같게 만들었다.

3) 뜻에 근거하여 글자를 고쳤다.

(1) 皇과 皇:

李斯의 小篆은 白을 따르는 字形이지만 許愼의 篆文은 自를 따르는 字形으로 만들었다. 皇의 金文은 皇, 皇 등과 같은 字形으로 王國維는

上象日光放射之形.<sup>69)</sup>

윗부분은 햇빛이 사망으로 비취지는 模樣이다.

라고 解釋하였다.

하지만 許慎은 “皇”자의 本意와는 無關하게

從自. 自, 始也. 始皇者, 三皇, 大君也.

라고 解釋하면서 自를 따르는 字形으로 고쳤다. 이는 許慎이 自身の 形·音·意에 의한 獨特한 文字學的 觀念으로 字形을 고친 것이다.

(2)  과 :

李斯 小篆의 “或”은 ○을 따르는 字形이지만 許慎 篆文의 “或”은 □를 따르는 字形으로 만들었다. 金文에서 “國”자는 , , ,  등과 같이 “或”은 모두 ○을 따르는 字形으로 小篆과 同一하다. 許慎의 字形은 漢印 ,  등과 같이 “或”이 □를 따르는 字形의 影響을 받은 것이다.

結果적으로 小篆은 許慎의 省改에 依하여 더욱더 成熟되었고, 《說文》에 收錄되면서 許慎만의 風格을 띤 篆文으로 誕生하게 되었다. 《說文》에서 篆文은 主로 正文에 排置되고 있다.

## 1·2·2 大篆을 省改한 篆文

李斯의 小篆뿐만아니라 大篆도 許慎에 依하여 省改되어 篆文의 一種인 籀文으로 되었다.

《史籀篇》이 現在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大篆의 原來的 모습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一般的으로 石鼓文을 大篆의 代表作이라고 일컫기 때문에 籀文의 面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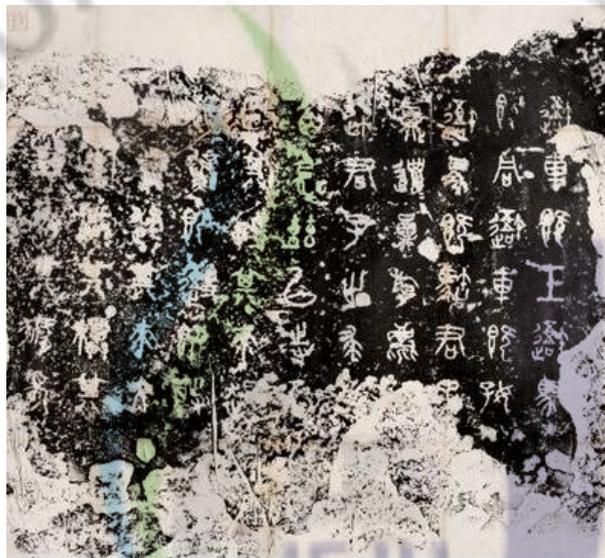
69)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第一輯, 2000, p226.

어느 程度 알 수 있다.

大篆字體, 在傳世的石刻文字, 當以石鼓文最具代表性.<sup>70)</sup>

大篆의 字體는 전해지는 石刻文字 중에서 가장 代表性的인 것으로 石鼓文을 꼽을 수 있다.

石鼓文의 時代에 관해서는 定說이 없으나 羅振玉, 馬敘倫 等은 現存하는 가장 오래 된 石刻文으로 약 BC 481년경 東周時代 秦나라의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sup>71)</sup>



石鼓文 拓本2

石鼓文의 特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字形은 長方形으로 크기가 均等하다. 이러한 特徵은 甲骨文이나 金文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70) 叢文俊: 《中國書法史》, 江苏教育出版社, 2002, p206.

71) 羅振玉: 《石鼓文考釋》, 藝文印書館, 1974.

馬敘倫: 《石鼓文疏記》, 商務印書館, 2008.

[http://baike.baidu.com/view/45774.htm?fr=ala0\\_1\\_1](http://baike.baidu.com/view/45774.htm?fr=ala0_1_1) : “近人羅振玉《石鼓文考釋》和馬敘倫《石鼓文疏記》都認爲是秦文公時物, 與韋、韓說法出入不大, 只相差十七年. 據郭沫若考證, 《石鼓》作於秦襄公八年, 距宣王更近. 所不同者, 出於宣王時史籀手筆或秦臣手筆罷了.”

2. 體勢는 嚴肅하고 端正하며 무게가 있다.
3. 筆力은 安定的이면서도 힘이 있다.
4. 字形과 石鼓, 詩의 內容이 渾然一體를 이루면서 質朴하고 雄渾하다.

만약 石鼓文이 唐나라의 韋應物, 宋나라의 歐陽修의 말처럼 周 宣王시기의 것이거나, 宋나라의 鄭樵, 현대의 郭沫若, 羅振玉, 馬敘倫 等の 考證과 같이 先秦時代의 産物이라면 宣王時期와 아주 가까운 時代의 文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石鼓文의 特徵은 大篆과 매우 恰似하거나 같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 籀文을 保留하고 있는 字書는 唯一하게 《說文》뿐이다. 石鼓文과 《說文》의 籀文을 比較分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石鼓文 (大篆)								
說文 籀文								

石鼓文은 藏鋒筆法으로 무게가 있고 質朴하며 雄渾한 書體 特徵을 잘 나타냈다. 특히 筆劃의 始作과 끝이 둥근 模樣을 나타내게 하여 端正하면서도 安定的인 特徵을 잘 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特徵은 藏鋒과 中鋒 筆法으로 圓筆을 構思한 데에 있다.

《說文》의 籀文은 이와 正反對의 筆法을 使用하고 있는데 바로 露鋒筆法이다. 이런 筆法으로 쓰낸 筆劃은 蘭잎처럼 날렵하고 秀麗한 느낌을 준다. 아울러 筆劃의 兩 끝은 뾰족하게 날카롭고 가운데 部分은 여전히 石鼓文처럼 豐滿하고 質朴한 特徵이 있는데 바로 “蝌蚪文”의 書體의 特徵이다.

石鼓文과 같은 大篆은 이처럼 許慎에 의하여 省改되어 篆文의 一種인 籀文으로 再誕生되었으며 主로 《說文》의 重文에 排置되고 있다.

때로는 說明의 便利를 위하여 正文에도 排置되는데, 이때는 籀文의 “蝌蚪文”의 書體의 特徵을 버리고 完全히 篆文과 同一한 書體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籀文

도 篆文의 一種이라고 하는 것이다.

### 1·2·3 古文을 省改한 篆文

許慎은 小篆과 大篆을 省改하여 篆文으로 만들었듯이 “孔子壁中書”의 古文도 省改하여 篆文으로 만들었으며 名稱은 原來대로 古文이라고 하였다.

現在 가장 많은 古文을 收錄하고 있는 冊子는 《傳抄古文字編》<sup>72)</sup>이라고 할 수 있는데 本 冊子를 通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古文의 特徵을 歸納할 수 있다.

石 9 下	石 10 下	石 15 上	石 16 下	石 17 上	隶	碧	汗 2·21 尚	汗 2·21 尚	汗 2·21 添
汗 4·52 义	汗 4·52 义	四 5·28 老	四 5·28 孝	四 5·28 云	四 5·28 云	四 5·28 义	四 5·28 义	四 5·28 云	四 5·28 云
四 5·28 说	海 5·34	海 5·34	海 5·34	海 5·34	海 5·34				

《傳抄古文字編》 “則”字

《傳抄古文字編》 古文 “則”을 살펴보면 “戰國時代”를彷彿케 하여 매우 混雜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字形이 不規則的이고 異體字가 亂舞하고 있다. 또 大

72) 徐在國: 《傳抄古文字編》, 綫裝書局, 2006, pp422-423.

篆처럼 中鋒, 藏鋒 筆法으로 圓筆을 構思한 , ,  등의 글자가 있으며; , ,  등과 같이 露鋒 筆法으로 尖筆을 構思하여 “蝌蚪文”의 書體的 特徵을 잘 나타낸 글자도 있다.

《說文》의 “則”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四, 刀部: , 等畫物也. 從刀從貝. 貝, 古之物貨也. 子德切. , 古文則; , 亦古文則. , 籀文則從鼎.

許慎은 “孔子壁中書”와 같은 古文經書의 文字를 省改하여 書體的 特徵이 統一된 篆文을 만들어 《說文》에 收錄하고 있다. 그리하여 王國維는

說文古文自成一系.<sup>73)</sup>

《說文》古文은 이미 하나의 체계를 이뤘다.

라고 評하였다. 馬敘倫은 古文과 籀文의 筆法이 같은 것에 對하여 重視를 일으켰다. 그는

籀文筆法皆同古文.<sup>74)</sup>

籀文의 筆法은 모두 古文과 同一하다.

라고 말하면서 筆法을 比較分析하는 方法으로 古文과 籀文의 眞僞與否를 判斷하기도 하였다.

筆法이 同一할 뿐만 아니라 古文과 籀文은 모두 篆文의 書體的 特徵을 지니고 있으므로 “하나의 體系를 이뤘다”고 할 수 있다.

籀文과 마찬가지로 古文은 正文의 異體字로 주로 重文에 排置되지만 때로는 解說의 便利를 위하여 正文에 排置될 때도 있는데 이때는 “蝌蚪文”의 書體的 特徵

73)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籒》, 商務印書館, 1940.

74)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五, 2000, p348, 再引用.

을 버리고 完全히 篆文과 同一한 書體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古文도 篆文의 一種이라고 하는 것이다.

#### 1·2·4 漢篆을 省改한 篆文

上述한 篆文외에도 이른바 漢篆이라고 하는, 漢나라 때에 주로 印章에 쓰이던 文字를 省改하여 사용한 篆文도 多少 包含되어 있다.

예를 들면 上자와 下자 같은 글자인데 다음과 같다:

上 上 高也. 此古文上, 指事也. 凡上之屬皆從上. 時掌切. 𠂔, 篆文上.  
下 下 底也. 指事. 胡雅切. 𠂔, 篆文下.

上은 古文 上이며 𠂔은 篆文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下은 古文이라는 解說이 없지만 𠂔은 篆文이라고 하였다. 前者에 비추어 볼 때 下도 古文일 可能性이 높다. 하지만 下는 部首 上에 속하는 글자로 分類하였기 때문에 古文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 許慎이 古文 上을 正文에 排置한 것은 上이 한 개의 部首이며 그에 속하는 글자들이 모두 上을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分명한 것은 𠂔과 𠂔을 篆文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先秦시대의 文字 속에는 𠂔과 𠂔와 같은 字形이 없다. 上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甲骨文: 二(甲1164), 𠂔(卜368);

金文: 二(不楷方鼎), 上(中山王壺);

先秦貨幣: 上(21), 𠂔(19);

包山楚簡: 上(273);

睡虎地秦簡: 𠄎 (效3 67例), 𠄎 (爲7 14例);

古璽文字: 𠄎 (4633), 𠄎 (4821).

上記 甲骨文과 金文을 비롯한 先秦 文字에는 세로획을 屈曲 처리한 𠄎와 같은 字形을 찾아 볼 수 없다. 아울러 所謂 古文이라고 하는 𠄎와 같은 字形도 찾아 볼 수 없다.

하지만 漢나라의 印章에는 𠄎(漢印文字徵: 上祿丞印), 𠄎(上久農長), 𠄎(上善) 등 全部 다 篆文 𠄎과 같은 字形이다. 卽 세로획을 屈曲 處理한 것은 漢篆의 重要한 特徵이다.

𠄎자도 𠄎자와 다름이 없이 漢篆임이 밝혀졌다. 또 中자를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古文字詁林》, 第一集, p322~325; 본문 부록1 참조.):

中, 內也. 從口. 丨, 上下通. 𠄎, 古文中. 𠄎, 籀文中. 陟弓切.

甲骨文: 𠄎(甲398), 𠄎(前1·6·1), 𠄎(前4·27·5), 𠄎(續4·7·1);

𠄎(甲187), 𠄎(京都269).

金文: 𠄎(何尊), 𠄎(卯簋), 𠄎(企中且觶), 𠄎(中山王鼎);

𠄎(仲姑鬲), 𠄎(仲旂父鼎), 𠄎(中都戈).

古陶文: 𠄎(3·285), 𠄎(3·284), 𠄎(1·68), 𠄎(9·100);

𠄎(1·69), 𠄎(1·21), 𠄎(5·126).

先秦貨幣: 𠄎(47), 𠄎(74), 𠄎(4), 𠄎(50), 𠄎(42);

𠄎(刀弧背), 𠄎(布方).

侯馬孟書: 𠄎(156:20), 𠄎(156:19), 𠄎(156:25); 𠄎(195:8).

包山楚簡: 𠄎(35), 𠄎(138), 𠄎(140), 𠄎(269).

古璽文字: 𠄎(2110), 𠄎(2681), 𠄎(4648), 𠄎(2698);

𠄎(2687), 𠄎(0047).

上記와 같은 古文字 資料에는 古文 𠄎와 같은 字形이 없다. 하지만 《漢印》을 보면 𠄎(程中私印), 𠄎(臣中) 등과 같이 세로획을 屈曲 處理하여 古文 𠄎와 같은 字形이 있다. 이와 같은 漢篆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1) 甯 用部: 𠄎, 所願也. 從用, 寧省聲.

漢印 𠄎(3·23)은 篆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甯자와 通用되어 쓰이는 寧자가 있다. 寧자의 甲骨文은 𠄎(甲2722), 金文은 𠄎(孟作), 睡虎地秦簡 𠄎(爲37)等 字形이다. 漢印 𠄎(寧侯邑丞), 𠄎(里君寧印), 篆文은 𠄎와 같다. 段玉裁가 말하기를:

甯與𠄎部寧音·義皆同.<sup>75)</sup>

甯는 𠄎부의 寧과 音·義가 모두 같다.

라고 하였다. 字形으로 놓고 볼 때 寧의 𠄎를 省略하여 甯으로 만들었으며 漢印만이 𠄎이 漢篆이라는 것을 證明할 수 있는 唯一한 文字 資料이다.

(2) 臚 肉部: 𠄎, 皮也. 從肉臚聲.

75)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1.

甲骨文은 界(續1·44·7), 用(佚31)等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𠄎(弘尊), 𠄎(九年衛鼎)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幣文篇》 𠄎(晉高), 𠄎(典499); 包山楚簡 𠄎(191), 𠄎(243); 睡虎地秦簡 𠄎(秦13), 𠄎(雜29)等 字形으로 모두 上下結構의 字形이다.

漢印 𠄎(大鴻臚印)은 左右結構로 篆文 𠄎와 같다.

(3) 艸部 荊: 𠄎, 楚木也. 從艸刑聲.

金文은 𠄎(過伯簋), 𠄎(扶馭簋) 등 模樣으로 “從井從辦”(徐中舒)의 左右結合의 字形이다.

漢印 𠄎(荊野), 𠄎(吳荊), 𠄎(司馬荊) 등은 모두 “從井從刀”의 字形으로 篆文과 같다.

(4) 艸部 萌: 𠄎, 艸芽也. 從艸明聲.

甲骨文은 𠄎(後2·3·8), 𠄎(庫1025), 𠄎(佚292) 등 模樣으로 “從艸從日”의 字形이다.

漢印은 𠄎(王萌私印), 𠄎(成萌私印), 或 𠄎(董萌之印) 등 模樣으로 篆文 𠄎과 같은 字形이다.

(5) 艸部 茲: 𠄎, 艸木多益. 從艸, 茲省聲.

甲骨文은 𠄎(鐵694), 金文은 𠄎(泉伯簋) 등 模樣으로 모두 “從艸”의 字形이 아니다.

先秦貨幣은 𠄎(38), 𠄎(36), 𠄎(18), 𠄎(48), 𠄎(78), 𠄎(1) 등 多樣한 字形들이 있지만 모두 역시 “從艸”의 字形이 아니다.

漢印은  (茲少儒),  (陰茲之印),  (茲膽私印) 等 模樣으로 모두 “從艸”의 字形인데 이는 篆文  와 같다.

(6) 戶部 扌:  , 陰也. 從戶, 乙聲.

金文은  (象伯簋),  (毛公曆鼎),  (師兌簋)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睡虎地秦簡도 역시  (41·179) 等과 같은 字形인데 이 글자에 對하여 吳大澂이 말하기를:

 , 此古扌字.<sup>76)</sup>

 이 글자는 扌의 古文이다.

라고 하였다.

漢印은  (扌并私印),  (扌崇私印) 等과 같이 모두 “從戶從乙”의 字形으로 篆文  과 같다.

(7) 嵬部 巍:  , 高也. 從嵬, 委聲.

古陶文은  (秦302); 睡虎地秦簡은  (爲21),  (爲28) 等 模樣으로 모두 山자가 맨 아래에 位置에 있는 字形이다.

漢印  (魏率善氏佰長)은 와 같은 模樣으로 傳統的인 結構를 改變하여 山자를 글자의 맨 위에 옮겨놓았는데 이는 篆文  와 같은 字形이다.

(8) 一部 丕:  , 大也. 從一, 丕聲.

76) 吳大澂: 《說文古籀補敍》, 卷十三, 中華書局, 1975.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516, 再引用.

金文은 丌(頌鼎), 侯馬盟書는 丌(67·2), 丌(67·1); 秦詛楚文은 丌等 模樣으로 모두 丌자의 字形과 같다.

漢印은 丌(作丌私印), 丌(作丌) 등과 같은 模樣인데 篆文 丌와 같은 浮流의 字形이다.

(9) 牛部 牴: 牴, 觸也. 從牛, 氏聲.

睡虎地秦簡은 牴(日甲58)와 같은 模樣으로 牛자가 오른쪽 位置에 놓여 있는 字形이다.

漢印은 牴(馮牴之印), 牴(巨牴), 牴(張牴) 등과 같은 模樣인데 모두 篆文 牴와 같은 字形으로 牛자가 왼쪽 位置에 놓여 있다.

(10) 辵部 遂: 遂, 亼也. 從辵, 豕聲.

金文은 𨔵(師壺鼎), 𨔵(孟鼎), 𨔵(小臣簋), 𨔵(史遂簋), 𨔵(中山王壺) 등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漢印은 遂(遂久右慰), 遂(趙遂之印), 遂(令遂成) 등과 같은 模樣인데 모두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 1·2·5 其他 書體를 省改한 篆文

(1) 兵 収部: 𠂔, 械也. 從升持斤, 並力之兒. 補明切. 𠂔, 古文兵, 從人収干. 𠂔, 籀文.

兵자는 戰國 秦虎符에서 𠂔, 繹山碑에서 𠂔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 𠂔과 같다. 이런 書寫法은 秦·漢 簡帛文字로 이어지고 있다.

篆文 𠂔은 楚文字 𠂔(禽悉鼎), 𠂔(子彈庫楚帛書)와 構形이 같으며 秦文字와는 다

르다.

(2) 惠 心部: 𡇗, 外得於人, 內得於己也. 從直從心. 𡇗, 古文.

金文은 𡇗, 𡇗(羸罍惠壺), 𡇗(陳侯因咨罇), 𡇗(者汙鐘), 𡇗(中山王響鼎), 𡇗(盜壺) 등 模樣의 字形이고; 簡帛은 𡇗(子彈庫楚帛書), 𡇗(包山楚簡) 등 模樣의 字形이다. 秦碑는 𡇗(祀三公山碑); 《石經》은 𡇗(三體石經) 등과 같은 字形이다.

上記 古文字 資料에서 알 수 있는 것은 中山王響鼎, 盜壺, 祀三公山碑와 같이 秦나라 地域에서 出土된 文獻에 쓰인 惠의 秦文은 簡體이고, 기타 六國地域에서 出土된 文字는 繁體라는 것이다.

(3) 七 七部: 𠄎, 陽之正也. 從一, 微陰從中袞出也. 凡七之屬皆從七.

甲骨文은 𠄎(甲244), 兩周 金文은 𠄎(伊簋); 簡帛은 𠄎(包山楚簡), 𠄎(睡虎地秦簡); 經書는 𠄎(三體石經) 등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上記 文獻資料로부터 우리는 秦代 以前에는 모두 “十”자 模樣이지만 《說文》의 篆文, 《三體石經》의 篆文은 모두 𠄎와 같이 비슷한 字形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

(4) 公 八部: 𡇗, 平分也. 從八從厶. 八猶背也. 韓非曰: 背厶爲公.

甲骨文은 모두 𡇗(甲1378)와 같고, 金文도 모두 𡇗(毛公鼎)와 같이 “從口”의 字形이다.

秦漢 時期의 文字는 점차 “從厶”의 字形으로 바뀌면서 篆文 𡇗와 같이 變形이 되었는데 이는 古文의 書體의 特徵이다.

(5) 夸 大部: 夸, 奢也. 從大于聲.

金文은 𠄎(甗文), 𠄎(爵文), 𠄎, 𠄎(戈文), 𠄎(伯夸父盨) 등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𠄎, 古陶文 𠄎(5·33), 古老子 𠄎, 𠄎 등은 모두 “于를 따르는”字形이다.

(6) 專 寸部: 專, 布也. 從寸, 甫聲.

甲骨文은 𠄎(甲2341), 𠄎(甲3103) 등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𠄎(弔專父盨), 𠄎(毛公厝鼎), 𠄎(克鼎) 등은 모두 “又(支)를 따르는”字形이다.

先秦貨幣부터 𠄎(4), 𠄎(78), 𠄎(布圓大) 등과 같이 “寸을 따르는”字形이 나타나고 있으며, 包山楚簡 𠄎(176), 古尙書 𠄎 역시 “寸을 따르는”字形으로 《說文》의 篆文 𠄎와 같다.

(7) 癸 癸部: 癸, 冬時, 水土平, 可揆度也. 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 癸承壬, 象人足. 凡癸之屬皆從癸. 癸, 籀文從ㄎ從矢.

甲骨文中에서 癸자는 大體로 두 가지 字形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𠄎(鐵112·3)와 같고, 다른 하나는 𠄎(存2712)와 같은 字形이다.

金文中에서도 마찬가지로 𠄎(癸山簋)와 𠄎(仲辛父簋)와 같은 두 가지 字形으로 나뉘고 있다. 後者는 《說文》의 篆文 癸와 같은 字形이다.

侯馬盟書 𠄎(303)와 包山楚簡 𠄎(131)은 固有의 字形을 維持하고 있다.

癸의 形態가 漸次 訛傳되어 𠄎(日乙111), 𠄎(漢印 郭癸), 𠄎(匚公癸4·90) 등 “矢를 따르는”字形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說文》의 籀文 癸와 같은데 秦文이 틀림없다.

(8) 冑 冑部: 𠄎, 兜鍪也. 從冑由聲. 𠄎 司馬法冑從革.

𠄎는 冑자의 異體字인데 楚文과 字形이 같다. 예를 들면 包山楚簡 𠄎(2·269), 《荀子·義兵》 𠄎는 모두 “革을 따르는” 字形이다. 趙平安은 말하기를:

荀子本爲趙人, 晚年至楚爲蘭台令, 并家于蘭陵, 著書數萬言. 因此《荀子》一書出現楚文字的寫法是很自然的事情.<sup>77)</sup>

荀子は 본래 趙나라 사람인데 晩년에 楚나라에 와서 蘭台令을 재낼 때 집은 蘭陵에 잡았으며 일생동안 수 만 자에 달하는 저서를 지었다. 때문에 《荀子》에 楚文의 字形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였다.

(9) 𠄎 大部: 𠄎, 大白, 澤也. 從大從白. 古文以爲澤字.

金文은 𠄎(牆盤), 𠄎(毛公鼎), 𠄎(南宮乎鐘) 등 模樣으로 모두 “無𠄎”의 “𠄎”자로 쓰이고 있으며 “矢를 따르는” 字形이다.

《說文》에서 “古文以爲澤字.”라고 하였는데 澤자와 𠄎은 모두 “從𠄎聲”의 글자로 聲符가 같아 서로 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石鼓文에 𠄎와 같은 글자가 있는데 𠄎의 異體字로 推定이 되지만 뜻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10) 烏 鳥部: 𠄎, 孝鳥也. 象形. 孔子曰: “烏, 𠄎呼也.”取其助氣, 故以爲烏呼. 凡鳥之屬皆從烏. 𠄎, 象古文鳥省.

金文에서 烏자는 두 가지 字形으로 쓰이고 있다. 하나는 𠄎(何尊), 𠄎(沈子它簋),

77) 趙平安: 《說文小篆研究》, 廣西教育出版社, 1999, p5.

𠄎(班簋), 𠄎(效卣)等 字形으로 篆文 𠄎와 같은 類型이다. 다른 하나는 𠄎(輪鑄), 𠄎(徹兒鐘)等 字形으로 古文 𠄎와 비슷하다.

《先秦貨幣文篇》을 보면 全部 𠄎(37)와 같은 字形이고, 侯馬盟書 𠄎(85·22), 包山楚簡 𠄎(158), 睡虎地秦簡 𠄎(秦78), 長沙子彈庫帛書 𠄎(乙1·34)等 六國文字는 모두 古文과 同一한 字形을 취하고 있다.

(11) 疑 子部: 疑, 惑也. 從子止匕. 失聲.

早期 金文은 疑(伯疑父簋), 疑(疑觶), 疑(齊史疑觶)等에서 人자의 模樣은 疑, 疑와 같이 或은 左側, 或은 右側을 向할 수 있다. 後에 書寫의 便利를 位하여 모두 右側을 向하게 되었다. 例를 들면 秦 金文 疑(廿六年詔權), 疑(5·398)와 같으며 秦簡은 疑(睡虎地秦簡23·33), 等이 있다.

《說文》의 篆文 疑의 人자는 이미 訛變되었으나 그 方向이 左側을 향하여 있으므로 後期 金文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戚 戍部: 戚, 戍也. 從戍未聲.

甲骨文 𠄎(《續甲骨文篇》歲之重文), 西周金文 𠄎(戚姬簋)으로 모두 “從戈”의 字形이다.

漢印 𠄎(戚意私印), 𠄎(戚子國印), 詛楚文 𠄎等은 “從冊從戈”의 字形이다.

石經文公에 𠄎와 같은 篆文이 있는데 이는 《說文》의 篆文 𠄎와 같다.

(13) 達 辵部: 達, 行不相遇也. 從辵牽聲. 《詩》曰: 挑兮達兮. 𠄎, 達或從大. 或曰迭.

甲骨文은 𠄎(存2011), 𠄎(佚429 或從彳), 𠄎(京都624)等과 같은 模樣으로 “從彳(或從辵)” “從大”의 字形이며, ; 金文은 達(墻盤), 達, 達(保子達簋), 達(師寰簋)等

과 같은 模樣으로 篆文 𣪠과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 𣪠, 古老子 𣪠, 古璽 𣪠(1340), 漢印 𣪠(宋達), 泰山石刻 𣪠 등은 모두 篆文 𣪠과 같은 字形이다. 或體 𣪠은 甲骨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14) 斗와 “從斗”의 글자

斗部 斗: “𣪠, 十升也. 象形, 有柄. 凡鬥之屬皆從斗. 當口切.”

斗자를 秦公簋에서는 𣪠, 《睡虎地秦簡》에서는 𣪠, 王馬堆漢墓帛書《老子乙本卷前古佚書》5上과 王馬堆一號漢墓竹簡 그리고 漢代 龍淵宮鼎 에서는 모두 𣪠와 같다.

이미 出土된 文獻資料들에 依하여 “從斗”의 글자들을 研究한 結果 漢代에도 𣪠와 같은 字形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때문에 𣪠와 從𣪠의 글자들은 모두 漢字 發展의 規律에 符合되지 않는 글자들이다. 예를 들면:

① 斗部 斛: 𣪠, 十斗也. 從斗, 角聲.

十一年 憲鼎의 字形은 𣪠; 平都犁斛의 字形은 𣪠; 光華斛에서는 𣪠와 같은 字形으로 篆文이 “從𣪠”하는 것과 다르다.

② 斗部 料: “𣪠, 量也. 從斗, 米在其中. 讀若遼.”

金文 𣪠(司料盆蓋); 古陶文字 𣪠(3·725); 睡虎地秦簡 𣪠(秦194), 𣪠(效11)으로 모두 “斗를 따르는” 字形이다.

石經 𣪠(古文四聲韻)와 같은데 이는 篆文 𣪠와 同一한 字形이다.

③ 斗部 𣎵: “𣎵, 量也. 從斗與聲. 《周禮》曰: 黍三𣎵.”

金文 𣎵(𣎵小量)와 같이 “從久”의 字形이다.

④ 斗部 𣎵: “𣎵, 蠡柄也. 從斗軌聲. 楊雄, 杜林說: 皆以爲輶車輪𣎵.”

漢印 𣎵(𣎵長兄), 𣎵(𣎵宜王)은 모두 “從久”의 字形이다.

⑤ 斗部 𣎵: “𣎵, 羹斗也. 從斗, 鬼聲.”

漢印 𣎵(勳魁侯相), 𣎵(甄魁), 𣎵(侯魁之印), 𣎵(高魁壘)은 모두 “從久”의 字形이다.

⑥ 斗部 𣎵: “𣎵, 量物分半也. 從斗從半, 半亦聲.”

金文 𣎵(豐昧鼎), 𣎵(𣎵料小量), 𣎵(上官鼎), 𣎵(大糧鼎) 등은 모두 “從久”의 字形이다.

(15) 髟와 “從髟”의 글자

髟部: “髟, 長髮森森也. 從長從彡. 凡髟之屬皆從髟. 必凋切, 所銜切.”

이 글자의 甲骨文은 𣎵(《合集》14294), 金文은 𣎵(髟生鼎) 등 字形이다.

既存 資料에 의하면 髟와 같은 字形은 東漢時代에 出現한 것이다. 東漢 以前에 髟자는 모두 “彡을 따르는” 字形이 아니다. 𣎵는 본래 사람이 머리카락을 휘날리는 模樣을 나타낸 것인데 隸變이후 原來의 模樣을 잃게 되었기 때문에 漢나라 사람들은 그 本來 模樣을 알지 못하고 머리카락을 뜻하는 彡을 더하였던 것이다. 例를 들면:



𦉳, 𦉴, 𦉵, 𦉶, 𦉷;

從非의 排, 扉, 靡, 斐, 匪, 俳, 菲, 棐, 裴, 斐, 悲, 輩, 篋, 攏,

𦉸와 從𦉸의 華, 𦉹;

弘과 從弘의 強, 纒, 滂, 弘;

從早의 草; 等.

上述한 글자들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첫째 六國文字에 符合되지만 秦文에는 符合되지 않는 篆文; 둘째 早期古文字의 結構에 符合되지만 後期古文字에는 符合되지 않는 篆文; 셋째 漢字 發진의 規律에 符合되지 않는 訛傳 된 篆文이다.



## 2. 重文

### 2-1 古文

古문을 利用하여 古文字를 考證하는 것은 文字學에서 매우 重要的 方法 中の 하나이다. 때문에 《說文》의 古文뿐만아니라 《汗簡》과 《石經》의 古文은 이미 學界에서 重視하고 있으며 研究 成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說文》古文中有部分形體詭異, 不知所從, 既不合於六書要求, 又無法從同期古文字中中得到印證, 但有些可以從石經中探知其變化之所由.<sup>78)</sup>

《說文》에는 일부 形體가 乖이하여 考證할 方法이 전혀 없는 古文이 있는데, 六書의 要求에도 不합되지 않고 또 같은 시기의 古文字로 印證할 수도 없지만 《石經》을 통하여 그 變化의 原因을 밝혀 낼 수 있다.

《汗簡》共收錄72家 經書中的古文, 比如:《古孝經》, 《古老子》, 《古尚書》, 《古周易》, 《古春秋》, 《古周禮》等等; 《石經》爲目前所能見到最早的《尚書》, 《春秋》寫經本, 二者在古文字形體研究中具有極其重要的地位.<sup>79)</sup>

《汗簡》에는 모두 72家 經書의 古문을 수집하였는데 예를 들면, 《古孝經》, 《古老子》, 《古尚書》, 《古周易》, 《古春秋》, 《古周禮》 等等이다. 《石經》을 통하여 현재 우리는 제일 오래된 《尚書》와 《春秋》의 寫經本을 볼 수 있는데, 古文字 形體 연구에서 극히 重要的 위치에 처해있다.”

아래에서는 《說文》의 古文<sup>80)</sup>과 甲骨文, 金文, 《汗簡》, 《石經》等 古文字 資料와의 比較分析을 통하여 古文의 眞僞와 出處를 밝히고자 한다.

78) 曾憲通: 《三體石經古文與〈汗簡〉古文合證》, 1982.

《古文研究》, 第七輯, 北京, 中華書局, pp273-287.

79) 徐 權: <說文古文眞僞小考>, 《中國言語研究》, 第26輯. 2008.

80) 여기서 말하는 古文은 《說文》에서 “古文某” 等 古文이라고 명시한 글자를 말한다. 필자의 통계에 따르면 古文이라고 명시한 글자는 모두 316개이다. 이는 불확실한 통계이다. 왜냐하면 古文은 대부분이 正文속에서 篆文의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정확한 數字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1·1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古文

《說文》과 《汗簡》의 古文이 同一함과 同時에 《汗簡》의 古文이 經書에서 비롯되었을 境遇, 《說文》과 《石經》의 古文이 同一할 境遇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 卷十四下 寅部 寅: 篆文作, 古文作.

“寅”자의 甲骨文은  등 字形으로 화살 模様の 字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에 “口”模様の 더하여  와 같은 字形으로 變異하였는데, 이는 곧 화살을 묶는다는 뜻으로 解釋된다.

間或 두 손으로 화살을 잡고 있는 字形인  와 같은 甲骨文도 있다.

入周以後字形均作兩手奉矢之形.<sup>81)</sup>

周나라에 접어들면서부터 모두 두 손으로 화살을 잡고 있는 字形으로 되었다.

金文은  등 字形으로 되었다. 篆文은  와 같은 字形으로 ㄹ을 따르고 있는데 이것은 甲, 金文의  와 같은 살촉이 變化된 것이다.

包山楚簡은 甲, 金文과 비슷한 字形으로  와 같고; 睡虎地秦簡은 ㄹ을 따라  와 같은 字形인데 이는 篆文과 다름이 없다.

《古尚書》는 , 《汗簡》은 《古尚書》의 古文字를 收錄하여 역시  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金文  등 字形의 訛變일 것이다.<sup>82)</sup>

81)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1115.

82) 본 장에서 引用한 甲, 金, 簡 및 古文은 모두 다음 資料에서 온 것이다:

徐 鍇: 《說文解字》, 中華書局, 1963.

孫海波: 《三體石經集錄》, 台灣, 藝文印書官, 1975.

徐在國: 《傳抄古文字編》, 線裝書局, 2006.

《說文》의 古文은 이와 同一한 字形이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 卷十四下 辛部 辜: 篆文從辛古聲作 辜, 古文辜從死作 𣦵.

“辜”자의 金文은 𣦵와 같은 字形으로 되어 있다.

《汗簡》은 《古尚書》의 𣦵를 收錄하였는데 이는 “死”를 따른 古文 𣦵와 같다. 古文字 𣦵에 대하여 馬敘倫은 “朱駿聲은 응당 𣦵자의 古文이라고 하였는데 나는 古文經傳서는 “말라죽을 𣦵”자를 “허물 辜”로 잘못 쓴 것 같다.”<sup>83)</sup>라고 하였다.

古文 𣦵는 《汗簡》과 《古尚書》의 文字와 同一하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3) 卷十四下 甲部 甲: 篆文作 甲, 古文作 𠄎.

“甲”자의 甲骨文은 丨, 十, 田, 𠄎, 𠄎等 여러 模樣의 字形으로 되어 있다.

金文에서는 十, 田等 模樣으로 되어 있는데 字形의 變化가 크게 없어 甲骨文과 다름이 없다.

《古老子》에서는 𠄎, 𠄎; 《古尚書》作 𠄎, 《汗簡》에서는 𠄎, 𠄎, 𠄎等; 《石經》에서는 𠄎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되어 있다.

古文 𠄎의 模樣에 대하여 鈕樹玉은 “《玉篇》에도 없는 글자이다. 《汗簡》에서 出處를 《尚書》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 《尚書》가 宋本이기 때문이다. 古文

徐无闻: 《甲金篆隶大字典》, 四川辞书, 1991.

徐中舒: 《甲骨文字典》, 四川辞书, 1989.

徐中舒: 《漢語古文字字形表》, 四川辞书, 1981.

严志斌: 《金文編》, 吉林大學出版社, 2001

李正光: 《楚汉简帛书典》, 湖南美术出版社, 1998.

郭忠恕: 《汗簡》, 上海涵芬樓, 圓光大學圖書館藏, 1964.

黃錫全: 《汗簡校注》, 武漢大學出版社, 1990.

83)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卷二十八, 臺灣, 鼎文書局, 民國64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1032.

命은 아마도 古文字 와 같은 模樣이 變化된 것이다. 後世 사람들이 또 거기에 劃을 더하였고, 또 傳寫 過程의 錯誤도 있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sup>84)</sup>

古文命은 甲骨文과 金文의 와 같은 字形이 漸次 訛傳되어 생기게 된 것이다. 아울러 經書의 古文과 同一하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 卷十四下 内部 禹: 篆文作 , 古文作 .

“禹”자의 金文은 ,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陶文》은 , 《睡虎地秦簡》은 ; 《古璽》은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尙書》는 ; 《汗簡》은 , 《石經》은 와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變化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說文》의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 卷十四下 阜部 阜: 篆文作 , 古文從三圓作 .

“阜”자의 甲骨文은 , ,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도 크게 變化가 없는데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尙書》의 字形은 와 같데 《汗簡》의 와 같다. 때문에 《說文》의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馬敘倫이 鈕樹玉의 말을 引用하여 解釋하기를:

象形本作 形, 篆文整齊之作 , 等. 金文巖字從 . <sup>85)</sup>

象形글자는 原來 와 같은 字形인데 篆文은 이를 格式에 맞게 가지런하게 加工을 하여 , , 等 模樣으로 만들었다. 金文의 巖자가 를 따르고 있다.

84) 李 圃: 《古文字詁林》, 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934.

85) 李 圃: 《古文字詁林》, 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771.

라고 하였다. 嚴자의 金文은 𣪠, 𣪡, 𣪢 等 模樣으로 古文 嚴과 같은 字形인데 “阜”자의 古文 𣪣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卷十四上 斤部 斷: 篆文從斤從𣪠作𣪠, 古文斷從𣪠作𣪡, 亦作𣪢.

“斷”자의 甲骨文은 𣪣, 𣪤, 𣪥 等 模樣의 字形이며 金文은 𣪦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sup>86)</sup>

《古尚書》에서는 𣪧, 𣪨; 《汗簡》에서는 𣪩, 𣪪, 𣪫, 𣪬 等 模樣의 字形으로, 《石經》에서는 𣪭와 같은 模樣으로 變異 되었다.

商承祚가 古文에 對하여 解釋하기를:

古文𣪧, 𣪨爲剗之本字. 而假爲斷. <sup>87)</sup>

고문 𣪧, 𣪨은 원래 剗자인데 斷자로 가차되어 쓰이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甲骨文을 보면 古代 실을 짜는 물레 模樣 𣪣, 혹은 칼로 물레의 실을 자르는 𣪤 模樣의 字形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자가 점점 訛傳되어 古文과 같은 字形으로 되었다.

(7) 卷十三下 力部 動: 篆文從力重聲作𣪮, 古文動從辵作𣪯.

“動”자의 甲骨文은 𣪰<sup>88)</sup>, 金文은 𣪱, 𣪲 等 模樣의 字形으로 모두 辵을 따르고 있다.

86)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652.

87) 商承祚: 《說文中之古文考》, 《金陵大學學報》, 第1, 第2期, 1940;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653.

88)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427.

《老子》에서는 𡗗, 《尚書》에서는 𡗗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며 《汗簡》도 역시 같은 模様の 字形을 收錄하고 있는데 모두 隹을 따르고 있는 글자이다. 따라서 《說文》의 古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 卷十三下 里部 野: 篆文從里予聲作 𡗗, 古文野從里省, 從林作 𡗗.

“野”자의 甲骨文은 林과 土를 따라 𡗗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고, 金文 역시 𡗗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되어 있다.

《尚書》에서는 𡗗, 𡗗와 같이 甲骨文과 金文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汗簡》에서는 𡗗, 𡗗와 같이 《尚書》의 古文을 收錄하고 있다.

《古陶文》은 田을 따라 𡗗, 𡗗(秦335從田)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小篆이 곧 秦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說文》의 𡗗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 卷十三下 土部 封: 篆文作 𡗗, 古文封省作 𡗗, 籀文從半作 𡗗.

“封”의 甲骨文은 𡗗, 𡗗, 𡗗等 模様の 字形이다. 商承祚가 이 甲骨文에 對하여

象草木妄生土上之形.<sup>89)</sup>

초목이 땅을 뚫고 자라나는 模様の 상형화한 것이다.

라고 解釋하였다.

金文은 𡗗, 或은 手를 따라 𡗗, 𡗗等 模様の 字形인데 이는 篆文의 字形과 同一하다. 或은 土와 丰을 따라 𡗗과 같은 模様の 字形을 하고 있는 金文도 있는데 이는 籀文 𡗗과 같은 字形임을 알 수 있다.

89)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240.

《古尚書》에서는 𠄎, 《汗簡》에서는 이를 收錄하여 𠄎와 같은 字形인데 이는 籀文 𠄎과 同一한 字形이므로 이 籀文이 실은 古文이 아닐까 疑心이 된다. 아울러 古文 𠄎은 金文과 같은 初期의 古文으로 確認 할 수 있다.

(10) 卷十三下 土部 坐: 篆文作 𠄎, 古文作 𠄎.

“坐”자의 甲骨文은 𠄎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두 사람이 “示”를 마주하고 앉은 形象이다.

《古孝經》은 𠄎, 《古老子》은 𠄎, 《汗簡》은 𠄎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모두 古文 𠄎와 같다.

《睡虎地秦簡》은 𠄎, 𠄎 等 模様の 字形인데 이것은 篆文 𠄎과 같은 字形임을 알 수 있다. 卽 篆文은 곧 秦文이라는 것을 알려 준다.

馬敘倫이 “坐”자를 解釋하기를:

倉頡急就古書蓋皆作 𠄎. 90)

《倉頡》, 《急就》等 옛 자서에서는 모두 𠄎같은 字形이다.

라고 하였다. 卽 秦篆에서는 卯를 따르는 글자로 訛傳되었던 것이다.

古文 𠄎는 甲骨文 𠄎, 《古孝經》은 𠄎 等과 同一한 字形이므로 古文으로 確認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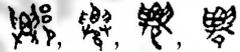
(11) 卷二上 𠄎部 嚴: 篆文作 嚴, 古文作 嚴.

“嚴”자의 金文은 嚴, 嚴, 嚴 等 여러 模様の 字形이다.

9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卷二十七, 臺灣, 鼎文書局, 民國64, 李 圃: 《古文字詁林》卷十, 上海教育出版社, 2000, p779.

《石經》의 “嚴”자는  과 같은데 金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石經》의 古文을 살펴보면 입 “口”자는 모두 逆三角形  와 같은 模樣을 하고 있다. 古文의 重要的 特徵 중의 하나가 바로 “口”자는 모두 逆三角形  模樣인 것이다.<sup>91)</sup> 이로부터 우리는  이 古文임을 確定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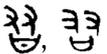
(12) 卷三上 鼻部 鼻: 篆文作, 古文作, 鼻或從口.

“鼻”자의 金文은  等 模樣의 字形을 하고 있다.

《侯馬盟書》는 ; 《睡虎地秦簡》은 ; 《古璽》는  等 模樣으로 모두 小篆과 或體와 同一한 字形이다.

《石經》의 “鼻”자는  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에서는  를 遷자의 重文으로 여기고 있다.”<sup>92)</sup> 따라서 古文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3) 卷三下 又部 友: 篆文從二又作, 古文作, .

“友”자의 甲骨文은  와 같은 模樣으로 “雙又”자로 構成되었다. 金文은 甲骨文과 마찬가지로  와 같은 字形이 있는가 하면 “日” 혹은 “口”를 더하여  等 模樣의 字形도 있다.

《侯馬盟書》는 ; 《古陶文》은 ; 《睡虎地秦簡》은 ; 《漢印》은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며 《石經》은 ,  와 같은데 모두 甲, 金文과 비교하여 볼 때 多少 傳寫 中の 誤謬가 있지만 큰 틀은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1983.  
92)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23.

(14) 卷十四下 辰部 辰: 篆文作, 古文作.

“辰”자의 甲骨文은  等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等 模樣의 字形이다.

甲骨文의 字形에 對하여 學者들은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 있다.

商承祚曰: 甲骨文 等字形, 象以手振巖石, 乃振之初文.

唐桂馨曰: 辰, 臥具也.

馮式權曰: 耨具也.

裘錫圭曰: 清草木農具也.

徐中舒曰: 商代以蜃殼爲鎌卽蚌鎌. 辰之本意爲蚌鎌.<sup>93)</sup>

商承祚는 “甲骨文의  等 字形은 마치도 손으로 巖石을 두드리는 模樣으로 “振”자의 初文이다.”라고 하였다. 唐桂馨은 “辰은 침구이다.”라고 解釋하였으며 裘錫圭는 “제초용 농기구다.”라고 解釋하였다. 徐中舒는 “商나라 시기에 蜃殼(무명조개껍데기)으로 낫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곧 蚌鎌(망겉: 망합낫)이라고 한다. 고로 “辰”자의 본의는 蚌鎌이다.

辰자의 《古陶文》은 , 《先秦貨幣》는 ; 《睡虎地秦簡》은 , 《漢印》은 과 같다.

《古尚書》는 , 《汗簡》은 , , 《石經》은  等 模樣을 하고 있는데 甲骨文과 金文과 대체로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때문에 《說文》의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5) 卷十四下 卯部 卯: 篆文象開門之形作, 古文作.

“卯”자의 甲骨文은 ; 金文은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9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p1121~1127.

《古陶文》은 , 《先秦貨幣》은 , 《侯馬盟書》은 ; 《睡虎地秦簡》은 , 《古璽文》은 , 《漢印》은  등과 같은 模樣으로 모두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包山楚簡》은 , ; 《汗簡》은 , 《石經》은  등과 같은 模樣으로 古文  와 同一한 字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6) 卷十四下 子部 子: 篆文作, 古文作, 籀文臂脛在几上作.

“子”자의 甲骨文은 , , , , ,  등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  등 模樣의 字形으로 甲骨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古陶文》은 , 《先秦貨幣》은 ; 《包山楚簡》은 ; 《睡虎地秦簡》은  와 같은 字形이다.

《石經》은  와 같은 模樣으로 모두 篆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古孝經》은 , 《古老子》는 ; 《古尚書》는  등 模樣으로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古尚書》는 또  와 같은 字形이 있으며 《汗簡》에는 , ,  등 여러 模樣의 “子”자를 收錄하였는데 이는 모두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7) 卷十四下 戊部 成: 篆文從戊丁聲作, 古文成從午作.

“成”자의 甲骨文은 , , ; 金文은 ,  등 模樣이다.

《古孝經》은 , 《古老子》는 ; 《汗簡》은 , , 《石經》은  등과

같은 모양으로 모두 古文 成과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成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馬叙倫은 말하기를:

沈兒鐘成字作成, 故訛作從午成. 94)

《沈兒鐘》에서 “成”자는 成과 같은 字形인데 訛傳되어 午를 따르는 字形으로 變化되었다.

라고 解釋하였다. 이와 같은 解釋은 아마도 金文에 의거하여 解釋한 것으로 甲骨文의 𠄎, 𠄎과 같은 “口”를 따르는 字形을 보지 못한 것으로 理解된다.

(18) 卷十三上 糸部 彝: 篆文作彝, 古文作彝, 亦作彝.

“彝”자의 甲骨文은 彝, 彝, 彝, 金文은 彝, 彝, 彝, 彝 등 模様の 字形이다.

商承祚는 甲骨文의 字形을 分析하여 말하기를:

皆象兩手奉鷄形. 95)

모두 양손에 닭을 들고 있는 形象이다.

라고 하였다.

《汗簡》은 彝, 彝, 彝, 《石經》은 彝 등 模樣으로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따라서 《說文》의 古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周禮》에는 “六彝에는 雞彝, 鳥彝, 黃彝, 虎彝, 蟲彝, 罍彝가 있는데 모두 降神祭(강신제, 내림굿)를 지낼 때의 禮이다.”96)라는 記錄이 있다.

94) 馬叙倫: 《說文解字六書疏證》, 卷二十八,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987.

95) 商承祚: 《甲骨文字研究》, 下篇;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第九卷, 2000, p1265.

96) 《周禮》: “六彝: 雞彝, 鳥彝, 黃彝, 虎彝, 蟲彝, 罍彝. 以待裸將之禮.”

(19) 卷十三上 糸部 緇: 篆文作緇, 古文作緇, 籀文作緇.

“緇”자의 《汗簡》은 , 《石經》은 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同一한 字形  
이므로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古文 에 對하여 商承祚와 馬敘倫은 다음과 같이 解釋하고 있다.

商承祚: “玉篇入絲部, 不以爲古文. 此糸之古文當作.

馬敘倫: “方言. 緇, 自關以東周洛韓魏之間謂之綆, 或謂之硤. 關西謂之緇. 97)

《玉篇》에서는 를 絲部에 귀속시켰고 古文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있다. 糸의 古文은  
응당 와 같은 模樣이어야 한다.”라고 解釋하였다. 馬敘倫은 “《方言》에 따르면 關東의  
周·洛·韓·魏 等 지역에서는 “緇”을 “綆” 혹은 “硤”이라고 일컫는다. 關西 지역에서는 “緇”  
이라고 한다.

(20) 卷十二上 西部 西: 古文作, 籀文作

“西”자의 甲骨文은 , , , ; 金文은 ,  等 模樣의 字形으로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古陶文》은 , ; 《先秦貨幣》는 ,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侯馬盟書》는 , 《包山楚簡》는 , ; 《睡虎地秦簡》은 , 《古璽  
》는 ,  等 模樣으로 金文 와 같은 脈絡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漢印》은 , ,  等 模樣으로 짧은 直線을 긴 曲線으로 誇張하여 만든  
漢篆의 特有한 字形을 갖추고 있다.

《汗簡》은 , 《石經》은  等 模樣의 字形으로 古文 와 같다. 때문에 

97) 商承祚: 《甲骨文字研究》, 下篇;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卷二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第9卷, 2000, p1236.

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1) 卷十二上 至部 至: 篆文作, 古文作.

至자의 甲骨文은 , ; 金文은  等 模樣으로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金文에는 또  等 模樣의 字形이 있는데 이는 古文의 字形과 同一하다.

《古孝經》은 , 《汗簡》은 , 《石經》은  等 模樣으로 모두 역시 古文과 同一한 字形임을 알 수 있다. 때문에 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2) 卷十下 心部 惠: 小篆從直從心作, 古文.

惠자의 金文은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包山楚簡》은 , 《汗簡》은 , 《石經》은  等 模樣으로 金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說文》의 古文과 같다. 때문에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3) 卷六下 巾部 師: 篆文從巾從自作, 古文作.

師자의 甲骨文은 , ; 金文은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孝經》은 , 《道德經》은 ; 《古尚書》은 , 《汗簡》은 , , ; 《石經》은  等 模樣으로 《說文》의 古文의 字形과 大同小異하다. 때문에 《說文》의 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4) 卷十三下 土部 毀: 篆文作, 古文作.

毀자의 金文은 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 《古孝經》은  등 模樣으로 모두 “壬”을 따르고 있으며 古文 과 同一한 字形임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25)卷十二上 門部 閒: 篆文作, 古文作.

金文은 , 《古幣文》은 , 《古璽文》은 ,  등 模樣으로 모두 古文 과 近접한 字形이다. 馬敘倫은 古文 의 𠂔에 對하여 말하기를:

古文之𠂔, “當是外字, 外卽月弦字, 故閒從之得聲. 98)

고문의 𠂔는 “外”자여야 마땅하다. “外”는 月弦을 뜻하는 글자이므로, “閒”은 그 글자에서 소리를 얻었다

라고 解釋하였다. 때문에 이 글자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上述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글자들 외에 《汗簡》에서 古文經書를 引用하였고, 《汗簡》과 《說文》의 古文이 일치하는 글자는 또 다음과 같다:

卷一上 一部 一, 卷一上 示部 示;  
卷一上 玉部 玉, 卷一下 艸部 荊;  
卷一上 示部 紫, 卷一上 示部 社;  
卷一上 玉部 璿, 卷一上 玉部 玕;  
卷一上 玉部 瑁, 卷一下 艸部 蕢;  
卷二上 采部 采, 卷五上 竹部 籛;  
卷二上 采部 悉, 卷二上 口部 君;  
卷二上 走部 起, 卷二下 辵部 造;  
卷二下 辵部 速, 卷二下 辵部 徙;

98)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卷二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542, 再引用.

卷二下 辵部 遷, 卷二下 辵部 逖;  
卷二下 辵部 道, 卷二下 彳部 往;  
卷二下 冊部 冊, 卷二上 口部 吝;  
卷三上 言部 謨, 卷三上 言部 詩;  
卷三上 言部 謀, 卷三上 収部 兵;  
卷三上 共部 共, 卷三上 白部 要;  
卷三上 晨部 農, 卷三上 犇部 業;  
卷三下 支部 徹, 卷四下 歹部 殂;  
卷三下 卜部 卜, 卷三下 卜部 𠄎;  
卷三下 用部 用, 卷四上 目部 目;  
卷四下 刀部 利, 卷四下 角部 衡;  
卷三下 革部 鞭, 卷三下 又部 尹;  
卷三下 支部 支, 卷三下 聿部 肅;  
卷三下 殺部 殺, 卷三下 皮部 皮;  
卷四上 目部 睦, 卷四上 自部 自;  
卷四下 夷部 惠, 卷四下 玄部 玄;  
卷四下 歹部 殪, 卷四下 刀部 則;  
卷四下 刀部 剛, 卷四下 刀部 制;  
卷五上 竹部 簋, 卷五上 竹部 簠;  
卷五上 箕部 箕, 卷五下 皀部 厚;  
卷五下 皀部 覃, 卷七上 月部 霸;  
卷五下 富部 良, 卷五下 尙部 曷;  
卷五下 舛部 舞, 卷五下 舜部 舜;  
卷五上 丌部 典, 卷五上 甘部 甚;  
卷五上 豐部 豐, 卷五上 虍部 虐;  
卷五下 食部 養, 卷五下 矢部 侯;  
卷六下 口部 困, 卷六下 貝部 賓;  
卷六下 貝部 貧, 卷六下 邑部 邦;  
卷六下 邑部 岐, 卷七上 冫部 游;  
卷七上 月部 期, 卷七上 夕部 夙;  
卷七上 禾部 稷, 卷七上 米部 粒;  
卷七下 宀部 宄, 卷八上 衣部 表;  
卷七下 网部 网, 卷七下 人部 仁;

卷七上 囧部 盥, 卷九下 广部 廡;  
 卷八下 舟部 服, 卷八下 見部 視;  
 卷八下 歛部 歛, 卷八上 伙部 息;  
 卷九下 石部 礪, 卷九上 髟部 髮;  
 卷八上 人部 備, 卷八上 人部 侮;  
 卷八上 匕部 眞, 卷八上 比部 比;  
 卷九上 鬼部 鬼, 卷九下 山部 嶽;  
 卷九下 長部 長, 卷十上 馬部 馬;  
 卷十上 火部 光, 卷十下 赤部 赤;  
 卷十下 夊部 吳, 卷十下 心部 懣;  
 卷十下 夊部 奏, 卷十下 心部 懼;  
 卷十下 心部 悟, 卷十下 心部 怨;  
 卷十下 心部 患, 卷十下 心部 恐;  
 卷十一上 水部 湊, 卷十一上 水部 漾;  
 卷十一下 谷部 容, 卷十一下 欠部 冬;  
 卷十一下 雨部 霽, 卷十一下 雲部 雲;  
 卷十一上 水部 漢, 卷十一上 水部 淵;  
 卷十一上 水部 湛, 卷十一上 水部 沫;  
 卷十一下 川部 州, 卷十二上 門部 闕;  
 卷十三上 虫部 蚘, 卷十三下 二部 恒;  
 卷十二上 戶部 戶, 卷十二上 臣部 阨;  
 卷十二上 手部 撫, 卷十二下 女部 奴;  
 卷十二下 女部 婁, 卷十二下 民部 民;  
 卷十二下 我部 我, 卷十二下 乚部 直;  
 卷十二下 曲部 曲, 卷十二下 留部 留;  
 卷十二下 弌部 弌, 卷十三下 里部 野;  
 卷十三下 力部 動, 卷十三上 糸部 絕;  
 卷十三上 糸部 續, 卷十三上 糸部 終;  
 卷十三下 土部 堂, 卷十三下 土部 坐;  
 卷十三下 土部 封, 卷十四上 金部 鐵;  
 卷十四上 斤部 斷, 卷十四下 冫部 阜;  
 卷十四下 辛部 辜, 卷十四下 寅部 寅.

이상 148개의 《說文》의 古文이 《汗簡》의 古文과 同一한데 73차례의 《古

尙書》, 50차례의 《古老子》, 41차례의 《古孝經》, 8차례의 《古史記》, 2차례의 《古論語》, 한차례의 《古爾雅》, 《古周易》, 《古周禮》을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다.

## 2-1-2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古文

《說文》에서 비록 古文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거나 疑心이 되는 古文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2-1-2-1 後世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되는 古文

許慎 以後의 《說文》學者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되는 古文이 있다. 《說文》學者들은 古文과 籀文을 연구함에 있어서 선뜻 “아니다”라는 否定語를 使用한 것이 아니라 “疑心 된다”는 表現을 使用하였다. 筆者도 先行研究의 土臺 위에 古文으로 確定이 不可한 文字를 “後世사람에 依하여 添加된 글자(疑後人增者)”로 分類하여 보았다.

(1) 卷八上 𠂔部 𠂔: 𠂔衆詞與也. 從禾自聲. 《虞書》曰: “𠂔咎繇.” 其冀切. 𠂔古文.

商承祚와 馬敘倫은 古文 𠂔이 《玉篇》과 《廣韻》에도 없는 글자이므로 後世 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으로 疑心이 된다고 解釋하였다.<sup>99)</sup> 이 글자의 古文字 資料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는 狀況이다.

(2) 卷九下 象部 豫: 篆文作𠂔, 古文作𠂔.

99)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七, 2000, p520, 再引用.

《古陶文》은 𠄎, 《包山楚簡》은 𠄎, 《漢印》은 𠄎 等 模樣으로 모두 “予”와 “象”을 따르는 字形이다. “壁中書”로 알려지고 있는 《古老子》는 𠄎, 《古尙書》는 𠄎와 같은 模樣으로 上下結構의 字形이며 《汗簡》 역시 𠄎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고 있는데 모두 古文과 다르다. 때문에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글자로 疑心이 된다.

(3) 卷四下 肉部 肯: 篆文作 𠄎, 古文作 𠄎.

“肯”자의 甲骨文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金文은 𠄎, 𠄎와 같은 模樣이고; 《睡虎地秦簡》은 𠄎; 《古璽文》은 𠄎, 𠄎, 𠄎; 《古尙書》는 𠄎, 《汗簡》은 𠄎 等 模樣으로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지만 古文과는 다르므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글자로 疑心이 된다.

(4) 卷二下 辵部 速: 篆文從辵束作 𠄎, 古文作 𠄎, 籀文作 𠄎.

速자의 金文은 𠄎와 같은 模樣이며 《古陶文》은 𠄎; 《漢印》은 𠄎와 같다.

《古史記》는 𠄎, 《汗簡》은 𠄎 等 模樣으로 모두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며 古文과 같은 字形은 찾아 볼 수 없다.

商承祚는 이에 對하여

古文 𠄎, 案此當是徵召之專字, 作速者假借字也. 100)

古文 𠄎은 마땅히 오로지 “徵召”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로 “速”자로 가차되어 쓰인 것이다.”

라고 解釋하였다. 하지만 信憑성이 없는 解釋으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

100)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七, 2000, p351.

어진 글자로 疑心이 된다.

上述한바와 같은 境遇의 글자는 모두 28개인데 列舉하면 아래와 같다:

卷一上 丨部 中, 卷二上 口部 周;  
卷二上 口部 吝 卷二上 口部 舌;  
卷二上 口部 台, 卷二下 辵部 速;  
卷二下 辵部 近 卷二下 辵部 邇;  
卷三上 収部 弁, 卷四上 目部 省;  
卷四下 肉部 臍 卷四下 肉部 肱;  
卷四下 肉部 肯, 卷五上 竹部 籃;  
卷五上 鼓部 磬, 卷五上 虎部 虎;  
卷五下 門部 門, 卷六上 木部 李;  
卷七下 人部 企, 卷八上 匕部 卓;  
卷八上 亼部 泉, 卷八下 欠部 次;  
卷九下 石部 礪, 卷九下 石部 礪;  
卷九下 帛部 帛, 卷九下 象部 豫;  
卷十上 火部 栽 卷十一上 水部 沈.

## 2-1-2-2 出處가 不透明한 古文

《說文》의 古文이 《汗簡》, 《石經》 등과 같은 經書의 古文과 다르게 出處가 不透明할 境遇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다.

(1) 卷十四下 阜部 陳: 篆文從阜從木, 申聲作陳, 古文作陳.

金文은 “阜”와 “東”, “土”를 따라서 陳, 陳, 陳 等 模樣이며 《古陶文》은 陳, 陳, 《先秦貨幣》는 陳, 陳; 《古璽》는 陳, 陳 等으로 모두 金文과 同一한 字

形이다. “肱”과 “東”을 따르는 글자는 《睡虎地秦簡》 陳과 《漢印》 謙인데 이것은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篆文이 秦漢시기의 文字라는 것이다.

《古孝經》은 陳, 《古老子》는 陳과 같이 金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古尚書》 敍은 “東”과 “支”를 따르는 字形인데 “支”는 “肱”가 잘못 쓰인 것 같다. 《汗簡》은 敍, 陳, 陳, 陳 等 模樣의 古文字를 널리 수집하였는데, 그 중 陳, 陳 等 模樣은 사실 東 혹은 東의 變形으로 간주된다. 《說文》의 古文은 또 이에 根據하여 陳과 같은 字形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 陳은 陳의 古文이다. 이와 같이 誤謬에 誤謬를 거듭하게 된 것은 後世사람들이 陳과 같은 初文을 보지 못하고 나름대로 만들어 넣은 탓이다.

(2) 卷十三下 土部 壞: 篆文從土衷聲作壞, 古文省作社, 籀文作敍.

《睡虎地秦簡》은 壞와 같은 模樣인데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은 社와 같이 左右 部首의 位置가 바뀌었는데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에는 또 社와 같은 字形이 收錄되어 있다.

馬敘倫은 籀文 敍에 對하여 “徐鉉은 “支部에 敍자가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出現하였다.”라고 하였으며 鈕樹玉은 “대개 後世사람들에 의해 전해져 내려오면서 添加된 것이다.”라고 解釋하였다. 내가 보기에 支部에 본래 敍자가 없다.”<sup>101)</sup>라고 解釋하였다.

上述한바와 같은 글자는 모두 27개인데 列舉하면 아래와 같다:

10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82, 再引用.

卷二下 彳部 御, 卷四下 肉部 膾;  
 卷四下 肉部 腴, 卷四下 肉部 肯;  
 卷五上 乃部 乃, 卷七下 宀部 寶;  
 卷八上 壬部 徵, 卷八上 裘部 裘;  
 卷八下 欠部 次, 卷九上 色部 色;  
 卷九上 苟部 苟, 卷九下 广部 廟;  
 卷九下 石部 礪, 卷九下 豕部 豕;  
 卷九下 帛部 帛, 卷九下 象部 豫;  
 卷十上 犬部 狂, 卷十下 囟部 囟;  
 卷十一上 水部 津, 卷十一下 川部 汜;  
 卷十一下 雨部 雨, 卷十二上 手部 握;  
 卷十三下 土部 堊, 卷十三下 土部 壤;  
 卷十三下 力部 勳, 卷十四上 金部 鈞;  
 卷十四下 自部 陳.

上述한 古文외에 또 《汗簡》의 古文과 《說文》의 古文이 同一하지만, 《汗簡》의 唯一한 出處가 《說文》일 境遇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卷十四下 酉部 醬: 篆文從肉從酉作𩚑, 古文省肉作𩚒, 籀文從皿作𩚓.

金文은 𩚑, 《古陶文》은 𩚒, 《包山楚簡》은 𩚓와 같은 模樣으로 모두 “肉”을 따르는 字形이 아니며 또 “皿”을 따르는 字形도 아니며 古文 𩚒와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은 《說文》의 古文 𩚒을 收錄하고 있다.

《睡虎地秦簡》은 “肉”과 “酉”를 따라서 𩚑과 같고, 《漢印》 역시 𩚑와 같은 模樣으로 小篆 𩚑과 같은 字形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篆文이 秦漢시기의 文字라는 것이다.

籀文 𩚑처럼 “𩚑”을 따르는 字形은 古文字 資料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 籀文의 “𩚑”은 “酉”의 잘못된 變形이며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2) 卷十四下 酉部 酉: 篆文作酉, 古文從卯作𩚑.

“酉”자의 甲骨文은 𩚑, 𩚒, 𩚓, 𩚔 등 模樣이고; 金文은 𩚕, 𩚖, 𩚗, 𩚘 등 模樣으로 모두 小篆 酉과 같은 脈絡의 字形이다.

《古陶文》은 𩚙, 《包山楚簡》은 𩚚; 《睡虎地秦簡》은 𩚛, 《古璽》은 𩚜; 《漢印》은 𩚝, 《石經》은 𩚞 등 模樣으로 모두 小篆과 같은 字形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卯”를 따라 𩚑와 같은 模樣을 한 文字가 아니다.

《汗簡》에는 𩚟, 𩚠와 같은 古文이 收錄되어 있는데 出處를 《說文》이라고 밝혔다. 馬敘倫은

說文疑曰, 𩚟乃古之酒字. 至卯酉之酉, 本別有𩚠字.”<sup>102)</sup>

《說文》에서 𩚟를 酒의 古文字로 疑心하고 있지만, “卯酉”의 “酉”자는 본래 𩚠와 같은 다른 글자가 있다.

라고 하였으며 郭沫若, 李杲曰<sup>103)</sup>은 이 古文은 “반드시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이라고 하였다. 아마도 古文 𩚑는 酉가 訛傳된 글자로 推定된다.

《說文》에 이와 같은 글자는 총 49개가 있는데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

卷一上 丨部 中, 卷三上 言部 訟;  
卷三上 美部 僕, 卷三下 又部 段;

102)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155, 再引用.

10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155: 郭沫若, 李杲曰: “此古文必後人妄增.”

卷三下 殳部 役, 卷四上 目部 省;  
 卷四上 佳部 稚, 卷四上 羊部 羌;  
 卷四上 鳥部 鳳, 卷四下 華部 弃;  
 卷四下 夷部 夷, 卷四下 步部 步;  
 卷四下 肉部 脣, 卷五上 丌部 巽;  
 卷五上 工部 巨, 卷五下 青部 青;  
 卷五下 井部 阱, 卷五下 食部 飽;  
 卷五下 夂部 夏, 卷六上 木部 某;  
 卷六上 木部 柙, 卷七上 晶部 星;  
 卷七上 多部 多, 卷七上 米部 糴;  
 卷七下 宀部 宐, 卷七下 巾部 帷;  
 卷七下 巾部 席, 卷八上 衣部 裔;  
 卷八上 衣部 衰, 卷八上 尸部 屋;  
 卷八下 履部 履, 卷八下 舟部 般;  
 卷九下 石部 磬, 卷十上 熊部 羆;  
 卷十上 火部 煙, 卷十上 火部 熾;  
 卷十下 囟部 囟, 卷十一下 冫部 冫;  
 卷十二下 琴部 瑟, 卷十三上 糸部 紹;  
 卷十三上 糸部 綱, 卷十三下 董部 董;  
 卷十三下 董部 艱, 卷十三下 力部 勞;  
 卷十四上 金部 金, 卷十四上 矛部 矛;  
 卷十四下 申部 申, 卷十四下 酉部 酉;  
 卷十四下 酉部 醬.

### 2-1-2-3 其他

上述한바와 같이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글자”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글자”외에도 重複되어 收錄되었거나 假借나 轉注되어 쓰인 古文도 있다.

- (1) 卷十四下 子部 孟: 篆文從子皿聲作, 古文作.

金文은 𠄎, 𠄏, 𠄐, 𠄑, 《古陶文》은 𠄒; 《侯馬盟書》는 𠄓, 《睡虎地秦簡》은 𠄔; 《古璽文》는 𠄕, 《漢印》은 𠄖 等 模樣으로 모두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그러나 古文 𠄗와 같은 字形은 찾아 볼 수 없으며 “保”자의 古文이 𠄗와 같음을 알 수 있으며 “孟”자의 古文으로 重複되어 收錄된 것으로 생각된다.

(2) 卷十三下 蟲部 蠱: 篆文作 𧈧, 古文從虫從牟作 𧈩.

古文 𧈩는 虫部에 있는 “꽃게 蚌”자와 같은 字形이다. 卽 이 곳에 重複되어 收錄되었다.

(3) 卷十三上 糸部 總: 篆文作 𧈪, 古文作 𧈫.

이 글자의 古文字資料는 없다.

馬敘倫과 鈕樹玉이 말하기를:

馬敘倫: 古文 𧈫 卽 細之異文. 古文經傳以爲總耳.

고문 𧈫는 “細”자의 異體字이다. 고문경서에서는 “總”자로 쓰이고 있다.

鈕樹玉: 𧈫 玉篇廣韻并無, 當云從思省. 細之異文.

𧈫는 《玉篇》이나 《廣韻》에도 없는 글자이다. 이 글자는 마땅히 “思”가 생략된 것으로 解釋하여야 하며 “細”자의 異體字이다.

라고 하였다. 參考로 總자를 《古文四聲韻》은 𧈬, 《王存父切韻》은 𧈭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고 있다.

(4) 卷十四下 酉部 醬: 篆文從肉從酉作𩚑, 古文省肉作𩚒, 籀文從皿作𩚓.

金文은 𩚑, <古陶文>은 𩚒, <包山楚簡>은 𩚒와 같은 模樣으로 모두 “肉”을 따르는 字形이 아니며 또 “皿”을 따르는 字形도 아니며 古文 𩚒와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은 <說文>의 古文 𩚒을 收錄하고 있다. <睡虎地秦簡>은 “肉”과 “酉”를 따라서 𩚑과 같고, <漢印> 역시 𩚒와 같은 模樣으로 小篆 𩚑과 같은 字形이다. 이로부터 篆文이 秦漢시기의 文字라는 것이다.

籀文 𩚓처럼 “皿”을 따르는 字形은 古文字 資料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이 籀文의 “皿”은 “酉”의 잘못된 變形이며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여겨진다.

(5) 卷二上 口部 咳: 𠵽, 小兒笑也. 從口, 亥聲. 𠵿, 古文咳從子. 戶來切.

“咳”자 𠵽의 古文 𠵿는 사실 “어린아이 해(孩)”자 이다. 하지만 <說文>에는 “孩”자가 收錄되어 있지 아니하다. <康熙字典·寅集上·子字部·孩>에 따르면 “<廣韻> 戶來切, <集韻>·<韻會>·<正韻>는 何開切, ㄸ亥平聲이다.”라고 解釋하였는데 咳와 孩는 音이 같다는 것을 說明한다.

“口”와 “子”는 서로 通用되는 部首가 아니다. 때문에 𠵽의 古文이 𠵿라는 것은 信憑성이 없다.

<說文·欠部>에 “效” 𠵿가 있는데 “欠”과 “口”는 모두 “입”을 뜻하는 것으로 𠵽와 𠵿는 같은 意味로 쓰이는 서로 異體字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說文>에서 重複되어 收錄하였다고 볼 수 있다.

上述한바와 같이 重複되었거나 假借 혹은 轉注되어 쓰인 글자는 모두 26자인데 다음과 같다.

卷二上 口部 咳, 卷三上 言部 訊;

卷三上 言部 譙, 卷三下 又部 及;  
卷四上 鳥部 烏, 卷四下 奴部 馯;  
卷四下 夕部 殄, 卷五上 喜部 喜;  
卷五下 食部 飪, 卷十下 心部 愆;  
卷六下 口部 回, 卷七下 人部 企;  
卷八上 匕部 卓, 卷八上 壬部 璽;  
卷八下 見部 觀, 卷九下 山部 崩;  
卷十上 馬部 驅, 卷十下 心部 慙;  
卷十一下 雨部 電, 卷十二上 門部 閒;  
卷十三上 糸部 緦, 卷十三下 虫部 蠶;  
卷十三下 蟲部 蠱, 卷十三下 土部 毀;  
卷十四下 子部 孟, 卷十一下 雨部 電.



## 2·2 籀文

筆者의 統計에 따르면 《說文》에서 籀文이라고 밝힌 글자는 모두 235個이다. 古文을 分析한 方法과 같이 아래에 甲骨文, 金文, 《汗簡》, 《石經》 등과 같은 古文字 資料를 利用하여 籀文에 對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 2·2·1 古文으로 確定이 되는 籀文

《說文》에서 비록 籀文이라고 밝혔지만 古文字 資料와 比較 分析한 結果 古文의 特徵과 符合되어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籀文은 다음과 같다.

(54) 卷一上 丨部 中: 篆文中, 古文 中, 籀文 𠄎

“中”의 甲骨文은 𠄎, 𠄎, 𠄎 等 字形이 있는가 하면 또 中, 中와 같은 字形도 있다. 金文은 𠄎, 𠄎, 𠄎, 中 等 字形이 있는데 甲骨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先秦貨幣》은 𠄎, 中, 𠄎 等; 《侯馬盟書》은 𠄎, 中; 《包山楚簡》은 𠄎; 《睡虎地秦簡》은 中; 《古璽》은 𠄎, 中, 中 等 模樣의 字形으로 變化가 크게 없다. 《古孝經》은 𠄎, 《古尙書》은 𠄎 等 字形이다.

또한 《汗簡》은 《古孝經》과 《古尙書》의 字形을 收錄하였는데 籀文 𠄎과 같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5) 卷一下 艸部 折: 篆文 𠄎, 籀文 𠄎

甲骨文은 𠄎(新1565), 金文은 𠄎(洹子孟薑壺) 등과 같은 字形이다.

《汗簡》은 𠄎와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金文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고, 籀

文 𠄎과 같은 類型的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 𠄎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6) 卷二上 口部 噎: 小篆 噎, 籀文 𠄎

《先秦貨幣文》은 𠄎, 《侯馬盟書》는 𠄎 등과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같은 字形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君之古文作 𠄎, 唐之古文作 𠄎, 台之古文作 𠄎, 其口旁皆作 ▽ 形. 吳之古文作 𠄎, 其口作 ▽ 形, 則 𠄎 從口象頸脈.<sup>104)</sup>

君자의 古文은 𠄎, 唐자의 古文은 𠄎, 台자의 古文은 𠄎인데, 이 글자들이 따르는 口는 모두 역삼각형 ▽의 模樣이다. 吳자의 古文은 𠄎와 같은데 그가 따르는 口는 ▽와 같은데 이는 籀文 𠄎가 따르는 口와 같은데 頸脈의 模樣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先行研究는 古文의 特徵을 잘 分析한 結果이다. 卽 古文에서 口자는 모두 逆三角形 ▽의 模樣이다.

籀文 𠄎의 ▽는 ▽의 變形이다. 때문에 𠄎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7) 卷二下 是部 𠄎: 小篆 𠄎, 籀文 𠄎

金文은 𠄎, 石鼓文은 𠄎, 《睡虎地秦簡》은 𠄎 등으로 모두 𠄎와 止를 따르는 字形으로 籀文 𠄎 보다 하나의 가로획이 적을 뿐이다.

《汗簡》은 《古孝經》의 𠄎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였는데 이는 籀文과 同一하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𠄎爲古文正, 則此疑當爲古文是也.<sup>105)</sup>

104)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一社;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7, 再引用.

𠂔은 고문 正이므로 이 글자는 응당 고문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8) 卷二下 辵部 跡: 小篆 𨇗, 籀文 𨇗

金文은 𨇗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𨇗, 《古老子》는 𨇗, 《石經》은 𨇗, 와 같은 模樣인데 모두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9) 卷二下 辵部 速: 篆文作 𨇗, 籀文作 𨇗

金文은 𨇗, 石鼓文은 𨇗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과 完全히 다른 字形이다.

《史記》은 𨇗, 《汗簡》은 𨇗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이로부터 籀文 𨇗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0) 卷二下 辵部 遲: 篆文作 𨇗, 籀文作 𨇗

甲骨文은 𨇗等과 같은 字形이다. 金文은 𨇗等은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아울러 許慎은 古文經書 《詩經》을 引用하여 遲자를 說明하고 있으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1) 卷三上 冏部 商: 篆文作 𨇗, 籀文作 𨇗

甲骨文은 𨇗, 𨇗, 𨇗; 金文은 𨇗, 𨇗(庚壺), 𨇗(秦公罇) 등 字形이다.

《石經》과 《汗簡》은 𨇗 𨇗와 같은 字形이므로 𨇗(庚壺), 𨇗(秦公罇)과 같은

10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四,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306, 再引用.

며 籀文과도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2) 卷三上 言部 訇: 篆文作<sup>訇</sup>, 籀文作<sup>訇</sup>

金文은 <sup>訇</sup>, <sup>訇</sup> 等 模樣이고 《汗簡》은 <sup>訇</sup>와 같은 模樣으로 金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汗簡》과 籀文이 같은 模樣을 하고 있으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3) 卷三下 臣部 豎: 篆文作<sup>豎</sup>, 籀文作<sup>豎</sup>

《古陶文》은 <sup>豎</sup>, 《侯馬盟書》는 <sup>豎</sup>, <sup>豎</sup>, <sup>豎</sup>, 《包山楚簡》은 <sup>豎</sup> 等이므로 모두  
갓을 따르지 않으며 籀文 <sup>豎</sup>와 같은 結構가 아니다.

《古孝經》에서 臣은 <sup>臣</sup>, 《汗簡》은 <sup>臣</sup>; 《汗簡》에서 豆는 <sup>豆</sup>와 같은 字形으  
로 籀文 <sup>豎</sup>이 따르는 臣과 豆와 同一하다. 이 籀文 <sup>豎</sup>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4) 卷三下 支部 敗: 篆文作<sup>敗</sup>, 籀文作<sup>敗</sup>

甲骨文은 <sup>敗</sup>, <sup>敗</sup>; 金文은 <sup>敗</sup>, <sup>敗</sup>, <sup>敗</sup>와 같은 模樣으로 두 개의 貝를 따르는 字  
形이 大部分이다.

《石經》은 <sup>敗</sup>, 《汗簡》은 <sup>敗</sup>, <sup>敗</sup>와 같은 模樣으로 모두 두 個의 貝를 따른다.

《汗簡》 <sup>敗</sup>의 出處는 《古老子》인데 籀文 <sup>敗</sup>와 完全히 같다.

《包山楚簡》도 <sup>敗</sup>와 같이 두 個의 貝를 따른다. 그러나 《睡虎地秦簡》은  
<sup>敗</sup>와 같이 하나의 貝를 따르고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籀文 <sup>敗</sup>이 두  
개의 貝를 따르고 있으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5) 卷三下 畫部 畫: 篆文作畫, 籀文作畫

金文은 畫와 같다. 聿자의 《古孝經》은 聿와 같다. 聿를 따르는 畫자의 《汗簡》은 畫, 勳와 같고, 畫자의 《汗簡》은 畫와 같은데 모두 籀文 畫이 따르는 聿자와 같은 模樣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6) 卷四下 角部 觴: 篆文作觴, 籀文作觴

《汗簡》은 《古老子》의 古文 觴을 收錄하였는데 이는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7) 卷四下 刀部 則: 篆文作則, 籀文作則

金文은 則, 則, 則, 則等 字形이다.

石鼓文은 則, 《古陶文》은 則, 《侯馬盟書》는 則, 則, 則와 같은 字形이다.

하지만 《古孝經》은 則, 《古老子》는 則等 模樣으로 籀文 則과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8) 卷五上 丌部 巽: 篆文作巽, 籀文作巽, 古文作巽

金文은 巽, 巽等 模樣의 字形이고, 秦簡은 巽와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모두 丌을 따르고 있는데 古文 巽이 따르는 丌과 같다.

《汗簡》은 巽, 巽와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丌를 따르고 있는데 이는 籀文 巽이 따르는 丌와 같다. 이로부터 古文과 籀文이 서로 바뀐 것으로 보이며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9) 卷五上 左部 差: 篆文作 , 籀文作 

金文은 세 가지 字形이 있는데 口를 따르는 , 工을 따르는 , 又를 따르는 와 같은 字形이 있다.

《石經》은  ; 《汗簡》은  ; 《古陶文》은  ; 《包山楚簡》은   等 字形으로 모두 口 혹은 工을 따르고 있다.

篆文 와 籀文 은 前者는 工을 따르고 後者는 二를 따르고 있는 외에 字形이 完全히 같기 때문에 이것으로 籀文이라고 하기에는 억지라는 判斷이 선다. 上述한 古文字 資料로부터 볼 때 籀文이 따르는 二는 口, 工 혹은 又를 省略했거나 訛傳된 것이며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0) 卷五上 日部 昷: 篆文作 , 籀文作 

金文은 日과 爪를 따르는 와 같은 字形이 大部分이다.

《汗簡》은 와 같은 模樣인데 篆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籀文은 篆文과 比較할 때 가로획이 하나 없는데 이것으로 篆文과 籀文을 區別하기에는 무리다. 許愼은 《春秋傳》을 引用하여 이 글자를 解說하고 있기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1) 卷五上 鼓部 鼓: 篆文作 , 籀文作 

甲骨文은  ; 金文은 息를 따르는  (沈兒鼎)와 같은 字形이 있다. 《包山楚簡》은 , 《睡虎地秦簡》은 와 같은데 모두 古를 따르지 아니한다. 籀文이 古를 따르는 것은 와 같은 金文이 訛傳된 것이다.

《汗簡》은 籀文 처럼 古를 따라 와 같은 字形인데 結構가 上下結構로 바뀌었을 뿐이다. 또 이 글자를 解說할 때 許愼은 經書를 引用하고 있는데 이 籀文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2) 卷六上 木部 樹: 篆文作 樹, 籀文作 樹.

甲骨文은 𣎵, 𣎶, 𣎷 等 字形이 있으며 石鼓文은 樹와 같이 甲骨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汗簡》은 《古尚書》의 樹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고 있는데 이는 籀文과 同一하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3) 卷六下 員部 員: 篆文作 員, 籀文作 員.

甲骨文은 𠄎, 𠄏, 金文은 員, 員 等 模樣이다.

《汗簡》은 員, 石鼓文은 員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 員과 同一한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員와 같은 模樣으로 小篆과 同一한 字形이다. 이로부터 볼 때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4) 卷七上 日部 昌: 篆文作 昌, 籀文作 昌.

金文은 昌, 昌, 昌 等 模樣의 字形이다.

《汗簡》은 昌, 昌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文의 特徵으로 볼 때 口는 모두 역삼각형 昌 模樣이다. 또 이 글자는 《詩》를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으니 籀文이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5) 卷七上 日部 昔: 篆文作 昔, 籀文作 昔.

甲骨文은 昔, 昔 等, 金文은 昔, 昔 等 字形이 있다.

《汗簡》은 《古老子》의 文字를 收錄하여 𣎵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6) 卷七上 禾部 秦: 篆文作 𣎵, 籀文作 𣎵.

甲骨文은 𣎵와 같이 秝를 따르고 있으며 金文도 마찬가지로 秝를 따라 𣎵와 같은 字形을 하고 있다.

《汗簡》, 《石經》, 《包山楚簡》도 모두 秝를 따라 𣎵, 𣎵, 𣎵等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禾를 따라 𣎵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篆文과 同一하다. 上述한 分析으로 볼 때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7) 卷七下 宀部 寢: 篆文作 寢, 籀文作 寢.

甲骨文은 寢, 金文도 같은 字形이다.

《汗簡》은 寢와 같은데 이는 籀文과 同一한 字形인데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8) 卷七下 疒部 疾: 篆文作 疾, 籀文作 疾, 古文作 疾.

甲骨文은 疾, 疾; 金文은 疾, 疾等 模樣으로 甲骨文과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古陶文》, 《先秦貨幣》, 《侯馬盟書》, 《包山楚簡》, 《睡虎地秦簡》은 모두 疒과 矢를 따라 疾와 같은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當作古文. 四篇 𣎵之古文作 𣎵, 爲傳寫之訛.<sup>106)</sup>

106)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十四, 1983;  
李 圃: 《古文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七, 2000, p19, 再引用.

籀文은 마땅히 古文이어야 한다. 四篇의 𦉳의 古文이 𦉳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傳寫과정에서 그릇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9) 卷七下 網部 網: 篆文作, 籀文作, 古文作.

甲骨文은 , 金文은 , 《睡虎地秦簡》은  등과 같은 字形이다.

《汗簡》作, , 《石經》은 와 같다. 華嶽碑는 와 같은데 이는 籀文 , 《汗簡》의 와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0) 卷十上 馬部 馬: 篆文作, 籀文作, 古文作.

甲骨文은 , , 金文은 ,  등 字形으로 모두 말(馬)의 模樣을 본뜬 象形字이다.

《汗簡》은 《道德經》의 를 收錄하였는데 이는 古文과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며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馬敍倫이 말하기를:

籀文與古文同體.<sup>107)</sup>

주문과 고문은 同一한 서체이다.

라고 하였다.

古文 과 籀文 은 區別하기 힘들며 事實上 같은 書體이다. 다른 點이라면 꼬리 部分의 方向이 조금 다를 뿐인데 그것으로 古文과 籀文을 區別한다는 것은

107) 馬敍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十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455, 再引用.

合理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豕: 豕(古文) 豕(籀文), 豫: 豫(古文); 馬: 馬(古文) 馬(籀文) 등 꼬리部分은 古文이나 籀文이나를 莫論하고 서로 通用되고 있다.

(81) 卷十一下 川部 邕: 篆文作邕, 籀文作邕.

甲骨文은 𠄎, 𠄎, 金文은 邕 等 字形이다.

《汗簡》은 邕와 같은데 出處를 밝히지 않았다.

王國維와 馬敘倫이 말하기를:

毛公鼎籀字作邕, 從邕, 與籀文邕同.<sup>108)</sup>

毛公鼎의 邕(籀)字가 따르는 邕이 籀文 邕과 同一하다.

라고 하였다. 李孝定이 말하기를:

邕乃宮之古文.<sup>109)</sup>

(籀文 邕의) 邕은 宮자의 古文이다.

라고 하였다. 籀文 邕의 邕은 古文 邕의 邕과 同一하다. 때문에 邕은 邕의 古文임을 알 수 있다. 上述한 種種의 結果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籀文 邕은 事實上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2) 卷十一下 兩部 霽: 篆文作霽, 古文作霽, 籀文作霽.

108)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 商務印書館 194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社,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272, 再引用.

109) 李孝定: 《金文詁林讀後記》, 中央研究院曆史語言研究所, 卷十一, 1982;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273, 再引用.

甲骨文은 𩇛, 𩇜 等 模樣의 字形이다; 金文은 𩇛, 𩇜, 𩇝 等 模樣의 字形이며 雨를 따르는 글자는 없다.

《古尚書》는 𩇛, 𩇜, 《古史記》는 𩇛, 《汗簡》은 𩇛, 𩇜, 𩇝, 𩇞 等으로 雨를 따르는 글자도 있고 따르지 아니하는 글자도 있다.

古文은 𩇛, 𩇜처럼 雨를 따르는 글자와 그렇지 아니한 글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로부터 古文이 籀文보다 더 오래된 글자라는 것을 推定할 수 있다. 《包山楚簡》은 𩇛와 같이 “回回”를 省略한 字形이다.

籀文 𩇛이 따르는 𩇛와 𩇜는 모두 古文이다. 卽 籀文 𩇛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3) 卷十二上 西部 西: 篆文作 𩇛, 古文作 𩇛, 籀文作 𩇛.

甲骨文은 𩇛, 𩇜, 𩇝, 𩇞 等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𩇛, 𩇜, 𩇝, 𩇞 等 模樣의 字形으로 같은 脈絡을 잇고 있다.

古文과 籀文은 획 하나로 區分하기에는 무리다. 《侯馬盟書》, 《包山楚簡》은 모두 𩇛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汗簡》은 𩇛와 같은데 이는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石經》은 𩇛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보다 劃이 하나 더 많다. 하지만 《石經》은 典型的인 古文임으로 劃이 하나 더 많고 적은 것으로 古文과 籀文으로 區別되지 아니한다. 이로부터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4) 卷十二上 臣部 臣: 篆文作 𩇛, 古文作 𩇛, 籀文作 𩇛.

金文은 𩇛, 𩇜, 𩇝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郭沫若은 이 金文에 對하여 말하기를:

象重頤而上有須也,<sup>110)</sup>

큰 턱에 난 수염 같다.

라고 解釋하였다.

《古周易》은 𠄎, 《汗簡》은 𠄎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이 따르는 𠄎(首)와 𠄎(臣)은 모두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5) 卷十二下 女部 𡇗: 篆文作 𡇗, 籀文作 𡇗.

金文은 𡇗, 𡇗, 𡇗 等 模樣으로 모두 員(鼎)과 女를 따르고 있다.

《汗簡》은 𡇗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 𡇗과 同一한 字形이다. 員자의 古文은 𡇗(예: 卷十一下, 雨部 賈, 小篆은 賈, 古文은 𡇗)와 같으며 《汗簡》은 𡇗와 같은 字形이다. 女는 《汗簡》과 《古孝經》에서 모두 𡇗와 같은 模樣이다. 이로부터 볼 때 籀文 𡇗이 따르는 員과 女는 모두 古文이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6) 卷十二下 女部 妻: 篆文作 妻, 籀文作 妻.

金文作은 妻, 妻, 妻, 妻 等 字形이다.

《古孝經》은 妻, 《古尙書》는 妻, 《汗簡》은 이를 바탕으로 妻와 같은 模樣인데 籀文 妻와 同一한 字形이다. 籀文이 經書의 古文과 同一한 字形임으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7) 卷十二下 匚部 匚: 篆文作 匚, 籀文作 匚.

110) 郭沫若, 「名字解詁」, 《金文叢考》;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598, 再引用.

甲骨文은 匚, 匚, 匚, 匚 等, 金文은 甲骨文과 完全히 같은 字形도 있고 또 조금 變化된 匚와 같은 字形도 있다.

竹을 따르는 古文字들은 甲骨文과 金文의 匚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면:

簋은 《汗簡》에서 匚; 簋은 金文에서 匚; 簋은 籀文에서 匚; 箕는 古文에서 匚

等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때문에 匚은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汗簡》의 匚는 匚와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 匚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8) 卷十三下 土部 地: 篆文作 埤, 籀文作 墜.

金文은 埤(壺), 《侯馬盟書》은 埤와 같은 字形이다.

《古孝經》은 埤, 《古老子》는 埤, 《古尙書》은 埤, 《汗簡》은 埤 等과 같은 模樣으로 모두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89) 卷十三下 土部 堂: 篆文作 堂, 古文作 堂, 籀文作 堂.

金文은 堂, 堂, 堂 等 字形이다.

《古孝經》은 堂, 《古老子》는 堂, 《古尙書》는 堂, 《汗簡》는 堂 等 模様の 字形이다. 卽 堂은 古文으로 確定이 된다.

籀文 堂이 따르는 部首 土는 위에서 證明하였듯이 確實한 古文의 特徵이다. 아울러 馬敘倫이 말하기를:

《玉篇》尙, 𡇗古文.<sup>111)</sup>

《玉篇》에서는 尙, 𡇗 둘 다 古文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籀文 𡇗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0) 卷十三下 土部 封: 篆文作封, 古文封省作封, 籀文從丰作封.

甲骨文은 𡇗, 𡇗, 𡇗 等 模樣의 字形이다. 商承祚는 이 甲骨文을 解釋하여 말하기를:

象草木妄生土上之形.<sup>112)</sup>

초목이 제멋대로 흙에서 자라나오는 模樣이다.

라고 하였다.

金文은 𡇗, 또 手을 따라 𡇗, 𡇗 等 模樣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는 小篆 封과 비슷한 字形이다; 또 土과 豊을 따라 封와 같은 模樣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이는 籀文 封와 同一한 字形이라고 할 수 있다.

《古尙書》은 封, 《汗簡》은 封와 같은데 이는 籀文 封과 完全히 같은 字形이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1) 卷十三下 堇部 艷: 篆文作艷, 籀文從喜作艷.

甲骨文은 艷, 艷 等 模樣의 字形이다.

金文은 艷, 艷 等 模樣의 字形으로 두 글자가 左右結構가 바뀌었을 뿐이며,

11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六,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19, 再引用.

112) 商承祚(1940), 「說文中之古文考」, 《金陵大學學報》, 第1輯, 第2期;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40, 再引用.

籀文 와 同一한 字形라고 볼 수 있다.

《石經》은  《汗簡》은 와 같다.

馬敘倫과 沈濤語은 이 籀文에 對하여 解釋하기를:

《汗簡》引演說文艱字作, 倫按當作. 爲董之古文.<sup>113)</sup>

《汗簡》에서는 說文의 艱자를 引用하여 와 같이 하였는데 나의 생각에는 마땅히 와 같은 模樣으로 되어야 한다. 은 董의 古文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籀文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2) 卷十四下 自部 陸: 小篆從自從叁作, 籀文從自從三尢()作.

甲骨文은 自와 二尢를 따라 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며, 金文 역시 ,  등 혹은 두 개의 自를 따라 와 같은 模樣의 字形도 있다.

《古陶文》은 土를 따라  등 模樣의 字形이며, 《睡虎地秦簡》은 , 《漢印》은  등 模樣의 字形으로 모두 土를 따르는데 이는 秦漢시기의 文字의 特徵이다.

《古老子》는 , 《古尙書》는 , 《汗簡》은 ,  등 字形이다.

篆文 은 秦漢시기의 文字자이며 籀文은 《古老子》의 字形과 같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3) 卷十四下 自部 陴: 小篆從自卑聲作, 籀文陴從臺作.

甲骨文은 臺를 따라 , , ,  등 模樣의 字形이다. 따라서 籀文 은 甲骨文에서 變化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13)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317, 再引用.

《汗簡》은 𠄎를 따르는 𠄎와 같은 字形이다.

《說文·土部》의 古文은 多數가 𠄎와 같은 古文의 特徵이 뚜렷한 部首를 따르고 있다. 아울러 籀文이 따르는 𠄎(𠄎)와 𠄎(𠄎)는 모두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4) 卷十四下 四部 四: 小篆象四分之形作 𠄎, 古文作 𠄎, 籀文作 𠄎.

甲骨文은 모두 네 個의 가로획 𠄎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며 金文도 마찬가지로 𠄎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고, 또 𠄎, 𠄎, 𠄎, 𠄎 등과 같은 字形도 있다.

《包山楚簡》은 𠄎, 𠄎; 《先秦貨幣》는 𠄎, 𠄎, 𠄎, 𠄎 등; 《天台經》은 𠄎 등과 같은 字形이다.

《古孝經》은 𠄎; 《汗簡》은 𠄎, 𠄎 등과 같은 字形이다.

石鼓文作 𠄎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一般的으로 石鼓文을 大篆의 代表作이라고 하는데, 石鼓文의 𠄎는 籀文 𠄎와 다른 模樣의 字形이다.

高田忠周는 이 籀文에 對하여 말하기를:

𠄎, 蓋最古之文, 非籀公始制 𠄎字也.<sup>114)</sup>

籀文 𠄎은 아마도 아주 오래된 古文으로 推定이 되며 籀公이 만든 글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라고 解釋하였다.

上記와 같은 分析으로 미루어 보아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5) 卷十四下 辛部 辭: 小篆從鬲 從辛作 𠄎, 籀文從鬲 從司作 𠄎.

114) 高田忠周: 《古籀篇》, 卷十九: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853, 再引用.

金文은 𠄎, 𠄏, 𠄐, 𠄑 等 模樣의 字形으로 모두 司를 따르고 있다.

《古陶文》도 金文처럼 司를 따라 𠄒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모두 辛을 따르는 𠄓, 𠄔, 𠄕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尚書》는 𠄖, 《汗簡》은 𠄖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 𠄗와 같은 字形이다.

《古老子》는 𠄘, 《汗簡》은 𠄘, 《石經》은 𠄙와 같은 字形이다.

郭沫若이 말하기를:

𠄖從司, 與司爲一字.<sup>115)</sup>

𠄖가 司를 따르고 있는데, 司와 同一한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卽 《汗簡》의 𠄘, 《石經》의 𠄙는 바로 司자이다.

上述한바와 같이 籀文 𠄗는 古文의 特徵이 확실하므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96) 卷十四下 子部 子: 篆文作 𠄚, 古文作 𠄛, 籀文臂脛在幾上作 𠄜.

甲骨文은 𠄝, 𠄞, 𠄟, 𠄠, 𠄡, 𠄢 等 여러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 역시 𠄣, 𠄤, 𠄥 等 여러 模樣의 字形 있다.

《古陶文》은 𠄦; 《先秦貨幣》는 𠄧; 《包山楚簡》은 𠄨; 《睡虎地秦簡》은 𠄩와 같은 字形이다.

《石經》은 𠄪와 같은 模樣으로 모두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古孝經》은 𠄫; 《古老子》는 𠄬; 《古尚書》는 𠄭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 𠄮와 같은 類型의 字形임을 알 수 있다.

115)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045.

《古尙書》에는 또 𠄎와 같은 字形도 있는데 이는 古文 𠄎와 같은 類型的 字形이다.

《汗簡》은 𠄎, 𠄎, 𠄎等 여러 模樣的 字形을 收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4) 卷七上 禾部 秋: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古孝經》은 𠄎와 같은 字形인데 이는 篆文 𠄎과 같다. 때문에 篆文은 사실 古文으로 疑心이 된다.

《古尙書》의 字形은 𠄎와 같은데 이는 籀文 𠄎와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5) 卷四上 隹部 雛: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甲骨文은 𠄎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 𠄎이 따르는 𠄎(𠄎)와 鳥(𠄎)는 모두 古文이다. 이 籀文은 古文的 部首로 構成이 되었기에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6) 卷五下 亼部 命: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甲骨文은 𠄎, 金文은 𠄎와 같은 模樣으로 篆文과 大同小異한 字形이다.

《說文·卷二·冊部》冊자의 古文은 𠄎와 같고 《汗簡》 역시 竹을 따르는 字形으로 𠄎와 같다. 이는 籀文 𠄎이 따르는 冊과 完全히 同一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籀文 𠄎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7) 卷八上 衣部 襲: 篆文作 , 籀文作 .

甲骨文은 ,  등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고, 金文은  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 《古老子》는  등 模様の 字形인데, 篆文은 金文에서 비롯된 것이고 籀文은 《古老子》와 同一한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8) 卷九上 鬼部 彪: 篆文作 , 籀文作 , 古文作 

甲骨文은 ,  와 같은 模様の 字形인데 篆文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籀文과 古文의 順敍가 바뀌어 있는데 이는 段玉裁가 校訂 作業을 할 때 그렇게 하였기 때문이다.<sup>116)</sup> 卽  이 古文이고  가 籀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49) 卷十二下 女部 婚: 篆文作 , 籀文作 .

金文은 , ,  등 模様の 字形으로 籀文의 初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자는 許慎이 《禮》를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0) 卷十三下 土部 堵: 篆文作 , 籀文從壘作 .

金文은  (卽鐘)은 壘를 따르는 字形도 있고 金을 따르는  와 같은 字形도 있다.

《睡虎地秦簡》은 土를 따라  와 같은 字形이며, 《長沙子彈庫帛書》 역시

116)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192: 王國維, 商承祚, 馬敘倫諸學者認爲段玉裁將  改爲籀文,  改爲古文.

土와 같다. 《古璽》는 璽<sup>117</sup>, 《漢印》도 璽와 같이 모두 土를 따르는 字形이다. 하지만 金文처럼 璽를 따르는 字形은 없다.

위에서도 이미 論議한바 있지만 璽은 壙의 古文이다.

《周禮·小胥》에 璽와 같은 字形의 堵자가 있다.<sup>117)</sup> 《周禮》의 글자는 當然히 古文이라고 봐야 한다.

高田忠周가 말하기를:

凡從 璽者, 皆爲古文.<sup>118)</sup>

무릇 璽를 따르는 글자는 모두 古文이다.

라고 하였다. 아울러 으로 疑心이 된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1) 卷三下 革部 鞞: 篆文作 鞞, 籀文作 鞞.

金文은 鞞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이 따르고 있는 革은 古文 鞞이다. 王國維가 말하기를:

籀文所從 鞞, 未詳何字.<sup>119)</sup>

籀文 따르는 鞞이 무슨 글자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籀文이 古文 鞞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

117) 劉心源: 「邵啓董鐘」, 《奇觚室吉金文述》, 卷九;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14;

劉心源曰, “璽, 《周禮·小胥》凡縣鐘磬 半爲堵.”

118) 高田忠周: 《古籀篇》, 卷十;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15, 再引用.

119) 王國維, 「史籀編疏證」, 《王國維遺書》, 第六冊;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278, 再引用.

籀文은 古文으로 疑心이 된다.

(52) 卷一下 艸部 蕀: 篆文作, 籀文作.

籀文 이 따르는 艸, 女, 辰 等이 모두 古文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桂馥曰, “籀當爲古.<sup>120)</sup>

桂馥의 말에 따르면 籀文은 應當 古文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3) 卷三上 言部 話: 篆文作, 籀文作.

《說文》에서 籀文 言자의 字形은 모두 와 같은 模樣이다. 하지만 이 글자의 籀文 이 따르는 言()과 會()는 둘 다 古文의 部首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4) 卷三上 言部 讐: 篆文作, 籀文作.

籀文 이 따르는 言()은 《石經》의 言()과 같은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此籀文乃古文之訛耶.<sup>121)</sup>

이 籀文은 古文이 잘못 쓰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12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一, 2000, p591, 再引用.

12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三,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102, 再引用.

(55) 卷四上 隹部 隹: 篆文作, 籀文作.

籀文이 따르는 周와 鳥는 모두 古文의 부수이다. 아울러 앞에서도 이미 論證하였듯이 鳥를 따르는 글자는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6) 卷五上 竹部 籀: 篆文作, 籀文作.

金文에 와 같은 字形이 있는데, 高鴻緝가 말하기를:

爲籀之初文, 與豐不同, 至周秦間而變譌.<sup>122)</sup>

은 籀자의 初文인데, 이는 豐자가 아니다. 周·秦 사이에 잘못 變化된 것이다.

竹을 따르는 글자들은 ,  혹은 와 같은 模樣으로 되어 있는 古文이 많다. 때문에 이 籀文 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7) 卷五上 竹部 籀: 篆文作, 籀文作.

이 籀文 은 薇자와 같은 字形이다. 馬紱倫이 말하기를:

籀文從竹字無作者. 或籀爲古之訛也.<sup>123)</sup>

籀文에서 竹을 따르는 글자들은 와 같은 部首를 따르는 글자가 없다. 혹 古文이 籀文으로 잘못 쓰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58) 卷十一下 辰部 覩: 篆文作, 籀文作.

122) 高鴻緝, 《散盤集釋》;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四, 2000, p669, 再引用.

123) 馬紱倫(1983)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九;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四, 2000, p631, 再引用.

籀文 𩺰에 대하여 馬敘倫이 말하기를:

𩺰錯本作籀文𩺰, 然疑籀當作篆.<sup>124)</sup>

𩺰는 《錯本》에서 籀文 𩺰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籀文은 마땅히 篆文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𩺰와 같은 篆文이 이미 있기에 𩺰는 古文으로 疑心된다.

(59) 卷十下 心部 惛: 篆文作𩺰, 籀文作𩺰

籀文 𩺰이 따르는 部首는 모두 古文의 部首이다. 이를 테면 口(㇇), 心(㇈)과 같은 部首가 모두 古文이다. 더욱이 古文의 重要한 特徵의 하나가 口를 逆三角形 ㇇과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0) 卷十一下 魚部 鱗: 篆文作𩺰, 籀文作𩺰.

《古孝經》과 《汗簡》에서 魚자는 𩺰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 𩺰이 따르는 魚자가 곧 古文 𩺰이며, 隋자 역시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1) 卷十一下 魚部 鱣: 篆文作𩺰, 籀文作𩺰.

馬敘倫이 말하기를:

承培元曰, 𩺰, “此篆當爲鱣古文. 後漢書楊震傳荀子韓非子鱣皆作鱣.”<sup>125)</sup>

承培元은 籀文 𩺰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篆文은 응당 鱣자의 古文이어야 한다. 《後

124)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301, 再引用.

12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385, 再引用.

漢書·楊震傳》, 《荀子》, 《韓非子》의 鱣자는 모두 鱣과 같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籀文 鱣은 마땅히 鱣자의 古文이어야 한다.

(62) 卷十二上 門部 闕: 篆文作 闕, 籀文作 闕.

이 글자는 《論語》의 “行不履闕”라는 구절을 引用하여 解說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3) 卷十二下 女部 媼: 篆文作 媼, 籀文作 媼.

籀文 媼에 대하여 馬敘倫이 말하기를:

廣韻十七眞, 媼古文媼, 出周禮.<sup>126)</sup>

《廣韻·十七眞》에 媼(媼)은 媼자의 古文이며 出處는 《周禮》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4) 卷十四上 金部 銳: 篆文從金兌聲作 銳, 籀文從廠剡作 𠄎.

籀文 𠄎에 대하여 馬敘倫이 말하기를:

艸部 薺下云, 𠄎, 古文銳字. 是此字, 古, 籀同.<sup>127)</sup>

(許慎은)《說文·艸部·薺》에 말하기를 𠄎은 古文 銳자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글자의 古文과 籀文은 같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𠄎은 銳자의 古文이다.

126)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三,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760, 再引用.

127) 王國維: 《史籀編疏證》, 《王國維遺書》, 第六冊;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553, 再引用.

(65) 卷三上 爨部 爨: 篆文作, 籀文作.

籀文은 篆文의 윗부분의 部首를 省略하여 만들어 졌다.

《汗簡》은 火를 省略하여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籀文과 같은 脈絡을 잇는 字形이다. 《康熙字典》에서는 籀文을 古文이라고 하고 있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6) 卷四上 隹部 隹: 篆文作, 籀文作.

《汗簡》은와 같은 模樣인데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아울러 籀文이 따르는 모든 部首는 다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7) 卷四下 刀部 副: 篆文作, 籀文作.

《汗簡》은와 같은데 出處가 없다. 馬紱倫이 말하기를:

徐鍇語曰: “今周禮作此字, 鍇本無此籀文.”<sup>128)</sup>

徐鍇가 말하기를: “지금 《周禮》에 이 글자가 있다.”라고 하였다. (籀文는)《說文·鍇本》에는 없는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卽 《周禮·大宗伯》에서 副자를와 같은 字形으로 쓰고 있다. 籀文는 經書에 쓰인 글자이기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8) 卷六上 木部 栝: 篆文作, 籀文作.

《汗簡》은와 같이 匚을 따르는 글자이다. 아울러 위에서 이미 論議하였다

128) 馬紱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八,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四, 2000, p556, 再引用.

시피 匚(匚, 竹)을 따르는 글자는 모두 古文이다.<sup>129)</sup> 卽 古文에서 匚은 竹으로된 그릇을 뜻한다. 籀文 역시 《汗簡》처럼 竹의 뜻을 따르는 글자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69) 卷七上 禾部 稷: 篆文作 稷, 籀文作 稷.

《汗簡》은 稷과 같은데 이는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石鼓文에서 稷자의 字形은 稷과 같은데 稷(稷)을 따르고 있다. 石鼓文은 大篆의 代表作인데 籀文과 다른 字形이다. 아울러 籀文 稷이 따르는 禾는 典型的인 古文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0) 卷七下 水部 泉: 篆文作 泉, 籀文作 泉

《睡虎地秦簡》은 泉과 같은데 篆文과 비슷하다.

《汗簡》은 《古禮記》의 글자를 收錄하여 泉과 같은 字形이 있는데 이는 籀文 泉이 생략된 字形이다.<sup>130)</sup>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1) 卷七下 疒部 癰: 篆文作 癰, 籀文作 癰.

《汗簡》은 癰과 같은 字形인데 籀文과 다르며 出處가 없다. 하지만 許慎은 《詩》를 引用하여 이 글자를 解說하고 있기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2) 卷九下 帀部 豪: 篆文作 豪, 籀文作 豪.

129) 參看 卷十二下, 匚部, 匚.

130) 黃錫全: 《汗簡註釋》, 卷三;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六, 2000, p723, 再引用.

《汗簡》은 《爾雅》의 글자를 收錄하여 灇와 같은 模樣으로 되어 있는데 小篆 灇와 비슷한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灇와 같은데 이는 籀文과 비슷한 字形이다. 灇이 籀文이 아닌 것<sup>131)</sup>이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3) 卷十一下 𠂔部 𠂔: 篆文作, 古文作, 籀文作.

《汗簡》은 , 와 같은데 出處를 《說文》이라고 밝히고 있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古文𠂔, , , 水爲一字.<sup>132)</sup>

古文에서 𠂔, , , 水는 같은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글자는 經書를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으므로 籀文 는 古文으로 確認할 수 있다.

(74) 卷十一下 雨部 震: 篆文作, 籀文作.

《石經》은 와 같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此籀文詭異, 蓋非古文經傳中字, 疑不徒非許本所有. 亦恐非字林所有. 校者加之.<sup>133)</sup>

이 籀文이 僻이하여 古文經典에 없는 글자이다. 《說文》의 原本에 없는 글자일 뿐만 아니라 《字林》에도 없는 글자로 疑心이 된다. 때문에 校訂者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許慎은 《春秋》를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으므로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5) 卷十二下 匚部 柩: 篆文作, 籀文作.

131)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400: 鈕樹玉, 馬敘倫以爲灇非籀文.

132)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264, 再引用.

133)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334, 再引用.

《汗簡》은 𠄎, 匱, 匱 等 字形이다. 舊자는 《汗簡》에서 𠄎(華嶽碑臣忠恕)와 같으며, 《古文四聲韻》은 匱, 匱와 같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匱, 匱, 匱 等은 모두 舊자의 異體字라는 것이다. 匱 혹은 匱은 대나무 그릇을 뜻하는데 木과 竹은 서로 通用되는 部首이다. 久와 舊 또한 서로 聲音이 같으므로 樞와 匱는 假借되는 글자이다.

아울러 <卷十二下·匱部>의 匱자의 小篆은 匱, 籀文은 匱라고 하였는데 이미 이 籀文은 古文임을 증명하였었다.<sup>134)</sup> 卽 匱의 𠄎는 舊자의 古文임으로 籀文 匱는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6) 卷十三下 土部 塿: 篆文作 塿, 籀文作 塿.

《老子》는 塿, 《汗簡》과 《古尚書》는 塿와 같은데 이는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 塿는 사실상 古文으로 確定이 된다.

(77) 卷十四下 𠄎部 𠄎: 小篆從𠄎, 紛聲作 𠄎, 籀文𠄎從𠄎, 益作 𠄎.

《汗簡》은 𠄎와 같은 字形인데 出處를 《說文》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𠄎는 《說文》의 篆文이나 籀文과도 같지 않다.

<卷二上·口部>의 𠄎자 籀文 𠄎은 이미 古文으로 疑心이 되는 글자였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當作篆文, 篆文當作古文.<sup>135)</sup>

籀文 𠄎이 篆文이고, 篆文 𠄎이 사실상 古文이어야 한다.

134) 參看 卷十二下, 匱部, 匱.

13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七,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848, 再引用.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8) 卷十四下 乙部 乾: 小篆從乙作 , 籀文作 , .

《睡虎地秦簡》은 , 《漢印》은 와 같은 模樣으로 小篆과 같은 字形이다. 《石經》은 , 《汗簡》은 , 와 같은 模樣인데, 그 중 과 는 籀文 , 과 같은 類型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79) 卷十四下 西部 醢: 小篆從酉從益作 , 籀文從草作 .

《石經》은 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上述한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籀文외에도 經典을 引用한 解說한 籀文은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다.

根據說文敍可推斷爲古文者, 說文中凡引以上經傳者, 亦卽古文構形如此也. 136)

《敍》근거하여 古文으로 推定할 수 있는 文字들이 있는데 해설 중에 經典을 引用한 것은 古文의 字形과 結構가 그러하기 때문이다.

經書를 引用한 籀文은 모두 15개로 다음과 같다:

(1) 卷一下 艸部 薺: 拔去田艸也. 從薺, 好省聲. 呼毛切. 籀文薺省. 薺或從休. 《詩》曰: “既秣茶蓼.” 桂馥曰, “籀當爲古.”<sup>137)</sup>

(2) 卷二下 辵部 遲: 徐行也. 從辵犀聲. 《詩》曰: “行道遲遲.” 直尼切. 遲或從巨. 籀文遲從犀.

136) 江舉謙(民國56年), 《說文解字綜合研究》, 台灣, 東海大學出版社, p97.

137)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七,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一, 2000, p591.

(3) 卷二下 是部 臚: 臚 是也. 從是韋聲. 《春秋傳》曰: “犯五不臚.” 於鬼切. 籀文臚從心.

(4) 卷三上 言部 話: 話 合會善言也. 從言昏聲. 《傳》曰: “告之話言.” 胡快切. 籀文話從會.

(5) 卷五上 日部 晷: 晷 出氣詞也. 從日, 象氣出形. 《春秋傳》曰: “鄭太子晷.” 呼骨切. 籀文晷. 一曰佩也. 象形.

(6) 卷五上 鼓部 鼓: 鼓 郭也. 春分之音, 萬物郭皮甲而出, 故謂之鼓. 從豆, 支象其手擊之也. 《周禮》六鼓: 鼗鼓八面, 靈鼓六面, 路鼓四面, 鼗鼓, 皐鼓, 晉鼓皆兩面. 凡鼓之屬皆從鼓. 徐鍇曰: “郭者, 覆冒之意.” 工戶切. 籀文鼓從古聲.

(7) 卷七上 日部 昌: 昌 美言也. 從日從曰. 一曰日光也. 《詩》曰: “東方昌矣.” 臣鉉等曰: 曰, 亦言也. 尺良切.

(8) 卷七上 夕部 夤: 夤 敬惕也. 從夕寅聲. 《易》曰: “夕惕若夤.” 翼真切.

(9) 卷七下 宀部 宇: 宇 屋邊也. 從宀於聲. 《易》曰: “上棟下宇.” 王架切. 籀文字從禹.

(10) 卷七下 疒部 瘡: 瘡 脛氣足腫. 從疒童聲. 《詩》曰: “既微且瘡.” 時重切. 籀文從允.

(11) 卷十一下 𡿨部 𡿨: 𡿨 水小流也. 《周禮》: “匠人爲溝洫, 相廣五寸, 二相爲耦; 一耦之伐, 廣尺, 深尺, 謂之𡿨.” 倍𡿨謂之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𡿨. 凡𡿨之屬皆從𡿨. 姑滋切.

(12) 卷十一下 雨部 震: 震 劈歷, 振物者. 從雨辰聲. 《春秋傳》曰: “震夷伯之廟.” 臣鉉等曰: 今俗別作霹靂, 非是. 章刃切.

(13) 卷十二下 女部 婚: 婚 婦家也. 《禮》: 娶婦以昏時, 婦人陰也, 故曰婚. 從女從昏, 昏亦聲. 呼昆切.

(14) 卷十二下 女部 奴: 奴, 婢, 皆古之隸人也. 《周禮》曰: “其奴, 男子入於皐隸, 女子入於春槁.” 從女從又. 臣鉉等曰: 又, 手也. 持事者也. 乃都切. 古文奴從人.

(15) 卷十三上 蟲部 蚺: 蚺 蝗子也. 從蟲氏聲. 《周禮》有蚺醢. 讀若祁. 直尼切. 古文蚺

從辰, 土. 籀文𧇧從虫.

## 2·2·2 籀文으로 默認되는 籀文

籀文에 대한 研究結果 籀文으로 默認되는 境遇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卷二上 夬部 登: 篆文作 , 籀文作 .

登의 甲骨文 字形은 모두 세 가지 種類로 分類 할 수 있다. 첫째는 , 둘째는 , 셋째는 ,  등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楚簡은 와 같은 模樣으로 첫 번째 境遇에 속하는 것으로 籀文과 비슷한 字形이다. 卽 이 籀文은 楚簡과 類似한 것으로 보아 六國文字에 속하는 것으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 卷三上 辛部 童: 篆文作 , 籀文作 .

金文은 , 《古陶文》 ; 《包山楚簡》은 , 《睡虎地秦簡》은 , 《古璽》는 ; 《漢印》은  등과 같은 字形이고, 《石經》은 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 은 楚簡, 秦簡과 類似하므로 六國文字에 속하는 것으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3) 卷三上 収部 兵: 篆文作 , 籀文作 .

《戰國秦虎符》, 《繹山碑》은 , 《睡虎地秦簡》은 와 같은 模樣으로 籀文과 같은 類型의 字形이다. 때문에 籀文이 秦文字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馬敘倫이 鈕樹玉의 말을 빌려 말하기를:

籀文𣎵乃秦系文字也.”<sup>138)</sup>

籀文 𣎵은 秦文字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𣎵은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4) 卷三上 晨部 農: 篆文作, 籀文作.

甲骨文과 金文에 林을 따르는 ,  등과 같은 模様の 글자가 있다.

籀文 𣎵은 林과 을 따르는데, 은 田자가 아니라 古文 , 秦簡 이 따르는  (凶)와 같다. 때문에 𣎵은 秦系文字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5) 卷三下 又部 麥: 篆文作, 籀文作.

甲骨文은 , 《汗簡》은 , 《睡虎地秦簡》은 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變化가 크게 없다. 又와 寸의 初文은 같다. 때문에 寸을 따르는 籀文 도 甲骨文 등과 같은 字形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籀文 은 默認되고 있다.

(6) 卷三下 又部 變: 篆文作, 籀文作.

甲骨文은 , 金文은 와 같은 字形이다. 《汗簡》은 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上文 “麥”의 籀文 이 寸을 따르는 글자인 반면에 變의 籀文은 又를 따라 와 같은 字形으로 되었는데 이는 金文과 비슷하다. 古文인지 籀文인지 確定할 수 없

138)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204, 再引用.

지만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7) 卷三下 皮部 皮: 篆文作 , 籀文作 .

金文은 , 石鼓文은 , 《睡虎地秦簡》은 , 모두 籀文과 大同小異한 字形이다. 이로부터 籀文이 秦系文字로 推定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8) 卷四上 隹部 鷄: 篆文作 , 籀文作 .

甲骨文은 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汗簡》은 《道德經》의 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고 있다.

隹와 鳥는 初文이 같기에 서로 通用되고 있다. 籀文 는 出處가 명확하지 않지만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9) 卷五下 京部 就: 篆文作 , 籀文作 .

甲骨文은 , 等 模様の 字形이다.

《古陶文》은 , , ; 《睡虎地秦簡》은 , ; 《漢印》은 , 와 같은 字形이다. 《汗簡》은 《古孝經》을 引用하여 와 같은 字形을 收錄하였다.

以上과 같은 古文字 資料로부터 籀文 이 秦系文字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0) 卷五下 齋部 牆: 篆文作 , 籀文作 , .

金文은 , , 等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汗簡》은 와 같은 字形이며 篆文과 비슷하다.

籀文 𦉑, 𦉒은 金文과 같은 類型的 字形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1) 卷七上 夕部 夤: 篆文作 𦉑, 籀文作 𦉒.

金文은 𦉑(秦公簋), 《古陶文》은 𦉑, 𦉒; 《漢印》은 𦉑等과 같은 模樣的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 𦉒爲 𦉑之訛耳.<sup>139)</sup>

籀文 𦉒은 (金文) 𦉑가 變化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𦉒은 秦系文字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2) 卷七上 肉部 𠂔: 篆文作 𠂔, 籀文作 𠂔.

甲骨文은 𠂔, 𠂔, 𠂔, 𠂔, 𠂔等 여러 模樣的 字形으로 되어 있다.

《汗簡》은 𠂔와 같은데 이는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大篆의 代表作으로 불리는 石鼓文은 𠂔와 같은데 篆文이나 籀文과 다르다. 籀文은 甲骨文 𠂔와 같은 字形에서 비롯된 것으로 周나라 때의 文字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3) 卷七上 肉部 𠂔: 篆文作 𠂔, 籀文作 𠂔.

𠂔(栗)의 古文이 𠂔와 같은데 이 籀文 𠂔과 대략 비슷하다. 이 籀文은 上文 肉의 重文 𠂔와 同一한 類型的 文字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39)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三,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六, 2000, p526, 再引用.

(14) 卷十上 火部 𤇓: 篆文作𤇓, 古文作𤇓, 籀文作𤇓.

甲骨文은 ,  등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古尚書》에는 𤇓와 𤇓와 같은 字形이 있는데 이는 小篆과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𤇓之𤇓, 從甲骨文之才得聲.<sup>140)</sup>

籀文 𤇓가 따르는 𤇓는 甲骨文 의 才에서 得聲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𤇓는 현재 災로 通用되고 있으며 𤇓는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5) 卷十四下 癸部 癸: 篆文作𤇓, 籀文從𤇓從𠂆作𤇓.

甲骨文은 , , , ; 金文은 , , , ; 《侯馬盟書》은 ; 《包山楚簡》은 ,  등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汗簡》은 ; 《石經》은  등 여러 模樣인데 모두 篆文과 같은 類型的 字形이다.

《古陶文》은 ,  (4·90 匍功), ,  (秦1218作), ,  (秦1223作); 《睡虎地秦簡》은 , ; 《漢印》은 ,  등 模樣인데 모두 籀文 𤇓와 同一한 類型的 字形이다. 卽 籀文은 秦漢시기의 文字로 推定이 되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6) 卷十四下 申部 申: 篆文作𤇓, 古文作𤇓, 籀文作𤇓.

甲骨文은 , , , ; 金文은 , , ,  등 模様の 字形이다.

《古陶文》은 ,  (秦389), ,  (秦391); 《睡虎地秦簡》은 ; 《古璽》는 , 

14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697, 再引用.

𠄎; 《漢印》은 𠄎, 𠄎 等 字形이다.

《汗簡》은 𠄎, 𠄎와 같은 字形으로 出處는 《說文》이라고 하였다. 古文 𠄎은 亥자의 古文으로 여기에 重複되어 나타난 것으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籀文 𠄎은 𠄎와 같은 金文에서 비롯된 것이다. 《古璽》 𠄎는 籀文 𠄎과 비슷한 字形이다. 卽 籀文 𠄎은 秦漢시기의 文字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7) 卷十下 奢部 奢: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金文은 𠄎, 𠄎와 같은 模樣으로, 𠄎는 篆文과 類似하고 𠄎는 籀文과 같다.

《老子》는 𠄎와 같은데 이는 𠄎의 訛傳으로 생각된다.

商承祚가 말하기를:

𠄎爲古文侈, 而奢通侈.<sup>141)</sup>

𠄎는 侈의 古文이다. 아울러 𠄎와 侈는 서로 通用된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𠄎는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8) 卷十上 火部 煙: 篆文作 𠄎, 或作 𠄎; 古文作 𠄎, 籀文作 𠄎.

徐中舒가 말하기를:

煙字與禋字金文同作 𠄎.<sup>142)</sup>

煙자와 禋자는 金文에서 모두 𠄎와 같은 文字이다.

141) 商承祚: <石刻篆文編字說>, 《古文字研究》, 第5輯, 1980;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875, 再引用.

142) 徐中舒: 《漢語古文字字形表》, 四川辭書, 1981, p393.

라고 하였다. 卽 煙과 禮자의 初文은 同一한 글자이며 鳳은 金文 鳳에서 비롯된 것으로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19) 卷四上 隹部 雇: 篆文作雇, 籀文作雇.

甲骨文은 雇, 雇; 《包山楚簡》은 雇. 籀文 雇은 甲骨文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0) 卷四下 刀部 劒: 篆文作劒, 籀文作劒.

金文은 劒과 金을 따라 劒, 劒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 역시 金文처럼 劒과 刀를 따라 劒, 劒等 模様の 字形이며, 《古老子》도 劒와 같은 字形이다. 이로부터 籀文 劒은 秦漢시기의 文字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1) 卷五下 食部 饗: 篆文作饗, 籀文作饗.

金文은 饗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 饗(饗)는 饗를 省略한 것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2) 卷六下 口部 囿: 篆文作囿, 籀文作囿.

甲骨文은 口와 又를 따라 囿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며 或은 口와 𠂔을 따라 囿等 模様の 字形이다.

金文은 甲骨文 囿와 肉을 따라 囿와 같은 模様の 字形인데 이는 篆文 囿와 같은 字形이다.

石鼓文은 囿와 같은데 甲骨文 囿에서 비롯된 것이며 籀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𧀮는籀文으로默認되고있다.

(23) 卷九上 頁部 顏: 篆文作𧀮, 籀文作𧀮.

金文은 𧀮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 𧀮은 𧀮을 따르는 字形인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4) 卷十二下 女部 妣: 篆文作𧀮, 籀文作𧀮.

甲骨文은 𧀮, 𧀮, 𧀮, 金文은 𧀮, 𧀮, 𧀮 等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 𧀮은 金文 𧀮와 같은 字形에서 비롯된 것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5) 卷十三上 蟲部 虹: 篆文作𧀮, 籀文作𧀮.

甲骨文은 𧀮, 金文 역시 甲骨文과 비슷한 模樣의 𧀮와 같은 字形이다.

郭沫若在 말하기를:

籀文 𧀮爲 𧀮

籀文 𧀮은 𧀮자이다.

라고 하였으며, 于省吾는 말하기를

籀文 𧀮爲晚周文字, 𧀮當爲雷字初文.<sup>143)</sup>

籀文 𧀮은 晚周 文字이며 𧀮는 응당 雷자의 初文이어야 한다.

라고 하였다.

蟲자의 甲骨文은 𧀮, 𧀮, 金文은 𧀮, 𧀮, 𧀮 等으로 蠅 模樣이며 籀文이 따르는 𧀮와 같은 字形은 없다.

《汗簡》에서 蟲자가 𧀮, 𧀮 等 模樣의 字形이다. 예를 들면 雖자는 《汗簡》에

14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73.

서 𧈧, 𧈩와 같다. 蟲자가 𧈪와 같은 模樣으로 된 것은 秦漢時期부터이다. 이를테면 《睡虎地秦簡》에서 𧈫, 《漢印》 역시 𧈫, 蚤자의 《睡虎地秦簡》은 𧈬와 같다. 𧈭(申)자의 模樣을 보면 송곳처럼 뾰족하게 나온 것이 特徵인데 이는 甲骨文이나 金文(𧈮, 𧈯)에는 없는 것이다. 𧈰 이와 같은 特徵은 《先秦貨幣》에서부터 생겨난 것인데 籀文 𧈱은 晚周文字가 아니라 秦文이라고 筆者는 推定한다.

𧈱은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6) 卷三下 鬲部 融: 篆文作 𧈲, 籀文作 𧈳.

《汗簡》은 𧈴와 같다. 윗글 强자의 籀文 𧈵이 蝮을 따르는 글자인데 融의 籀文 𧈶은 蟲을 따르고 있으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7) 卷三下 甞部 甞: 篆文作 𧈷, 籀文作 𧈸, 古文作 𧈹.

《汗簡》은 𧈺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籀文은 篆文과 같은 類型的 字形이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28) 卷八上 屍部 屋: 篆文作 𧈻, 籀文作 𧈼, 古文作 𧈽.

《睡虎地秦簡》은 𧈾, 《汗簡》은 𧈿와 같다.

籀文은 《睡虎地秦簡》와 같은 類型的 文字로 籀文으로 默認된다.

(29) 卷八下 兒部 覓: 篆文作 𧈿, 籀文作 𧉀.

《汗簡》과 《古尙書》는 모두 𧉁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은 函(정수리 신)은 古文 𧉂이 따르는 人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30) 卷九上 頁部 頰: 篆文作頰, 籀文作頰.

《汗簡》은 頰, 《睡虎地秦簡》은 頰와 같다. 《汗簡》은 좌우결합이 바뀌었지만 그가 따르는 夾자는 篆文이나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篆文은 頰을 따르고, 籀文은 頰을 따르고 있다. 아울러 頰은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31) 卷九下 山部 岫: 篆文作岫, 籀文作岫.

《汗簡》은 岫와 같은 模様の 字形인데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籀文은 穴을 따르고 있으며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32) 卷十上 麤部 塵: 篆文作塵, 籀文作塵.

《汗簡》은 塵와 같은 模樣으로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籀文은 “雙土”를 따르는 字形으로 籀文으로 默認되고 있다.

上述한 籀文으로 默認되는 글자 외에도 古文字 資料가 없지만 籀文으로 목인되는 글자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

卷一下 艸部 薇: 篆文作薇, 籀文作薇.

卷一下 艸部 蓬: 篆文作蓬, 籀文作蓬.

卷三上 異部 戴: 篆文作戴, 籀文作戴.

卷三下 鬲部 鬲: 篆文作鬲, 籀文作鬲.

卷四上 鳥部 鷓: 篆文作鷓, 籀文作鷓.

卷四上 鳥部 鷓: 篆文作鷓, 籀文作鷓.

卷四上 隹部 鷓: 篆文作鷓, 籀文作鷓.

卷四下 肉部 肱: 篆文作肱, 籀文作肱.

卷四下 肉部 肱: 篆文作, 籀文作.  
 卷四下 刀部 劓: 篆文作, 籀文作.  
 卷六上 木部 藁: 篆文作, 籀文作.  
 卷六上 木部 枹: 篆文作, 籀文作.  
 卷七下 瘰部 瘰: 篆文作, 籀文作.  
 卷七下 疒部 疒: 篆文作, 籀文作.  
 卷七下 網部 置: 篆文作, 籀文作.  
 卷八上 衣部 裘: 篆文作, 籀文作.  
 卷八下 欠部 歎: 篆文作, 籀文作.  
 卷十上 馬部 駟: 篆文作, 籀文作.  
 卷十上 鼠部 鼯: 篆文作, 籀文作.  
 卷十上 熊部 羆: 篆文作, 籀文作.  
 卷十一下 雨部 霖: 篆文作, 籀文作.  
 卷十二下 女部 媯: 篆文作, 籀文作.  
 卷十二下 瓦部 甗: 篆文作, 籀文作.  
 卷十三下 土部 壘: 篆文作, 籀文作.  
 卷十四下 酉部 醜: 篆文作, 籀文作.

### 2·2·3 籀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籀文

《說文》에서 비록 籀文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籀文이 아닌 것으로 確定할 수 있거나 疑心이 되는 글자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 2·2·3·1 後世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되는 籀文

이 部類에 속하는 籀文은 後世사람들이 《說文》을 베껴 쓰거나 校訂을 할 때 만들어 넣은 것으로 疑心이 되는 글자들이다.

(1) 卷二上 止部 歸: 篆文作歸, 籀文作歸.

甲骨文은 歸, 金文은 歸, 歸 等 模樣의 字形이며, 《侯馬盟書》는 歸와 같아 모두 自가 省略된 籀文 歸와 다르다.

後世의 宋나라 人들의 草書에서 歸(宋·吳琚《雜詩帖》等)과 같은 籀文의 字形이 發見되는 것으로 보아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 卷三上 言部 諄: 篆文作諄, 籀文作諄.

甲骨文은 諄, 諄, 諄 等 字形이다; 金文은 諄와 같은 模樣의 字形으로 籀文 諄와 大同小異이다.

段玉裁가 말하기를:

兩國相違.

두 나라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模樣이다.

라고 하였으며 馬紱倫은

說文“諄 亂也”非本意. 諄, 玉篇不云籀文, 從二或乃校者加之.<sup>144)</sup>

說文에서 “諄, 亂也”라고 한 것은 本意가 아니다. 籀文 諄을 玉篇에서는 籀文이라고 하지 않고 있는데 “從二”이라고 한 것은 校訂하는 자들이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先行研究에 依하여 甲金文이 비록 籀文 諄와 大同小異 하지만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44) 馬紱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四,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66, 再引用.

(5) 卷三下 臣部 臧: 篆文作臧, 籀文作臧.

甲骨文은 𠄎, 金文은 臧, 𠄎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先秦貨幣》는 𠄎, 𠄎, 𠄎, 《古陶文》은 臧, 臧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인데어  
는 것 하나 丌을 따라 臧와 같은 字形으로 된 것이 없다.

《睡虎地秦簡》에 臧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 있어서 籀文과 비슷하지만 丌을 따  
르는 字形이 아니라 一을 따르고 있다.

때문에 이 籀文 臧은 上記와 같은 어느 古文字와도 符合되지 않고 出處도 없으  
므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6) 卷三下 聿部 隸: 篆文作隸, 籀文作隸.

甲骨文은 隸, 金文은 隸, 隸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石經》은 隸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此字本從彡, 二徐誤以爲從彡<sup>145)</sup>

이 글자는 원래 彡를 따르는데 二徐가 彡를 따르는 글자로 오해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隸는 本來의 模樣이 아니며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  
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7) 卷五上 乃部 乃: 篆文作乃, 籀文作乃, 古文作乃.

14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六,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495, 再引用.

甲骨文은 두 가지로 分類 되는데 하나는 𠄎, 𠄎와 같은 簡體이고 다른 하나는 𠄎, 𠄎等과 같은 繁體이다. 金文은 모두 𠄎, 𠄎와 같이 簡體로 되어 있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 𠄎爲宋本乃繫傳韻會所作也.<sup>146)</sup>

籀文 𠄎은 宋本 《繫傳》, 《韻會》에서 지은 글자이다.

라고 解釋하였다. 卽 許慎의 《說文》에는 본래 없던 籀文이 傳해져 내려오는 科程에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다.

(8) 卷五下 旱部 覃: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古文作 𠄎.

金文은 𠄎, 𠄎等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汗簡》은 𠄎와 같은데 古文 𠄎과 大同小異하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蓋卽覃之異體, 字蓋江氏加也.<sup>147)</sup>

(籀文 𠄎)아마도 覃의 異體字이다. 대개 江氏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𠄎은 許慎의 《說文》 原本에는 없던 글자인데 後世사람인 江氏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9) 卷九上 頁部 頂: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146)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五, 2000. p19, 再引用.

147)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五, 2000, p564, 再引用.

金文은 𠄎와 같은 字形이고, 《汗簡》은 𠄎, 𠄎와 같은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本無籀文 𠄎, 此校者加之.<sup>148)</sup>

(《說文》에) 본래 籀文 𠄎이 없는데 校訂하는 자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筆者도 先行研究에 依하여 籀文 𠄎은 後世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으로 疑心이 된다.

(10) 卷九下 糸部 糸: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古文作 𠄎.

甲骨文은 𠄎, 𠄎, 𠄎, 𠄎 등 模樣의 字形이다.

《汗簡》은 𠄎, 𠄎, 𠄎 등 模樣의 字形으로 甲骨文과 比較할 때 많이 訛傳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此糸部獨先籀後古. 疑後人增.<sup>149)</sup>

유독 糸部에서만 籀文이 앞에 놓이고 古文이 뒤에 놓이고 있다. 때문에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라고 하였다. 뜻인即 許慎의 《說文》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重文에서 古文  
을 앞에 놓고 籀文은 그 뒤에 排列하는 것이 順敍이다. 하지만 이 글자는 先  
籀文 後 古文을 排列하였으니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  
다.

148)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七,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398, 再引用.

149)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八,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394, 再引用.

(11) 卷十上 鹿部 麗: 篆文作麗, 古文作𠂔, 籀文作𠂔;

甲骨文은 𠂔, 𠂔, 𠂔; 金文은 𠂔, 𠂔, 𠂔 等 模樣의 字形이다.

《汗簡》은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等 아주 많은 古文字를 收錄하고 있다.

《汗簡》의 𠂔와 같은 字形의 出處는 《說文》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石經》은 𠂔와 다르다. 때문에 籀文 𠂔는 甲骨文이나 金文, 《石經》과 같은 古文字와 符合되지 않으므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2) 卷十三下 黽部 黽: 篆文作黽, 籀文作𠂔.

甲骨文은 𠂔, 𠂔, 𠂔, 金文作 𠂔, 𠂔, 《汗簡》은 𠂔, 𠂔 等 模樣의 字形이다.

王國維은 籀文 𠂔에 對하여 말하기를:

蓋傳寫之誤矣.<sup>150)</sup>

아마도 傳寫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다.

라고 判斷하였으며; 郭沫若도 말하기를:

籀文乃傳寫之誤.<sup>151)</sup>

주문은 잘못 傳寫된 것이다.

라고 斷定 지었고; 孫詒讓은 말하기를:

此字籀文本於古.<sup>152)</sup>

150)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 商務印書館, 第六冊, 1940;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33, 再引用.

151) 郭沫若: 《古代銘刻匯考》;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33, 再引用.

이 글자의 籀文은 古文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判斷하였다. 吳大澂이 말하기를:

此字從宀從睪, 疑窀字.<sup>152)</sup>

이 籀文이 宀과 睪을 따르고 있으므로 窀로 疑心이 된다.”

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上述한 여러 學者들의 研究結果로부터 籀文 窀은 出處가 不透明하며 여러 가지 推定이 나오고 있는데 筆者는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3) 卷十三下 土部 垣: 篆文作, 籀文垣從高作.

金文은  (中山王), 《先秦貨幣》는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古幣文編》는 ; 《睡虎地秦簡》은 ; 《汗簡》은  等 模樣의 字形으로 모두 高를 따르지 않고 있다.

《石經》은 高를 따라  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籀文과 같은 字形이다. 아울러 窀는 古文 墉자이다. 는 의 訛傳이며 는 곧 阜의 古文이다.

以上과 같은 여러 狀況으로 미루어 볼 때 籀文 垣이 高를 따라 와 같이 되어 있는데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4) 卷十三下 土部 城: 小篆從土從成作, 籀文從高作.

金文은 高를 따르는 ,  와 같은 字形도 있고; 또 土를 따르는  와 같은 字

152) 孫詒讓: 《名原》;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32, 再引用.

153) 吳大澂: 《窀齋集古錄》;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32, 再引用.

形도 있다. 《汗簡》은 後者와 같이 土를 따라 𧇗와 같은 字形이다. 上文에서 이미 論議하였다시피 𧇗(𧇗)는 古文 壙자이다. 때문에 𧇗를 따르는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5) 卷十四下 酉部 醬: 小篆從肉從酉作𧇗, 古文省肉作𧇗, 籀文從皿作𧇗.

金文은 𧇗, 《古陶文》은 𧇗, 《包山楚簡》은 𧇗와 같은 模様の 字形으로 모두 肉을 따르는 글자가 아니며 또 皿을 따르는 글자도 아니다.

古文 𧇗은 金文 𧇗와 같은 字形에서 變異되었음을 알 수 있다.

《汗簡》은 𧇗와 같은데 出處는 《說文》으로 밝히고 있다.

《睡虎地秦簡》 𧇗은 肉과 酉를 따르는 字形이다. 《漢印》은 𧇗와 같은데 篆文 𧇗과 같은 字形이다. 卽 篆文은 秦漢시기에 만들어진 글자이다.

籀文 𧇗처럼 皿을 따르는 字形은 어느 古文字資料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6) 卷二下 辵部 送: 篆文作𧇗, 籀文作𧇗.

金文은 𧇗, 石鼓文은 𧇗와 같은 字形이다.

石鼓文은 大篆의 代表作으로 認識되고 있다. 하지만 籀文 𧇗과 完全히 다른 樣相을 보이고 있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7) 卷四下 華部 棄: 篆文作𧇗, 籀文作𧇗, 古文作𧇗.

甲骨文은 𧇗, 𧇗; 金文은 𧇗; 《睡虎地秦簡》은 𧇗 등과 같이 結構가 複雜한 字形이 있고 또 甲骨文은 𧇗, 𧇗, 金文은 𧇗, 《先秦貨幣》은 𧇗, 𧇗, 《包山楚簡》

은 𠄎 等과 같이 結構가 簡單한 字形도 있다.

위에서 論議하였다시피 古文과 籀文의 順敍가 바뀌어서 “先籀後古”이니 籀文 𠄎는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다.

(18) 卷四下 受部 𠄎: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古文作 𠄎.

金文은 𠄎, 𠄎, 𠄎, 𠄎 等 模樣의 字形이다.

《侯馬盟書》는 𠄎, 𠄎, 𠄎, 《包山楚簡》은 𠄎, 𠄎, 《睡虎地秦簡》은 𠄎, 𠄎, 𠄎; 《漢印》은 𠄎, 𠄎, 𠄎 等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 𠄎는 漢印 𠄎 等 字形과 大同小異하며, 또 “先籀後古”의 順敍로 排列하였으니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다.

(19) 卷五上 箕部 箕: 篆文作 箕, 籀文作 箕, 古文作 箕, 𠄎, 𠄎, 𠄎.

甲骨文은 𠄎, 𠄎, 𠄎 等 簡單한 字形이 있고, 또 𠄎, 𠄎, 𠄎 等과 같은 複雜한 字形도 있다.

金文은 箕, 箕, 石鼓文은 箕, 《古孝經》은 箕, 《睡虎地秦簡》은 箕 等과 같은 字形이다.

籀文 箕는 金文 箕, 石鼓文 箕 等과 비슷한 字形이지만 “先籀後古”의 順敍로 排列하였으니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20) 卷九下 石部 𠄎: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古文作 𠄎.

甲骨文은 𠄎, 𠄎, 𠄎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汗簡》은 𠄎와 같은 字形으로 古文 𠄎와 같다.

籀文 𪛗는 甲骨文 𪛗와 비슷한 字形이나 “先籀後古”의 順敍로 排列하였으니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21) 卷四下 肉部 臚: 篆文作 臚, 籀文作 臚.

金文은 臚, 臚, 臚等과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古孝經》은 臚, 《石經》은 臚等과 같은 字形이다.

籀文 臚은 金文이나 “壁中書” 모두에 符合되지 않는 字形으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2) 卷四上 隹部 鷹: 篆文作 鷹, 籀文作 鷹.

金文은 鷹, 鷹, 鷹等 模様の 字形으로 모두 隹를 따르고 있다.

籀文에 對하여 王國維가 말하기를:

又從隹又從鳥, 自是後起字.<sup>154)</sup>

(籀文 鷹, 鷹)隹를 따르고 또 鳥를 따르는 것으로 보아 後世에 만들어진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先行研究에 依하여 籀文 鷹, 鷹는 一貫性이 없는 것으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한 것으로 疑心 된다.

(23) 卷十上 火部 熒: 篆文作 熒, 籀文作 熒.

甲骨文은 熒, 熒, 熒等 模様の 字形이다.

徐鉉이 註釋하여 말하기를:

154) 王國維: 《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 商務印書館, 第六冊, 1940;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四, 2000, p107, 再引用.

說文無籀字, 當從籀省, 疑傳寫之誤.

《說文》에는 籀자가 없다. (籀文)응당 籀를 省略하여 만든 글자이며 傳寫過程에서 訛傳된 것이다.

라고 하였고, 馬敘倫은 籀文에 對하여 判斷하여 말하기를:

籀文疑爲後人所加.<sup>155)</sup>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라고 하였다. 上述한 先行研究에 따라서 籀文 𠄎는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疑心 된다.

(24) 卷十四下 辛部 𠄎: 小篆從辛從受作𠄎, 籀文𠄎從台從辛作𠄎.

金文은 𠄎, 𠄎와 같은 字形이다. 이 金文에 對하여 吳大澂은 말하기를:

𠄎即嗣.

𠄎는 곧 嗣자이다.

라고 하였고, 方濬益은 말하기를:

𠄎即台.<sup>156)</sup>

𠄎는 곧 台자이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籀文은 傳寫 過程에서 誤謬가 생긴 것이며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5) 卷一上 示部 祺: 篆文作祺, 籀文作祺.

155)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682.

156)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1041.

籀文 禱에 대하여 馬紘倫이 말하기를:

籀文乃後人所增字,<sup>157)</sup>

籀文은 後世사람들이 添加한 글자이다.

라고 하였다. 籀文 禱가 따르는 示와 基는 모두 籀文이 아니다. 따라서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6) 卷二上 口部 嘯: 篆文作嘯, 籀文作𩇛.

籀文 𩇛에 대하여 馬紘倫은 潘濤의 말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潘濤曰, “籀文爲歎, 應在欠部, 嘯下無籀文.”<sup>158)</sup>

潘濤가 말하기를, “籀文 𩇛는 歎자이며 《說文·欠部》에 있어야 한다. 嘯자는 籀文이 없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𩇛은 歎자인데 嘯자의 籀文으로 잘못 記錄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7) 卷二下 是部 𩇛: 篆文作𩇛, 籀文作𩇛.

籀文 𩇛에 대하여 馬紘倫이 말하기를:

玉篇 𩇛在 心部, 宋時說文無此重文, 乃後人加也.<sup>159)</sup>

《玉篇》에서 籀文 𩇛은 <心部>에 收錄되어 있다. 宋나라 때의 《說文》에는 이와 같

157) 馬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一,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108, 再引用.

158) 馬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三,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62, 再引用.

159) 馬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三,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309, 再引用.

은 重文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籀文은 곧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𠄎은 悼字이다. 따라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잘못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28) 卷六下 貝部 贛: 篆文作 𠄎, 籀文作 𠄎.

籀文 𠄎이 따르는 部首가 全部 古文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籀文 “必後起字.<sup>160)</sup>

籀文은 필히 後世에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疑心이 된다.

(29) 卷十上 馬部 駟: 篆文作 駟, 籀文作 駟.

駟자와 駟자는 모두 籀文이 있지만 그들이 따르는 馬자는 서로 다르다.

駟之籀文從 𠄎, 作 駟, 此 駟之籀文從 𠄎 同篆文者, 篆文馬字以見於石鼓文等, 作史籀時已有此字.<sup>161)</sup>

駟(駟)자의 籀文은 駟와 같은데 𠄎를 따르며, 駟(駟)자의 籀文은 駟를 따르는데 이는 篆文과 같다. 篆文 馬자는 石鼓文에 보이는데 史籀시기에 이미 이 글자가 있었다.

籀文이 따르는 馬자는 𠄎, 駟等 字形으로 篆文과 같으므로 籀文이 아니라는 疑心이 든다. 卽 籀文 駟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6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六, 2000, p187, 再引用.

161)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474.

(30) 卷十三上 蟲部 𧈧: 篆文作𧈧, 古文作𧈧, 籀文作𧈧.

馬敘倫은 鈕樹玉의 말을 引用하여 말하기를:

鈕樹玉語曰, “此古文及籀文廣韻玉篇竝無”, 疑後人增.<sup>162)</sup>

鈕樹玉이 말하기를: “古文은 籀文은 《廣韻》, 《玉篇》에 없는 글자이다.”라고 하였다. 後世사람들이 만들어 넣은 것으로 疑心이 된다.

라고 하였다. 아울러 이 글자는 經書를 引用하여 解說하고 있으므로 籀文 𧈧은 事實 古文으로 疑心이 된다. 古文 𧈧은 𧈧자의 《汗簡》 𧈧과 같은 字形이다.

(31) 卷十三上 糸部 繒: 篆文作繒, 籀文作繒.

《古匋文》은 繒, 繒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고, 《睡虎地秦簡》은 繒와 같은 模様の 字形이다. 《漢印》도 篆文과 같은 字形으로 繒, 繒等과 같다.

王國維는 籀文 繒에 對하여 말하기를:

此恐非繒之重文.<sup>163)</sup>

이 글자는 繒의 異體字가 아닐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繒은 古文字 資料의 글자와 字形이 符合되는 것이 없다. 따라서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2) 卷一下 艸部 蕞: 篆文作蕞, 籀文作蕞.

甲骨文은 蕞, 蕞, 蕞, 蕞, 蕞, 蕞, 蕞等 模様の 字形이다.

162)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36, 再引用.

163) 王國維, 《史籀編疏證》, 《王國維遺書》, 第六冊;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1174, 再引用.

《汗簡》은 𠄎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此籀文爲後人增之.<sup>164)</sup>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다.

라고 하였다. 籀文 𠄎처럼 𠄎을 따르는 字形은 古文字 資料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3) 下 辵部 退: 篆文作 𨔵, 籀文作 𨔶.

《汗簡》은 𨔶, 《尙書》는 𨔶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校者加從虛.<sup>165)</sup>

교정하는 자가 虛를 따르는 글자로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籀文 𨔶와 같은 字形은 古文字 資料에서 찾아 볼 수 없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4) 卷一上 示部 禱: 篆文作 禱, 籀文作 禱.

《汗簡》은 禱, 《石經》은 禱와 같다. 王國維가 말하기를:

籀文之禱爲禱之誤, 卽禱之得聲.<sup>166)</sup>

籀文 禱의 禱는 禱자의 오류이다. 卽 禱에서 소리(聲)를 얻은 것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64)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589, 再引用.

16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四,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332, 再引用.

166) 王國維: 《劉盼遂記說文練習筆記》, 《國學論叢》, 第二卷, 第二號: 1964.

(35) 卷十一下 辰部 廡: 篆文作, 籀文作.

《汗簡》은 , 와 같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小篆與籀文偏旁迥易, 並無異形, 據此以分篆籀, 恐非許氏原本.<sup>167)</sup>

小篆과 籀文은 偏旁이 位置가 서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것에 근거하여 篆·籀를 區分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許氏原本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6) 卷十三上 糸部 繻: 篆文作, 古文作, 籀文作.

《汗簡》은 , 《石經》은 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古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商承祚와 馬敘倫이 말하기를:

商承祚曰, “繻玉篇入絲部, 不以爲古文. 此糸之古文當作.

자는 《玉篇》에서 <絲部>에 분류되어 있으며 古文이라고 하지 않고 있다. 糸자의 古文은 응당 와 같은 模樣이다.

馬敘倫曰: “方言. 繻, 自關以東周洛韓魏之間謂之綆, 或謂之硤. 關西謂之繻.<sup>168)</sup>

《方言》에서 繻자를 解釋할 때, 關東의 周·洛·韓·魏 등 나라에서 綆 혹은 硤이라고 부르며 關西에서는 繻라고 부른다.

라고 하였다. 籀文 은 古文 보다 部首 臼가 添加된 字形이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167)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二,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301, 再引用.

168) 商承祚: 《說文中之古文考》, 《金陵大學學報》, 金陵大學出版社, 194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九, 2000, p1236, 再引用.

(37) 卷十三下 土部 壞: 篆文從土裏聲作壞, 古文省作𡗗, 籀文作𡗗。

《睡虎地秦簡》은 壞와 같은 模樣의 字形인데 이는 篆文과 같은 字形이다.

《汗簡》은 𡗗와 같은 模樣인데 이는 古文과 같은 字形이다. 馬敘倫은 徐鉉과 鈕樹玉의 말을 빌려 말하기를:

籀文𡗗, 徐鉉曰, 支部有數字, 此重出. 鈕樹玉曰, 蓋後人本繫傳增.<sup>169)</sup>

籀文 𡗗에 對하여 徐鉉은 “支部의 數자가 있는데, 이것은 重複되어 기재된 것이다.”라고 하였고, 鈕樹玉은 “아마도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라고 하였다. 때문에 籀文 𡗗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8) 卷十四上 車部 輶: 篆文作輶, 籀文從彡作輶。

《汗簡》은 輶와 같은 模樣의 字形이다.

앞에서 車자의 籀文 輶를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疑心되는 글자로 判斷하였는데, 輶의 籀文 輶도 車자의 籀文과 다름이 없다. 때문에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만들어져 添加된 것으로 疑心이 된다.

(39) 卷四上 隹部 隹: 篆文作隹, 籀文作隹。

《汗簡》은 隹와 같은 字形이다. 籀文에 對하여 馬敘倫이 말하기를:

倫按從鳥二字校者加之…疑傳寫易之.<sup>170)</sup>

169)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六,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282, 再引用.

170)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七,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四, 2000, p110, 再引用.

나는 “從鳥”라고 한 두 글자는 교정자가 添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傳寫過程中서 생긴 오류이다.

라고 하였다. 卽 이 籀文은 後世사람들에 의해 添加된 것으로 疑心된다.

## 2·2·3·2 其他

다른 글자고 잘못 收錄된 境遇가 있으며 發音이 같거나 字形이 비슷한 글자가 서로 假借되어 쓰이는 境遇도 있는데 다음과 같다.

(1) 卷三上 言部 誕: 篆文作 , 籀文作 .

金文은 와 같은 模樣的 字形인데 言을 따르는 글자가 아니다. 籀文 은 誕의 뜻을 따르는 글자로 這자이다. 卽 誕의 重文으로 這자가 잘못 收錄된 것이다.

(2) 卷五下 食部 舖: 篆文作 , 籀文作 .

《汗簡》은 와 같은데 籀文 과 같은 類型的 字形이다.

馬敘倫은 말하기를:

(說文)籀文筆法皆同古文. 此獨同篆文, 倫按 爲籩之異文.<sup>171)</sup>

籀文의 筆法은 모두 古文과 같은데 이 籀文만은 篆文과 같다. 내가 보기에 는 籩자의 異體字이다.

라고 하였다. 卽 籀文 는 籩자의 異體字로 舖자의 重文으로 잘못 收錄된 것

17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五, 2000, p348, 再引用.

이다.

(3) 卷六下 爻部 爻:篆文作, 籀文作.

甲骨文은 , 金文은 , ,  等 模樣의 字形이다.

強運開가 말하기를:

籀文非爻字, 乃古文若字.<sup>172)</sup>

籀文  은 爻자가 아니라 古文 若자이다.

라고 하였다. 卽  은 若자인데 爻의 籀文으로 잘못 收錄된 것이다.

(4) 卷九下 廠部 廠:篆文作, 籀文作.

甲骨文은 , , 金文은 , , , 《汗簡》은 ,  等 字形이다.

李圃의 《古文字詁林》에 따르면 籀文  은 岸자의 初文이다.<sup>173)</sup> 卽  은 岸자인데 廠의 籀文으로 잘못 收錄된 것이다.

(5) 卷十四上 車部 車:篆文作, 籀文從雙戈(𠄎)作.

甲骨文은 , , , ,  等과 같은 模樣의 字形이고, 金文은 , ,  等과 같은 字形이다.

《古陶文》은 , , , , 《包山楚簡》은 , 《睡虎地秦簡》은 , 《古璽》은  等 模樣의 字形이다.

籀文  에 對하여 馬敘倫은 말하기를:

172) 強運開, 《說文古籀三補》, 卷六;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六, 2000, p42, 再引用.

17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292, 참조.

實爲戰字, 非車字也.<sup>174)</sup>

(籀文𨾏)실제로 戰자이지 車자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따라서 戰자의 異體字 𨾏가 車의 籀文으로 잘못 收錄된 것이다.

(6) 卷一上 示部 崇: 篆文作崇, 籀文作𨾏.

《睡虎地秦簡》은 崇, 崇와 같은데 篆文과 同一한 類型的 字形이다.

籀文 𨾏에 對해서는 考證할 方法이 없으며 研究結果가 없다.

(7) 卷八上 人部 仿: 篆文作仿, 籀文作𠂔.

篆文과 籀文에 對하여 馬敘倫은 말하기를:

丙方同唇音, 聲又同陽類, 故仿轉注爲𠂔.<sup>175)</sup>

丙과 方은 모두 唇音이고 소리(聲) 역시 모두 陽類에 속하므로 仿이 𠂔으로 轉注되어 쓰이고 있다.

라고 하였다. 卽 𠂔은 仿의 假借되어 쓰인 것이며 籀文이 아니다.

(8) 卷十三上 糸部 紆: 篆文作紆, 籀文作紆.

今과 紆은 音聲이 모두 같으므로 서로 假借되어 쓰이고 있다. 卽 紆은 紆의 籀文이 아니다.

(9) 卷一上 示部 禋: 篆文作禋, 籀文作禋.

174)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二十七,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十, 2000, p699, 再引用.

17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五,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七, 2000, p313, 再引用.

甲骨文은 𠩺, 金文은 𠩺, 𠩺, 𠩺 等 模樣의 字形이다.

馬敘倫이 말하기를:

𠩺此非籀文, 乃或體也.<sup>176)</sup>

𠩺는 籀文이 아니라 或體이다.

라고 하였다. 卽 𠩺는 禮의 籀文이 아니라 或體라는 것이다. 或體란 許慎이 《說文》의 重文에 든 篆文이며 筆法은 正文의 篆文과 完全히 同一하다.

(10) 卷四下 步部 𠩺: 篆文作 𠩺, 籀文作 𠩺, 古文作 𠩺.

이 글자는 이미 <玉部·璿>자에서 論議 되었는데 籀文 𠩺가 𠩺자와 서로 假借 되어 쓰이고 있는 事例이다.

(11) 卷七下 宀部 宇: 篆文作 𠩺, 籀文作 𠩺.

甲骨文은 𠩺, 金文은 𠩺와 같은 模樣의 字形인데 篆文 𠩺의 初文이다.

于와 禹는 聲音이 서로 같다. 때문에 馬敘倫은 말하기를:

宇轉注爲寓, 從禹二字校者加之.<sup>177)</sup>

宇자는 寓자로 轉注되어 쓰이고 있으며 禹의 뜻을 따른다고 한 것은 교정자가 만들어 넣은 것이다.

라고 하였다. 卽 𠩺은 篆文 𠩺의 籀文이 아니다.

(12) 卷十二下 𠩺部 𠩺: 篆文作 𠩺, 古文作 𠩺, 籀文作 𠩺.

176)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一,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一, 2000, p120, 再引用.

177)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四,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二, 2000, p774, 再引用.

廬자의 金文은 𡗗, 𡗘 等 模樣의 字形이다.

《說文》卷五의 <皿部·廬>자의 甲骨文이 𡗗, 𡗘 等 模樣의 字形인데 이는 廬자의 初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廬는 《汗簡》에서 𡗗, 《古文四聲韻》은 《義雲章》을 收錄하여 𡗗와 같은 字形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𡗗, 𡗘, 𡗙 等 模樣이 皿자가 變形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籀文 𡗗은 廬자의 古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廬자와 서로 假借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卷一上 玉部 璿: 篆文作 璿, 籀文作 𡗗.

《汗簡》은 𡗗와 같은 模樣으로 篆文과 같다.

籀文 𡗗에 對하여 馬敘倫은 말하기를:

籀文 𡗗爲 𡗗字, 乃 睿之 篆文也.<sup>178)</sup>

籀文 𡗗는 𡗗자이며 睿자의 篆文이다.

라고 하였다. 卽 睿, 𡗗, 璿 세 글자가 서로 假借되어 쓰이는 글자이다.

(14) 卷七上 米部 糲: 篆文作 糲, 籀文作 糲, 古文作 糲.

《汗簡》은 糲와 같은 模樣으로 古文과 같은 字形이다.

古文과 籀文에 對하여 馬敘倫은 말하기를:

古文 糲, 籀文 糲, 乃 轉注字也.<sup>179)</sup>

古文 糲와 籀文 糲은 서로 轉注되는 글자이다.

178)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一, 1983;

李 圃: 《古文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一, 2000, p257, 再引用.

179)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三, 1983;

李 圃: 《古文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六, 2000, p600, 再引用.

라고 하였다. 《說文》의 重文은 “先古後籀”의 順敍로 排列되는 것이 原則인데 이 글자는 籀文이 古文의 앞에 놓였으므로 籀文이 不確實하다.

(15) 卷九下 广部 仄: 篆文作 仄, 籀文作 仄.

《汗簡》은 𠂔와 같다. 朱岐祥이 말하기를:

卜辭晨作 𠂔, 從日從人影, 示日在西方, 人影側也. 𠂔, 此字義與晨同, 當卽仄之本字, 傾倒也.<sup>180)</sup>

卜辭에서 晨자가 𠂔와 같은 模樣으로 日과 사람의 그림자(人影)를 따르는 글자로 𠂔가 서쪽에 있어서 그림자가 기우는 것을 뜻한다. 𠂔, 이 글자의 뜻은 晨자와 같으며 仄자의 初文으로 기운다는 뜻이다.

라고 하였다. 卽 《汗簡》에 收錄된 𠂔은 晨와 같은 뜻이며 仄의 初文이라는 뜻이다. 馬敘倫은 籀文 仄에 對하여 말하기를:

仄爲仄之異文.<sup>181)</sup>

仄은 仄의 異體字이다.

라고 하였다. 馬敘倫이 말하는 “異體字”는 篆文의 “或體”를 말하며 仄와 仄가 서로 假借되어 쓰인다는 뜻이다.

(16) 卷十上 馬部 駕: 篆文作 駕, 籀文作 駕.

《汗簡》은 駕, 《石鼓文》은 駕; 《侯馬盟書》는 駕, 《包山楚簡》은 駕와

180) 朱岐祥: 《殷墟甲骨文字通釋稿》;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314, 再引用.

181)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八,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314, 再引用.

같이 모두 馬을 따르는 字形이다.

籀文은 牛의 뜻을 따르고 있는데, 이는 馬와 牛가 둘 다 명에를 쓴 動物이기에 서로 轉注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17) 卷十下 炙部 炙: 篆文作 , 籀文作 .

《汗簡》은 와 같은 模樣으로 篆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籀文 에 대하여 馬敘倫이 말하기를:

馬敘倫曰籀文爲燻(燻)之異文.<sup>182)</sup>

籀文 은 燻(燻)자의 異體字이다.

라고 하였다. 馬敘倫이 말하는 “異體字”는 篆文의 “或體”를 말하며 와 가 서로 假借되어 쓰인다는 뜻이다.

(18) 卷十三上 蟲部 彊: 篆文作 , 籀文作 .

《汗簡》은  (王庶子碑)와 같은 字形이다. 《睡虎地秦簡》은 와 같은 模樣으로 篆文과 同一한 字形이다. 段玉裁가 말하기를:

彊, 籀文彊, 從虫從彊. 據此則彊者古文. 秦刻石文用彊, 是用古文爲小篆也. 然以彊爲彊, 是六書之假借也.<sup>183)</sup>

彊, 이 籀文이 虫과 彊을 따르는 것으로부터 古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秦刻石文이 彊자를 使用하고 있는데, 이는 古文을 篆文으로 한 것이다. 아울러 彊으로 彊을 대신한 것은 六書의 假借이다.

라고 하였다. 卽 과 은 서로 假借되어 쓰이는 글자이다.

182)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十九,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八, 2000, p763, 再引用.

183)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卷十三上·蟲部彊>, 1981.

(19) 卷二上 牛部 牝: 篆文作牝, 籀文作牝.

籀文에 대하여 王國維가 말하기를:

此籀文爲二歲牛也.<sup>184)</sup>

이 籀文의 뜻은 두 살짜리 소이다.

라고 하였다. 卽 牝은 두 살짜리 소의 뜻으로 牝의 籀文이 아니라 잘못 收錄된 것이다.

(20) 卷三下 革部 鞞: 篆文作鞞, 籀文作鞞.

籀文 鞞에 대하여 馬敘倫은 鈕樹玉의 말을 빌려 말하기를:

鈕樹玉曰, 廣韻無. 鞞之轉注爲鞞.<sup>185)</sup>

鈕樹玉이 말하기를 《廣韻》에 없는 글자이다. 鞞와 鞞의 轉注字이다.

라고 하였다. 卽 鞞은 鞞의 籀文이 아니다.

184) 王國維: <史籀疏證>, 《王國維遺書》, 第六卷 上海古籍出版社, 1983.

185) 馬敘倫: <說文解字六書疏證>, 上海古籍出版, 卷六, 1983;

李 圃: <古文字詁林>, 上海教育出版社, 卷三, 2000, p269, 再引用.

## IV. 結 論

後漢의 許慎이 지은 《說文》은 총 9353個의 正文과 1165개의 重文을 收錄하고 漢字의 字形, 字音, 字意를 解釋한 中國最初의 字典이다.

許慎은 “今敍篆文, 合以古籀”라고 하는 前題아래 正文에는 주로 篆文을 두고 重文에는 주로 古文과 籀文을 두는 方法으로 《說文》의 體系를 構築고 있다.

本稿에서 《說文》의 主軸을 이루고 있는 篆文, 古文, 籀文에 對하여 살펴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籀文이란 許慎이 金文大篆을 省改하여 《說文》에 收錄한 새로운 書體名稱으로 大篆, 《史籀篇》과 다른 概念이다.

大篆, 《史籀篇》, 籀文이 同一한 書體인가 아니면 결코 同一한 書體가 아닌가에 對하여 既存 學界의 認識이 서로 다르지만, 筆者는 唐蘭이 《中國文字學》에서 “大篆과 籀文은 다르다.”라고 한 主張을 支持한다.

《說文》의 <艸部>에는 무려 53개의 正文과 2개의 重文이 “從𠂔”일 때 “大篆”이라고 說明하고 있지만 具體的인 文字는 提示하지 않고 있다. 이에 段玉裁는 “從𠂔”의 글자를 만들어 넣고 原文의 大篆이라는 두 글자를 籀文이라고 고쳐 “籀文作某”라고 補充說明하였다. 하지만 甲骨文이나 金文과 같은 原始資料가 不足하고, 또 篆文인 籀文을 楷書體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非科學的인 態度이며 字體와 書體의 概念을 混同한 것이며 따를 바가 못 된다.

《說文》에는 또 이른바 《史篇》을 引用하여 解說한 “𠂔”, “𠂔”와 “𠂔” 등의 세 글자가 있지만, 이 《史篇》이 周 宣王 때의 《史籀篇》으로 된 大篆인지는 確實하지 않다는 結論을 얻었다.

둘째: 小篆은 李斯의 書體이다. 아울러 一般的으로 正文의 書體를 小篆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小篆이란 秦나라 때의 李斯가 지은 《倉頡篇》으로서 後漢의 許慎이 지은 《說文》으로부터 約 300年 前의 字書에 쓰인 書體이다.

書體는 變化하기 마련이다. 書體 變化의 原因은 主로 時代的, 地域的인 差異에 있으며 書寫方法과 다른 書法家 등이 있다. 李斯로부터 許慎에 이르기까지 300餘年이란 긴 歲月이 흐르면서 이 네 가지 書體變化의 重要한 要素에 依하여 많은 書體的 變化를 가져오게 된 것은 事實이다. 그러므로 《說文》의 書體를 小篆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卽 周 宣王 때의 《史籀篇》은 太史의 書體로서 “大篆”이라 부르고, 秦始皇 時代의 《倉頡篇》은 李斯의 書體로서 “小篆”이라고 부르듯이 《說文》은 許慎의 書體로서 著者의 뜻을 따라 “篆文”이라고 부르는 것이 마땅하다.

셋째: 古文은 그것이 使用된 時代나 地域에 대해서 여러 가지 說들이 있다.

筆者는 廣義的인 概念에서 말하는 古文이란 “漢대에 발굴한 각종 金文을 비롯하여 古代의 經典에 쓰인 書體”라는 許慎의 解說과, 段玉裁가 “大篆이 古文에서 비롯되었으며 小篆은 또 古文이나 大篆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부터 古文은 地域이나 時代에 關係없이 小篆 以前文字의 總稱이라고 認識하고 있다. 아울러 唐蘭이 “古文은 商, 周時期의 文字”라고 主張한 것도 옳다고 본다.

그러나 《說文》에서의 古文은 狹義的인 것으로서 周로 “孔子壁中書”에 局限되고 있다. 이와 같은 經典의 古文書體는 “蝌蚪體”라는 書體的特徵을 지니고 있다. 비록 經書들의 書體는 一定한 書體的特徵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傳寫過程에 訛傳된 것이 많고, 風格 또한 많은 差異를 보이고 있다. 不規則的이던 古文이 許慎의 손을 거쳐 整理되면서 篆文의 一種인 《說文》의 古文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비록 篆文의 一種이지만 古文이라고 부르는 것은 許慎이 文字의 出處를 分明히 하기 위해서였다.

《說文》의 古文은 兵器, 陶器, 古璽, 貨幣 등과 같은 古文字를 考證하는 하나의 重要한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說文》이 2千餘年 동안 傳해져 내려오면서 後世 사람들에 依하여 訛傳된 部分이 적지 않게 發見되고 있다. 그리하여 古文에 對하여 歷代로 議論이 紛紛한데 반드시 그 眞僞를 가릴 必要가 있다.

《汗簡》과 《石經》은 現在 傳해지고 있는 소위 “傳抄古文” 中에서도 그 價値를 이미 認定받은 重要的 傍證 資料로서, 《汗簡》과 《石經》을 利用하여 古代文字를 考證하는 學者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本稿에서도 《說文》의 古文과 《汗簡》, 《石經》의 古文을 서로 比較分析하여 印證하는 研究를 進行하였으며, 그 結果 다음과 같다:

筆者의 統計에 의하면 《說文》에서 古文이라고 明示한 글자는 모두 412개<sup>186)</sup>이며, 《詩》, 《古尚書》, 《古老子》, 《古孝經》, 《古史記》, 《古論語》, 《古爾雅》, 《古周易》, 《古周禮》等 經典을 인용한 글자는 모두 1135개이다.<sup>187)</sup> 412개 古文이라고 明示한 글자 중 “壁中書”에 符合되어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글자는 모두 273개 글자이며, 古文으로 確定할 수 없는 글자는 모두 112개로 後世사람들에 依하여 添加되었거나 訛傳된 글자들이다. 나머지는 假借되었거나 重複하여 收錄된 글자들이다.

넷째: 籀文을 分析한 結果, 籀文은 許慎의 書體로서 篆文의 一種이며 大篆이나 《史籀篇》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大篆의 範圍는 相當히 廣範圍한 것으로, 甲骨文, 金文 等 아직 字體와 書體로 成熟되는 段階에 있는 篆文의 總稱이다. 周나라 때의 《史籀篇》은 아마도 이런 大篆 중의 하나였을 것이다.

本稿의 序論에서 이미 言及하였다시피 漢字의 字體는 모두 篆, 隸, 楷, 行, 草 等 다섯 가지로 나뉜다. 다섯 가지 書體 中 “篆”에 속하는 甲骨文, 金文, 古文, 篆文 等은 모두 하나의 같은 字體 卽 篆書이며, 다만 風格이 서로 다른 書體일뿐이다.

大篆은 種類가 相當히 많고 字形이나 書風이 매우 多樣한데 許慎은 이러한 大篆을 省改하여 《說文》에 收錄하여 重文에 排列할 때 古文과 同一한 “蝌蚪體” 筆法으로 書寫하여 書體統一을 하였으며 籀文이라고 命名하였다. 때문에 우리가 《說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古文과 籀文의 書體의 特徵은 똑 같다는 것을 알

186) 부록2 참조.

187) 부록3 참조.

수 있다.

馬敘倫은 古文과 籀文의 筆法이 같은 것에 對하여 重視하였다. 그는 “籀文筆法 皆同古文.”라고 말하면서 筆法을 比較分析하는 方法으로 古文과 籀文의 眞僞與否를 判斷하기도 하였다. 筆法이 同一할 뿐만 아니라 古文과 籀文은 모두 篆文의 書體的 特徵을 지니고 있으며 許慎에 의하여 하나의 完全한 體系를 이루었다고 할 것이다.

籀文도 兵器, 陶器, 古璽, 貨幣 등과 같은 古文字를 考證하는 重要한 資料 中の 하나이기 때문에, 筆者는 古文과 同一한 方法으로 籀文의 眞僞를 가리는 作業을 하여 다음과 같은 結果를 얻었다.

筆者의 統計에 依하면 《說文》의 籀文은 모두 198개이다.<sup>188)</sup> 그 中 古文으로 確定할 수 있는 94개의 글자와, 籀文으로 默認될 수 있는 82개의 글자는 총 176개이다. 나머지는 確定할 수 없는 籀文이거나 假借, 혹은 重複되어 收錄된 글자이다.

다섯째: 正文과 重文은 “서로 音義가 같고 外形이 다른 글자”이다. 本稿에서 살펴본 結果 《說文》의 正文에는 篆文만 있는 것이 아니라 古文이나 籀文도 있으며, 重文에는 또 古文이나 籀文만 있는 것이 아니라 篆文도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許慎은 李斯의 小篆을 省改하여 더욱더 짜임새가 짜이고 秀麗한 篆文이라는 새로운 書體를 만들어 냈다. 李斯의 小篆은 글자 數가 3300餘 個로 限定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許慎은 小篆 외에도 많은 다른 書體까지도 整理하여 篆文을 만들었다. 筆者가 살펴본 데에 依하면 正文 속에는 小篆을 省改한 篆文, 古文을 省改한 篆文; 大篆을 省改한 篆文, 漢篆을 省改한 篆文; 그리고 其他 漢字發展의 法則에 符合되지 않는 訛傳된 篆文 등 여러 文字들이 두루 包含되어 있었다.

正文과 重文을 區分하기 위하여 許慎은 筆法에 變化를 주는 方法을 選擇하였다. 卽 古文과 籀文을 正文에 排置할 때에는 篆文의 藏鋒과 圓筆의 筆法으로, 重文에 排置할 때에는 古文의 露鋒과 尖筆의 筆法으로 字形을 確然하게 구분하고 있다.

188) 부록4 참조.

結果적으로 《說文》의 古文과 籀文은 篆文의 一種으로 重文이 될 때는 “蝌蚪體”의 書體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으며, 正文이 될 때에는 典型的인 篆文의 書體的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篆文은 古文과 籀文을 비롯한, 漢 隸書 以前의 모든 文字를, 許慎 個人이 하나의 書體로 書體로 統一한 것으로, 《說文》에서 새롭게 쓴 하나의 書體, 즉 一種의 許慎體라고 命名할 수 있다.



## 參考文獻

### <資料本>

- 李 圃,《古文字詁林》,上海,上海教育出版社,2000
- 李正光,《楚漢簡帛書典》,湖南美術出版社,1998
- 李 斯,《嶧山刻石》,陝西人民美術出版社,1988
- 郭忠恕,《汗簡》,上海,商務印書館,民國23
- 郭忠恕,《汗簡》,上海涵芬樓,圓光大學圖書館藏,1964
- 劉正成,《中國書法全集》,〈吳昌碩卷〉,中國榮寶齋出版社,2009
- 徐在國,《傳抄古文字編》,線裝書局,2006
- 徐無聞,《甲金篆隸大字典》,四川辭書,1991
-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辭書,1989
- 徐中舒,《漢語古文字字形表》,四川辭書,1981
- 嚴志斌,《金文編》,吉林大學出版社,2001
- 啓 功,《書法大字海》,中國海南出版社,1978
- 孫海波,《甲骨文編》,廣文出版社,1963
- 容庚編,《金文編》,中華書局出版,1985
- 汪仁壽,《金石大字典》,天津古籍出版社,2002
- 王羲之,《蘭亭敘》,吉林文史出版社,2007

### <單行本>

- 許 慎,《說文解字》,江蘇廣陵出版社,1997
- 許 慎,《說文解字新訂》,中華書局,2002
- 桂 馥,《說文解字義證》,中華書局,2000

- 高 明,《中國古文字通論》,北京大學出版社,1987
- 郭沫若,《卜辭通纂》,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編輯/科學出版社,1983
- 郭沫若,《兩周金文辭大系考釋》,文求堂書店,1935
- 郭沫若:《信陽墓的年代與國別》,文物出版社,1958
- 段玉裁,《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1981
- 王 筠,《說文解字句讀》,中華書局,1971
- 王國維,《觀堂集林》,中華書局,1959
- 王國維,《王國維遺書·史籀篇疏證》,商務印書館,1940
- 王 澍,《虛舟題跋》,上海書店出版社,1994
- 王 寧,《〈說文解字〉與漢字學》,河南人民出版社,1994
- 王 寧,《漢字構形學講座》,上海教育出版社,2002
- 王 筠,《說文釋例》,世界出版社,1969
- 王 平:《說文重文系統研究》,華東師範大學出版社,2008
- 黃錫全,《汗簡校注》,武漢大學出版社,1990
- 朱駿聲,《說文解字通訓定聲》,線裝古籍出版社,1978
- 薑學謙,《說文解字綜合研究》,臺灣,中央書局,民國59
- 陳夢家,《中國文字學》,中華書局,2006
- 吳大澂,《說文古籀補·敍》,中華書局,1975
- 李國英,《小篆形聲字研究》,北京師範大學出版社,1996
- 劉 釗,《古文字構形學》,福建人民出版社,2006
- 陸宗達,《說文解字通論》,北京出版社,1981
- 孫海波,《三體石經集錄》,台灣,藝文印書館,1975
- 蘇士澍,《中國書法藝術·秦漢》,〈陽陵虎符〉,文物出版社,2000
- 裘錫圭,《文字學概要》,商務印書館,1988
- 趙平安,《說文小篆研究》,廣西教育出版社,1999
- 趙立偉,《魏三體石經古文輯證》,社會科學文獻出版社,2007
- 殷寄明,《說文解字精讀》,復旦大學出版社,2007
- 竇文字,竇勇,《漢字字源:當代新說文解字》,吉林文史出版社,2005

- 叢文俊,《中國書法史》,江蘇教育出版社,2002
- 宋易麟,《說文解字今注》,江西教育出版社,2004
- 秦始皇兵馬俑博物館編,《秦兵馬俑印譜》,三秦出版社,1990
- 吳大澂,《字說》,長沙思賢講舍,1893
- 羅振玉,《增訂殷墟書契考釋》,上海東方學會,1927
- 羅振玉,《石鼓文考釋》,藝文印書館,1974
- 高田忠周,《古籀補遺》,日本凸版印刷株式會社,1925
- 段玉裁,《說文解字注》,世界出版社,1962
- 桂馥,《說文義證》,臺灣商務出版社,1963
- 范進軍,《大徐本重文初探》,河南大學出版社,1991
- 容庚,《中國文字學形編》,文字改革出版社,1959
- 朱駿聲,《說文通訓定聲》,藝文出版社,1966
- 丁福保,《說文解字詁林》,台灣商務出版社,1966
- 商承祚,《說文中之古文考》,上海古籍出版社,1983
- 馬敘倫,《說文解字六書疏證》,上海古籍出版社,1983
- 馬敘倫,《石鼓文疏記》,商務印書館,2008
- 馬敘倫,《說文解字研究法》,上海商務印書館,1933
- 孫海波,《甲骨金文研究》,廣文出版社,1966
- 裘錫圭,《文字學概要》,商務印書館,1988
- 唐蘭,《中國文字學》,上海古籍出版社,1983
- 顧實,《中國文字學》,東南大學叢書,1924
- 詹鄞鑫,《漢字說略》,遼寧教育出版社,1991
- 阿辻哲次/심경호,《漢字學-說文解字의 세계》,이희문화사,1996

### <論文>

- 商承祚,《說文中之古文考》,《金陵大學學報》,金陵大學出版社,1940
- 陳世輝,《略論說文解字中的省聲》,《古文字研究》,第一輯,中華書局,1979

- 趙 誠,〈中山壺,中山鼎銘文試釋〉,《古文字研究》,第一輯,中華書局,1979
- 張政烺,〈周厲王胡簋釋文〉,《古文字研究》,第三輯,中華書局,1980
- 馬國權,〈戰國楚竹簡文字略說〉,《古文字研究》,第三輯,中華書局,1980
- 于省吾,〈墻盤銘文十二解〉,《古文字研究》,第五輯,中華書局,1981
- 商承祚,〈石刻篆文編字說〉,《古文字研究》,第五輯,中華書局,1981
- 于豪亮,〈古璽考釋〉,《古文字研究》,第五輯,中華書局,1981
- 李 零,〈楚國銅器銘文編年匯釋〉,《古文字研究》,第十三輯,中華書局,1981
- 徐中舒,〈怎樣研究中國古代文字〉,《古文字研究》,第十五輯,中華書局,1986
- 何琳儀,〈戰國文字與傳抄古文〉,《古文字研究》,第十五輯,中華書局,1986
- 黃錫全,〈利用“汗簡”考釋古文字〉,《古文字研究》,第十五輯,中華書局,1986
- 張桂光,〈古文字中的形体訛變〉,《古文字研究》,第十五輯,中華書局,1986
- 黃錫全,〈古文字考釋數則〉,《古文字研究》,第十七輯,中華書局,1989
- 姚炳祺,〈“說文”中之聲訓釋例〉,《古文字研究》,第二四輯,中華書局,1989
- 劉樂賢,〈說文“法”字古文補釋〉,《古文字研究》,第二四輯,中華書局,1989
- 安在哲,〈“韻略匯通”의 音價 推定〉,成均館大學校 大學院,1994
- 趙 衛,〈說文籀文研究〉,吉林文史出版社,2001
- 潘玉坤,〈籀文字數考索〉,《古籍研究》,第二期,2002
- 李玲璞,〈正本清源說異體〉,《言語研究》,第一期,2003
- 樓 蘭,〈說文解字小篆構件系統研究〉,華東師範大學,2003
- 曾憲通,〈三體石經古文與說文古文合證〉,中山大學出版社,2005
- 徐 權,〈說文古文真偽小考〉,《中國言語研究》,第26輯,2008
- 徐 權,〈說文籀文小考〉,《中國言語研究》,第29輯,2009
- 徐 權,〈關於說文解字篆文〉,《中國言語研究》,第31輯,2010

## 【中文提要】

### 《說文解字》篆文研究

濟州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科

徐 權

許慎“今序篆文，合以古籀”之說，有著深遠的歷史意義。

《說文》研究者對古文和籀文的時代、地域、字形等研究的很活躍，如王國維的“東西二土”之說，將古文和籀文斷定為同時代不同地域(春秋戰國時期東西二土)使用的不同的書體之名。唐蘭，王平等學者則人為古文與大篆乃商，周時期的文字，大篆不同於籀文。再如段玉裁“省者，減其繁重；改者，改其怪奇……云取史籀大篆，或頗省改者，言史籀大篆則古文在其中。大篆既或改古文，小篆復或改古文大篆。或之雲者，不盡省改也，不改者多，則許所列小篆，固皆古文大篆。其不雲古文作某，籀文作某者，古籀同小篆也；其既出小篆，又云古文作某，籀文作某者，則所謂或頗省改者也”之說，大篆包括古文，小篆或省改古文大篆而來，其將古文的時代理解為早於大篆的時代。段氏還將<草部>五十三個“大篆”自作從隸之楷書字體，並篡改成“籀文作某”，無古文字資料的情況下如此做法，乃實屬非科學的態度。

總之，迄今為止仍對古文和籀文議論紛紛。而且所有的研究者無人注意字體與書體的區別，段玉裁就犯了如此的錯誤，將所謂的大篆作成楷書字體，但後世的研究者都信以為真，其主要原因在於只注意到字形結構，忽視了文字學與書法的關係。

對古文和籀文的研究很活躍，但對於篆文的研究卻毫無作為，其主要原因是研究者都認為篆文就是小篆，將篆文與小篆同等視之。其實《說文》中的篆文並不等於小篆，小篆是秦時統一文字，按《說文·序》小篆的前身是史籀大篆，即李斯等《倉頡三編》根據“史籀大篆十五篇”而所撰，其字數有限，約三千三百字左右。而《說文》篆文近萬字，單以數量而論亦能看出篆文非小篆矣。筆者特別支持唐蘭的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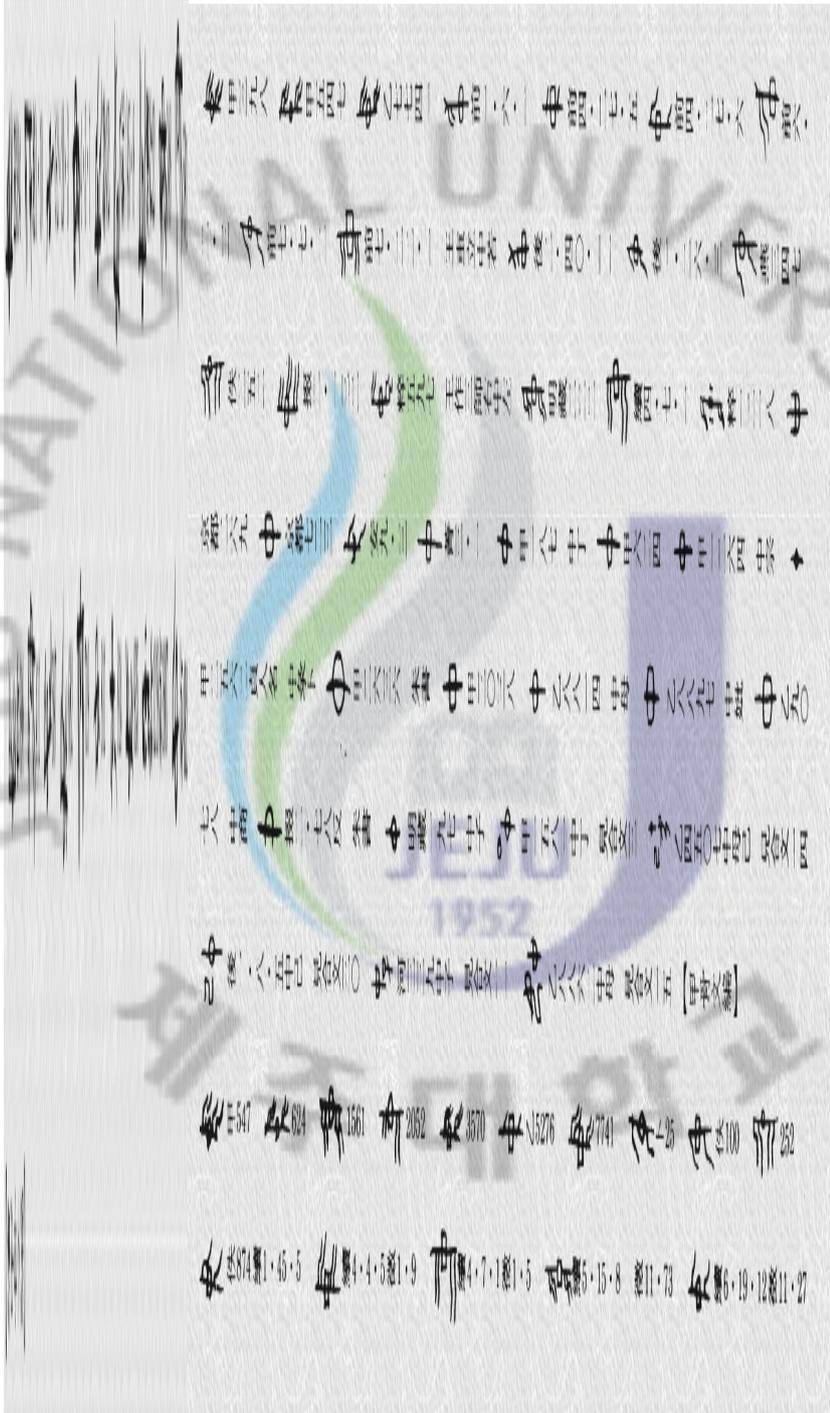
點，他認為《史籀篇》是用大篆寫成的一本書，《倉頡篇》是用小篆寫成的一本書。遺憾的是，他沒有提(認識)到《說文》是許慎用自己的書體——篆文寫成的一本書。

許慎分明是一位傑出的書法家，他根據小篆與古文的書法特點，廣收各種前代的篆書，演練數十載而自成一家，創造出了比小篆更趨於完美無缺的新的書體，並稱之為篆書。作為一個古文學家，許慎對於古文的書法特點研究亦十分透徹，故，他的篆文既有小篆的端正典雅的特點，也有古文“蝌蚪體”的顯著風格。《說文》之中古文，幾乎全取自於“孔子壁中書”，作為一個忠實的古文學家，許慎並沒有改動古文之名稱及書寫特點，再參以小篆的書法特點，形成了與篆文有所區別的《說文》的另一種書體。並且廣收金文大篆，稱之為籀文，以古文“蝌蚪體”的書風作之，故，古·籀實屬《說文》之同一種書體。且，古·籀作為重文時以古文面貌出現，作為正文時則以篆文面貌出現。篆·古·籀乃“彼此音義相同而外形不同的字”，被許慎收集到《說文》時則變成了自成一系的書體。

通過拙文可證，古·籀乃篆文的一種，篆文實際上是許慎自成一家的書體。

<附錄>

1. 中的 古文資料









## 2. 古文이라고 밝힌 글자

- (1) 卷一上 一部 一: 惟初太始, 道立於一, 造分天地, 化成萬物. 凡一之屬皆从一. 於悉切. , 古文一.
- (2) 卷一上 土部 上: 高也.此古文上, 指事也.凡土之屬皆从土.時掌切. , 古文. 
- (3) 卷一上 土部 帝: 諦也. 王天下之號也. 从土東聲. 都計切. , 古文帝.
- (4) 卷一上 土部 旁: 溥也.从二, 闕; 方聲. , 古文.
- (5) 卷一上 示部 示: 天垂象, 見吉凶, 所以示人也. 从二. 三垂, 日月星也. 觀乎天文, 以察時變. 示, 神事也. 凡示之屬皆从示. , 古文示.
- (6) 卷一上 示部 禮: 履也.所以事神致福也.从示从豊, 豊亦聲. , 古文.
- (7) 卷一上 示部 禋: 燒柴燂燎以祭天神.从示此聲.《虞書》曰:“至于岱宗, 禋.” 仕皆切. , 古文禋从隋省.
- (8) 卷一上 示部 社: 地主也.从示, 土.《春秋傳》曰:“共工之子句龍爲社神.”《周禮》:“二十五家爲社, 各樹其土所宜之木.” 常者切. , 古文.
- (9) 卷一上 王部 王: 天下所歸往也.董仲舒曰:“古之造文者, 三畫而連其中謂之王.三者, 天, 地, 人也, 而參通之者王也.”孔子曰:“一貫三爲王.”凡王之屬皆从王.兩方切. , 古文.
- (10) 卷一上 玉部 玉: 石之美.有五德: 潤澤以溫, 仁之方也; 皜理自外, 可以知中, 義之方也; 其聲舒揚, 專以遠聞, 智之方也; 不撓而折, 勇之方也; 銳廉而不技, 絜之方也.象三玉之連. |, 其貫也.凡玉之屬皆从玉. 魚欲切. , 古文.
- (11) 卷一上 玉部 璿: 美玉也.从玉睿聲.《春秋傳》曰:“璿弁玉纓.” 似沿切. , 古文.
- (12) 卷一上 玉部 瑁: 諸侯執圭朝天子, 天子執玉以冒之, 似犁冠.《周禮》曰:“天子執瑁四寸.” 从玉, 冒, 冒亦聲.莫報切. , 古文從目.
- (13) 卷一上 玉部 玕: 琅玕也.从玉干聲.《禹貢》:“雒州球琳琅玕.” 古寒切, , 古文.
- (14) 卷一上 丨部 中: 內也.从口.丨, 上下通.陟弓切. , 古文.
- (15) 卷一下 中部 毒: 厚也.害人之艸, 往往而生.从中从毒.徒沃切. , 古文.
- (16) 卷一下 艸部 莊: 上諱.臣鉉等曰: 此漢明帝名也.从艸从壯, 未詳.側羊切. , 古文.
- (17) 卷一下 艸部 荆: 楚木也.从艸刑聲.舉卿切. , 古文.
- (18) 卷一下 艸部 蕢: 艸器也.从艸賢聲.求位切.古文蕢, 象形.《論語》曰:“有荷與而過孔氏之門.” , 古文.
- (19) 卷一下 艸部 折: 斲, 斷也.从斤斷艸.譚長說.食列切. , 籀文折从艸在彡中, 彡寒故折.篆文 (折)折从手. , 古文.
- (20) 卷二上 采部 采: 辨別也.象獸指爪分別也.凡采之屬皆从采.讀若辨.蒲莧切. , 古文.
- (21) 卷二上 采部 番: 獸足謂之番.从采; 田, 象其掌.附袁切. , 番或从足从煩. , 古文番.
- (22) 卷二上 采部 悉: 詳盡也.从心从采.息七切. , 古文悉.
- (23) 卷二上 犛部 麤: 彊曲毛, 可以箸起衣.从犛省, 來聲.洛哀切. , 古文麤.
- (24) 卷二上 口部 咳: 小兒笑也.从口亥聲.戶來切. , 古文咳从子.
- (25) 卷二上 口部 哲: 知也.从口折聲.陟列切. , 哲或从心. , 古文哲从三吉.
- (26) 卷二上 口部 君: 尊也.从尹.發號, 故从口.舉云切. , 古文, 象君坐形.

- (27) 卷二上 口部 周：密也。从用，口。職畱切。**𠄎**，古文周字从古文及。
- (28) 卷二上 口部 吝：恨惜也。从口文聲。《易》曰：“以往吝。” 臣鉉等曰：今俗別作恡，非是。良刃切。**𠄎**，古文吝从𠄎。
- (29) 卷二上 口部 舌：塞口也。从口，𠄎省聲。(𠄎，音厥。) 古活切。**𠄎**，古文从甘。
- (30) 卷二上 口部 台：山間陷泥地。从口，从水敗兒。讀若沈州之沈。九州之渥地也，故以沈名焉。以轉切。**𠄎**，古文台。
- (31) 卷二上 田部 嚴：教命急也。从田嚴聲。語杵切。**𠄎**，古文。
- (32) 卷二上 走部 起：能立也。从走巳聲。墟里切。**𠄎**，古文起从起。
- (33) 卷二下 正部 正：是也。从止，一以止。凡正之屬皆从正。徐鍇曰：“守一以止也。”之盛切。**𠄎**，古文正从二，二，古上字。**𠄎**，古文正从一，足。足者亦止也。
- (34) 卷二下 辵部 造：就也。从辵告聲。譚長說：造，上土也。七到切。**𠄎**，古文造从舟。
- (35) 卷二下 辵部 速：疾也。从辵束聲。桑谷切。**𠄎**，籀文从𠄎，𠄎，古文从𠄎从言。
- (36) 卷二下 辵部 徙：遠也。从辵止聲。斯氏切。**𠄎**，徙或从辵。**𠄎**，古文。
- (37) 卷二下 辵部 遷：登也。从辵𠄎聲。七然切。**𠄎**，古文遷从手，西。
- (38) 卷二下 辵部 近：附也。从辵斤聲。渠遼切。**𠄎**，古文近。
- (39) 卷二下 辵部 邇：近也。从辵爾聲。兒氏切。**𠄎**，古文。**𠄎**，此亦古文。
- (40) 卷二下 辵部 遠：遼也。从辵袁聲。雲阮切。**𠄎**，古文远。
- (41) 卷二下 辵部 邈：遠也。从辵狄聲。他歷切。**𠄎**，古文。
- (42) 卷二下 辵部 道：所行道也。从辵从辵。一達謂之道。徒皓切。**𠄎**，古文从寸。
- (43) 卷二下 辵部 往：之也。从辵𠄎聲。于兩切。**𠄎**，古文从辵。
- (44) 卷二下 辵部 復：卻也。一曰行遲也。从辵从日。他內切。復或从內。**𠄎**，古文从辵。
- (45) 卷二下 辵部 後：遲也。从辵，幺，爻者，後也。徐鍇曰：“幺，猶纒踵之也。”胡口切。**𠄎**，古文後从辵。
- (46) 卷二下 辵部 得：行有所得也。从辵彳聲。多則切。**𠄎**，古文省辵。
- (47) 卷二下 辵部 御：使馬也。从辵从卸。徐鍇曰：“卸，解車馬也。或辵或卸皆御者之職。”牛據切。**𠄎**，古文御从又。从馬。
- (48) 卷二下 齒部 齒：口斷骨也。象口齒之形，止聲。凡齒之屬皆从齒。昌里切。**𠄎**，古文。
- (49) 卷二下 牙部 牙：牡齒也。象上下相錯之形。凡牙之屬皆从牙。五加切。**𠄎**，古文。
- (50) 卷二下 冊部 冊：符命也。諸侯進受於王也。象其札一長一短，中有二編之形。凡冊之屬皆从冊。楚革切。**𠄎**，古文冊从竹。
- (51) 卷二下 冊部 嗣：諸侯嗣國也。从冊从口，司聲。徐鍇曰：“冊必於廟。史讀其冊，故从口。”祥吏切。**𠄎**，古文嗣从子。
- (52) 卷三上 冊部 囁：語聲也。从冊臣聲。語巾切。**𠄎**，古文。
- (53) 卷三上 谷部 𠄎：舌兒。从谷省。象形。他念切。古文，**𠄎**。讀若三年導服之導。一曰竹上皮。讀若沾。一曰讀若誓。弼字从此。
- (54) 卷三上 冏部 商：从外知內也。从冏，章省聲。式陽切。**𠄎**，**𠄎**，古文。**𠄎**，籀文。
- (55) 卷三上 古部 古：故也。从十，口。識前言者也。凡古之屬皆从古。臣鉉等曰：十口所傳是前言也。公戶切。**𠄎**，古文。
- (56) 卷三上 言部 詩：志也。从言寺聲。書之切。**𠄎**，古文詩省。

- (57) 卷三上 言部 謨：議謀也。从言莫聲。《虞書》曰：“咎繇謨。”莫胡切。𠄎，古文謨从口。
- (58) 卷三上 言部 謀：慮難曰謀。从言某聲。莫浮切。𠄎，𠄎并古文。
- (59) 卷三上 言部 訊：問也。从言卂聲。思晉切。𠄎，古文訊从卂。
- (60) 卷三上 言部 信：誠也。从人从言。會意。息晉切。𠄎，𠄎并古文。
- (61) 卷三上 言部 誥：告也。从言告聲。古到切。𠄎，古文。
- (62) 卷三上 言部 繇：亂也。一曰治也。一曰不絕也。从言。絲。呂員切。𠄎，古文。
- (63) 卷三上 言部 訟：爭也。从言公聲。曰：譌訟。似用切。𠄎，古文。
- (64) 卷三上 言部 譙：媯譙也。从言焦聲。讀若噲。才肖切。𠄎，古文从肖。
- (65) 卷三上 辛部 業：大版也。所以飾縣鍾鼓。捷業如鋸齒，以白畫之。象其鉏鋸相承也。从辛从巾。巾象版。《詩》曰：“巨業維樅。”魚怯切。𠄎，古文。
- (66) 卷三上 収部 弁：蓋也。从升从合。古南切。一儉切。𠄎，古文。
- (67) 卷三上 収部 兵：械也。从升持斤，并力之兒。補明切。𠄎，籀文。𠄎，古文兵，从人，升，干。
- (68) 卷三上 共部 共：同也。从廿，升。凡共之屬皆从共。渠用切。𠄎，古文。
- (69) 卷三上 昇部 輿：升高也。从昇囟聲。七然切。𠄎，輿或从口。𠄎，古文。
- (70) 卷三上 臼部 要：身中也。象人要自臼之形。从臼，交省聲。於消切。於笑切。𠄎，古文。
- (71) 卷三上 晨部 農：耕也。从晨囟聲。徐鍇曰：“當从囟乃得聲。”奴冬切。𠄎，籀文農从林。𠄎，𠄎，并古文。
- (72) 卷三下 革部 革：獸皮治去其毛，革更之。象古文革之形。凡革之屬皆从革。古覈切。𠄎，古文革从三十。三十年為一世，而道更也。白聲。
- (73) 卷三下 革部 鞭：驅也。从革僂聲。卑連切。𠄎，古文。
- (74) 卷三下 爪部 孚：卵孚也。从爪从子。一曰信也。徐鍇曰：“鳥之孚卵皆如其期，不失信也。鳥衰恆以爪反覆其卵也。”芳無切。𠄎，古文字从示，示，古文保。
- (75) 卷三下 爪部 爲：母猴也。其爲禽好爪。爪，母猴象也。下腹爲母猴形。王育曰：“爪，象形也。”蕩支切。𠄎，古文爲象兩母猴相對形。
- (76) 卷三下 又部 宏：臂上也。从又，从古文。古薨切。𠄎，古文宏，象形。𠄎，宏或从肉。
- (77) 卷三下 又部 尹：治也。从又，丿，握事者也。余準切。𠄎，古文。
- (78) 卷三下 又部 及：逮也。从又从人。徐鍇曰：“及前人也。”巨立切。𠄎，古文及。《秦刻石》及如此。𠄎，𠄎亦古文。
- (79) 卷三下 又部 反：覆也。从又，厂反形。府遠切。𠄎，古文。
- (80) 卷三下 又部 段：借也。闕。古雅切。𠄎，譚長說：段如此。𠄎，古文。
- (81) 卷三下 又部 友：同志爲友。从二又。相交友也。云久切。𠄎，𠄎，古文。
- (82) 卷三下 史部 事：職也。从史，之省聲。鉏史切。𠄎，古文。
- (83) 卷三下 支部 支：去竹之枝也。从手持半竹。凡支之屬皆从支。章移切。𠄎，古文。
- (84) 卷三下 聿部 肅：持事振敬也。从聿在肅上，戰戰兢兢也。息逐切。𠄎，古文。
- (85) 卷三下 畫部 畫：界也。象田四界。聿，所以畫之。凡畫之屬皆从畫。胡麥切。𠄎，𠄎，古文。
- (86) 卷三下 彳部 役：戍邊也。从彳从彳。臣鉉等曰：彳，步也。彳亦聲。營隻切。𠄎，古文役从人。
- (87) 卷三下 殺部 殺：戮也。从彳杀聲。凡殺之屬皆从殺。臣鉉等曰：《說文》無杀字。相傳云音察。未知所出。所八切。𠄎，𠄎，𠄎并古文。

- (88) 卷三下 皮部 皮：剥取獸革者謂之皮。从又，爲省聲。凡皮之屬皆从皮。符羈切。𠩺，籀文；𠩺，古文。
- (89) 卷三下 甞部 甞：柔韋也。从北，从皮省，从夨省。凡甞之屬皆从甞。讀若奕。一曰若雋。臣鉉等曰：北者，反覆柔治之也。夨，營也。而究切。𠩺，籀文；𠩺，古文。
- (90) 卷三下 支部 徹：通也。从彳从支从育。丑列切。𠩺，古文。
- (91) 卷三下 教部 教：上所施下所效也。从支从孝。凡教之屬皆从教。古孝切。𠩺，𠩺并古文。
- (92) 卷三下 卜部 卜：灼剥龜也，象灸龜之形。一曰象龜兆之從橫也。凡卜之屬皆从卜。博木切。𠩺，古文。
- (93) 卷三下 卜部 𠩺：灼龜坼也。从卜；兆，象形。治小切。𠩺，古文。
- (94) 卷三下 用部 用：可施行也。从卜从中。衛宏說。凡用之屬皆从用。臣鉉等曰：卜中乃可用也。余訟切。𠩺，古文。
- (95) 卷四上 目部 目：人眼。象形。重童子也。凡目之屬皆从目。莫六切。𠩺，古文。
- (96) 卷四上 目部 睹：見也。从目者聲。當古切。𠩺，古文从見。
- (97) 卷四上 目部 睦：目順也。从目圭聲。一曰敬和也。莫卜切。𠩺，古文。
- (98) 卷四上 眉部 省：視也。从眉省，从中。臣鉉等曰：中，通識也。所景切。𠩺，古文从少从冂。
- (99) 卷四上 自部 自：鼻也。象鼻形。凡自之屬皆从自。疾二切。𠩺，古文。
- (100) 卷四上 白部 𠩺：識詞也。从白从亏从知。知義切。𠩺，古文。
- (101) 卷四上 自部 百：十十也。从一，白，數，十百爲一貫。相章也。博陌切。𠩺，古文百从自。
- (102) 卷四上 𠩺部 𠩺：盛也。从大从𠩺，𠩺亦聲。此燕召公名。讀若郝。《史篇》名醜。徐鍇曰：“《史篇》謂所作《倉頡》十五篇也。”詩亦切。𠩺，古文。
- (103) 卷四上 隹部 雉：有十四種：盧諸雉，喬雉，鳩雉，鶩雉，秩秩海雉，翟山雉，翰雉，卓雉，伊洛而南曰翬，江淮而南曰搖，南方曰鸞，東方曰钦，北方曰稀，西方曰躄。从隹矢聲。直几切。𠩺，古文雉从弟。
- (104) 卷四上 羊部 羴：西戎牧羊人也。从人从羊，羊亦聲。南方蠻閩从虫，北方狄从犬，東方貉从豸，西方羌从羊：此六種也。西南僂人，僂僂，从人；蓋在坤地，頗有順理之性。唯東夷从大，大，人也。夷俗仁，仁者壽，有君子不死之國。孔子曰：“道不行，欲之九夷，乘桴浮於海。”有以也。去羊切。𠩺，古文。
- (105) 卷四上 鳥部 鳳：神鳥也。天老曰：“鳳之象也，鴻前麇後，蛇頸魚尾，鸛頸鴛思，龍文虎背，燕頷雞喙，五色備舉。出於東方君子之國，翱翔四海之外，過崑崙，飲砥柱，濯羽弱水，莫宿風穴。見則天下大安寧。”从鳥凡聲。馮貢切。𠩺，古文鳳，象形。鳳飛，羣鳥從以萬數，故以爲朋黨字。𠩺，古文。
- (106) 卷四上 鳥部 𠩺：鳥也。从鳥堇聲。那干切。𠩺，𠩺，𠩺并古文。
- (107) 卷四上 鳥部 烏：孝鳥也。象形。孔子曰：“烏，昞呼也。”取其助氣，故以爲烏呼。凡鳥之屬皆从烏。臣鉉等曰：今俗作鳴，非是。哀都切。古文烏，象形。𠩺，象古文烏省。𠩺，亦古文。
- (108) 卷四下 華部 弁：捐也。从卩推華棄之，从去。去，逆子也。臣鉉等曰：去，他忽切。頡利切。𠩺，籀文；𠩺，古文。
- (109) 卷四下 夷部 夷：專小謹也。从彡省；中，財見也；中亦聲。凡夷之屬皆从夷。職緣切。𠩺，𠩺并古文。
- (110) 卷四下 夷部 惠：仁也。从心从夷。徐鍇曰：“爲惠者，心專也。”胡桂切。𠩺，古文惠从崑。
- (111) 卷四下 玄部 玄：幽遠也。黑而有赤色者爲玄。象幽而入覆之也。凡玄之屬皆从玄。胡涓切。𠩺，

- 古文。
- (112) 卷四下 爰部 爰(亂): 治也。幺子相亂, 爰治之也。讀若亂同。一曰理也。徐鍇曰: “曰門, 垌也, 界也。”郎段切。𠄎, 古文。
- (113) 卷四下 爰部 爰: 進取也。从爰古聲。古覽切。𠄎, 籀文; 𠄎, 古文。
- (114) 卷四下 爰部 爰: 深明也。通也。从爰从目, 从谷省。以芮切。𠄎, 籀文; 𠄎, 古文。
- (115) 卷四下 爰部 爰: 剝骨之殘也。从半冎。凡爰之屬皆从爰。讀若檠岸之檠。臣鉉等曰: 義不應有中一。秦刻石文有之。徐鍇曰: “冎, 剔肉置骨也。爰, 殘骨也。故从半冎。”五割切。𠄎, 古文。
- (116) 卷四下 爰部 殂: 往, 死也。从爰且聲。《虞書》曰: “勛乃殂。”昨胡切。𠄎, 古文殂从爰从作。
- (117) 卷四下 爰部 殂: 死也。从爰壹聲。於計切。𠄎, 古文殂从死。
- (118) 卷四下 爰部 殂: 盡也。从爰彡聲。徒典切。𠄎, 古文。
- (119) 卷四下 死部 死: 漸也, 人所離也。从爰从人。凡死之屬皆从死。息姊切。𠄎, 古文死。
- (120) 卷四下 骨部 髀: 股也。从骨卑聲。并弭切。𠄎, 古文从足。
- (121) 卷四下 肉部 脣: 口耑也。从肉辰聲。食倫切。𠄎, 古文脣从頁。
- (122) 卷四下 肉部 胤: 子孫相承續也。从肉; 从八, 象其長也; 从幺, 象重累也。羊晉切。𠄎, 古文。
- (123) 卷四下 肉部 臄: 瘦也。从肉晉聲。資昔切。𠄎, 古文臄从疒从束, 束亦聲。
- (124) 卷四下 肉部 臄: 設膳臄臄多也。从肉典聲。他典切。𠄎, 古文从日。
- (125) 卷四下 肉部 狀: 犬肉也。从犬, 肉。讀若然。如延切。𠄎, 𠄎并古文。
- (126) 卷四下 肉部 冎: 骨間肉冎冎箸也。从肉, 从冎省。一曰骨無肉也。苦等切。𠄎, 古文。
- (127) 卷四下 刀部 利: 銛也。从刀。和然後利, 从和省。《易》曰: “利者, 義之和也。”力至切。𠄎, 古文从勿。
- (128) 卷四下 刀部 則: 等畫物也。从刀从貝。貝, 古之物貨也。子德切。𠄎, 籀文則从鼎。𠄎, 𠄎并古文。
- (129) 卷四下 刀部 剛: 彊斷也。从刀岡聲。古郎切。𠄎, 古文。
- (130) 卷四下 刀部 制: 裁也。从刀从未。未, 物成有滋味, 可裁斷。一曰止也。征例切。𠄎, 古文。
- (131) 卷四下 角部 衡: 牛觸, 橫大木其角。从角从大, 行聲。《詩》曰: “設其楅衡。戶庚切。𠄎, 古文。
- (132) 卷五上 竹部 籛: 籛籛也。从竹路聲。《夏書》曰: “惟籛籛楛。”洛故切。𠄎, 古文籛从輅。
- (133) 卷五上 竹部 籛: 大籛也。从竹監聲。魯甘切。𠄎, 古文。
- (134) 卷五上 竹部 籛: 黍稷方器也。从竹从皿从皂。居洧切。𠄎, 古文籛从匚, 𠄎, 古文籛或从軌。
- (135) 卷五上 竹部 籛: 黍稷圓器也。从竹从皿, 甫聲。方矩切。𠄎, 古文籛从匚从夫。
- (136) 卷五上 箕部 箕: 籛也。从竹; 𠄎, 象形; 下其刀也。凡箕之屬皆从箕。居之切。𠄎, 籀文; 𠄎, 𠄎, 𠄎, 并古文。
- (137) 卷五上 丌部 典: 五帝之書也。从冊在丌上, 尊閣之也。莊都說, 典, 大冊也。多殄切。𠄎, 古文典从竹。
- (138) 卷五上 丌部 巽: 具也。从丌𠄎聲。臣鉉等曰: 庶物皆具丌以薦之。蘇困切。篆文𠄎。𠄎, 古文。
- (139) 卷五上 工部 工: 巧飾也。象人有規渠也。與巫同意。凡工之屬皆从工。徐鍇曰: “爲巧必遵規矩, 法度, 然後爲工。否則, 目巧也。巫事無形, 失在於詭, 亦當遵規渠。故曰與巫同意。”古紅切。𠄎, 古文工从彡。
- (140) 卷五上 工部 巨: 規巨也。从工, 象手持之。其呂切。𠄎, 巨或从木, 矢。矢者, 其中正也。𠄎, 古文。

- (141) 卷五上 巫部 巫：祝也。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象人兩袂舞形。與工同意。古者巫咸初作巫。凡巫之屬皆从巫。武扶切。𠩺，古文。
- (142) 卷五上 甘部 甚：尤安樂也。从甘，从匹耦也。常枕切。𠩺，古文。
- (143) 卷五上 乃部 乃：曳詞之難也。象氣之出難。凡乃之屬皆从乃。臣鉉等曰：今隸書作乃。奴亥切。𠩺，籀文；𠩺，古文。
- (144) 卷五上 乃部 𠩺：驚聲也。从乃省，西聲。籀文𠩺不省。或曰𠩺，往也。讀若仍。臣鉉等曰：西非聲。未詳。如乘切。𠩺，古文。
- (145) 卷五上 于部 平：語平舒也。从亏从八，八，分也。爰禮說。符兵切。𠩺，古文。
- (146) 卷五上 旨部 旨：美也。从甘匕聲。凡旨之屬皆从旨。職雉切。𠩺，古文从千。
- (147) 卷五上 喜部 喜：樂也。从壺从口。凡喜之屬皆从喜。虛里切。𠩺，古文喜从欠，與歡同。
- (148) 卷五上 鼓部 馨：鼓聲也。从鼓合聲。徒合切。𠩺，古文馨从革。
- (149) 卷五上 豐部 豐：豆之豐滿者也。从豆，象形。一曰《鄉飲酒》有豐侯者。凡豐之屬皆从豐。敷戎切。𠩺，古文。
- (150) 卷五上 虍部 虍：殘也。从虍，虎足反爪人也。魚約切。𠩺，古文。
- (151) 卷五上 虎部 虎：獸之君。从虍，虎足象人足。象形。凡虎之屬皆从虎。呼古切。𠩺，𠩺，并古文。
- (152) 卷五下 丹部 丹：巴越之赤石也。象采丹井，一象丹形。凡丹之屬皆从丹。都寒切。𠩺，𠩺，并古文。
- (153) 卷五下 青部 青：東方色也。木生火，从生，丹。丹青之信言象然。凡青之屬皆从青。倉經切。𠩺，古文。
- (154) 卷五下 井部 阱：陷也。从自从井，井亦聲。疾正切。𠩺，阱或从穴。𠩺，古文阱从水。
- (155) 卷五下 鬯部 爵：禮器也。象爵之形，中有鬯酒，又持之也。所以飲。器象爵者，取其鳴節節足也。即畧切。𠩺，古文。
- (156) 卷五下 食部 飪：大孰也。从食壬聲。如甚切。𠩺，𠩺，并古文。
- (157) 卷五下 食部 養：供養也。从食羊聲。余兩切。𠩺，古文。
- (158) 卷五下 食部 飽：馱也。从食包聲。博巧切。𠩺，𠩺，古文。
- (159) 卷五下 會部 會：合也。从亼，从曾省。曾，益也。凡會之屬皆从會。黃外切。𠩺，古文。
- (160) 卷五下 入部 全：完也。从入从工。𠩺，篆文全从玉，純玉曰全。疾緣切。𠩺，古文。
- (161) 卷五下 矢部 矦：春饗所矦矦也。从人；从厂，象張布；矢在其下。天子矦熊虎豹，服猛也；諸侯矦熊豕虎；大夫射矦，矦，惑也；士射鹿豕，爲田除害也。其祝曰：“毋若不寧矦，不朝于王所，故伉而矦汝也。”乎溝切。𠩺，古文从厂。
- (162) 卷五下 門部 門：邑外謂之郊，郊外謂之野，野外謂之林，林外謂之門。象遠界也。凡門之屬皆从門。古焚切。𠩺，古文門从口，象國邑。同或从土。
- (163) 卷五下 旱部 覃：長味也。从旱，鹹省聲。《詩》曰：“實覃實吁。”徒含切。𠩺，籀文；𠩺，古文。
- (164) 卷五下 旱部 厚：山陵之厚也。从旱从厂。胡口切。𠩺，古文。
- (165) 卷五下 富部 良：善也。从富省，亡聲。徐鍇曰：“良，甚也。故从富。”呂張切。目，月，𠩺，并古文。
- (166) 卷五下 囧部 曷：嗇也。从口，尙。尙，受也。方美切。𠩺，古文。

- (167) 卷五下 耑部 耑：愛耑也。從來从尙。來者，尙而藏之。故田夫謂之耑夫。凡耑之屬皆从耑。所力切。，古文耑从田。
- (168) 卷五下 夂部 夏：中國之人也。从夂从頁从臼。臼，兩手；夂，兩足也。胡雅切。，古文。
- (169) 卷五下 舛部 舞：樂也。用足相背，从舛；無聲。文撫切。，古文舞从羽，亡。
- (170) 卷五下 舜部 舜：艸也。楚謂之萑，秦謂之萑。蔓地連華。象形。从舛，舛亦聲。凡舜之屬皆从舜。今隸變作舜。舒閏切。，古文。
- (171) 卷五下 韋部 韋：相背也。从舛口聲。獸皮之韋，可以束枉戾相韋背，故借以為皮韋。凡韋之屬皆从韋。字非切。，古文。
- (172) 卷五下 弟部 弟：韋束之次弟也。从古字之象。凡弟之屬皆从弟。特計切。，古文弟从古文韋省，丿聲。
- (173) 卷五下 桀部 桀：覆也。从入，桀，桀，黠也。軍法曰乘。食陵切。，古文乘从几。
- (174) 卷六上 木部 李：果也。从木子聲。良止切。，古文。
- (175) 卷六上 木部 某：酸果也。从木从甘。闕。莫厚切。，古文某从口。
- (176) 卷六上 木部 本：木下曰本。从木，一在其下。徐鍇曰：“一，記其處也。本末朱皆同義。”布付切。，古文从三口。
- (177) 卷六上 木部 築：擣也。从木筑聲。陟玉切。，古文。
- (178) 卷六上 木部 檠：承檠也。从木般聲。薄官切。，古文从金。，籀文从皿。
- (179) 卷六上 木部 桤：竟也。从木恆聲。古鄧切。，古文。
- (180) 卷六上 木部 桤：檻也。以藏虎兇。从木甲聲。烏匣切。，古文。
- (181) 卷六下 巾部 師：二千五百人為師。从巾从自。自，四巾，眾意也。疎夷切。，古文。
- (182) 卷六下 巾部 南：艸木至南方，有枝任也。从羊聲。那含切。，古文。
- (183) 卷六下 叕部 叕：艸木華葉叕。象形。凡叕之屬皆从叕。是為切。，古文。
- (184) 卷六下 口部 回：轉也。从口，中象回轉形。戶恢切。，古文。
- (185) 卷六下 口部 困：故廬也。从木在口中。苦悶切。，古文从止。
- (186) 卷六下 貝部 賓：所敬也。从貝宀聲。必鄰切。，古文。
- (187) 卷六下 貝部 貧：財分少也。从貝从分，分亦聲。符巾切。，古文从宀，分。
- (188) 卷六下 邑部 邦：國也。从邑丰聲。博江切。，古文。
- (189) 卷六下 邑部 邠：周文王所封。在右扶風美陽中水鄉。从邑支聲。巨支切。，古文邠从枝从山。或从山支聲。因岐山以名之也。
- (190) 卷六下 邑部 扈：夏后同姓所封。戰於甘者。在鄠，有扈谷，甘亭。从邑戶聲。胡古切。，古文扈从山，馬。
- (191) 卷七上 日部 日：實也。太陽之精不虧。从口一。象形。凡日之屬皆从日。人質切。，古文。
- (192) 卷七上 日部 時：四時也。从日寺聲。市之切。，古文時从之，日。
- (193) 卷七上 日部 曩：晞也。从日从出，从収从米。薄報切。，古文曩从日廕聲。
- (194) 卷七上 放部 放：旌旗之游。放蹇之兒。从中，曲而下，垂放相出入也。讀若偃。古人名放，字子游。凡放人之屬皆从放。於轄切。，古文放字。象形。及象旌旗之游。

- (195) 卷七上 冫部 游：旌旗之流也。从冫汙聲。以周切。，古文。
- (196) 卷七上 冫部 旅：軍之五百人為旅。从冫从从。从，俱也。力舉切。古文旅。，古文以為魯衛之魯。
- (197) 卷七上 晶部 量：萬物之精，上為列星。从晶生聲。一曰象形。从口，古口復注中，故與日同。桑經切。量或省。，古文。
- (198) 卷七上 月部 霸：月始生，霸然也。承大月，二日；承小月，三日。从月鞞聲。《周書》曰：“哉生霸。”臣鉉等曰：今俗作必駕切。以為霸王字。普伯切。，古文。
- (199) 卷七上 月部 期：會也。从月其聲。渠之切。，古文期从日，丌。
- (200) 卷七上 明部 𠄎：照也。从月从囧。凡𠄎之屬皆从𠄎。武兵切。，古文𠄎从日。
- (201) 卷七上 皿部 盟：《周禮》曰：“國有疑則盟。”諸侯再相與會，十二歲一盟。北面詔天之司慎司命。盟，殺牲歃血，朱盤玉敦，以立牛耳。从皿从血。武兵切。篆文从𠄎。，古文从明。
- (202) 卷七上 夕部 夙：早敬也。从夙，持事；雖夕不休：早敬者也。臣鉉等曰：今俗書作夙，譌。息逐切。古文夙从人，夙。亦古文夙，从人，夙。宿从此。
- (203) 卷七上 多部 多：重也。从重夕。夕者，相繹也，故為多。重夕為多，重日為疊。凡多之屬皆从多。得何切。，古文。
- (204) 卷七上 鹵部 桌：木也。从木，其實下垂，故从鹵。力質切。，古文桌从西从二鹵。徐巡說：木至西方戰桌。
- (205) 卷七上 克部 克：肩也。象屋下刻木之形。凡克之屬皆从克。徐鍇曰：“肩，任也。負何之名也。與人肩膊之義通，能勝此物謂之克。”苦得切。，并古文克。
- (206) 卷七上 禾部 稷：齋也。五穀之長。从禾夊聲。子力切。，古文从鬼。
- (207) 卷七上 米部 粒：糲也。从米立聲。力入切。，古文从食。
- (208) 卷七上 米部 糲：以米和羹也。一曰粒也。从米甚聲。桑感切。，籀文糲从晉。，古文糲从參。
- (209) 卷七下 宀部 家：居也。从宀，豕省聲。古牙切。，古文。
- (210) 卷七下 宀部 宅：所託也。从宀乇聲。場伯切。，并古文。
- (211) 卷七下 宀部 容：盛也。从宀，谷。臣鉉等曰：屋與谷皆所以盛受也。余封切。，古文容从公。
- (212) 卷七下 宀部 寶：珍也。从宀从王从貝，缶聲。博皓切。，古文寶省貝。
- (213) 卷七下 宀部 宐：所安也。从宀之下，一之上，多省聲。魚羈切。，并古文。
- (214) 卷七下 宀部 宐：姦也。外為盜，內為宐。从宀九聲。讀若軌。居洧切。，古文。
- (215) 卷七下 疒部 疾：病也。从疒矢聲。秦悉切。，籀文；，古文。
- (216) 卷七下 目部 冒：冡而前也。从目从目。莫報切。，古文。
- (217) 卷七下 网部 网：庖犧所結繩以漁。从网，下象网交文。凡网之屬皆从网。今經典變隸作𦉳。文紡切。或從亡，或從系。，籀文；，古文。
- (218) 卷七下 巾部 帷：在冃曰帷。从巾隹聲。洧悲切。，古文。
- (219) 卷七下 巾部 席：籍也。《禮》：天子，諸侯席，有黼繡純飾。从巾，庶省。臣鉉等曰：席以待賓客之禮，賓客非一人，故从庶。祥易切。，古文席从石省。
- (220) 卷七下 白部 白：西方色也。陰用事，物色白。从入合二。二，陰數。凡白之屬皆从白。冃陌切。，古文。
- (221) 卷八上 人部 保：養也。从人，从采省。采，古文孚。博哀切。，亦古文。

- (222) 卷七下 人部 仁：親也。从人从二。臣鉉等曰：仁者兼愛，故从二。如鄰切。，古文从千；，此亦古文。
- (223) 卷七下 人部 企：舉踵也。从人止聲。去智切。，古文企从足。
- (224) 卷八上 人部 伊：殷聖人阿衡，尹治天下者。从人从尹。於脂切。，古文伊从古文死。
- (225) 卷八上 人部 備：慎也。从人荀聲。平祕切。，古文。
- (226) 卷八上 人部 侮：傷也。从人每聲。文甫切。，古文从母。
- (227) 卷八上 匕部 眞：僂人變形而登天也。从匕从目从乚(音隱)；八，所乘載也。側鄰切。，古文。
- (228) 卷八上 匕部 卓：高也。早匕爲卓，匕月爲印，皆同義。竹角切。，古文。
- (229) 卷八上 比部 比：密也。二人爲从，反从爲比。凡比之屬皆从比。毗至切。，古文。
- (230) 卷八上 丘部 丘：土之高也，非人所爲也。从北从一。一，地也，人居在丘南，故从北。中邦之居，在崑崙東南。一曰四方高，中央下爲丘。象形。凡丘之屬皆从丘。今隸變作丘。去鳩切。，古文从土。
- (231) 卷八上 叀部 泉：眾詞與也。从禾自聲。《虞書》曰：“泉咎繇。”其冀切。，古文。
- (232) 卷八上 壬部 徵：召也。从微省，壬爲徵。行於微而文達者，即徵之。陟陵切。，古文。
- (233) 卷八上 壬部 翌：月滿與日相翌，以朝君也。从月从臣从壬。壬，朝廷也。無放切。，古文翌省。
- (234) 卷八上 重部 量：稱輕重也。从重省，躡省聲。呂張切。，古文。
- (235) 卷八上 臥部 監：臨下也。从臥，峒省聲。古銜切。，古文監从言。
- (236) 卷八上 衣部 表：上衣也。从衣从毛。古者衣裘，以毛爲表。陂矯切。，古文表从麋。
- (237) 卷八上 衣部 裔：衣裾也。从衣商聲。臣鉉等曰：商非聲，疑象衣裾之形。余制切。，古文。
- (238) 卷八上 衣部 衰：艸雨衣。秦謂之蓑。从衣，象形。蘇禾切。，古文。
- (239) 卷八上 裘部 裘：皮衣也。从衣求聲。一曰象形，與衰同意。凡裘之屬皆从裘。巨鳩切。求，古文省衣。
- (240) 卷八上 尸部 屋：居也。从尸。尸，所主也。一曰尸，象屋形。从至。至，所至止。室，屋皆从至。烏谷切。，籀文屋从厂。，古文。
- (241) 卷八下 履部 履：足所依也。从尸从彳从攴，舟象履形。一曰尸聲。凡履之屬皆从履。良止切。，古文履从頁从足。
- (242) 卷八下 舟部 般：辟也。象舟之旋，从舟。从攴，攴，所以旋也。北潘切。，古文般从支。
- (243) 卷八下 舟部 服：用也。一曰車右駢，所以舟旋。从舟艮聲。房六切。，古文服从人。
- (244) 卷八下 見部 視：瞻也。从見，示。神至切。，，古文。
- (245) 卷八下 見部 觀：諦視也。从見壺聲。古玩切。，古文觀从囧。
- (246) 卷八下 欠部 次：不前，不精也。从欠二聲。七四切。，古文。
- (247) 卷八下 飲部 飲：飲也。从欠食聲。凡飲之屬皆从飲。於錦切。，古文飲从今，水。，古文飲从今，食。
- (248) 卷八下 无部 无：飲食氣不得息曰无。从反欠。凡无之屬皆从无。今變隸作无。居未切。，古文。
- (249) 卷九上 髟部 髮：根也。从髟发聲。方伐切。髮或从首。，古文。
- (250) 卷九上 色部 色：顏氣也。从人从卩。凡色之屬皆从色。所力切。，古文。
- (251) 卷九上 勺部 旬：徧也。十日爲旬。从勺，日。詳遵切。，古文。

- (252) 卷九上 苟部 苟：自急救也。从羊省，从包省。从口，口猶慎言也。从羊，羊與義，善，美同意。凡苟之屬皆从苟。己力切。，古文羊不省。
- (253) 卷九上 鬼部 鬼：人所歸爲鬼。从人，象鬼頭。鬼陰氣賊害，从厶。凡鬼之屬皆从鬼。居偉切。，古文从示。
- (254) 卷九上 鬼部 彪：老精物也。从鬼，彡。彡，鬼毛。密祕切。或从未聲。，籀文从彡首，从尾省聲。，此古文。
- (255) 卷九上 由部 畏：惡也。从由，虎省。鬼頭而虎爪，可畏也。於胃切。，古文。
- (256) 卷九上 厶部 𡗗：相誅呼也。从厶从姜。臣鉉等案：羊部有姜。姜，進善也。，此古文重出。與久切。
- (257) 卷九下 山部 嶽：東，岱；南，霍；西，華；北，恆；中，泰室。王者之所以巡狩所至。从山獄聲。五角切。，古文象高形。
- (258) 卷九下 山部 崩：山壞也。从山朋聲。北際切。，古文从阜。
- (259) 卷九下 广部 廐：馬舍也。从广段聲。《周禮》曰：“馬有二百十四匹爲廐，廐有僕夫。”居又切。，古文从九。
- (260) 卷九下 广部 廟：尊先祖鬼也。从广朝聲。眉召切。，古文从广从苗。
- (261) 卷九下 石部 礪：銅鐵礪石也。从石黃聲。讀若礪。古猛切。，古文礪。《周禮》有卅人。
- (262) 卷九下 石部 碣：特立之石。東海有碣石山。从石曷聲。渠列切。，古文从阜从曹。
- (263) 卷九下 石部 磬：樂石也。从石，殸。象縣虞之形。殸，擊之也。古者母句氏作磬。苦定切。，籀文；，古文。
- (264) 卷九下 長部 長：久遠也。从兀从匕。兀者，高遠意也。久則變化。匕聲。紉者，倒匕也。凡長之屬皆从長。臣鉉等曰：倒亡，不亡也。長久之義也。直良切。，，古文。
- (265) 卷九下 豕部 豕：彘也。竭其尾，故謂之豕。象毛足而後有尾。讀與豨同。凡豕之屬皆从豕。臣鉉等曰：此語未詳，或後人所加。式視切。，古文豕。
- (266) 卷九下 彘部 彘：脩豪獸。一曰河內名豕也。从彘，下象毛足。凡彘之屬皆从彘。讀若弟。羊至切。，籀文；，古文。
- (267) 卷九下 彘部 彘：彘屬。从二彘。息利切。，古文彘。《虞書》曰：“彘類于上帝。”
- (268) 卷九下 象部 豫：象之大者。賈侍中說：不害於物。从象予聲。羊茹切。，古文豫。
- (269) 卷十上 馬部 馬：怒也。武也。象馬頭髦尾四足之形。凡馬之屬皆从馬。莫下切。，籀文馬與同，有髦。，古文从彡。
- (270) 卷十上 馬部 驅：馬馳也。从馬區聲。豈俱切。，古文驅从支。
- (271) 卷十上 廌部 灋：刑也。平之如水，从水；廌，所以觸不直者；去之，从去。，今文省。方乏切。，古文。
- (272) 卷十上 鹿部 麗：旅行也。鹿之性，見食急則必旅行。从鹿丽聲。《禮》：麗皮納聘。蓋鹿皮也。郎計切。，籀文；，古文。
- (273) 卷十上 犬部 狂：狎犬也。从犬皃聲。巨王切。，古文从心。
- (274) 卷十上 熊部 羆：如熊，黃白文。从熊，罷省聲。彼爲切。，古文。
- (275) 卷十上 火部 棗：天火曰棗。从火戔聲。祖才切。，古文从才。，或从宀，火。災，籀文从𠂇。
- (276) 卷十上 火部 煙：火氣也。从火堙聲。烏前切。，或从因。，籀文从宀。，古文。

- (277) 卷十上 火部 光：明也。从火在人上，光明意也。古皇切。，古文。
- (278) 卷十上 火部 熾：盛也。从火戠聲。昌志切。，古文。
- (279) 卷十下 囟部 囟：在牆曰囟，在屋曰囟。象形。凡囟之屬皆从囟。楚江切。，或从穴。，古文。
- (280) 卷十下 赤部 赤：南方色也。从大从火。凡赤之屬皆从赤。昌石切。，古文从炎，土。
- (281) 卷十下 矢部 吳：姓也。亦郡也。一曰吳，大言也。从矢，口。徐鍇曰：“大言，故矢口以出聲。《詩》曰：不吳不揚。今寫《詩》者改吳作吳，又音乎化切。其謬甚矣。”五乎切。，古文。
- (282) 卷十下 允部 允：皃，曲脛也。从大，象偏曲之形。凡允之屬皆从允。烏光切。，古文从臽。
- (283) 卷十下 夨部 夨：奏進也。从夨从升从中。中，上進之義。則候切。，古文。
- (284) 卷十下 囟部 囟：頭會，鬤蓋也。象形。凡囟之屬皆从囟。，或从肉，宰。息進切。，古文。
- (285) 卷十下 心部 惠：外得於人，內得於己也。从直从心。多則切。，古文。
- (286) 卷十下 心部 慎：謹也。从心眞聲。時刃切。，古文。
- (287) 卷十下 心部 恕：仁也。从心如聲。商署切。，古文省。
- (288) 卷十下 心部 懼：恐也。从心瞿聲。其遇切。，古文。
- (289) 卷十下 心部 悟：覺也。从心吾聲。五故切。，古文。
- (290) 卷十下 心部 恚：惠也。从心无聲。烏代切。，古文。
- (291) 卷十下 心部 懈：不敬也。从心，懈省。《春秋傳》曰：“執玉懈。”徒果切。，懈或省自。，古文。
- (292) 卷十下 心部 懇：善自用之意也。从心銛聲。《尚書》曰：“今汝懇懇。”古活切。，古文从耳。
- (293) 卷十下 心部 恐：恚也。从心尃聲。於願切。，古文。
- (294) 卷十下 心部 患：憂也。从心上貫卍，卍亦聲。胡卯切。，患，古文。
- (295) 卷十下 心部 恐：懼也。从心巩聲。丘隴切。，古文。
- (296) 卷十一上 水部 漾：水出隴西相道，東至武都爲漾。从水漾聲。余亮切。，古文从養。
- (297) 卷十一上 水部 漢：漾也。東爲滄浪水。从水，難省聲。臣鉉等曰：从難省，當作堇。而前作相承去土从大，疑兼从古文省。呼吁切。，古文。
- (298) 卷十一上 水部 沇：水。出河東東垣王屋山，東爲沛。从水允聲。以轉切。，古文沇。臣鉉等曰：口部已有，此重出。
- (299) 卷十一上 水部 淵：回水也。从水，象形。左右，岸也。中象水兒。烏玄切。，古文从口，水。，淵或省水。
- (300) 卷十一上 水部 津：水渡也。从水聿聲。將鄰切。，古文津从舟从淮。
- (301) 卷十一上 水部 湛：沒也。从水甚聲。一曰湛水，豫章浸。宅減切。，古文。
- (302) 卷十一上 水部 滌：酢滌也。从水，將省聲。卽良切。，古文。
- (303) 卷十一上 水部 沫：洒面也。从水未聲。荒內切。，古文沫从頁。
- (304) 卷十一上 水部 泰：滑也。从升从水，大聲。臣鉉等曰：本音他達切。今《左氏傳》作沃輔，非是。他蓋切。，古文。
- (305) 卷十一下 冫部 冫：水小流也。《周禮》：“匠人爲溝洫，相廣五寸，二相爲耦；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冫。”倍冫謂之遂；倍遂曰溝；倍溝曰洫；倍洫曰冫。凡冫之屬皆从冫。姑汝

- 切。𣶒，古文。从田从川。𣶒，篆文。从田犬聲。六吠爲一畝。
- (306) 卷十一下 川部 涇：水脈也。从川在一下。一，地也。壬省聲。一曰水冥至也。古靈切。𣶒，古文。
- (307) 卷十一下 川部 州：水中可居曰州，周遶其旁，从重川。昔堯遭洪水，民居水中高土，或曰九州。《詩》曰：“在河之州。”一曰州，疇也。各疇其土而生之。臣鉉等曰：今別作洲，非是。職流切。𣶒，古文。
- (308) 卷十一下 谷部 容：深通川也。从谷从宀。宀，殘地；阨坎意也。《虞書》曰：“容畎澮距川。”私閏切。𣶒，或從水。𣶒，古文。
- (309) 卷十一下 欠部 冬：四時盡也。从欠从夂。夂，古文終字。都宗切。𣶒，古文冬从日。
- (310) 卷十一下 雨部 雨：水從雲下也。一象天，冂象雲，水霑其閒也。凡雨之屬皆從雨。王矩切。𣶒，古文。
- (311) 卷十一下 雨部 霽：陰陽薄動霽雨，生物者也。從雨，晶象回轉形。魯回切。
- (312) 𣶒，籀文；𣶒，古文。
- (313) 卷十一下 雨部 霽：雨也。齊人謂霽爲霽。從雨員聲。一曰雲轉起也。于敏切。𣶒，古文。
- (314) 卷十一下 雨部 電：陰陽激耀也。從雨从申。堂練切。𣶒，古文。
- (315) 卷十一下 雨部 雹：雨冰也。從雨包聲。蒲角切。𣶒，古文。
- (316) 卷十一下 雲部 雲：山川氣也。從雨，象雲回轉形。凡雲之屬皆從雲。王分切。𣶒，古文。
- (317) 卷十一下 雲部 霧：雲覆日也。從雲今聲。於今切。𣶒，古文。
- (318) 卷十二上 至部 至：鳥飛从高下至地也。从一，一猶地也。象形。不，上去；而至，下來也。凡至之屬皆從至。脂利切。𣶒，古文。
- (319) 卷十二上 西部 西：鳥在巢上。象形。日在西方而鳥棲，故因以爲東西之西。凡西之屬皆從西。先稽切。𣶒，西或從木，妻。𣶒，籀文；𣶒，古文。
- (320) 卷十二上 戶部 戶：護也。半門曰戶。象形。凡戶之屬皆從戶。侯古切。𣶒，古文戶从木。
- (321) 卷十二上 門部 闕：門櫺也。從門或聲。《論語》曰：“行不履闕。”于逼切。𣶒，古文闕从血。
- (322) 卷十二上 門部 開：張也。從門从艸。苦哀切。𣶒，古文。
- (323) 卷十二上 門部 閒：隙也。從門从月。徐鍇曰：“夫門夜閉，閉而見月光，是有閒隙也。”古閑切。𣶒，古文。
- (324) 卷十二上 門部 闕：弔者在門也。從門文聲。臣鉉等曰：今別作欄，非是。眉頌切。𣶒，古文。
- (325) 卷十二上 耳部 聞：知聞也。從耳門聲。無分切。𣶒，古文从昏。
- (326) 卷十二上 臣部 臣：顛也。象形。凡臣之屬皆從臣。與之切。𣶒，篆文臣。𣶒，籀文从首。𣶒，古文。
- (327) 卷十二上 臣部 𣶒：廣臣也。從臣巳聲。與之切。𣶒，古文𣶒从戶。臣鉉等曰：今俗作牀史切。以爲階庀之庀。
- (328) 卷十二上 手部 手：拳也。象形。凡手之屬皆從手。書九切。𣶒，古文。
- (329) 卷十二上 手部 捧：首至地也。從手，奉。奉音忽。徐鍇曰：“奉進趣之，疾也，故拜從之。”博怪切。𣶒，楊雄說：拜從兩手下。𣶒，古文。
- (330) 卷十二上 手部 扶：左也。從手夫聲。防無切。𣶒，古文。
- (331) 卷十二上 手部 握：揜持也。從手屋聲。於角切。𣶒，古文。
- (332) 卷十二上 手部 撫：安也。從手無聲。一曰循也。芳武切。𣶒，古文从彡，亡。

- (333) 卷十二上 手部 揚：飛舉也。从手易聲。與章切。，古文从支。
- (334) 卷十二上 手部 播：種也。一曰布也。从手番聲。補過切。，古文。
- (335) 卷十二下 女部 奴：奴，婢，皆古之臯人也。《周禮》曰：“其奴，男子入于臯隸，女子入于春藁。”从女从又。臣鉉等曰：又，手也。持事者也。乃都切。，古文奴从人。
- (336) 卷十二下 女部 婁：空也。从母，中，女，空之意也。一曰婁，務也。洛侯切。，古文。
- (337) 卷十二下 女部 姦：私也。从三女。古顏切。，古文姦从心早聲。
- (338) 卷十二下 民部 民：眾萌也。从古文之象。凡民之屬皆从民。彌鄰切。，古文。
- (339) 卷十二下 我部 我：施身自謂也。或說我，頃頓也。从戈从殳。殳，或說古垂字。一曰古殺字。凡我之屬皆从我。徐鍇曰：“从戈者，取戈自持也。”五可切。，古文。
- (340) 卷十二下 琴部 琴：禁也。神農所作。洞越。練朱五弦，周加二弦。象形。凡琴之屬皆从琴。巨今切。，古文琴从金。
- (341) 卷十二下 琴部 瑟：庖犧所作弦樂也。从琴必聲。所櫛切。，古文。
- (342) 卷十二下 乚部 直：正見也。从乚从十从目。徐鍇曰：“乚，隱也。今十日所見是直也。”除力切。，古文。
- (343) 卷十二下 曲部 曲：象器曲受物之形。或說曲，蠶薄也。凡曲之屬皆从曲。丘玉切。，古文。
- (344) 卷十二下 笛部 笛：東楚名銜曰笛。象形。凡笛之屬皆从笛。側詞切。，古文。
- (345) 卷十二下 笛部 盧：𪔐(盧) 垂也。从笛虍聲。讀若盧同。洛乎切。，篆文盧，，籀文盧。，古文。
- (346) 卷十二下 弌部 弌：輔也。重也。从弌丙聲。徐鍇曰：“丙，舌也，非聲。舌柔而弌剛，以柔從剛，輔弌之意。”房密切。，弌或如此。，古文。
- (347) 卷十三上 糸部 糸：細絲也。象束絲之形。凡糸之屬皆从糸。讀若覩。徐鍇曰：“一蠶所吐爲忽，十忽爲絲。糸，五忽也。”莫狄切。，古文。
- (348) 卷十三上 糸部 繭：蠶衣也。从糸从虫，𦉳省。古典切。，古文繭从糸，見。
- (349) 卷十三上 糸部 絕：斷絲也。从糸从刀从口。情雪切。，古文絕。象不連體，絕二絲。
- (350) 卷十三上 糸部 續：連也。从糸賣聲。臣鉉等曰：今俗作古行切。似足切。，古文續从庚，貝。
- (351) 卷十三上 糸部 紹：繼也。从糸召聲。一曰紹，繫糾也。市沼切。，古文紹从邵。
- (352) 卷十三上 糸部 終：絳絲也。从糸冬聲。職戎切。，古文。
- (353) 卷十三上 糸部 綱：維紘繩也。从糸岡聲。古郎切。，古文。
- (354) 卷十三上 糸部 綫：縷也。从糸戔聲。私箭切。，，古文从泉。
- (355) 卷十三上 糸部 縵：紕也。从糸番聲。余聿切。，籀文；，古文。
- (356) 卷十三上 糸部 總：十五升布也。一曰兩麻一絲布也。从糸思聲。息茲切。，古文總从糸省。
- (357) 卷十三上 糸部 彝：宗廟常器也。从糸；糸，碁也。升持米，器中寶也。互聲。此與爵相似。《周禮》：“六彝：雞彝，鳥彝，黃彝，虎彝，蟲彝，罍彝。以待裸將之禮。”以脂切。，，古文。
- (358) 卷十三上 虫部 蚺：蝮子也。从虫氏聲。《周禮》有蚺醢。讀若祁。直尼切。
- (359) ，古文蚺从辰，土。，籀文蚺从虫。
- (360) 卷十三下 虫部 蠱：飛蟲螫人者。从虫逢聲。敷容切。，古文。
- (361) 卷十三下 虫部 蠹：蟲齧木中也。从虫象聲。盧啓切。，古文。
- (362) 卷十三下 虫部 蠹：蟲動也。从虫春聲。尺尹切。，古文蠹从彘。《周書》曰：“我有截于西。”

- (363) 卷十三下 蟲部 蠱：蟲食艸根者。从蟲，象其形。吏抵冒取民財則生。徐鍇曰：“唯此一字象蟲形，不从矛，書者多誤。”莫浮切。，古文蠱从虫从牟。，蠱或从攷。臣鉉等按：虫部已有，莫交切。作蠱蝥蟲。此重出。
- (364) 卷十三下 龜部 龜：舊也。外骨內肉者也。从它，龜頭與它頭同。天地之性，廣肩無雄；龜鼈之類，以它爲雄。象足甲尾之形。凡龜之屬皆从龜。居迫切。，古文。
- (365) 卷十三下 二部 恒：常也。从心从舟，在二之間上下。心以舟施，恆也。胡登切。
- (366) ，古文恆从月。《詩》曰：“如月之恆。”
- (367) 卷十三下 土部 堂：殿也。从土尚聲。徒郎切。，籀文堂从高省。，古文。
- (368) 卷十三下 土部 坐：止也。从土，从畱省。土，所止也。此與畱同意。但臥切。，古文从二人。
- (369) 卷十三下 土部 封：爵諸侯之土也。从之从土从寸，守其制度也。公侯，百里；伯，七十里；子男，五十里。徐鍇曰：“各之其土也。會意。”府容切。，古文封省。，籀文从半。
- (370) 卷十三下 土部 墉：城垣也。从土庸聲。余封切。，古文。
- (371) 卷十三下 土部 塹：塞也。《尚書》曰：“鯀塹洪水。”从土西聲。於眞切。，古文。
- (372) 卷十三下 土部 毀：缺也。从土，毀省聲。許委切。，古文毀从壬。
- (373) 卷十三下 土部 壞：敗也。从土衷聲。下怪切。，古文壞省。，籀文壞。
- (374) 臣鉉等按：支部有𡗗，此重出。
- (375) 卷十三下 土部 圭：瑞玉也。上圜下方。公執桓圭，九寸；侯執信圭，伯執躬圭，皆七寸；子執穀璧，男執蒲璧，皆五寸。以封諸侯。从重土。楚爵有執圭。古畦切。，古文圭从玉。
- (376) 卷十三下 土部 堊：高也。从土在兀上，高遠也。吾聊切。，古文。
- (377) 卷十三下 土部 堇：黏土也。从土，从黃省。凡堇之屬皆从堇。巨斤切。，古文。
- (378) 卷十三下 里部 野：郊外也。从里予聲。羊者切。，古文野从里省，从林。
- (379) 卷十三下 黃部 黃：地之色也。从田从萑，萑亦聲。，古文光。凡黃之屬皆從黃。乎光切。
- (380) 卷十三下 力部 勳：能成王功也。从力熏聲。許云切。，古文勳从員。
- (381) 卷十三下 力部 勢：迫也。从力强聲。巨良切。，古文從彊。
- (382) 卷十三下 力部 勳：作也。从力重聲。徒總切。，古文勳从彊。
- (383) 卷十三下 力部 勞：劇也。从力，熒省。熒，火燒門，用力者勞。魯刀切。，古文勞从悉。
- (384) 卷十三下 彡部 協：眾之同和也。从彡从十。臣鉉等曰：十，眾也。胡頰切。
- (385) ，古文協从日，十。叶或从口。
- (386) 卷十四上 金部 金：五色金也。黃爲之長。久隳不生衣，百鍊不輕，从革不違。西方之行。生於土，从土；左右注，象金在土中形；今聲。凡金之屬皆從金。居音切。，古文。
- (387) 卷十四上 金部 鐵：黑金也。从金戴聲。天結切。，古文鐵从夷。，鐵或省。
- (388) 卷十四上 金部 鈕：印鼻也。从金丑聲。女久切。，古文鈕从玉。
- (389) 卷十四上 金部 鈞：三十斤也。从金勻聲。居勻切。，古文鈞从勻。
- (390) 卷十四上 斤部 斷：截也。从斤从斷。古文絕。徒玩切。，古文斷从貞。貞，古文夷字。《周書》曰：“韶韶猗無他技。”，亦古文。
- (391) 卷十四上 矛部 矛：酋矛也。建於兵車，長二丈。象形。凡矛之屬皆從矛。莫浮切。，古文矛从戈。
- (392) 卷十四下 自部 阜：大陸，山無石者。象形。凡自之屬皆從自。房九切。，古文。

- (393) 卷十四下 自部 陟：登也。从自从步。竹力切。𡵓，古文从人。
- (394) 卷十四下 自部 隕：通溝也。从自賣聲。讀若瀆。徒谷切。𡵓，古文隕从谷。
- (395) 卷十四下 自部 陳：宛丘，舜後媿滿之所封。从自从木，申聲。臣鉉等曰：陳者，大昊之虛，畫八卦之所，木德之始，故从木。直珍切。𡵓，古文。
- (396) 卷十四下 四部 四：陰數也。象四分之形。凡四之屬皆从四。息利切。𠄎，籀文；𠄎，古文。
- (397) 卷十四下 五部 五：五行也。从二，陰陽在天地間交午也。凡五之屬皆从五。臣鉉等曰：二，天地也。疑古切。𠄎，古文五省。
- (398) 卷十四下 內部 禹：蟲也。从虫，象形。王矩切。𡵓，古文。
- (399) 卷十四下 內部 禹：蟲也。从虫，象形。讀與偃同。私列切。𡵓，古文。
- (400) 卷十四下 甲部 甲：東方之孟，陽氣萌動，从木戴孚甲之象。一曰人頭。𡵓爲甲，甲象人頭。凡甲之屬皆从甲。古狎切。𡵓，古文甲，始於十，見於千，成於木之象。
- (401) 卷十四下 戊部 成：就也。从戊丁聲。徐鍇曰：“戊中宮成於中也。”氏征切。𡵓，古文成从午。
- (402) 卷十四下 己部 己：中宮也。象萬物辟藏詘形也。己承戊，象人腹。凡己之屬皆从己。居擬切。𡵓，古文。
- (403) 卷十四下 辛部 辜：臯也。从辛古聲。古乎切。𡵓，古文辜从死。
- (404) 卷十四下 子部 子：十一月，陽氣動，萬物滋，人以爲偁。象形。凡子之屬皆从子。卽里切。𡵓，古文子从𠄎，象髮也。𡵓，籀文子凶有髮，臂脛在几上也。
- (405) 卷十四下 子部 孟：長也。从子皿聲。莫更切。𡵓，古文。
- (406) 卷十四下 寅部 寅：髀也。正月，陽氣動，去黃泉，欲上出，陰尚彊，象宀不達，髀寅於下也。凡寅之屬皆从寅。徐鍇曰：“髀斥之意，人陽氣銳而出，上闕於宀，所以擯之也。”弋真切。𡵓，古文。
- (407) 卷十四下 卯部 卯：冒也。二月，萬物冒地而出。象開門之形。故二月爲天門。凡卯之屬皆从卯。莫飽切。𡵓，古文。
- (408) 卷十四下 辰部 辰：震也。三月，陽氣動，雷電振，民農時也。物皆生，从乙，匕，象芒達；厂，聲也。辰，房星，天時也。从二，二，古文上字。凡辰之屬皆从辰。臣鉉等曰：三月陽氣成，艸木生上徹於土，故从匕。厂，非聲。疑亦象物之出。徐鍇曰：“匕音化。乙，艸木萌初出曲卷也。”植鄰切。𡵓，古文。
- (409) 卷十四下 申部 申：神也。七月，陰氣成，體自申束。从臼，自持也。吏臣舖時聽事，申且政也。凡申之屬皆从申。失人切。𡵓，籀文；𡵓，古文。
- (410) 卷十四下 酉部 酉：就也。八月黍成，可爲酎酒。象古文酉之形。凡酉之屬皆从酉。與久切。𡵓，古文酉。从卯，卯爲春門，萬物已出。酉爲秋門，萬物已入。一，閉門象也。
- (411) 卷十四下 酉部 醬：鹽也。从肉从酉，酒以和醬也；爿聲。卽亮切。𡵓，籀文；𡵓，古文。
- (412) 卷十四下 亥部 亥：豕也。十月，微陽起，接盛陰。从二，二，古文上字。一人男，一人女也。从乙，象褰子咳形。《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凡亥之屬皆从亥。胡改切。𡵓，古文亥爲豕，與豕同。亥而生子，復從一起。

### 3. 經典을 引用한 古文

- (1) 部 禔 安福也.從示是聲.《易》曰:“禔既平.”
- (2) 示部 紫 燒紫燹燎以祭天神.從示此聲.《虞書》曰:“至於岱宗,紫.”
- (3) 示部 繫 門內祭,先祖所以徬徨.從示彭聲.《詩》曰:“祝祭於繫.”
- (4) 示部 祔 宗廟主也.《周禮》有郊,宗,石室.一曰大夫以石爲主.從示從石,石亦聲.
- (5) 示部 禘 諦祭也.從示帝聲.《周禮》曰:“五歲一禘.”
- (6) 示部 禘 大合祭先祖親疏遠近也.從示,合.《周禮》曰:“三歲一禘.”
- (7) 示部 祝 祭主贊詞者.從示從人口.一曰從兌省.《易》曰:“兌爲口爲巫.”
- (8) 示部 禱 癘疫於日月星辰山川也.《禮記》曰:“雩,禱,祭水旱.”
- (9) 示部 禴 會福祭也.從示從會,會亦聲.《周禮》曰:“禴之祝號.”
- (10) 示部 禴 社肉,盛以蜃,故謂之禴.《春秋傳》曰:“石尚來歸禴.”
- (11) 示部 禴 師行所止,恐有慢其神,下而祀之曰禴.從示馬聲.《周禮》曰:“禴於所征之地.”
- (12) 示部 禴 禱牲馬祭也.從示周聲.《詩》曰:“既禴既禴.”
- (13) 示部 社 地主也.從示,土.《周禮》:“二十五家爲社,各樹其土所宜之木.”
- (14) 部 禘 精氣感祥.從示,侵省聲.《春秋傳》曰:“見赤黑之禘.”
- (15) 示部 禴 《逸周書》曰:“土分民之禴,均分以禴之也.”讀若筭.
- (16) 示部 閏 餘分之月,五歲再閏,從王在門中.《周禮》曰:“閏月,王居門中,終月也.”
- (17) 玉部 璫 玉也.從玉董聲.《春秋傳》曰:“璫斝.”
- (18) 玉部 珣 醫無閭珣玗琪,《周書》所謂夷玉也.從玉旬聲.一曰器,讀若宣.
- (19) 玉部 瓚 三玉二石也.《禮》:“天子用全,純玉也;上公用駘,四玉一石;侯用瓚;”
- (20) 玉部 璫 美玉也.從玉睿聲.《春秋傳》曰:“璫弁玉纓.”
- (21) 玉部 璫 大孔璧.《爾雅》曰:“好倍肉謂之璫,肉倍好謂之璧.”
- (22) 玉部 琥 發兵瑞玉,爲虎文.從玉從虎,虎亦聲.《春秋傳》曰:“賜子家雙琥.”
- (23) 玉部 璋 《禮》:“六幣:圭以馬,璋以皮,璧以帛,琮以錦,琥以繡,璜以黼.”
- (24) 玉部 玠 大圭也.從玉介聲.《周書》曰:“稱奉介圭.”
- (25) 玉部 瑁 諸侯執圭朝天子,天子執玉以冒之,似犂冠.《周禮》曰:“天子執瑁四寸.”
- (26) 玉部 瑱 以玉充耳也.從玉眞聲.《詩》曰:“玉之瑱兮.”
- (27) 玉部 瑱 圭璧上起兆瑱也.從玉,篆省聲.《周禮》曰:“瑱圭璧.”
- (28) 玉部 璫 玉飾.如水藻之文.從玉臬聲.《虞書》曰:“璫火粉米.”
- (29) 玉部 玼 玉色鮮也.從玉此聲.《詩》曰:“新臺有玼.”
- (30) 玉部 璫 玉英華相帶如瑟弦.從玉瑟聲.《詩》曰:“瑟彼玉璫.”
- (31) 玉部 璫 玉英華羅列秩秩.從玉臬聲.《逸論語》曰:“玉祭之璫兮.其璫猛也.”
- (32) 玉部 瑩 玉色.從玉,熒省聲.一曰石之次玉者.《逸論語》曰:“如玉之瑩.”
- (33) 玉部 璫 玉聲也.從玉倉聲.《詩》曰:“儵革有璫.”
- (34) 玉部 珣 石之次玉者.以爲系璧.從玉豐聲.讀若《詩》曰“瓜瓞拳拳”.一曰若盒蚌.
- (35) 玉部 璫 瓊琚.從玉居聲.《詩》曰:“報之以瓊琚.” 九魚切
- (36) 玉部 璫 石之次玉者.從玉莠聲.《詩》曰:“充耳璫瑩.” 息救切
- (37) 玉部 玖 石之次玉黑色者.從玉久聲.《詩》曰:“貽我佩玖.”讀若芑.或曰若人句脊之句.
- (38) 玉部 珠 蚌之陰精.從玉朱聲.《春秋國語》曰:“珠以禦火災”是也.
- (39) 玉部 璫 蜃屬.從玉荔聲.《禮》:“佩刀,士璫琇而珣玗.”
- (40) 玉部 璫 蜃甲也.所以飾物也.從玉兆聲.《禮》云:“佩刀,天子玉琇而珣玗.”
- (41) 玉部 玠 琅玕也.從玉幹聲.《禹貢》:“泗州球琳琅玕.”
- (42) 玉部 珈 婦人首飾.從玉加聲.《詩》曰:“副笄六珈.” 古牙切
- (43) 玉部 璫 環屬.從玉虞聲.見《山海經》.
- (44) 土部 壻 夫也.從土胥聲.《詩》曰:“女也不爽,士貳其行.”士者,夫也.讀與細同.
- (45) 土部 壻 舞也.從土尊聲.《詩》曰:“壻壻舞我.”
- (46) 中部 屯 難也.《易》曰:“屯,剛柔始交而難生.”
- (47) 艸部 蕘 菜,類蒿.從艸近聲.《周禮》有“蕘菹”.
- (48) 艸部 蕘 令人忘憂艸也.從艸憲聲.《詩》曰:“安得蕘艸?”
- (47) 艸部 芄 芄蘭,莖也.從艸丸聲.《詩》曰:“芄蘭之枝.”

- (50) 艸部 推 菴也。從艸推聲。《詩》曰：“中穀有推。”
- (51) 艸部 苜 苜蓿。一名馬芻。其實如李，令人宜子。從艸呂聲。《周書》所說。
- (52) 艸部 藟 艸也。從艸蟲聲。《詩》曰：“莫莫藟藟。”一曰秬鬯也。
- (53) 艸部 蔦 寄生也。從艸鳥聲。《詩》曰：“蔦與女蘿。” 都了切
- (54) 艸部 芸 艸也。似目宿。從艸雲聲。《淮南子》說：“芸艸可以死復生。”
- (55) 艸部 齊 疾藜也。從艸齊聲。《詩》曰：“牆有齊。”
- (56) 艸部 芑 地黃也。從艸下聲。《禮記》“鉞毛：牛，藿；羊，芑；豕，薇。”是。
- (57) 艸部 芩 艸也。從艸今聲。《詩》曰：“食野之芩。”
- (58) 艸部 蔦 綬也。從艸賜聲。《詩》曰“邛有旨蔦”是。
- (59) 艸部 著 蒿屬。生十歲，百莖。《易》以為數。
- (60) 艸部 萋 艸也。從艸要聲。《詩》曰：“四月秀萋。”劉向說：此味苦，苦萋也。
- (61) 艸部 蕝 木萋，朝華暮落者。從艸驛聲。《詩》曰：“顏如蕝華。”
- (62) 艸部 茁 艸初生出地兒。從艸出聲。《詩》曰：“彼茁者葭。”
- (63) 艸部 爾 華盛。從艸爾聲。《詩》曰：“彼爾惟何？”
- (64) 艸部 萋 艸盛。從艸妻聲。《詩》曰：“萋萋萋萋。”
- (65) 艸部 疑 茂也。從艸疑聲。《詩》曰：“黍稷疑疑。”
- (66) 艸部 芄 艸盛也。從艸凡聲。《詩》曰：“芄芄黍苗。”
- (67) 艸部 薇 艸旱盡也。從艸微聲。《詩》曰：“薇薇山川。”
- (68) 艸部 猷 艸兒。從艸猷聲。《周禮》曰：“穀粳不猷。”
- (69) 艸部 薺 艸多兒。從艸會聲。《詩》曰：“薺兮薺兮。”
- (70) 艸部 芎 艸覆蔓。從艸毛聲。《詩》曰：“左右芎之。”
- (71) 艸部 蔞 艸木凡皮葉落墜地為蔞。從艸擇聲。《詩》曰：“十月隕蔞。”
- (72) 艸部 蒞 積也。從艸溫聲。《春秋傳》曰：“蒞利生孽。”
- (73) 艸部 藜 艸旋兒也。從艸榮聲。《詩》曰：“葛藜藜之。”
- (74) 艸部 葳 艸葉多。從艸伐聲。《春秋傳》曰：“晉糴葳。”
- (75) 艸部 蓄 不耕田也。從艸，畜。《易》曰：“不畜畜。”
- (76) 艸部 蓀 艸盛兒。從艸繇聲。《夏書》曰：“厥艸惟蓀。”
- (77) 艸部 薶 除艸也。《明堂月令》曰：“季夏燒薶。”從艸雥聲。
- (78) 艸部 薪 艸相薪苞也。從艸斬聲。《書》曰：“艸木薪苞。”
- (79) 艸部 藿 艸木相附藿土而生。從艸麗聲。《易》曰：“百穀艸木藿於地。”
- (80) 艸部 蒞 茅藉也。從艸租聲。《禮》曰：“封諸侯以土，蒞以白茅。”
- (81) 艸部 藹 朝會束茅表位曰藹。從艸絕聲。《春秋國語》曰：“致茅藹，表坐。”
- (82) 艸部 榦 乾梅之屬。從艸棟聲。《周禮》曰：“饋食之邊，其實乾榦。”
- (83) 艸部 篠 艸田器。從艸，條省聲。《論語》曰：“以杖荷篠。”今作篠。
- (84) 艸部 芄 遠荒也。從艸九聲。《詩》曰：“至於芄野。”
- (85) 艸部 藿 艸也。從艸霍聲。《詩》曰：“食鬱及藿。”
- (86) 艸部 藻 水艸也。從艸從水，巢聲。《詩》曰：“於以采藻？”
- (87) 艸部 葦 王芻也。從艸錄聲。《詩》曰：“葦竹猗猗。”
- (88) 艸部 菅 艸也。從艸吾聲。《楚詞》有菅蕭艸。
- (89) 艸部 蕘 水芻也。從艸賣聲。《詩》曰：“言采其蕘。”
- (90) 艸部 菲 梟葵也。從艸非聲。《詩》曰：“言采其菲。”
- (91) 艸部 蘧 艸也。《左氏傳》：“楚大夫蘧子馮。”從艸遠聲。
- (92) 艸部 葑 越嶺縣名，見《史記》。從艸作聲。
- (93) 艸部 蕘 《左氏傳》：“以蕘陳事。”杜預注雲：蕘，敕也。從艸未詳。
- (94) 艸部 葬 藏也。從死在艸中；一其中，所以薦之。《易》曰：“古之葬者，厚衣之以薪。”
- (95) 艸部 分 分也。從重八。八，別也。亦聲。《孝經說》曰：“故上下有別。”
- (96) 牛部 牝 畜母也。從牛匕聲。《易》曰：“畜牝牛，吉。”
- (97) 牛部 犛 犛牛也。從牛京聲。《春秋傳》曰：“犛犛。”
- (98) 牛部 犛 黃牛黑脣也。從牛羣聲。《詩》曰：“九十其犛。”
- (99) 牛部 牯 牛馬牢也。從牛告聲。《周書》曰：“今惟牯牛馬。”
- (100) 牛部 牯 以芻莖養牛也。從牛，芻，芻亦聲。《春秋國語》曰：“牯豢幾何。”
- (101) 牛部 犛 犛牛乘馬。從牛葡聲。

- (102) 牛部 犛 牛卸下骨也。從牛丕聲。《春秋傳》曰：“宋司馬犛字牛。”
- (103) 牛部 牻 牻，滿也。從牛刃聲。《詩》曰：“於牻魚躍。”
- (104) 告部 告 牛觸人，角箸橫木，《易》曰：“僮牛之告。”凡告之屬皆從告。
- (105) 口部 呱 小兒嘅聲。從口瓜聲。《詩》曰：“後稷呱矣。”
- (106) 口部 嗁 小兒聲。從口皇聲。《詩》曰：“其泣嗁嗁。”
- (107) 口部 嗁 小兒有知也。從口疑聲。《詩》曰：“克岐克嗁。”
- (108) 口部 嗜 嘗也。從口齊聲。《周書》曰：“大保受同祭嗜。”
- (109) 口部 嘽 喘息也。一曰喜也。從口單聲。《詩》曰：“嘽嘽駱馬。”
- (110) 口部 呶 東夷謂息爲呶。從口四聲。《詩》曰：“犬夷呶矣。”
- (111) 口部 啍 口氣也。從口亭聲。《詩》曰：“大車啍啍。”
- (112) 口部 噓 悟解氣也。從口寔聲。《詩》曰：“願言則噓。”
- (113) 口部 啞 大笑也。從口至聲。《詩》曰：“啞其笑矣。”
- (114) 口部 啞 笑也。從口亞聲。《易》曰：“笑言啞啞。”
- (115) 口部 咄 多言也。從口世聲。《詩》曰：“無然咄咄。”
- (116) 口部 噂 聚語也。從口尊聲。《詩》曰：“噂沓背憎。”
- (117) 口部 聶 聶語也。從口從耳。《詩》曰：“聶聶幡幡。”
- (118) 口部 嘒 小聲也。從口彗聲。《詩》曰：“嘒彼小星。”
- (119) 口部 嘒 大笑也。從口奉聲。讀若《詩》曰“瓜瓞奉奉”。
- (120) 口部 嘖 盛氣也。從口眞聲。《詩》曰：“振旅嘖嘖。”
- (121) 口部 嘖 疾也。從口嬰聲。《詩》曰：“匪車嘖兮。”
- (122) 口部 嘖 聲也。從口貪聲。《詩》曰：“有嘖其飴。”
- (123) 口部 嘖 違也。從口弗聲。《周書》曰：“嘖其考長。”
- (124) 口部 噤 高氣多言也。從口，薑省聲。《春秋傳》曰：“噤言。”
- (125) 口部 嘖 謹聲也。從口奴聲。《詩》曰：“載號載嘖。”
- (126) 口部 嘖 懼也。從口堯聲。《詩》曰：“唯予音之嘖嘖。”
- (127) 口部 嗷 眾口愁也。從口敖聲。《詩》曰：“哀鳴嗷嗷。”
- (128) 口部 唵 呬也。從口念聲。《詩》曰：“民之方唵呬。”
- (129) 口部 嘖 嘆也。從口既聲。《詩》曰：“嘖其嘆矣。”
- (130) 口部 吡 動也。從口化聲。《詩》曰：“尚寐無吡。”
- (131) 口部 吝 恨惜也。從口文聲。《易》曰：“以往吝。”
- (132) 口部 唁 弔生也。從口言聲。《詩》曰：“歸唁衛侯。”
- (133) 口部 噉 噉兒。從口噉聲。《春秋傳》曰：“君將噉之。”
- (134) 口部 噉 使犬聲。從口族聲。《春秋傳》曰：“公噉夫癸。”
- (135) 口部 噉 麋鹿羣口相聚兒。從口虞聲。《詩》曰：“麋鹿噉噉。”
- (136) 口部 售 賣去手也。從口，隹省聲。《詩》曰：“賈用不售。”
- (137) 口部 嘲 謔也。從口朝聲。《漢書》通用嘲。
- (138) 走部 趨 走也。從走戴聲。讀若《詩》“威儀秩秩。”
- (139) 走部 趨 側行也。從走束聲。《詩》曰：“謂地蓋厚，不敢不趨。”
- (140) 走部 趨 動也。從走樂聲。讀若《春秋傳》曰“輔趨。”
- (141) 走部 趨 動也。從走佳聲。《春秋傳》曰：“盟於趨。”趨，地名。
- (142) 夂部 夂 以足蹋夷艸。從夂從夂。《春秋傳》曰：“夂夷蘊崇之。”
- (143) 此部 些 語辭也。見《楚辭》。從此從二。其義未詳。
- (144) 正部 乏 《春秋傳》曰：“反正爲乏。”
- (145) 是部 臽 是也。從是韋聲。《春秋傳》曰：“犯五不臽。”
- (146) 辵部 辵 乍行乍止也。從辵從止。凡辵之屬皆從辵。讀若《春秋公羊傳》曰“辵階而走。”
- (147) 辵部 迂 往也。從辵王聲。《春秋傳》曰：“子無我迂。”
- (148) 辵部 逾 越進也。從辵俞聲。《周書》曰：“無敢昏逾。”
- (149) 辵部 邁 往來數也。從辵揣聲。《易》曰：“曰事邁往。”
- (150) 辵部 返 還也。從辵從反，反亦聲。《尚書》曰：“祖甲返。”
- (151) 辵部 遲 徐行也。從辵犀聲。《詩》曰：“行道遲遲。”
- (152) 辵部 迪 衰行也。從辵也聲。《夏書》曰：“東迪北，會於匯。”
- (153) 辵部 遴 行難也。從辵遴聲。《易》曰：“以往遴。”

- (154) 辵部 達 行不相遇也。從辵牽聲。《詩》曰：“挑兮達兮。”
- (155) 辵部 逌 斂聚也。從辵求聲。《虞書》曰：“逌逌羸功。”又曰：“怨匹曰逌。”
- (156) 辵部 退 數也。從辵貝聲。《周書》曰：“我與受其退。”
- (157) 辵部 遞 踰也。從辵戍聲。《易》曰：“雜而不遞。”
- (158) 辵部 逞 通也。從辵呈聲。楚謂疾行爲逞。《春秋傳》曰：“何所不逞欲。”
- (159) 辵部 微 隱行也。從辵散聲。《春秋傳》曰：“白公其徒微之。”
- (160) 辵部 徃 徃徃，行兒。從辵是聲。《爾雅》曰：“徃，則也。”
- (161) 辵部 徇 行示也。從辵勻聲。《司馬法》：“斬以徇。”
- (162) 行部 衝 通道也。從行童聲。《春秋傳》曰：“及衝，以戈擊之。”
- (163) 齒部 齧 齒相值也。一曰齧也。從齒責聲。《春秋傳》曰：“皙齧。”
- (164) 齒部 齧 齒差跌兒。從齒佐聲。《春秋傳》曰：“鄭有子齧。”
- (165) 齒部 齧 吐而嚙也。從齒台聲。《爾雅》曰：“牛曰齧。”
- (166) 足部 蹶 行平易也。從足叔聲。《詩》曰：“蹶蹶周道。”
- (167) 足部 蹶 踈行兒。從足禹聲。《詩》曰：“獨行蹶蹶。”
- (168) 足部 蹶 行兒。從足將聲。《詩》曰：“管磬蹶蹶。”
- (169) 足部 躑 舉足行高也。從足喬聲。《詩》曰：“小子躑躑。”
- (170) 足部 躑 登也。從足齊聲。《商書》曰：“子顛躑。”
- (171) 足部 躑 進足有所擷取也。從足及聲。《爾雅》曰：“躑謂之擷。”
- (172) 足部 躑 路也。從足質聲。《詩》曰：“載躑其尾。”
- (173) 足部 躑 小步也。從足營聲。《詩》曰：“不敢不躑。”
- (174) 足部 躑 僵也。從足音聲。《春秋傳》曰：“晉人躑之。”
- (175) 疋部 疋 足也。上象腓腸，下從止。《弟子職》曰：“問疋何止。”古文以爲《詩·大疋》字。
- (176) 品部 品 多言也。從品相連。《春秋傳》曰：“次於品北。”讀與聶同。
- (177) 龠部 龠 樂和龠也。從龠皆聲。《虞書》曰：“八音克龠。”
- (178) 咄部 咄 高聲也。《春秋公羊傳》曰：“魯昭公叫然而哭。”
- (179) 言部 誥 致言也。從言從先，先亦聲。《詩》曰：“螽斯羽誥誥兮。”
- (180) 言部 諛 徐語也。從言原聲。《孟子》曰：“故諛諛而來。”
- (181) 言部 詬 論訟也。《傳》曰：“詬詬孔子容。”從言各聲。
- (182) 言部 謨 議謀也。從言莫聲。《虞書》曰：“咎繇謨。”
- (183) 言部 諶 誠諦也。從言甚聲。《詩》曰：“天難諶斯。”
- (184) 言部 諗 問也。從言僉聲。《周書》曰：“勿以諗人。”
- (185) 言部 詰 訓故言也。從言古聲。《詩》曰詰訓。
- (186) 言部 諫 臣盡力之美。從言葛聲。《詩》曰：“諫諫王多吉士。”
- (187) 言部 諗 深諫也。從言念聲。《春秋傳》曰：“辛伯諗周桓公。”
- (188) 言部 試 用也。從言式聲。《虞書》曰：“明試以功。”
- (189) 言部 誠 和也。從言鹹聲。《周書》曰：“不能誠於小民。”
- (190) 言部 話 合會善言也。從言昏聲。《傳》曰：“告之話言。”
- (191) 言部 譏 嘉善也。從言我聲。《詩》曰：“譏以溢我。”
- (192) 言部 詞 共也。一曰讞也。從言同聲。《周書》曰：“在夏後之詞。”
- (193) 言部 譎 敷也。從言番聲。《商書》曰：“王譎告之。”
- (194) 言部 訝 相迎也。從言牙聲。《周禮》曰：“諸侯有卿訝發。”
- (195) 言部 訕 頓也。從言刃聲。《論語》曰：“其言也訕。”
- (196) 言部 營 小聲也。從言，榮省聲。《詩》曰：“營營青蠅。”
- (197) 言部 譎 誣也。從言壽聲。讀若醜。《周書》曰：“無或譎張爲幻。”
- (198) 言部 謔 離別也。從言多聲。讀若《論語》“謔予之足”。周景王作洛陽謔臺。
- (199) 言部 諛 可惡之辭。從言矣聲。一曰諛然。《春秋傳》曰：“諛諛出出。”
- (200) 言部 誑 多言也。從言世聲。《詩》曰：“無然誑誑。”
- (201) 言部 訾 不思稱意也。從言此聲。《詩》曰：“翁翁訾訾。”
- (202) 言部 諛 便巧言也。從言扁聲。《周書》曰：“截截善諛言。”《論語》曰：“友諛佞。”
- (203) 言部 謔 忌也。從言其聲。《周書》曰：“上不謔於凶德。”
- (204) 言部 諛 讓也。從言卒聲。《國語》曰：“諛申胥。”
- (205) 言部 謔 戲也。從言虐聲。《詩》曰：“善戲謔兮。”

- (206) 言部 誼 讀也。從言工聲。《詩》曰：“蠹賊內誼。”
- (207) 言部 讀 中止也。從言貴聲。《司馬法》曰：“師多則人讀。”讀，止也。
- (208) 言部 識 聲也。從言歲聲。《詩》曰：“有識其聲。”
- (209) 言部 訓 大呼也。從言ㄩ聲。《春秋傳》曰：“或訓於宋大廟。”
- (210) 言部 譌 譌言也。從言爲聲。《詩》曰：“民之譌言。”
- (211) 言部 訴 告也。從言，斥省聲。《論語》曰：“訴子路於季孫。”
- (212) 言部 誅 罪也。從言尤聲。《周書》曰：“報以庶誅。”
- (213) 言部 誦 禱也。累功德以求福。《論語》雲：“誦曰：‘禱爾於上下神祇。’”從言，纛省聲。
- (214) 言部 諉 小也。誘也。從言妄聲。《禮記》曰：“足以諉聞。”
- (215) 言部 讒 痛怨也。從言賣聲。《春秋傳》曰：“民無怨讒。”
- (216) 音部 韶 虞舜樂也。《書》曰：“《韶》九成，鳳皇來儀。”從音召聲。
- (217) 辛部 妾 從辛從女。《春秋》雲：“女爲人妾。”妾，不娉也。
- (218) 辛部 業 大版也。象其鉏鋤相承也。從辛從巾。巾象版。《詩》曰：“巨業維縱。”
- (219) 収部 昇 舉也。從升由聲。《春秋傳》曰：“晉人或以廣墜，楚人昇之。”
- (220) 収部 異 舉也。從升巳聲。《虞書》曰：“獄曰：異哉！”
- (221) 収部 弈 圍碁也。從升亦聲。《論語》曰：“不有博弈者乎！”
- (222) 革部 鞞 去毛皮也。《論語》曰：“虎豹之鞞。”從革郭聲。
- (223) 革部 鞞 柔革工也。從革包聲。讀若樸。《周禮》曰：“柔皮之工鮑氏。”鞞卽鮑也。
- (224) 革部 鞶 大帶也。《易》曰：“或錫之鞶帶。”男子帶鞶，婦人帶絲。從革般聲。
- (225) 革部 鞞 以韋束也。《易》曰：“鞞用黃牛之革。”從革鞞聲。
- (226) 革部 鞞 車軾也。從革弘聲。《詩》曰：“鞞鞞淺鞞。”讀若穹。
- (227) 革部 鞞 車衡三束也。曲鞞鞞縛，直鞞鞞縛。從革鞞聲。讀若《論語》“鑽燧”之“鑽”。
- (228) 彌部 鬻 五味盂羹也。從鬻從羔。《詩》曰：“亦有和鬻。”
- (229) 卂部 覩 種也。從耑，卂。持畝種之。《書》曰：“我覩黍稷。”
- (230) 卂部 飪 食飪也。從卂享聲。《易》曰：“孰飪。”
- (231) 鬥部 鬪 鬪也。從鬥共聲。《孟子》曰：“鄒與魯鬪。”
- (232) 鬥部 鬪 恆訟也。《詩》云：“兄弟鬪於牆。”從鬥從兒。兒，善訟者也。
- (233) 又部 叟 滑也。《詩》云：“叟兮達兮。”從又，中。一曰取也。
- (234) 又部 取 捕取也。《周禮》：“獲者取左耳。”《司馬法》曰：“載獻馘。”馘者，耳也。
- (235) 隸部 隸 及也。從隸泉聲。《詩》曰：“隸天之未陰雨。”
- (236) 爰部 爰 以投殊人也。《禮》：“爰以積竹，八觚，長丈二尺，建於兵車，車旅賁以先驅。”
- (237) 爰部 爰 軍中士所持爰也。從木從爰。《司馬法》曰：“執羽從爰。”
- (238) 殺部 弑 臣殺君也。《易》曰：“臣弑其君。”從殺省，式聲。
- (239) 支部 啟 教也。從支啟聲。《論語》曰：“不憤不啟。”
- (240) 支部 啟 迕也。從支白聲。《周書》曰：“常啟常任。”
- (241) 支部 敷 敷也。從支專聲。《周書》曰：“用敷遺後人。”
- (242) 支部 攷 汲汲也。從支子聲。《周書》曰：“攷攷無怠。”
- (243) 支部 攷 分也。從支分聲。《周書》曰：“乃惟孺子攷。”亦讀與彬同。
- (244) 支部 攷 止也。從支早聲。《周書》曰：“攷我於艱。”
- (245) 支部 敕 擇也。從支束聲。《周書》曰：“敕乃甲冑。”
- (246) 支部 敵 繫連也。從支喬聲。《周書》曰：“敵乃幹。”讀若矯。
- (247) 支部 攷 彊取也。《周書》曰：“攷攘矯虔。”從支兌聲。
- (248) 支部 斃 解也。從支睪聲。《詩》雲：“服之無斃。”斃，獸也。一曰終也。
- (249) 支部 救 撫也。從支米聲。《周書》曰：“亦未克救公功。”讀若弭。
- (250) 支部 斂 塞也。從支念聲。《周書》曰：“斂乃奔。”
- (251) 支部 斃 去陰之刑也。從支蜀聲。《周書》曰：“刑劓斃黥。”
- (252) 支部 斃 冒也。從支昏聲。《周書》曰：“斃不畏死。”
- (253) 支部 斃 棄也。從支曷聲。《周書》以爲討。《詩》云：“無我斃兮。”
- (254) 支部 畋 平田也。從支，田。《周書》曰：“畋尔田。”
- (255) 支部 牧 養牛人也。從支從牛。《詩》曰：“牧人乃夢。”
- (256) 葡部 卍 葡以問疑也。從口，葡。讀與稽同。《書》雲“卍疑”。

- (257) 葡部 𦉳 《易》卦之上體也。《商書》曰：“貞曰𦉳。”從葡每聲。
- (258) 用部 庸 用也。從用從庚。庚，更事也。《易》曰：“先庚三日。”
- (259) 爻部 爻 交也。象《易》六爻頭交也。凡爻之屬皆從爻。
- (260) 爻部 𦉳 藩也。從爻從林。《詩》曰：“營營青蠅，止於𦉳。”
- (261) 𦉳部 𦉳 營求也。從𦉳，從人在穴上。《商書》曰：“高宗夢得說，”
- (262) 目部 𦉳 目大也。從目，𦉳。《春秋傳》有鄭伯𦉳。
- (263) 目部 盼 《詩》曰：“美目盼兮。”從目分聲。
- (264) 目部 𦉳 多白眼也。從目反聲。《春秋傳》曰：“鄭遊𦉳，字子明。”
- (265) 目部 𦉳 目少精也。從目毛聲。《虞書》耄字從此。
- (266) 目部 𦉳 直視也。從目必聲。讀若《詩》云：“泌彼泉水。”
- (267) 目部 𦉳 低目視也。從目冒聲。《周書》曰：“武王惟𦉳。”
- (268) 目部 𦉳 視高兒。從目戈聲。讀若《詩》曰“施罟濊濊。”
- (269) 目部 𦉳 視近而志遠。從目尢聲。《易》曰：“虎視眈眈。”
- (270) 目部 𦉳 目驚視也。從目袁聲。《詩》曰：“獨行翼翼。”
- (271) 目部 𦉳 恨張目也。從目賓聲。《詩》曰：“國步斯𦉳。”
- (272) 目部 相 《易》曰：“地可觀者，莫可觀於木。”《詩》曰：“相鼠有皮。”
- (273) 目部 𦉳 目深兒。從目，𦉳。讀若《易》曰“勿卹之”卹。
- (274) 目部 𦉳 目相戲也。從目晏聲。《詩》曰：“𦉳婉之求。”
- (275) 目部 𦉳 顧也。從目弄聲。《詩》曰：“乃眷西顧。”
- (276) 白部 魯 鈍詞也。從白，𦉳省聲。《論語》曰：“參也魯。”
- (277) 白部 𦉳 詞也。從白𦉳聲。𦉳與𦉳同。《虞書》：“帝曰：𦉳咨。”
- (278) 𦉳部 𦉳 盛也。從大從𦉳，𦉳亦聲。此燕召公名。讀若郝。《史篇》名醜。
- (279) 習部 𦉳 習狀也。從習元聲。《春秋傳》曰：“𦉳歲而惕日。”
- (280) 羽部 翰 《逸周書》曰：“大翰，若翬雉，一名鷩風。周成王時蜀人獻之。”
- (281) 羽部 翬 大飛也。從羽軍聲。一曰伊，雉而南，雉五采皆備曰翬。《詩》曰：“如翬斯飛。”
- (282) 羽部 𦉳 飛聲也。從羽歲聲。《詩》曰：“鳳皇於飛，𦉳𦉳其羽。”
- (283) 羽部 𦉳 鳥白肥澤兒。從羽高聲。《詩》云：“白鳥𦉳𦉳。”
- (284) 羽部 𦉳 翳也。所以舞也。從羽設聲。《詩》曰：“左執𦉳。”
- (285) 隹部 𦉳 石鳥。一名雛。一曰精。從隹干聲。《春秋傳》：“秦有土𦉳。”
- (286) 隹部 𦉳 鳥也。從隹今聲。《春秋傳》有公子苦𦉳。
- (287) 奮部 奮 翬也。從奮在田上。《詩》曰：“不能奮飛。”
- (288) 萑部 萑 小爵也。從萑𦉳聲。《詩》曰：“萑鳴於埵。”
- (289) 苜部 莫 火不明也。從苜從火，苜亦聲。《周書》曰：“布重莫席。”織蕩席也。讀與蔑同。
- (290) 羊部 𦉳 羊未卒歲也。從羊兆聲。或曰：夷羊百斤左右為𦉳。讀若《春秋》“盟於洮”。
- (291) 瞿部 𦉳 佳欲逸走也。從又持之，𦉳也。讀若《詩》云“橫彼淮夷”之“橫”。一曰視遽兒。
- (292) 鳥部 𦉳 鷩，鳳屬，神鳥也。從鳥獄聲。《春秋國語》曰：“周之興也，鷩鷩鳴於岐山。”
- (293) 鳥部 𦉳 鳧屬。從鳥𦉳聲。《詩》曰：“鳧鷩在梁。”
- (294) 鳥部 𦉳 知天將雨鳥也。從鳥𦉳聲。《禮記》曰：“知天文者冠鷩。”
- (295) 鳥部 𦉳 雕也。從鳥敦聲。《詩》曰：“匪𦉳匪鷩。”
- (296) 鳥部 𦉳 鷩飛兒。從鳥穴聲。《詩》曰：“𦉳彼晨風。”
- (297) 鳥部 𦉳 鳥也。從鳥，榮省聲。《詩》曰：“有鷩其羽。”
- (298) 鳥部 𦉳 赤雉也。從鳥𦉳聲。《周禮》曰：“孤服鷩冕。”
- (299) 鳥部 𦉳 雌雉鳴也。從鳥唯聲。《詩》曰“有鷩雉鳴。”
- (300) 玄部 𦉳 黑也。從二玄。《春秋傳》曰：“何故使吾水茲？”
- (301) 予部 幻 相詐惑也。從反予。《周書》曰：“無或譎張為幻。”
- (302) 受部 受 物落；上下相付也。從爪從又。凡受之屬皆從受。讀若《詩》“標有梅”。
- (303) 𦉳部 𦉳 往，死也。從𦉳且聲。《虞書》曰：“勛乃𦉳。”
- (304) 𦉳部 𦉳 殊也。從𦉳亟聲。《虞書》曰：“𦉳鯨於羽山。”
- (305) 𦉳部 𦉳 道中死人，人所覆也。從𦉳堇聲。《詩》曰：“行有死人，尚或𦉳之。”
- (306) 𦉳部 𦉳 微盡也。從𦉳鐵聲。《春秋傳》曰：“齊人𦉳於遂。”
- (307) 𦉳部 𦉳 敗也。從𦉳翠聲。《商書》曰：“彝倫攸𦉳。”
- (308) 骨部 𦉳 骨間黃汁也。從骨易聲。讀若《易》曰“夕惕若厲。”

- (309) 骨部 骹 鳥獸殘骨曰骹。《明堂月令》曰：“掩骼蕞骹。”骹或從肉。
- (310) 骨部 髓 骨髓之可會髮者。從骨會聲。《詩》曰：“髓弁如星。”
- (311) 肉部 肓 心上鬲下也。從肉亡聲。《春秋傳》曰：“病在肓之下。”
- (312) 肉部 膂 背肉也。從肉尪聲。《易》曰：“鹹其膂。”
- (313) 肉部 臄 肉臄也。從肉宣聲。《詩》曰：“臄裼暴虎。”
- (314) 肉部 臠 臠也。從肉辵聲。一曰切肉，臠也。《詩》曰：“棘人臠臠兮。”
- (315) 肉部 膾 牛腸脂也。從肉奈聲。《詩》曰：“取其血膾。”
- (316) 肉部 膾 無骨臘也。楊雄說：鳥臘也。從肉無聲。《周禮》有膾判。讀若謨。
- (317) 肉部 臠 乾魚尾臠臠也。從肉肅聲。《周禮》有“臠臠”。
- (318) 肉部 臠 挑取骨間肉也。從肉爰聲。讀若《詩》曰“啜其泣矣。”
- (319) 肉部 食 食所遺也。從肉仕聲。《易》曰：“噬乾食。”
- (320) 刀部 利 銛也。從刀和然後利，從和省。《易》曰：“利者，義之和也。”
- (321) 刀部 副 判也。從刀冫聲。《周禮》曰：“副辜祭。”
- (322) 刀部 剗 刮去惡創肉也。從刀鬲聲。《周禮》曰：“剗殺之齊。”
- (323) 刀部 刷 刮也。從刀，刷省聲。《禮》：“布刷巾。”
- (324) 刀部 剗 刺也。從刀圭聲。《易》曰：“土剗羊。”
- (325) 刀部 剗 絕也。從刀臬聲。《周書》曰：“天用剗絕其命。”
- (326) 刀部 剗 缺也。從刀占聲。《詩》曰：“白圭之剗。”
- (327) 刀部 剗 刑鼻也。從刀臬聲。《易》曰：“天且剗。”
- (328) 耒部 耒 商人七十而耒。耒，藉稅也。從耒助聲。《周禮》曰：“以興耒利萌。”
- (329) 角部 犄 一角仰也。從角切聲。《易》曰：“其牛犄。”
- (330) 角部 觚 角兒。從角丩聲。《詩》曰：“兕觥其觚。”
- (331) 角部 觥 用角低仰便也。從羊，牛，角。《詩》曰：“觥觥角弓。”
- (332) 角部 衡 牛觸，橫大木其角。從角從大，行聲。《詩》曰：“設其楅衡。”
- (333) 角部 觥 佩角，銳耑可以解結。從角雋聲。《詩》曰：“童子佩觥。”
- (334) 角部 觥 鄉飲酒角也。《禮》曰：“一人洗，舉觥。”觥受四升。從角單聲。
- (335) 竹部 籟 籟籟也。從竹路聲。《夏書》曰：“惟籟籟。”
- (336) 竹部 籟 大竹也。從竹湯聲。《夏書》曰：“瑤琨筱籟。”籟可為幹，籟可為矢。
- (337) 竹部 籟 讀書也。從竹擗聲。《春秋傳》曰“荀籟。”
- (338) 竹部 筵 筵也。從竹孛聲。讀若《春秋》魯公子彊。
- (339) 竹部 筵 竹席也。從竹延聲。《周禮》曰：“度堂以筵。”筵一丈。
- (340) 竹部 筵 筵也。從竹單聲。漢津令：筵，小筐也。《傳》曰：“筵食壺漿。”
- (341) 竹部 筵 宗廟盛肉竹器也。從竹奈聲。《周禮》：“供盆筵以待事。”
- (342) 竹部 籟 積竹矛戟矜也。從竹盧聲。《春秋國語》曰：“朱儒扶籟。”
- (343) 竹部 籟 弩矢籟也。從竹服聲。《周禮》：“仲秋獻矢籟。”
- (344) 竹部 籟 藩落也。從竹畢聲。《春秋傳》曰：“籟門圭籟。”
- (345) 竹部 籟 禁苑也。從竹禦聲。《春秋傳》曰：“澤之目籟。”
- (346) 丌部 奠 巽也。從丌從頭。此《易》奠卦“為長女，為風”者。
- (347) 丌部 奠 置祭也。從酋，酋，酒也。下其丌也。《禮》有奠祭者。
- (348) 日部 晷 出氣詞也。從日，象氣出形。《春秋傳》曰：“鄭太子晷。”
- (349) 日部 晉 晉也。從日虢聲。《詩》曰：“晉不畏明。”
- (350) 可部 晉 可也。從可加聲。《詩》曰：“晉矣富人。”
- (351) 虧部 粵 虧也。審慎之詞者。從虧從宀。《周書》曰：“粵三日丁亥。”
- (352) 喜部 詒 大也。從喜否聲。《春秋傳》：“吳有太宰詒。”
- (353) 豆部 鼗 《禮》：昏鼓四通為大鼓，夜半三通為戒晨，旦明五通為發明。
- (354) 鼓部 鼓 郭也。《周禮》六鼓：雷鼓八面，靈鼓六面。
- (355) 鼓部 鞀 大鼓也。從鼓咎聲。《詩》曰：“鞀鼓不勝。”
- (356) 鼓部 鞀 鼓聲也。從鼓鼎聲。《詩》曰：“鞀鼓鞀鞀。”
- (357) 鼓部 鞀 鼓聲也。從鼓堂聲。《詩》曰：“擊鼓其鞀。”
- (358) 豐部 豳 爵之次弟也。從豐從弟。《虞書》曰：“平豳東作。”
- (359) 豐部 豳 好而長也。從豐，豐，大也。盍聲。《春秋傳》曰：“美而豳。”
- (360) 虎部 虞 騶虞也。白虎黑文，尾長於身。《詩》曰：“於嗟乎，騶虞。”

- (361) 虎部 虤 《易》：“履虎尾虤虤。”恐懼。一曰蠅虎也。從虎尙聲。
- (362) 虎部 虤 虤也。急也。從虎從武。見《周禮》。
- (363) 皿部 盅 器虛也。從皿中聲。《老子》曰：“道盅而用之。”
- (364) 皿部 盥 澡手也。從臼水臨皿。《春秋傳》曰：“奉匭沃盥。”
- (365) 血部 盪 血也。從血亡聲。《春秋傳》曰：“士刲羊，亦無盪也。”
- (366) 血部 盪 血醢也。從血肱聲。《禮記》有盪醢，以牛乾脯，梁，籩，鹽，酒也。
- (367) 血部 盪 傷痛也。從血，聿，聿聲。《周書》曰：“民罔不盪傷心。”
- (368) 丹部 臙 善丹也。從丹萋聲。《周書》曰：“惟其敷丹臙。”讀若雀。
- (369) 井部 荆 罰臯也。從井從刀。《易》曰：“井，法也。”井亦聲。
- (370) 皀部 既 小食也。從皀无聲。《論語》曰：“不使勝食既。”
- (371) 鬯部 鬯 以秬釀鬱艸，芬芳攸服，以降神也。《易》曰：“不喪匕鬯。”凡鬯之屬皆從鬯。
- (372) 食部 餼 乾食也。從食侯聲。《周書》曰：“峙乃餼糗。”
- (373) 食部 饈 酒食也。從食喜聲。《詩》曰：“可以饈饈。”
- (374) 食部 饈 餉田也。從食盍聲。《詩》曰：“饈彼南畝。”
- (375) 食部 饈 盛器滿兒。從食蒙聲。《詩》曰：“有饈焉飧。”
- (376) 食部 餼 食之香也。從食必聲。《詩》曰：“有餼其香。”
- (377) 食部 饈 燕食也。從食芡聲。《詩》曰：“飲酒之饈。”
- (378) 食部 餼 食臭也。從食艾聲。《爾雅》曰：“餼謂之喙。”
- (379) 食部 餼 送去也。從食彘聲。《詩》曰：“顯父餼之。”
- (380) 食部 館 客舍也。從食官聲。《周禮》：五十裏有市，市有館，館有積，以待朝聘之客。
- (381) 食部 飧 貪也。從食，殸省聲。《春秋傳》曰：“謂之饕飧。”
- (382) 食部 餽 飯餽也。從食曷聲。《論語》曰：“食饁而餽。”
- (383) 亼部 兪 皆也。從亼從卩從從。《虞書》曰：“兪曰伯夷。”
- (384) 倉部 鶩 鳥獸來食聲也。從倉另聲。《虞書》曰：“鳥獸鶩鶩。”
- (385) 缶部 罄 器中空也。從缶殼聲。殼，古文罄字。《詩》云：“斝之罄矣。”
- (386) 門部 雀 高至也。從隹上欲出門。《易》曰：“夫乾雀然。”
- (387) 言部 言 獻也。從高省，日象進孰物形。《孝經》曰：“祭則鬼言之。”凡言之屬皆從言。
- (388) 旱部 覃 長味也。從旱，鹹省聲。《詩》曰：“實覃實簋。”
- (389) 來部 來 周所受瑞麥來麩。《詩》曰：“詒我來麩。”凡來之屬皆從來。
- (390) 來部 來 來也。《詩》曰：“不來不來。”從來矣聲。
- (391) 攴部 憂 和之行也。從攴憂聲。《詩》曰：“布政憂憂。”
- (392) 攴部 鞞 籥也。樂有章。從章從彳從攴。《詩》曰：“鞞鞞舞我。”
- (393) 攴部 畀 治稼畀畀進也。從田，人，從攴。《詩》曰：“畀畀良耜。”
- (394) 舜部 舜 華榮也。從舜生聲。讀若皇。《爾雅》曰：“舜，華也。”
- (395) 韋部 鞞 射決也。從韋業聲。《詩》曰：“童子佩鞞。”
- (396) 韋部 鞞 弓衣也。從韋長聲。《詩》曰：“交鞞二弓。”
- (397) 攴部 刃 秦以市買多得為刃。從攴從攴，益至也。《詩》曰：“我刃酌彼金盞。”
- (398) 久部 久 以後灸之。《周禮》曰：“久諸牆以觀其橈。”凡久之屬皆從久。
- (399) 木部 柚 條也。似橙而酢。從木由聲。《夏書》曰：“厥包橘柚。”
- (400) 木部 業 果，實如小栗。從木辛聲。《春秋傳》曰：“女摯不過業栗。”
- (401) 木部 榆 母榆也。從木俞聲。讀若《易》卦屯。
- (402) 木部 楨 赤棟也。從木夷聲。《詩》曰：“隰有杞楨。”
- (403) 木部 欖 楸也。從木賈聲。《春秋傳》曰：“樹六欖於蒲圃。”
- (404) 木部 杣 木也。從木屯聲。《夏書》曰：“杣榦栝柏。”
- (405) 木部 椽 羅也。從木豸聲。《詩》曰：“隰有樹椽。”
- (406) 木部 楛 木也。從木苦聲。《詩》曰：“楛楛濟濟。”
- (407) 木部 欒 木。似欄。從木緜聲。《禮》：天子樹松，諸侯柏，大夫欒，士楊。
- (408) 木部 槩 山桑也。從木厭聲。《詩》曰：“其槩其柘。”
- (409) 木部 楸 鼠梓木。從木臽聲。《詩》曰：“北山有楸。”
- (410) 木部 枚 榦也。可為杖。從木從支。《詩》曰：“施於條枚。”
- (411) 木部 棗 槎識也。從木，執闕。《夏書》曰：“隨山棗木。”讀若刊。
- (412) 木部 杣 木少盛兒。從木夭聲。《詩》曰：“桃之杣杣。”

- (413) 木部 𣎵 眾盛也。從木羸聲。《逸周書》曰：“疑沮事。”闕。
- (414) 木部 朽 木根也。從木號聲。《春秋傳》曰：“歲在玄朽。”玄朽，虛也。
- (415) 木部 樛 木長兒。從木參聲。《詩》曰：“樛差荇菜。”
- (416) 木部 榑 長木也。從木延聲。《詩》曰：“松栢有榑。”
- (417) 木部 杙 樹兒。從木大聲。《詩》曰：“有杙之柱。”
- (418) 木部 枯 槁也。從木古聲。《夏書》曰：“唯箇輅枯。”木名也。
- (419) 木部 柝 判也。從木庌聲。《易》曰：“重門擊柝。”
- (420) 木部 栽 築牆長版也。從木戔聲。《春秋傳》曰：“楚圍蔡，裏而栽。”
- (421) 木部 楹 柱也。從木盈聲。《春秋傳》曰：“丹桓宮楹。”
- (422) 木部 榘 柱砥。古用木，今以石。從木耆聲。《易》：“榘恒凶。”
- (423) 木部 桲 榘也。從木劉聲。《詩》曰：“其灌其桲。”
- (424) 木部 榘 屋桁上標。從木而聲。《爾雅》曰：“榘謂之榘。”
- (425) 木部 桷 椽也。椽方曰桷。從木角聲。《春秋傳》曰：“刻桓宮之桷。”
- (426) 木部 滴 戶滴也。從木啻聲。《爾雅》曰：“簷謂之滴。”讀若滴。
- (427) 木部 宋 棟也。從木亡聲。《爾雅》曰：“宋廡謂之梁。”
- (428) 木部 櫟 夜行所擊者。從木棗聲。《易》曰：“重門擊櫟。”
- (429) 木部 耨 摩田器。從木憂聲。《論語》曰：“耨而不輟。”
- (430) 木部 杷 杷。《禮》有杷。杷，匕也。從木四聲。
- (431) 木部 檠 車歷錄東文也。從木攷聲。《詩》曰：“五檠梁輶。”
- (432) 木部 榘 行馬也。從木互聲。《周禮》曰：“設榘再重。”
- (433) 木部 檠 山行所乘者。從木纍聲。《虞書》曰：“予乘四載。”
- (434) 木部 檠 以木有所擣也。從木雋聲。《春秋傳》曰：“越敗吳於檠李。”
- (435) 木部 檠 伐木餘也。從木獻聲。《商書》曰：“若顛木之有紉檠。”
- (436) 木部 槎 衰斫也。從木差聲。《春秋傳》曰：“山不槎。”
- (437) 木部 杙 斷也。從木出聲。讀若《爾雅》“黜無前足”之“黜”。
- (438) 木部 檠 斷木也。從木曷聲。《春秋傳》曰：“檠杙。”
- (439) 木部 檠 檠部，方木也。從木扁聲。《春秋傳》曰：“檠部薦榦。”
- (440) 木部 樞 以木有所逼束也。從木冱聲。《詩》曰：“夏而樞衡。”
- (441) 木部 榘 積火燎之也。從木從火，酉聲。《詩》曰：“薪之榘之。”《周禮》：“以榘燎祠司中，司命。”
- (442) 木部 榘 棺也。從木親聲。《春秋傳》曰：“土與榘。”
- (443) 木部 榘 榻架也。從木曷聲。《春秋傳》曰：“榻而書之。”
- (444) 木部 榘 所以進船也。從木翟聲。或從卓。《史記》通用濯。
- (445) 林部 藪 豐也。從林；爽。或說規模字。《商書》曰：“庶草繁無。”
- (446) 林部 麓 守山林吏也。從林鹿聲。一曰林屬於山為麓。《春秋傳》曰：“沙麓崩。”
- (447) 出部 𦉳 𦉳。不安也。從出臬聲。《易》曰：“𦉳𦉳。”
- (448) 水部 𦉳 𦉳也。從水；人色也。從子。《論語》曰：“色𦉳如也。”
- (449) 生部 𦉳 眾生並立之兒。從二生。《詩》曰：“𦉳𦉳其鹿。”
- (450) 𦉳部 𦉳 盛也。從𦉳韋聲。《詩》曰：“𦉳不𦉳𦉳。”
- (451) 囊部 囊 車上大囊。從囊省，咎聲。《詩》曰：“載囊弓矢。”
- (452) 口部 囿 回行也。從口睪聲。《尚書》：“曰囿。”囿，升雲半有半無。讀若驛。
- (453) 口部 壺 宮中道。從口，象宮垣，道，上之形。《詩》曰：“室家之壺。”
- (454) 貝部 貲 物數紛貲亂也。從貝雲聲。讀若《春秋傳》曰：“宋皇郕。”
- (455) 貝部 賚 賜也。從貝來聲。《周書》曰：“賚尔秬鬯。”
- (456) 貝部 買 市也。從網，貝。《孟子》曰：“登壘斷而網市利。”
- (457) 邑部 郡 故《春秋傳》曰“上大夫受郡”是也。至秦初置三十六郡，以監其縣。從邑君聲。
- (458) 邑部 郟 國甸，大夫稍。《周禮》曰：“任郟地。”在天子三百裏之內。
- (459) 邑部 郟 炎帝之後，薑姓所封，周棄外家國。從邑台聲。《詩》曰：“有郟家室。”
- (460) 邑部 郟 左馮翊郟陽縣。從邑合聲。《詩》曰：“在郟之陽。”
- (461) 邑部 郟 河南縣直城門官陌地也。從邑辱聲。《春秋傳》曰：“成王定鼎於郟郟。”
- (462) 邑部 郟 殷諸侯國。在上黨東北。從邑勑聲。勑，古文利。《商書》：“西伯戡郟。”
- (463) 邑部 郟 晉邑也。從邑冥聲。《春秋傳》曰：“伐郟三門。”

- (464) 邑部 郟 晉之溫地。從邑侯聲。《春秋傳》曰：“爭郟田。”
- (465) 邑部 邲 晉邑也。從邑必聲。《春秋傳》曰：“晉楚戰於邲。”
- (466) 邑部 郟 北方長狄國也。從邑安聲。《春秋傳》曰：“郟瞞侵齊。”
- (467) 邑部 郟 蔡邑也。從邑昊聲。《春秋傳》曰：“郟陽封人之女奔之。”
- (468) 邑部 鄧 鄧國地也。從邑憂聲。《春秋傳》曰：“鄧南鄙鄧人攻之。”
- (469) 邑部 郟 琅邪莒邑。從邑更聲。《春秋傳》曰：“取郟。”
- (470) 邑部 郟 妘姓之國。從邑禹聲。《春秋傳》曰：“郟人籍稻。”讀若規渠之渠。
- (471) 邑部 郟 附庸國。在東平亢父郟亭。從邑寺聲。《春秋傳》曰：“取郟。”
- (472) 邑部 鄆 魯下邑。從邑藿聲。《春秋傳》曰：“齊人來歸鄆。”
- (473) 邑部 鄆 臨淮徐地。從邑義聲。《春秋傳》曰：“徐鄆楚。”
- (474) 邑部 郟 齊地。從邑兒聲。《春秋傳》曰：“齊高厚定郟田。”
- (475) 日部 旻 秋天也。從日文聲。《虞書》曰：“仁閱覆下，則稱旻天。”
- (476) 日部 晝 昭晰，明也。從日折聲。《禮》曰：“晰明行事。”
- (477) 日部 晤 明也。從日吾聲。《詩》曰：“晤辟有標。”
- (478) 日部 昀 明也。從日勻聲。《易》曰：“為昀頹。”
- (479) 日部 晉 進也。日出萬物進。從日從辵。《易》曰：“明出地上，晉。”
- (480) 日部 暘 日出也。從日易聲。《虞書》曰：“暘穀。”
- (481) 日部 睎 日見也。從日從見，見亦聲。《詩》曰：“見睎曰消。”
- (482) 日部 旰 晚也。從日幹聲。《春秋傳》曰：“日旰君勞。”
- (483) 日部 昃 日在西方時。側也。從日仄聲。《易》曰：“日昃之離。”
- (484) 日部 暋 陰而風也。從日壹聲。《詩》曰：“終風且暋。”
- (485) 日部 曷 不久也。從日鄉聲。《春秋傳》曰：“曷役之三月。”
- (486) 日部 昌 美言也。從日從曰。一曰日光也。《詩》曰：“東方昌矣。”
- (487) 日部 曠 乾也。耕暴田曰曠。從日堇聲。《易》曰：“燥萬物者莫曠於離。”
- (488) 日部 暋 日近也。從日匿聲。《春秋傳》曰：“私降暋燕。”
- (489) 日部 曆 曆象也。從日麻聲。《史記》通用歷。
- (490) 旂部 旂 龜蛇四遊，以象營室，遊遊而長。從旂兆聲。《周禮》曰：“縣鄙建旂。”
- (491) 旂部 旗 熊旗五遊，以象罰星，士卒以為期。從旂其聲。《周禮》曰：“率都建旗。”
- (492) 旂部 旗 錯革畫鳥其上，所以進士衆。《周禮》曰：“州裏建旗。”
- (493) 旂部 旒 從旂會聲。《春秋傳》曰：“旒動而鼓。”《詩》曰：“其旒如林。”
- (494) 旂部 旒 旗曲柄也。所以旆表士衆。從旂丹聲。《周禮》曰：“通帛為旒。”
- (495) 月部 朏 月未盛之明。從月，出。《周書》曰：“丙午朏。”
- (496) 月部 霸 從月鞏聲。《周書》曰：“哉生霸。”，古文霸。
- (497) 有部 有 不宜有也。《春秋傳》曰：“日月有食之。”從月又聲。凡有之屬皆從有。
- (498) 囧部 盟 《周禮》曰：“國有疑則盟。”從囧從血。，篆文；，古文盟。
- (499) 夕部 夤 敬惕也。從夕寅聲。《易》曰：“夕惕若夤。”，籀文夤。
- (500) 弓部 粵 今《尚書》只作由楛，蓋古文省弓，而後人因省之。
- (501) 鼎部 鼎 三足兩耳，和五味之寶器也。《易》卦：巽木於下者為鼎，象析木以炊也。
- (502) 鼎部 鼐 鼎之圜掩上者。從鼎才聲。《詩》曰：“鼐鼎及鼐。”
- (503) 鼎部 鼐 鼎之絕大者。從鼎乃聲。《魯詩》說：鼐，小鼎。
- (504) 鼎部 鬲 《周禮》：“廟門容大鬲七箇。”即《易》“玉鉉大吉”也。
- (505) 禾部 種 早種也。從禾直聲。《詩》曰：“種稚未麥。”
- (506) 禾部 稂 疾孰也。從禾奎聲。《詩》曰：“黍稷種稂。”
- (507) 禾部 稊 種穢也。從禾真聲。《周禮》曰：“稊理而堅。”
- (508) 禾部 稌 稻也。從禾餘聲。《周禮》曰：“牛宜稌。”
- (509) 禾部 穎 禾末也。從禾頃聲。《詩》曰：“禾穎穰穰。”
- (510) 禾部 稊 禾采之兒。從禾遂聲。《詩》曰：“禾穎穰穰。”
- (511) 禾部 秬 一稔二米。從禾丩聲。《詩》曰：“誕降嘉穀，惟秬惟秠。”天賜後稷之嘉穀也。
- (512) 禾部 穰 耕禾閒也。從禾庶聲。《春秋傳》曰：“是穰是衰。”
- (513) 禾部 穰 積禾也。從禾資聲。《詩》曰：“穰之秩秩。”

- (514) 禾部 秩 積也。從禾失聲。《詩》曰：“積之秩秩。”
- (515) 禾部 稈 禾莖也。從禾旱聲。《春秋傳》曰：“或投一秉稈。”
- (516) 禾部 季 穀孰也。從禾千聲。《春秋傳》曰：“大有季。”
- (517) 禾部 稔 穀孰也。從禾念聲。《春秋傳》曰：“鮮不五稔。”
- (518) 禾部 秬 《周禮》曰：“十稷曰秬，四百秉爲一秬。”
- (519) 禾部 稭 復其時也。從禾其聲。《虞書》曰：“稭三百有六旬。”
- (520) 黍部 糶 黏也。從黍日聲。《春秋傳》曰：“不義不糶。”
- (521) 香部 香 芳也。從黍從甘。《春秋傳》曰：“黍稷馨香。”凡香之屬皆從香。
- (522) 米部 粃 惡米也。從米北聲。《周書》有《粃誓》。
- (523) 米部 氣 饋客芻米也。從米氣聲。《春秋傳》曰：“齊人來氣諸侯。”
- (524) 臼部 臼 杼臼也。從爪，臼。《詩》曰：“或簸或臼。”
- (525) 凶部 兇 擾恐也。從人在凶下。《春秋傳》曰：“曹人兇懼。”
- (526) 衤部 縠 泉屬。從衤，夬省。《詩》曰：“衣錦縠衣。”
- (527) 瓜部 瓠 瓠也。從瓜失聲。《詩》曰：“縣縣瓜瓠。”
- (528) 宀部 向 北出牖也。從宀從口。《詩》曰：“塞向墜戶。”
- (529) 宀部 宇 屋邊也。從宀於聲。《易》曰：“上棟下宇。”
- (530) 宀部 豐 大屋也。從宀豐聲。《易》曰：“豐其屋。”
- (531) 宀部 冢 藏也。從宀冢聲。示，古文保。《周書》曰：“陳宗赤刀。”
- (532) 宀部 宀 椽也。從宀，人在屋下，無田事。《周書》曰：“宮中之穴食。”
- (533) 宀部 冢 冥合也。從宀冢聲。讀若《周書》“若藥不昞眩”。
- (534) 宀部 文 貧病也。從宀久聲。《詩》曰：“煢煢在文。”
- (535) 宀部 窳 塞也。從宀歟聲。讀若《虞書》曰“窳三苗”之“窳”。
- (536) 穴部 覆 地室也。從穴復聲。《詩》曰：“陶覆陶穴。”
- (537) 穴部 窳 穿也。從穴窳聲。《論語》有公伯窳。
- (538) 穴部 窳 空也。從穴巫聲。《詩》曰：“瓶之窳矣。”
- (539) 穴部 窳 坎中小坎也。從穴從冢，冢亦聲。《易》曰：“入於坎窞。”一曰窞入也。
- (540) 穴部 窳 穿地也。從穴毳聲。一曰小鼠。《周禮》曰：“大喪，甫窳。”
- (541) 穴部 窳 葬下棺也。從穴乏聲。《周禮》曰：“及窆執斧。”
- (542) 穴部 窳 葬之厚夕。從穴屯聲。《春秋傳》曰：“窳窆從先君於地下。”
- (543) 疒部 瘳 《周禮》：“以日月星辰占六瘳之吉凶”凡瘳之屬皆從瘳。
- (544) 疒部 瘳 病也。從疒鬼聲。《詩》曰：“譬彼瘳木。”一曰腫芻出也。
- (545) 疒部 疒 病也。從疒可聲。《五行傳》曰：“時卽有口疒。”
- (546) 疒部 疒 病也。從疒甫聲。《詩》曰：“我僕疒矣。”
- (547) 疒部 疒 病也。從疒者聲。《詩》曰：“我馬疒矣。”
- (548) 疒部 疒 酸痛，頭痛。從疒肖聲。《周禮》曰：“春時有疒首疾。”
- (549) 疒部 疒 有熱瘡。從疒占聲。《春秋傳》曰：“齊侯疥，遂疒。”
- (550) 疒部 疒 脛氣足腫。從疒童聲。《詩》曰：“既微且瘳。”
- (551) 疒部 疒 馬病也。從疒多聲。《詩》曰：“疹疹駱馬。”
- (552) 冫部 冫 奠爵酒也。從冫託聲。《周書》曰：“王三宿三祭三託。”
- (553) 冫部 冫 再也。從冫，冫。《易》曰：“參天兩地。”凡冫之屬皆從冫。
- (554) 冫部 冫 周行也。從冫米聲。《詩》曰：“梁入其阻。”
- (555) 冫部 冫 魚罟也。從冫瓜聲。《詩》曰：“施罟濊濊。”
- (556) 冫部 冫 覆車也。從冫包聲。《詩》曰：“雉離於罟。”
- (557) 冫部 冫 遣有舉也。從冫，能。言有賢能而入網，而貫遣之。《周禮》曰：“議能之辟。”
- (558) 巾部 巾 幔也。從巾冥聲。《周禮》有“幔人”。
- (559) 巾部 巾 幟也，以絳微帛，著於背。從巾，微省聲。《春秋傳》曰：“揚微者公徒。”
- (560) 巾部 巾 車弊兒。從巾單聲。《詩》曰：“檀車幟幟。”
- (561) 巾部 巾 籍也。《禮》：天子，諸侯席，有黼繡純飾。從巾，庶省。
- (562) 巾部 巾 載米貯也。從巾盾聲。讀若《易》屯卦之屯。
- (563) 巾部 巾 馬纏鑣扇汗也。從巾賁聲。《詩》曰：“朱幟鑣鑣。”
- (564) 巾部 巾 繫布也。從巾辟聲。《周禮》曰：“駟車大幣。”
- (565) 白部 皎 月之白也。從白交聲。《詩》曰：“月出皎兮。”

- (566) 白部 皤 老人白也。從白番聲。《易》曰：“賁如皤如。”
- (567) 霽部 黼 合五采鮮色。從霽虍聲。《詩》曰：“衣裳黼黼。”
- (568) 人部 侏 冠飾兒。從人求聲。《詩》曰：“弁服侏侏。”
- (569) 人部 侂 人名。從人亢聲。《論語》有陳侂。
- (570) 人部 傀 偉也。從人鬼聲。《周禮》曰：“大傀異。”
- (571) 人部 份 文質僭也。從人分聲。《論語》曰：“文質份份。”
- (572) 人部 倝 威儀也。從人必聲。《詩》曰：“威儀倝倝。”
- (573) 人部 倝 具也。從人弄聲。讀若汝南滂水。《虞書》曰：“舜救倝功。”
- (574) 人部 儼 長壯儼儼也。從人巛聲。《春秋傳》曰：“長儼者相之。”
- (575) 人部 儼 行兒。從人廙聲。《詩》曰：“行人儼儼。”
- (576) 人部 儼 行人節也。從人難聲。《詩》曰：“佩玉之儼。”
- (577) 人部 倮 順兒。從人委聲。《詩》曰：“周道倮遲。”
- (578) 人部 俟 大也。從人矣聲。《詩》曰：“亾亾俟俟。”
- (579) 人部 侗 大兒。從人同聲。《詩》曰：“神罔時侗。”
- (580) 人部 佶 正也。從人吉聲。《詩》曰：“既佶且閑。”
- (581) 人部 俛 大也。從人吳聲。《詩》曰：“碩人俛俛。”
- (582) 人部 俛 疾也。從人單聲。《周禮》曰：“句兵欲無俛。”
- (583) 人部 侗 勇壯也。從人氣聲。《周書》曰：“侗侗勇夫。”
- (584) 人部 侗 武兒。從人閒聲。《詩》曰：“瑟兮侗兮。”
- (585) 人部 侗 有力也。從人丕聲。《詩》曰：“以車侗侗。”
- (586) 人部 俛 彊力也。從人思聲。《詩》曰：“其人美且俛。”
- (587) 人部 倮 箸大也。從人阜聲。《詩》曰：“倮倮雲漢。”
- (588) 人部 倮 熾盛也。從人扇聲。《詩》曰：“豔妻倮方處。”
- (589) 人部 倮 戒也。從人敬聲。《春秋傳》曰：“倮宮。”
- (590) 人部 倮 善也。從人叔聲。《詩》曰：“令終有倮。”一曰始也。
- (591) 人部 倮 仿佛也。從人愛聲。《詩》曰：“倮而不見。”
- (592) 人部 倮 精謹也。從人幾聲。《明堂月令》：“數將倮終。”
- (593) 人部 倮 等輩也。從人齊聲。《春秋傳》曰：“吾儕小人。”
- (594) 人部 倮 彊也。從人皆聲。《詩》曰：“倮倮士子。”一曰俱也。
- (595) 人部 倮 惕也。從人式聲。《春秋國語》曰：“於其心倮然。”
- (596) 人部 倮 便利也。從人次聲。《詩》曰：“決拾既倮。”一曰遞也。
- (597) 人部 倮 靜也。從人血聲。《詩》曰：“閼宮有倮。”
- (598) 人部 倮 會也。從人昏聲。《詩》曰：“曷其有倮？”一曰倮倮，力兒。
- (599) 人部 倮 非真也。從人段聲。一曰至也。《虞書》曰：“假於上下。”
- (600) 人部 倮 譬諭也。一曰間見。從人從見。《詩》曰：“倮天之妹。”
- (601) 人部 倮 完也。《逸周書》曰：“朕實不明，以倮伯父。”從人從完。
- (602) 人部 倮 鄉也。從人面聲。《少儀》曰：“尊壺者倮其鼻。”
- (603) 人部 倮 小臣也。從人從官。《詩》曰：“命彼倮人。”
- (604) 人部 倮 善也。從人介聲。《詩》曰：“價人惟倮。”
- (605) 人部 倮 有靡蔽也。從人舟聲。《詩》曰：“誰倮予美？”
- (606) 人部 倮 中也。從人田聲。《春秋傳》曰：“乘中倮。”一轅車。
- (607) 人部 倮 小兒。從人囟聲。《詩》曰：“倮倮彼有屋。”
- (608) 人部 倮 小兒。從人光聲。《春秋國語》曰：“倮飯不及一食。”
- (609) 人部 倮 愉也。從人兆聲。《詩》曰：“視民不倮。”
- (610) 人部 倮 與也。從人支聲。《詩》曰：“籀人伎忒。”
- (611) 人部 倮 行頃也。從人我聲。《詩》曰：“仄弁之俄。”
- (612) 人部 倮 醉舞兒。從人差聲。《詩》曰：“屢舞倮倮。”
- (613) 人部 倮 醉舞兒。從人欺聲。《詩》曰：“屢舞倮倮。”
- (614) 人部 倮 相儔也。從人崔聲。《詩》曰：“室人交徧倮我。”
- (615) 人部 倮 軍所獲也。從人孚聲。《春秋傳》曰：“以為倮職。”
- (616) 人部 倮 別也。從人比聲。《詩》曰：“有女倮離。”
- (617) 人部 倮 聚也。從人尊聲。《詩》曰：“倮倮背倮。”

- (618) 匕部 岐 頃也。從匕支聲。匕，頭頃也。《詩》曰：“岐彼織女。”
- (619) 匕部 卬 望，欲有所庶及也。從匕從卩。《詩》曰：“高山卬止。”
- (620) 匕部 艮 很也。《易》曰：“艮其限。”七日爲艮，七日爲眞也。
- (621) 比部 恚 愼也。從比必聲。《周書》曰：“無恚於卹。”
- (622) 亼部 𡗗 眾詞與也。從亼自聲。《虞書》曰：“𡗗咎繇。”
- (623) 月部 殷 作樂之盛稱殷。從月從殸。《易》曰：“殷薦之上帝。”
- (624) 衣部 襟 衣領也。從衣棘聲。《詩》曰：“要之襟之。”
- (625) 衣部 褌 褌領也。從衣暴聲。《詩》曰：“素衣朱褌。”
- (626) 衣部 褱 蔽袂也。從衣韋聲。《周禮》曰：“王後之服褱衣。”謂畫袍。
- (627) 衣部 袍 褌也。從衣包聲。《論語》曰：“衣弊緼袍。”
- (628) 衣部 襦 袍衣也。從衣繭聲。以絮曰襦，以緼曰袍。《春秋傳》曰：“盛夏重襦。”
- (629) 衣部 襟 帶所結也。從衣會聲。《春秋傳》曰：“衣有襟。”
- (630) 衣部 褰 繇也。《詩》曰：“衣錦褰衣。”示反古。從衣耿聲。
- (631) 衣部 袂 衣袂也。《春秋傳》曰：“披斬其袂。”
- (632) 衣部 袷 裾也。從衣它聲。《論語》曰：“朝服，袷紳。”
- (633) 衣部 褰 袴也。從衣，寒省聲。《春秋傳》曰：“微褰與襦。”
- (634) 衣部 褌 緹也。從衣音聲。《詩》曰：“載衣之褌。”
- (635) 衣部 襜 重衣兒。從衣圍聲。《爾雅》曰：“襜褕襜褕。”
- (636) 衣部 褌 衣厚兒。從衣農聲。《詩》曰：“何彼褌矣。”
- (637) 衣部 褌 衣張也。從衣多聲。《春秋傳》曰：“公會齊侯於褌。”
- (638) 衣部 褌 短衣也。從衣鳥聲。《春秋傳》曰：“有空褌。”
- (639) 衣部 褌 私服。從衣執聲。《詩》曰：“是褌袷也。”
- (640) 衣部 衷 裏褌衣。從衣中聲。《春秋傳》曰：“皆衷其相服。”
- (641) 衣部 袷 好佳也。從衣朱聲。《詩》曰：“靜女其袷。”
- (642) 衣部 袷 無色也。從衣半聲。一曰《詩》曰：“是繼袷也。”讀若普。
- (643) 衣部 裕 衣物饒也。從衣穀聲。《易》曰：“有孚，裕無咎。”
- (644) 衣部 褌 衣死人也。從衣遂聲。《春秋傳》曰：“楚使公親褌。”
- (645) 衣部 褌 鬼衣。從衣，榮省聲。讀若《詩》曰“葛藟綦之”。一曰若“靜女其袷”之袷。
- (646) 毛部 毳 毛盛也。從毛隹聲。《虞書》曰：“鳥獸毳毳。”
- (647) 毛部 毳 以毳爲縹，色如縹。《詩》曰：“毳衣如縹。”
- (648) 舟部 舫 船師也。《明堂月令》曰“舫人”。習水者。從舟方聲。
- (649) 方部 舫 方舟也。從方亢聲。《禮》：天子造舟，諸侯維舟，大夫方舟，士特舟。
- (650) 見部 覲 小見也。從見冥聲。《爾雅》曰：“覲，弗離。”
- (651) 見部 覲 窺也。從見占聲。《春秋傳》曰：“公使覲之，信。”
- (652) 見部 覲 暫見也。從見炎聲。《春秋公羊傳》曰：“覲然公子陽生。”
- (653) 欠部 欬 怒然也。從欠未聲。《孟子》曰：“曾西欬然。”
- (654) 欠部 歎 吟也。從欠肅聲。《詩》曰：“其歎也詎。”
- (655) 欠部 歎 歎也。從欠叀聲。《春秋傳》曰：“歎而忘。”
- (656) 欠部 歎 蹴鼻也。從欠咎聲。讀若《爾雅》曰“蹶短脰”。
- (657) 欠部 吹 詮詞也。從欠從口，口亦聲。《詩》曰：“吹求厥寧。”
- (658) 无部 𦉳 事有不善言𦉳也。《爾雅》：“𦉳，薄也。”從无京聲。
- (659) 頁部 頤 大頭也。從頁分聲。一曰鬢也。《詩》曰：“有頤其首。”
- (660) 頁部 顛 大頭也。從頁禺聲。《詩》曰：“其大有顛。”
- (661) 頁部 頤 舉頭也。從頁支聲。《詩》曰：“有頤者弁。”
- (662) 頁部 頤 低頭也。從頁金聲。《春秋傳》曰：“迎於門，頤之而已。”
- (663) 頁部 顛 白兒。從頁從景。《楚詞》曰：“天白顛顛。”南山四顛，白首人也。
- (664) 頁部 顛 好兒。從頁爭聲。《詩》所謂“顛首”。
- (665) 頁部 顛 頭髮少髮也。從頁肩聲。《周禮》：“數目顛頤。”
- (666) 頁部 頤 頭不正也。從頁從未，未，頭傾也。讀又若《春秋》陳夏齧之齧。
- (667) 頁部 顛 呼也。從頁籥聲。讀與籥同。《商書》曰：“率顛眾戚。”
- (668) 面部 覲 面見也。從面，見，見亦聲。《詩》曰：“有覲面目。”
- (669) 彡部 彡 稠髮也。從彡從人。《詩》曰：“彡髮如雲。”

- (670) 文部 斐 分別文也。從文非聲。《易》曰：“君子豹變，其文斐也。”
- (671) 髟部 鬢 髮長也。從髟監聲。讀若《春秋》“黑肱以濫來奔”。
- (672) 髟部 鬢 髮好也。從髟卷聲。《詩》曰：“其人美且鬢。”
- (673) 髟部 鬢 髮至眉也。從髟攷聲。《詩》曰：“紉彼兩鬢。”
- (674) 髟部 髻 喪結。《禮》：女子髻衰，弔則不髻。
- (675) 卮部 卮 圓器也。《易》曰：“君子節飲食。”凡卮之屬皆從卮。
- (676) 卩部 卽 輔信也。從卩比聲。《虞書》曰：“卽成五服。”
- (677) 色部 艷 色艷如也。從色弗聲。《論語》曰：“色艷如也。”
- (678) 辟部 僻 治也。從辟從井。《周書》曰：“我之不僻。”
- (679) 辟部 僻 治也。從辟父聲。《虞書》曰：“有能僻僻。”
- (680) 鬼部 魃 《周禮》有赤魃氏，除牆屋之物也。《詩》曰：“旱魃為虐。”
- (681) 鬼部 魃 鬼服也。一曰小兒鬼。從鬼支聲。《韓詩傳》曰：“鄭交甫逢二女，魃服。”
- (682) 鬼部 魃 鬼俗也。從鬼幾聲。《淮南傳》曰：“吳人鬼，越人魃。”
- (683) 鬼部 魃 見鬼驚詞。從鬼，難省聲。讀若《詩》“受福不儻。”
- (684) 山部 嶧 海中往往有山可依止，曰嶧。從山鳥聲。讀若《詩》曰“鳶與女蘿。”
- (685) 山部 嶧 山，在齊地。從山狃聲。《詩》曰：“遭我於嶧之間兮。”
- (686) 山部 嶧 嶧嶧山，在東海下邳。從山翠聲。《夏書》曰：“嶧陽孤桐。”
- (687) 山部 岵 山有草木也。從山古聲。《詩》曰：“陟彼岵兮。”
- (688) 山部 岵 山無草木也。從山己聲。《詩》曰：“陟彼岵兮。”
- (689) 山部 岵 石戴土也。從山且聲。《詩》曰：“陟彼岵矣。”
- (690) 山部 嵩 中嶽，嵩高山也。從山從高，亦從松。韋昭《國語》注雲：“古通用崇字。”
- (691) 山部 崑 崑崙，山名。從山昆聲。《漢書》楊雄文通用昆侖。
- (692) 屾部 屾 會稽山。《虞書》曰：“予娶屾山。”
- (693) 廣部 廐 廐也。從廣牙聲。《周禮》曰：“夏廐馬。”
- (694) 廣部 廐 馬舍也。從廣段聲。《周禮》曰：“馬有二百十四匹為廐，廐有僕夫。”
- (695) 廣部 廐 廣也。從廣侈聲。《春秋國語》曰：“俠溝而廐我。”
- (696) 廣部 廐 舍也。從廣友聲。《詩》曰：“召伯所廐。”
- (697) 廣部 廐 久屋朽木。從廣西聲。《周禮》曰：“牛夜鳴則廐。”臭如朽木。
- (698) 廠部 厝 厲石也。從廠咎聲。《詩》曰：“他山之石，可以為厝。”
- (699) 石部 礮 《夏書》曰：“梁州貢礮丹。”《春秋國語》曰：“肅慎氏貢楛矢石礮。”
- (700) 石部 礮 厲石也。從石段聲。《春秋傳》曰：“鄭公孫瑕字子石。”
- (701) 石部 碧 水邊石。從石聲。《春秋傳》曰：“闕碧之甲。”
- (702) 石部 礮 落也。從石貝聲。《春秋傳》曰：“礮石於宋五。”
- (703) 石部 礮 礮岳也。從石，品。《周書》曰：“畏於民礮。”讀與巖同。
- (704) 石部 礮 上摘巖空青，珊瑚墮之。從石折聲。《周禮》有礮族氏。
- (705) 石部 礮 《左氏傳》：“衛大夫石礮。”《唐韻》雲：敬也。從石，未詳。
- (706) 而部 而 頰毛也。象毛之形。《周禮》曰：“作其鱗之而。”凡而之屬皆從而。
- (707) 豕部 豨 牝豕也。從豕巴聲。一曰一歲，能相把拏也。《詩》曰：“一發五豨。”
- (708) 豕部 豨 三歲豕，肩相及者。從豕干聲。《詩》曰：“並驅從兩豨兮。”
- (709) 豕部 豨 豨息也。從豕壹聲。《春秋傳》曰：“生菽及豨。”
- (710) 豕部 豨 逸也。從豕原聲。《周書》曰：“豨有爪而不敢以擻。”讀若桓。
- (711) 豕部 豨 《詩》曰：“獻其豨皮。”《周書》曰：“如虎如豨。”豨，猛獸。
- (712) 豕部 豨 獸，無前足。從豕出聲。《漢律》：“能捕豨，購百錢。”
- (713) 豕部 豨 似狐，善睡獸。從豕舟聲。《論語》曰：“狐豨之厚以居。”
- (714) 易部 易 蜥易，蠃蜓，守宮也。象形。《祕書》說：日月為易，象陰陽也。
- (715) 馬部 駟 青駟馬。從馬昌聲。《詩》曰：“駟彼乘駟。”
- (716) 馬部 駟 馬陰白雜毛。黑。從馬因聲。《詩》曰：“有駟有駟。”
- (717) 馬部 駟 駟馬白膀也。從馬喬聲。《詩》曰：“有駟有駟。”
- (718) 馬部 駟 馬赤黑色。從馬鼓聲。《詩》曰：“四駟孔阜。”
- (719) 馬部 駟 馬白額也。從馬，的省聲。一曰駿也。《易》曰：“為的類。”
- (720) 馬部 駟 馬逸足也。從馬從飛。《司馬法》曰：“飛衛斯輿。”
- (721) 馬部 駟 馬高六尺為駟。從馬喬聲。《詩》曰：“我馬唯駟。”一曰野馬。

- (722) 馬部 駉 馬七尺爲駉，八尺爲龍。從馬來聲。《詩》曰：“駉牝驪牡。”
- (723) 馬部 馵 馬赤鬣縞身，目若黃金，名曰馵。《春秋傳》曰：“馵馬百駉。”
- (724) 馬部 駉 馬飽也。從馬必聲。《詩》云：“有駉有駉。”
- (725) 馬部 駉 馬盛肥也。從馬光聲。《詩》曰：“四牡駉駉。”
- (726) 馬部 駉 馬盛也。從馬旁聲。《詩》曰：“四牡駉駉。”
- (727) 馬部 駉 馬行威儀也。從馬癸聲。《詩》曰：“四牡駉駉。”
- (728) 馬部 駉 馬行疾也。從馬，侵省聲。《詩》曰：“載驟駉駉。”
- (729) 馬部 駉 馬行相及也。從馬從及。讀若《爾雅》“小山駉，大山峒”。
- (730) 馬部 駉 馬行疾來兒。從馬兌聲。《詩》曰：“昆夷駉矣。”
- (731) 馬部 驢 駉驢也。從馬廾聲。《易》曰：“乘馬驢如。”
- (732) 馬部 駉 絆馬也。從馬，口其足。《春秋傳》曰：“韓厥執駉前。”讀若輒。
- (733) 馬部 駉 牧馬苑也。從馬問聲。《詩》曰：“在駉之野。”
- (734) 鹿部 麗 旅行也。鹿之性，見食急則必旅行。從鹿麗聲。《禮》：麗皮納聘。蓋鹿皮也。
- (735) 犬部 犬 狗之有懸臠者也。象形。孔子曰：“視犬之字如畫狗也。”凡犬之屬皆從犬。
- (736) 犬部 龙 犬之多毛者。從犬從彡。《詩》曰：“無使龙也吠。”
- (737) 犬部 獨 《詩》曰：“載獫狁獫。”《爾雅》曰：“短喙犬謂之獨獫。”
- (738) 犬部 葵 犬如人心可使者。從犬敖聲。《春秋傳》曰：“公喉夫葵。”
- (739) 犬部 獫 健也。從犬犴聲。《詩》曰：“盧獫狁。”
- (740) 犬部 狴 犬行也。從犬互聲。《周禮》曰：“尚狴狴。”
- (741) 犬部 狩 犬田也。從犬守聲。《易》曰：“明夷於南狩。”
- (742) 犬部 獒 頓仆也。從犬敝聲。《春秋傳》曰：“與犬，犬獒。”
- (743) 犬部 狴 狂犬也。從犬折聲。《春秋傳》曰：“狴犬入華臣氏之門。”
- (744) 犬部 狴 狴，如獠貓，食虎豹者。從犬夬聲。見《爾雅》。
- (745) 犬部 獼 母猴也。從犬嬰聲。《爾雅》云：“獼父善顧。”攬持人也。
- (746) 犬部 獼 狼屬。從犬曼聲。《爾雅》曰：“獼獼，似狸。”
- (747) 火部 焜 火也。從火尾聲。《詩》曰：“王室如焜。”
- (748) 火部 煨 火也。從火毀聲。《春秋傳》曰：“衛侯煨。”
- (749) 火部 煨 然火也。從火夬聲。《周禮》曰：“遂籥其煨。”煨火在前，以焯焯龜。
- (750) 火部 蒸 燒也。從火萘聲。《春秋傳》曰：“蒸信負羈。”
- (751) 火部 焮 火光也。從火出聲。《商書》曰：“子亦焮謀。”讀若巧拙之拙。
- (752) 火部 焮 烝也。從火孚聲。《詩》曰：“烝之焮焮。”
- (753) 火部 煨 乾兒。從火，漢省聲。《詩》曰：“我孔煨矣。”
- (754) 火部 煨 火兒。從火芻聲。《逸周書》曰：“味辛而不煨。”
- (755) 火部 煨 火熱也。從火高聲。《詩》曰：“多將煨煨。”
- (756) 火部 煨 小熱也。從火幹聲。《詩》曰：“憂心天天。”
- (757) 火部 煨 所以然持火也。從火焦聲。《周禮》曰：“以明火蒸煨也。”
- (758) 火部 煨 炊也。從火單聲。《春秋傳》曰：“煨之以薪。”
- (759) 火部 煨 寮也。從火共聲。《詩》曰：“叩煨於煨。”
- (760) 火部 煨 灼龜不兆也。從火從龜。《春秋傳》曰：“龜煨不兆。”讀若焦。
- (761) 火部 煨 火燂車網絕也。從火兼聲。《周禮》曰：“燂牙，外不煨。”
- (762) 火部 煨 明也。從火亭聲。《春秋傳》曰：“煨燂天地。”
- (763) 火部 煨 明也。從火卓聲。《周書》曰：“煨見三有俊心。”
- (764) 火部 煨 盛赤也。從火韋聲。《詩》曰：“彤管有煨。”
- (765) 火部 煨 盛光也。從火習聲。《詩》曰：“煨煨宵行。”
- (766) 火部 煨 盛也。從火暈聲。《詩》曰：“煨煨震電。”
- (767) 火部 煨 滅也。《詩》曰：“赫赫宗周，褒似煨之。”
- (768) 火部 燿 取火於日官名，舉火曰燿。《周禮》曰：“司燿，掌行火之政令。”從火藿聲。
- (769) 黑部 黝 微青黑色。從黑幼聲。《爾雅》曰：“地謂之黝。”
- (770) 黑部 黔 黎也。周謂之黎民。《易》曰：“爲黔喙。”
- (771) 黑部 黝 握持垢也。從黑賣聲。《易》曰：“再三黝。”
- (772) 焮部 焮 盛兒。從焮在木上。讀若《詩》“莘莘征夫”。一曰役也。
- (773) 炙部 籩 宗廟火孰肉。從炙番聲。《春秋傳》曰：“天子有事籩焉，以饋同姓諸侯。”

- (774) 赤部 經 赤色也。從赤至聲。《詩》曰：“魴魚經尾。”
- (775) 大部 夔 空大也。從大歲聲。讀若《詩》“施罟滅滅”。
- (776) 大部 戴 大也。從大戔聲。讀若《詩》“戴戴大猷”。
- (777) 大部 契 大約也。從大從切。《易》曰：“後代聖人易之以書契。”
- (778) 夭部 喬 高而曲也。從夭，從高省。《詩》曰：“南有喬木。”
- (779) 壺部 壺 壹壹也。從凶從壺。不得泄，凶也。《易》曰：“天地壹壹。”
- (780) 辵部 鞞 進也。從辵從中，允聲。《易》曰：“鞞升大吉。”
- (781) 辵部 臯 《禮》：祝曰臯，登謔曰奏。故臯奏皆從辵。《周禮》曰：“詔來鼓舞舞。”
- (782) 辵部 冪 《虞書》曰：“若丹朱冪。”讀若傲。《論語》：“冪湯舟。”
- (783) 辵部 驟 驚走也。一曰往來也。從辵，亞。《周書》曰：“伯驟。”古文亞，古文囧字。
- (784) 大部 突 大也。從大亦聲。《詩》曰：“突突梁山。”
- (785) 大部 麤 壯大也。一曰迫也。《詩》曰：“不醉而怒謂之麤。”
- (786) 立部 溥 等也。從立專聲。《春秋國語》曰：“溥本肇末。”
- (787) 立部 均 健也。一曰匠也。從立句聲。讀若鬪。《逸周書》有均匠。
- (788) 立部 竣 倨竣也。從立夨聲。《國語》曰：“有司已事而竣。”
- (789) 心部 忻 闔也。從心斤聲。《司馬法》曰：“善者，忻民之善，閉民之惡。”
- (790) 心部 忼 慨也。從心亢聲。一曰《易》“忼龍有悔”。
- (791) 心部 愁 問也。謹敬也。《春秋傳》曰：“昊天不愁。”又曰：“兩君之士皆未愁。”
- (792) 心部 懺 飾也。從心戒聲。《司馬法》曰：“有虞氏懺於中國。”
- (793) 心部 愜 寬嫺心腹兒。從心宣聲。《詩》曰：“赫兮愜兮。”
- (794) 心部 忝 順也。從心孫聲。《唐書》曰：“五品不忝。”
- (795) 心部 慙 實也。從心，塞省聲。《虞書》曰：“剛而慙。”
- (796) 心部 忱 誠也。從心宀聲。《詩》曰：“天命匪忱。”
- (797) 心部 慤 起也。從心畜聲。《詩》曰：“能不我慤。”
- (798) 心部 窵 敬也。從心客聲。《春秋傳》曰：“以陳備三窵。”
- (799) 心部 慄 懼也。從心，雙省聲。《春秋傳》曰：“駟氏慄。”
- (800) 心部 忉 朗也。從心由聲。《詩》曰：“憂心且忉。”
- (801) 心部 忝 彊也。從心文聲。《周書》曰：“在受德忝。”讀若旻。
- (802) 心部 懋 勉也。從心楫聲。《虞書》曰：“時惟懋哉。”
- (803) 心部 慤 安也。從心厭聲。《詩》曰：“慤慤夜飲。”
- (804) 心部 懽 喜貳也。從心灌聲。《爾雅》曰：“懽懽慤慤，憂無告也。”
- (805) 心部 怒 飢餓也。一曰憂也。從心叔聲。《詩》曰：“怒如朝飢。”
- (806) 心部 思 疾利口也。從心從冊。《詩》曰：“相時思民。”
- (807) 心部 忝 忘也。嚙也。從心餘聲。《周書》曰：“有疾不忝。”忝，喜也。
- (808) 心部 愉 薄也。從心俞聲。《論語》曰：“私覿，愉愉如也。”
- (809) 心部 慤 輕易也。從心蔑聲。《商書》曰：“以相陵慤。”
- (810) 心部 慤 不敬也。從心，墻省。《春秋傳》曰：“執玉慤。”
- (811) 心部 忝 忽也。從心介聲。《孟子》曰：“孝子之心不若是忝。”
- (812) 心部 慤 惆也。從心裏聲。《春秋傳》有孔慤。一曰病也。
- (813) 心部 慤 善自用之意也。從心銛聲。《商書》曰：“今汝慤慤。”
- (814) 心部 忼 貪也。從心元聲。《春秋傳》曰：“忼歲而漱日。”
- (815) 心部 忼 亂也。從心奴聲。《詩》曰：“以謹慤忼。”
- (816) 心部 忼 亂也。從心春聲。《春秋傳》曰：“王室日忼忼焉。”一曰厚也。
- (817) 心部 慤 怨也。從心敦聲。《周書》曰：“凡民罔不慤。”
- (818) 心部 忼 恨怒也。從心市聲。《詩》曰：“視我忼忼。”
- (819) 心部 慤 大息也。從心從氣，氣亦聲。《詩》曰：“慤我寤歎。”
- (820) 心部 慤 愁不安也。從心臬聲。《詩》曰：“念子慤慤。”
- (821) 心部 慤 痛聲也。從心依聲。《孝經》曰：“哭不慤。”
- (822) 心部 慤 憂懼也。從心崑聲。《詩》曰：“慤慤其慤。”
- (823) 心部 慤 憂也。從心丙聲。《詩》曰：“憂心慤慤。”
- (824) 心部 慤 憂也。從心炎聲。《詩》曰：“憂心如慤。”
- (825) 心部 慤 憂也。從心爰聲。《詩》曰：“憂心慤慤。”一曰意不定也。

- (826) 心部 悴 憂也。從心卒聲。讀與《易》萃卦同。
- (827) 心部 忡 憂也。從心中聲。《詩》曰：“憂心忡忡。”
- (828) 心部 悄 憂也。從心肖聲。《詩》曰：“憂心悄悄。”
- (829) 心部 忒 毒也。從心其聲。《周書》曰：“來就忒忒。”
- (830) 心部 漣 泣下也。從心連聲。《易》曰：“泣涕漣如。”
- (831) 心部 憬 覺寤也。從心景聲。《詩》曰：“憬彼淮夷。”
- (832) 心部 忒 心疑也。從三心。凡忒之屬皆從忒。讀若《易》“旅瑣瑣”。
- (833) 水部 汎 西極之水也。從水八聲。《爾雅》曰：“西至汎國，謂四極。”
- (834) 水部 渭 水。《夏書》以爲出鳥鼠山。隴州浸也。
- (835) 水部 滄 水。在漢南。從水差聲。荊州浸也。《春秋傳》曰：“脩塗梁滄。”
- (836) 水部 澮 水。出鄭國。從水曾聲。《詩》曰：“澮與洧，方渙渙兮。”
- (837) 水部 灤 齊魯閒水也。從水樂聲。《春秋傳》曰：“公會齊侯於灤。”
- (838) 水部 荷 荷澤水。在山陽胡陵。《禹貢》：“浮於淮泗，達於荷。”從水苛聲。
- (839) 水部 灑 水。出琅邪箕屋山，東入海。徐州浸。《夏書》曰：“灑，淄其道。”從水維聲。
- (840) 水部 渚 水。在常山中丘逢山，東入渦。從水者聲。《爾雅》曰：“小洲曰渚。”
- (841) 水部 涸 水也。從水臣聲。《詩》曰：“江有涸。”
- (842) 水部 涓 小流也。從水肅聲。《爾雅》曰：“汝爲涓。”
- (843) 水部 潛 水流潛也。從水皆聲。一曰潛潛，寒也。《詩》曰：“風雨潛潛。”
- (844) 水部 澆 水流兒。從水，彪省聲。《詩》曰：“澆沔北流。”
- (845) 水部 瀏 流清兒。從水劉聲。《詩》曰：“瀏其清矣。”
- (846) 水部 濊 礙流也。從水叢聲。《詩》云：“施罟濊濊。”
- (847) 水部 浩 澆也。從水告聲。《虞書》曰：“洪水浩浩。”
- (848) 水部 洸 水湧光也。從水從光，光亦聲。《詩》曰：“有洸有潰。”
- (849) 水部 淪 小波爲淪。從水侖聲。《詩》曰：“河水清且淪淪。”一曰沒也。
- (850) 水部 濫 汜也。從水監聲。一曰濡上及下也。《詩》曰：“鬻沸濫泉。”一曰清也。
- (851) 水部 冽 水清也。從水列聲。《易》曰：“井冽，寒泉，食。”
- (852) 水部 湜 水清底見也。從水是聲。《詩》曰：“湜湜其止。”
- (853) 水部 濯 深也。從水崔聲。《詩》曰：“有濯者淵。”
- (854) 水部 灑 漬也。從水籤聲。《爾雅》曰：“泉一見一否爲灑。”
- (855) 水部 沚 水不利也。從水彡聲。《五行傳》曰：“若其沚作。”
- (856) 水部 漬 水厓也。從水賁聲。《詩》曰：“敦彼淮漬。”
- (857) 水部 涘 水厓也。從水矣聲。《周書》曰：“王出涘。”
- (858) 水部 汎 水厓枯土也。從水九聲。《爾雅》曰：“水醜曰汎。”
- (859) 水部 澗 水厓也。從水脣聲。《詩》曰：“寘河之澗。”
- (860) 水部 汙 小渚曰汙。從水止聲。《詩》曰：“於沼於汙。”
- (861) 水部 濑 小水入大水曰濑。從水從眾。《詩》曰：“鳧鷖在濑。”
- (862) 水部 汜 水別復入水也。一曰汜，窮瀆也。從水巳聲。《詩》曰：“江有汜。”
- (863) 水部 洫 十裏爲成。《論語》曰：“盡力於溝洫。”
- (864) 水部 灇 水濡而乾也。從水鷄聲。《詩》曰：“灇其乾矣。”
- (865) 水部 汕 魚遊水兒。從水山聲。《詩》曰：“蒸然汕汕。”
- (866) 水部 灑 所以灑水也。從水昔聲。《漢律》曰：“及其門首灑灑。”
- (867) 水部 滌 埤增水邊土。人所止者。從水筮聲。《夏書》曰：“過三滌。”
- (868) 水部 沿 緣水而下也。從水彡聲。《春秋傳》曰：“王沿夏。”
- (869) 水部 硤 履石渡水也。從水從石。《詩》曰：“深則硤。”
- (870) 水部 淒 雲雨起也。從水妻聲。《詩》曰：“有淒淒淒。”
- (871) 水部 瀑 疾雨也。一曰沫也。一曰瀑，資也。從水暴聲。《詩》曰：“終風且瀑。”
- (872) 水部 涵 水澤多也。從水函聲。《詩》曰：“僭始既涵。”
- (873) 水部 漫 澤多也。從水憂聲。《詩》曰：“既漫既渥。”
- (874) 水部 濃 露多也。從水農聲。《詩》曰：“零露濃濃。”
- (875) 水部 泐 水石之理也。從水從防。《周禮》曰：“石有時而泐。”
- (876) 水部 汜 水潤也。或曰泣下。從水氣聲。《詩》曰：“汽可小康。”
- (877) 水部 洸 汙也。從水免聲。《詩》曰：“河水洸洸。”《孟子》曰：“汝安能洸我？”

- (878) 水部 湫 隘。下也。《春秋傳》曰：“晏子之宅秋隘。”安定朝那有湫泉。從水秋聲。
- (879) 水部 瀆 水浸也。從水冀聲。《爾雅》曰：“瀆，大出尾下。”
- (880) 水部 澆 財澆水也。從水兌聲。《周禮》曰：“以澆漚其絲。”
- (881) 水部 澆 浚乾漬米也。從水竟聲。《孟子》曰：“夫子去齊，澆淅而行。”
- (882) 水部 灑 醜酒也。一曰浚也。從網從水，焦聲。讀若《夏書》“天用勦絕”。
- (883) 水部 涇 醜酒也。《詩》曰：“有酒涇我。”又曰：“零露涇兮。”
- (884) 水部 漚 沈於酒也。從水面聲。《周書》曰：“罔敢漚於酒。”
- (885) 水部 涘 食已而復吐之。從水君聲。《爾雅》曰：“太歲在申曰涘灘。”
- (886) 水部 瀦 汁也。從水審聲。《春秋傳》曰：“猶拾瀦。”
- (887) 水部 漚 涕流兒。從水，散省聲。《詩》曰：“漚焉出涕。”
- (888) 水部 洧 水小流也。《周禮》：“；一耦之伐，廣尺，深尺，謂之洧。”
- (889) 川部 川 貫穿通流水也。《虞書》曰：“濬洧，距川。”
- (890) 川部 完 水廣也。從川亡聲。《易》曰：“包完用馮河。”
- (891) 川部 𣶒 害也。從一𣶒川。《春秋傳》曰：“川𣶒為澤，凶。”
- (892) 川部 侃 剛直也。《論語》曰：“子路侃侃如也。”
- (893) 川部 州 州。《詩》曰：“在河之州。”一曰州，疇也。各疇其土而生之。
- (894) 永部 永 長也。象水至理之長。《詩》曰：“江之永矣。”凡永之屬皆從永。
- (895) 永部 羨 水長也。從永羊聲。《詩》曰：“江之羨矣。”
- (896) 穀部 容 深通川也。從穀從宀。宀，殘地；阝，坎意也。《虞書》曰：“容畎澮距川。”
- (897) 宀部 滕 宀出也。從宀朕聲。《詩》曰：“納於滕陰。”
- (898) 雨部 震 劈歷，振物者。從雨辰聲。《春秋傳》曰：“震夷伯之廟。”
- (899) 雨部 霽 雨零也。從雨，𠄎象零形。《詩》曰：“霽雨其濛。”
- (900) 雨部 霖 小雨也。從雨眾聲。《明堂月令》曰：“霖雨。”
- (901) 雨部 霾 風雨土也。從雨狸聲。《詩》曰：“終風且霾。”
- (902) 雨部 霰 寒也。從雨執聲。或曰：早霜。讀若《春秋傳》“墊陌”。
- (903) 雨部 霈 頤也。遇雨不進，止頤也。從雨而聲。《易》曰：“雲上於天，需。”
- (904) 魚部 鮪 鮪也。《周禮》：“春獻王鮪。”從魚有聲。
- (905) 魚部 鮪 鮪也。《周禮》謂之鮪。從魚恆聲。
- (906) 魚部 鱣 海大魚也。從魚量聲。《春秋傳》曰：“取其鱣鮪。”
- (907) 魚部 鱣 鮪臭也。從魚臬聲。《周禮》曰：“膳膏鱣。”
- (908) 乞部 乳 《明堂月令》：“玄鳥至之日，祠於高禘，以請子。”
- (909) 至部 塗 《周書》曰：“有夏氏之民叨塗。”塗，讀若摯。
- (910) 門部 閭 裏門也。從門呂聲。《周禮》：“五家為比，五比為閭。”
- (911) 門部 闔 城內重門也。從門聖聲。《詩》曰：“出其闔闔。”
- (912) 門部 闕 門楹也。從門或聲。《論語》曰：“行不履闕。”
- (913) 門部 闕 關門也。從門為聲。《國語》曰：“闕門而與之言。”
- (914) 門部 闔 開也。從門單聲。《易》曰：“闔幽。”
- (915) 門部 闕 閉門也。從門必聲。《春秋傳》曰：“闕門而與之言。”
- (916) 耳部 聃 耳垂也。從耳下垂。象形。《春秋傳》曰“秦公子輒”者，其耳下垂，故以為名。
- (917) 耳部 聃 耳大垂也。從耳尢聲。《詩》曰：“土之聃兮。”
- (918) 耳部 聃 軍法以矢貫耳也。從耳從矢。《司馬法》曰：“小罪聃，中罪刑，大罪剄。”
- (919) 耳部 聃 軍戰斷耳也。《春秋傳》曰：“以為俘聃。”從耳或聲。
- (920) 耳部 靡 乘輿金馬耳也。從耳麻聲。讀若湖水。一曰若《月令》靡草之靡。
- (921) 手部 攢 好手兒。《詩》曰：“攢攢女手。”從手籤聲。
- (922) 手部 掣 人臂兒。從手削聲。《周禮》曰：“輻欲其掣。”
- (923) 手部 搯 搯也。從手冫聲。《周書》曰：“師乃搯。”搯者，拔兵刃以習擊刺。
- (924) 手部 掣 推也。從手夂聲。《春秋傳》曰：“掣衛侯之手。”
- (925) 手部 捫 撫持也。從手門聲。《詩》曰：“莫捫朕舌。”
- (926) 手部 控 引也。從手空聲。《詩》曰：“控於大邦。”匈奴名引弓控弦。
- (927) 手部 擗 撮取也。從手帶聲。讀若《詩》曰“麟竦在東”。
- (928) 手部 擗 習也。從手貫聲。《春秋傳》曰：“擗瀆鬼神。”
- (929) 手部 挑 撓也。從手兆聲。一曰擗也。《國語》曰：“卻至挑天。”

- (930) 手部 擊 束也。從手秋聲。《詩》曰：“百祿是擊。”
- (931) 手部 扞 有所失也。《春秋傳》曰：“扞子，辱矣。”從手雲聲。
- (932) 手部 拏 積也。《詩》曰：“助我舉拏。”搯頰旁也。從手此聲。
- (933) 手部 掉 搖也。從手卓聲。《春秋傳》曰：“尾大不掉。”
- (934) 手部 擊 固也。從手収聲。讀若《詩》“赤烏擊擊”。
- (935) 手部 掀 舉出也。從手欣聲。《春秋傳》曰：“掀公出於淖。”
- (936) 手部 拊 上舉也。從手升聲。《易》曰：“拊馬，壯，吉。”
- (937) 手部 搗 染也。從手需聲。《周禮》：“六曰搗祭。”
- (938) 手部 擐 貫也。從手巽聲。《春秋傳》曰：“擐甲執兵。”
- (939) 手部 擗 拔取也。南楚語。從手寒聲。《楚詞》曰：“朝擗批之木蘭。”
- (940) 手部 攪 亂也。從手覺聲。《詩》曰：“祇攪我心。”
- (941) 手部 扞 扞搗也。從手可聲。《周書》曰：“盡執，扞。”
- (942) 手部 扞 《易》筮，再扞而後卦。從手力聲。
- (943) 手部 掬 盛土於裡中也。一曰掬也。《詩》曰：“掬之陔陔。”從手求聲。
- (944) 手部 拈 手口共有所作也。從手吉聲。《詩》曰：“予手拈據。”
- (945) 手部 概 滌也。從手既聲。《詩》曰：“概之釜鬻。”
- (946) 手部 掙 穫禾聲也。從手至聲。《詩》曰：“穫之掙掙。”
- (947) 手部 捲 氣勢也。從手卷聲。《國語》曰：“有捲勇。”一曰捲，收也。
- (948) 手部 籍 刺也。從手，籍省聲。《周禮》曰：“籍魚鼈。”
- (949) 手部 拳 兩手同械也。從手從共，共亦聲。《周禮》：“上臯，梏拳而桎。”
- (950) 手部 擗 夜戒守，有所擊。從手取聲。《春秋傳》曰：“賓將擗。”
- (951) 手部 搯 所以覆矢也。從手朋聲。《詩》曰：“抑釋搯忌。”
- (952) 手部 捷 獵也。軍獲得也。從手走聲。《春秋傳》曰：“齊人來獻戎捷。”
- (953) 手部 投 眾意也。一曰求也。從手交聲。《詩》曰：“束矢其投。”
- (954) 手部 拋 棄也。《左氏傳》通用標。《詩》：“標有梅。”標，落也。義亦同。
- (955) 女部 姓 人所生也。《春秋傳》曰：“天子因生以賜姓。”
- (956) 女部 姚 虞舜居姚虛，因以為姓。從女兆聲。或為姚，姚也。《史篇》以為：姚，易也。
- (957) 女部 姪 殷諸侯為亂，疑姓也。從女先聲。《春秋傳》曰：“商有姪邳。”
- (958) 女部 玫 人姓也。從女醜聲。《商書》曰：“無有作玫。”
- (959) 女部 婚 婦家也。《禮》：娶婦以昏時，婦人陰也，故曰婚。從女從昏，昏亦聲。
- (960) 女部 娠 女妊身動也。從女辰聲。《春秋傳》曰：“後緡方娠。”一曰宮婢女隸謂之娠。
- (961) 女部 媼 婦人妊身也。從女芻聲。《周書》曰：“至於媼婦。”
- (962) 女部 媼 楚人謂女弟曰媼。從女胃聲。《公羊傳》曰：“楚王之妻媼。”
- (963) 女部 媼 重媼也。從女善聲。《易》曰：“匪寇，媼媼。”
- (964) 女部 奴 《周禮》曰：“其奴，男子入於臯隸，女子入於春槁。”從女從又。
- (965) 女部 嬪 《星經》曰：“太白上公，妻曰女嬪。女嬪居南門，食厲，天下祭之。曰明星。”
- (966) 女部 娥 帝高辛之妃，偃母號也。從女戎聲。《詩》曰：“有娥方將。”
- (967) 女部 類 女字也。《楚詞》曰：“女類之嬋媛。”賈侍中說：楚人謂姊為類。從女須聲。
- (968) 女部 始 女字也。從女合聲。《春秋傳》曰：“嬖人嫫始。”一曰無聲。
- (969) 女部 媼 好也。從女夂聲。《詩》曰：“靜女其媼。”
- (970) 女部 媼 順也。從女鬲聲。《詩》曰：“媼兮媼兮。”
- (971) 女部 媼 順也。從女宛聲。《春秋傳》曰：“太子痤媼。”
- (972) 女部 媼 材緊也。從女巽聲。《春秋傳》曰：“媼媼在疚。”
- (973) 女部 媼 竦身也。從女簋聲。讀若《詩》“糾糾葛屨”。
- (974) 女部 媼 至也。從女執聲。《周書》曰：“大命不媼。”讀若摯同。一曰《虞書》雉媼。
- (975) 女部 媼 安也。從女，日。《詩》曰：“以媼父母。”
- (976) 女部 媼 舞也。從女沙聲。《詩》曰：“市也媼媼。”
- (977) 女部 媼 婦人小物也。從女此聲。《詩》曰：“屢舞媼媼。”
- (978) 女部 媼 美女也。人所援也。從女從爰，爰，引也。《詩》曰：“邦之媼兮。”
- (979) 女部 媼 巧也。一曰女子笑兒。《詩》曰：“桃之媼媼。”從女笑聲。
- (980) 女部 媼 不順也。從女若聲。《春秋傳》曰：“叔孫媼。”
- (981) 女部 媼 很也。從女幸聲。《楚詞》曰：“蘇媼直。”

- (982) 女部 媼 含怒也。一曰難知也。從女畚聲。《詩》曰：“碩大且媼。”
- (983) 女部 媼 女黑色也。從女會聲。《詩》曰：“媼兮蔚兮。”
- (984) 女部 媼 過差也。從女監聲。《論語》曰：“小人窮斯媼矣。”
- (985) 戈部 戣 兵也。從戈癸聲。《周禮》：侍臣執戣，立於東垂。
- (986) 戈部 戟 有枝兵也。從戈，軛。《周禮》：“戟，長丈六尺。”讀若棘。
- (987) 戈部 戣 殺也。從戈今聲。《商書》曰：“西伯既戣黎。”
- (988) 戈部 戣 滅也。從戈晉聲。《詩》曰：“實始戣商。”
- (989) 戈部 戣 絕也。一曰田器。從從持戈。古文讀若鹹。讀若《詩》云：“攢攢女手。”
- (990) 戈部 戣 藏兵也。從戈耳聲。《詩》曰：“載戣幹戈。”
- (991) 戈部 戣 賊也。從二戈。《周書》曰：“戣戣巧言。”
- (992) 戍部 戍 《司馬法》曰：“夏執玄戍，殷執白戍，周左杖黃戍，右秉白髦。”
- (993) 匚部 醫 盛弓弩矢器也。從匚從矢。《國語》曰：“兵不解醫。”
- (994) 匚部 匪 器，似竹筐。從匚非聲。《逸周書》曰：“實玄黃於匪。”
- (995) 匚部 匪 宗廟盛主器也。《周禮》曰：“祭祀共匪主。”從匚單聲。
- (996) 瓦部 甃 甃甃也。從瓦辟聲。《詩》曰：“中唐有甃。”
- (997) 弓部 弓 《周禮》六弓：王弓，弧弓以射甲革甚質；夾弓，庾弓以射幹侯鳥獸；唐弓，大弓以授學射者。凡弓之屬皆從弓。
- (998) 弓部 弓 弓反也。從弓召聲。《詩》曰：“彤弓召兮。”
- (999) 弓部 弩 弓有臂者。《周禮》四弩：夾弩，庾弩，唐弩，大弩。從弓奴聲。
- (1000) 弓部 彈 軛也。從弓畢聲。《楚詞》曰：“焉焉彈日。”
- (1001) 弓部 弭 帝嚳軛官，夏少康滅之。從弓弭聲。《論語》曰：“弭善軛。”
- (1002) 糸部 純 絲也。從糸屯聲。《論語》曰：“今也純，儉。”
- (1003) 糸部 紕 絲下也。從糸氣聲。《春秋傳》有臧孫紕。
- (1004) 糸部 緇 旄絲也。從糸苗聲。《周書》曰：“惟緇有稽。”
- (1005) 糸部 紊 亂也。從糸文聲。《商書》曰：“有條而不紊。”
- (1006) 糸部 縶 束也。從糸崩聲。《墨子》曰：“禹葬會稽，桐棺三寸，葛以縶之。”
- (1007) 糸部 絳 急也。從糸求聲。《詩》曰：“不競不絳。”
- (1008) 糸部 絳 《詩》云：“素以爲絳兮。”從糸句聲。
- (1009) 糸部 繪 《虞書》曰：“山龍華蟲作繪。”《論語》曰：“繪事後素。”從糸會聲。
- (1010) 糸部 縷 白文兒。《詩》曰：“縷兮斐兮，成是貝錦。”從糸婁聲。
- (1011) 糸部 絳 純赤也。《虞書》“丹朱”如此。從糸朱聲。
- (1012) 糸部 縵 帛赤色也。《春秋傳》“縵雲氏”，《禮》有“縵緣”。從糸晉聲。
- (1013) 糸部 縵 帛蒼艾色。從糸界聲。《詩》：“縵衣縵巾。”未嫁女所服。一曰不借縵。
- (1014) 糸部 縵 帛雕色也。從糸刺聲。《詩》曰：“纛衣如縵。”
- (1015) 糸部 紕 白鮮衣兒。從糸不聲。《詩》曰：“素衣其紕。”
- (1016) 糸部 縵 縵采色。從糸需聲。讀若《易》“縵有衣。”
- (1017) 糸部 縵 持網紐也。從糸員聲。《周禮》曰：“縵寸。”
- (1018) 糸部 縵 絳綫也。從糸，侵省聲。《詩》曰：“貝冑朱縵。”
- (1019) 糸部 紕 《論語》曰：“紕衣長，短右袂。”從糸舌聲。
- (1020) 糸部 縵 以繩有所縣也。《春秋傳》曰：“夜縵納師。”從糸追聲。
- (1021) 糸部 縵 馬髦飾也。從糸苴聲。《春秋傳》曰：“可以稱旌縵乎？”
- (1022) 糸部 縵 系也。從糸卅聲。《春秋傳》曰：“臣負羈縵。”
- (1023) 糸部 縵 架也。從糸廣聲。《春秋傳》曰：“皆如挾縵。”
- (1024) 糸部 縵 絮溫也。一曰敝絮。從糸奴聲。《易》曰：“需有衣絮。”
- (1025) 糸部 縵 絳之細也。《詩》曰：“蒙彼縵絳。”一曰蹴也。從糸芻聲。
- (1026) 糸部 縵 氏人縵也。讀若《禹貢》玼珠。從糸比聲。
- (1027) 糸部 縵 經也。從糸益聲。《春秋傳》曰：“夷薑縵。”
- (1028) 糸部 縵 《周禮》：“六彝：雞彝，鳥彝，黃彝，虎彝，蟲彝，斝彝。以待裸將之禮。”
- (1029) 絲部 轡 馬轡也。從絲從專。與連同意。《詩》曰：“六轡如絲。”
- (1030) 蟲部 虺 虺以注鳴。《詩》曰：“胡爲縱虺。”從蟲兀聲。
- (1031) 蟲部 蠚 蟲，食苗葉者。吏乞貸則生蠚。從蟲從貸，貸亦聲。《詩》曰：“去其蠚蠚。”
- (1032) 蟲部 蜀 葵中蠚也。從蟲，上日象蜀頭形，中象其身蛸蛸。《詩》曰：“蛸蛸者蜀。”

- (1033) 蟲部 蠲 馬蠲也。從蟲，目，益聲。紐，象形。《明堂月令》曰：“腐艸爲蠲。”
- (1034) 蟲部 蚘 蚘子也。從蟲，氏聲。《周禮》有蚘醢。讀若祁。
- (1035) 蟲部 蠕 蠕也。從蟲，周聲。《詩》曰：“螟蠕有子，蠕蠃負之。”從蟲，周聲。
- (1036) 蟲部 蝟 蝟也。從蟲，周聲。《詩》曰：“五月鳴蝟。”
- (1037) 蟲部 蠟 蠟胆也。《周禮》：“蠟氏掌除𧈧。”從蟲，昔聲。
- (1038) 蟲部 蝮 蝮蝮，山川之精物也。《國語》曰：“木石之怪夔蝮蝮。”
- (1039) 蟲部 虹 虹蜺也。狀似蟲。從蟲，工聲。《明堂月令》曰：“虹始見。”
- (1040) 蟲部 蠱 腹中蟲也。《春秋傳》曰：“皿蟲爲蠱。”
- (1041) 黽部 鼃 鼃，詹諸也。《詩》曰：“得此鼃鼃。”言其行鼃鼃。從黽，爾聲。
- (1042) 土部 坤 地也。《易》之卦也。從土，從申。土位在申。
- (1043) 土部 垓 兼垓八極地也。《國語》曰：“天子居九垓之田。”從土，亥聲。
- (1044) 土部 塙 塙夷，在冀州陽穀。立春日，日值之而出。《尚書》曰：“宅塙夷。”
- (1045) 土部 塙 朝歌南七十裏地。《周書》：“武王與紂戰於塙野。”從土，母聲。
- (1046) 土部 坻 治也。一曰番土謂之坻。《詩》曰：“武王載坻。”一曰塵兒。從土，友聲。
- (1047) 土部 坻 牆高也。《詩》曰：“崇墉坻坻。”從土，乞聲。
- (1048) 土部 堀 突也。《詩》曰：“蜉蝣堀堀。”從土，屈省聲。
- (1049) 土部 墀 塗地也。從土，犀聲。《禮》：“天子赤墀。”
- (1050) 土部 墊 下也。《春秋傳》曰：“墊隘。”從土，執聲。
- (1051) 土部 坻 小渚也。《詩》曰：“宛在水中坻。”從土，氏聲。
- (1052) 土部 坻 毀垣也。從土，危聲。《詩》曰：“乘彼坻垣。”
- (1053) 土部 坻 毀也。《虞書》曰：“方命圯族。”從土，己聲。
- (1054) 土部 塹 塞也。《尚書》曰：“緜塹洪水。”從土，西聲。
- (1055) 土部 坼 裂也。《詩》曰：“不坼不離。”從土，坼聲。
- (1056) 土部 壇 天陰塵也。《詩》曰：“壇壇其陰。”從土，壹聲。
- (1057) 土部 坻 坻封也。《詩》曰：“鶴鳴於坻。”從土，至聲。
- (1058) 土部 坻 《春秋傳》曰：“朝而坻。”《禮》謂之封，《周官》謂之窆。
- (1059) 土部 坻 畔也。爲四時界，祭其中。《周禮》曰：“坻五帝於四郊。”從土，兆聲。
- (1060) 田部 畷 燒種也。《漢律》曰：“畷田菽艸。”從田，畷聲。
- (1061) 田部 畷 三歲治田也。《易》曰：“不菑，畷田。”從田，餘聲。
- (1062) 田部 畷 殘田也。《詩》曰：“天方薦畷。”從田，差聲。
- (1063) 田部 畷 田畜也。《淮南子》曰：“玄田爲畷。”
- (1064) 田部 畷 禽獸所踐處也。《詩》曰：“町疃鹿場。”從田，童聲。
- (1065) 力部 勦 慎也。從力，吉聲。《周書》曰：“汝勦慙殷獻臣。”
- (1066) 力部 勦 勉力也。《周書》曰：“用勦相我邦家。”讀若萬。從力，萬聲。
- (1067) 力部 勦 彊也。《春秋傳》曰：“勦敵之人。”從力，京聲。
- (1068) 力部 勦 勉也。從力，召聲。讀若舜樂《韶》。
- (1069) 力部 勦 勉也。《周書》曰：“勦哉，夫子！”從力，冒聲。
- (1070) 力部 勦 勞也。《詩》曰：“莫知我勦。”從力，貫聲。
- (1071) 力部 勦 勞也。《春秋傳》曰：“安用勦民？”從力，巢聲。
- (1072) 勦部 勦 同力也。從三力。《山海經》曰：“惟號之山，其風若勦。”凡勦之屬皆從勦。
- (1073) 金部 鏹 剛鐵，可以刻鏹。從金，婁聲。《夏書》曰：“梁州貢鏹。”一曰鏹，釜也。
- (1074) 金部 鏹 曲鏹也。從金，多聲。一曰鬻鼎，讀若撻。一曰《詩》云“侈兮侈兮”。
- (1075) 金部 鉉 舉鼎也。《易》謂之鉉，《禮》謂之甬。從金，玄聲。
- (1076) 金部 錢 鈔也。古田器。從金，戔聲。《詩》曰：“庠乃錢鏹。”
- (1077) 金部 鈔 《周禮》曰：“重三鈔。”北方以二十兩爲鈔。
- (1078) 金部 鏹 鈔也。從金，爰聲。《罰書》曰：“列百鏹。”
- (1079) 金部 鈔 兵車也。一曰鐵也。《司馬法》：“晨夜內鈔車。”從金，巴聲。
- (1080) 金部 鏹 鏹鱗也。鐘上橫木上金華也。一曰田器。從金，專聲。《詩》曰：“庠乃錢鏹。”
- (1081) 金部 鏹 鐘聲也。從金，皇聲。《詩》曰：“鐘鼓鏹鏹。”
- (1082) 金部 鏹 鐘鼓之聲。從金，堂聲。《詩》曰：“擊鼓其鏹。”
- (1083) 金部 鏹 金聲也。從金，輕聲。讀若《春秋傳》曰“鑿而乘它車”。
- (1084) 金部 鈔 侍臣所執兵也。從金，允聲。《周書》曰：“一人冕，執鈔。”讀若允。

- (1085) 金部 鐔 矛戟柲下銅，鐔也。從金亭聲。《詩》曰：“吾矛沃鐔。”
- (1086) 金部 鉞 車鑿聲也。從金戍聲。《詩》曰：“鑿聲鉞鉞。”
- (1087) 金部 錫 馬頭飾也。從金陽聲。《詩》曰：“鉤膺鏤錫。”一曰鏢，車輪鐵。
- (1088) 金部 鉞 大瑣也。一環貫二者。從金每聲。《詩》曰：“盧重鉞。”
- (1089) 金部 鏃 怒戰也。從金氣聲。《春秋傳》曰：“諸侯敵王所鏃。”
- (1090) 幾部 幾 《周禮》五幾：玉幾，雕幾，彤幾，髹幾，素幾。凡幾之屬皆從幾。
- (1091) 幾部 憑 依幾也。從幾從任。《周書》：“憑玉幾。”讀若馮。
- (1092) 幾部 尻 處也。從屍得幾而止。《孝經》曰：“仲尼尻。”尻，謂閒居如此。
- (1093) 斤部 斨 方盞斧也。從斤另聲。《詩》曰：“又缺我斨。”
- (1094) 斤部 所 伐木聲也。從斤戶聲。《詩》曰：“伐木所所。”
- (1095) 斤部 斨 斨也。從斤其聲。《詩》曰：“斧以斨之。”
- (1096) 鬥部 斛 量也。從鬥史聲。《周禮》曰：“黍三斛。”
- (1097) 鬥部 斛 斛芻有斛。從鬥厶聲。《爾雅》曰：“斛謂之龔。”古田器也。
- (1098) 車部 輶 輕車也。從車魯聲。《詩》曰：“輶車鑿鑿。”
- (1099) 車部 輶 兵高車加巢以望敵也。從車巢聲。《春秋傳》曰：“楚子登輶車。”
- (1100) 車部 軛 車軛前也。從車凡聲。《周禮》曰：“立當前軛。”
- (1101) 車部 轡 車橫軛也。從車對聲。《周禮》曰：“參分軛圍，去一以爲轡圍。”
- (1102) 車部 軛 車約軛也。從車川聲。《周禮》曰：“孤乘夏軛。”一曰下棺車曰軛。
- (1103) 車部 輶 車伏免也。從車業聲。《周禮》曰：“加軛與輶焉。”
- (1104) 車部 輶 車軸縛也。從車復聲。《易》曰：“輿脫輶。”
- (1105) 車部 輶 輶齊等兒。從車昆聲。《周禮》曰：“望其輶，欲其輶。”
- (1106) 車部 軛 長輶之軛也，以朱約之。從車氏聲。《詩》曰：“約軛錯衡。”
- (1107) 車部 軛 驂馬內轡繫軛前者。從車內聲。《詩》曰：“泂以輶軛。”
- (1108) 車部 輶 輶車後登也。從車丞聲。讀若《易》“拊馬”之拊。
- (1109) 車部 輶 出，將有事於道，必先告其神。《詩》曰：“取軛以輶。”從車友聲。
- (1110) 車部 輶 車輶鈿也。從車貞聲。讀若《論語》“鏗爾，舍瑟而作”。
- (1111) 車部 輶 車轄相擊也。從車從般，般亦聲。《周禮》曰：“舟輿擊互者。”又讀若擊。
- (1112) 車部 輶 車裂人也。從車震聲。《春秋傳》曰：“輶諸栗門。”
- (1113) 阜部 隕 從高下也。從自員聲。《易》曰：“有隕自天。”
- (1114) 阜部 隕 危也。班固說：不安也。《周書》曰：“邦之既隕。”讀若虹蜺之蜺。
- (1115) 阜部 附 附婁，小土山也。從自付聲。《春秋傳》曰：“附婁無松栢。”
- (1116) 阜部 隕 鄭地，阪。從自爲聲。《春秋傳》曰：“將會鄭伯於隕。”
- (1117) 阜部 陶 再成丘也，在濟陰。從自旬聲。《夏書》曰：“東至於陶丘。”
- (1118) 阜部 陜 築牆聲也。從自爽聲。《詩》云：“揅之陜陜。”
- (1119) 阜部 隕 城池也。有水曰池，無水曰隕。從自皇聲。《易》曰：“城復於隕。”
- (1120) 六部 六 《易》之數，陰變於六，正於八。從入從八。凡六之屬皆從六。
- (1121) 内部 內 獸足蹂地也。象形，九聲。《爾雅》曰：“狐狸獾貉醜，其足躡，其跡去。”
- (1122) 内部 鬻 周成王時，州靡國獻鬻。《爾雅》云：“鬻鬻，如人，被髮。”
- (1123) 己部 𠄎 謹身有所承也。從己，丞。讀若《詩》云：“赤舄己己”。
- (1124) 壬部 壬 《易》曰：“龍戰於野。”
- (1125) 去部 去 《易》曰：“突如其來如。”不孝子突出，不容於內也。凡去之屬皆從去。
- (1126) 去部 育 養子使作善也。從去肉聲。《虞書》曰：“教育子。”
- (1127) 西部 醕 厚酒也。從西需聲。《詩》曰：“酒醕惟醕。”
- (1128) 西部 酎 三重醇酒也。從西，從時省。《明堂月令》曰：“孟秋，天子飲酎。”
- (1129) 西部 醕 酒味淫也。從西，饒省聲。讀若《春秋傳》曰“美而醕”。
- (1130) 西部 醕 醉也。從西熏聲。《詩》曰：“公屍來燕醕醕。”
- (1131) 西部 醫 治病工也。《周禮》有醫酒。古者巫彭初作醫。
- (1132) 西部 酋 酒也。《春秋傳》曰：“爾貢包茅不入，王祭不供，無以醕酒。”
- (1133) 酋部 酋 繹酒也。從酉，水半見於上。《禮》有“大酋”，掌酒官也。凡酋之屬皆從酋。
- (1134) 酋部 尊 尊也。《周禮》六尊：犧尊，象尊，著尊，壺尊，太尊，山尊，以待祭祀賓客之禮。
- (1135) 亥部 亥 《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凡亥之屬皆從亥。

#### 4. 籀文이라고 밝힌 글자

- (1) 𠂔: 卷一上 丩部 旁: 溥也.从二, 闕; 方聲.步光切.𠂔, 籀文.
- (2) 祺: 卷一上 示部 祺: 吉也.从示其聲.渠之切.祺, 籀文.
- (3) 禋: 卷一上 示部 禋: 潔祀也.一曰精意以享爲禋.从示堃聲.於眞切.禋, 籀文.
- (4) 禱: 卷一上 示部 禱: 告事求福也.从示壽聲.都浩切.禱或省.禱, 籀文.
- (5) 崇: 卷一上 示部 崇: 神禍也.从示从出.雖遂切.崇, 籀文.
- (6) 璿: 卷一上 玉部 璿: 美玉也.从玉睿聲.《春秋傳》曰:“璿弁玉纓.”似沿切.璿, 籀文.
- (7) 中: 卷一上 丨部 中: 内也.从口, 丨, 上下通.陟弓切.中, 籀文.
- (8) 𦵑: 卷一下 艸部 𦵑: 菌𦵑, 地草.叢生田中.从中六聲.力竹切.𦵑, 籀文.
- (9) 薇: 卷一下 艸部 薇: 菜也.似藿.从艸微聲.無非切.薇, 籀文, 薇省.
- (10) 折: 卷一下 艸部 折: 斲斷也.从斤斷艸.譚長說.食列切.折, 籀文折从艸在彡中, 彡寒故折.篆文(折)折从手.
- (11) 蓬: 卷一下 艸部 蓬: 蒿也.从艸逢聲.薄紅切.蓬, 籀文蓬省.
- (12) 蓐: 卷一下 艸部 蓐: 陳艸復生也.从艸辱聲.一曰蒺也.凡蓐之屬皆从蓐.而蜀切.蓐, 籀文蓐从艸.
- (13) 薺: 卷一下 艸部 薺: 拔去田艸也.从蓐, 好省聲.呼毛切.薺, 籀文薺省.薺或从休.《詩》曰:“既蓀茶蓼.”
- (14) 牝: 卷二上 牛部 牝: 四歲牛.从牛从四, 四亦聲.息利切.牝, 籀文牝从貳.
- (15) 噎: 卷二上 口部 噎: 噎咽也.从口益聲.伊昔切.噎, 籀文噎上象口, 下象頸脈理也.
- (16) 嘯: 卷二上 口部 嘯: 吹聲也.吹口哨聲.從口肅聲.嘯, 籀文嘯, 從欠.
- (17) 歸: 卷二上 止部 歸: 女嫁也.从止, 从婦省, 自聲.舉韋切.歸, 籀文省.
- (18) 登: 卷二上 升部 登: 上車也.从升, 豆.象登車形.都際切.登, 籀文登从収.
- (19) 是: 卷二下 是部 是: 直也.从日, 正.凡是之屬皆从是.承旨切.是, 籀文是从古文正.
- (20) 隄: 卷二下 是部 隄: 是也.从是韋聲.《春秋傳》曰:“犯五不隄.”于鬼切.隄, 籀文隄从心.
- (21) 迹: 卷二下 辵部 迹: 步處也.从辵亦聲.資昔切.迹, 或从足.迹, 籀文迹从束.
- (22) 祖: 卷二下 辵部 祖: 往也.从辵且聲.祖, 齊語.全徒切.祖或从彳.祖, 籀文从盧.
- (23) 速: 卷二下 辵部 速: 疾也.从辵束聲.桑谷切.速, 籀文从軟.速, 古文从軟从言.
- (24) 送: 卷二下 辵部 送: 遣也.从辵, 侷省.蘇弄切.送, 籀文不省.
- (25) 遲: 卷二下 辵部 遲: 徐行也.从辵犀聲.《詩》曰:“行道遲遲.”直尼切.遲或从巨.遲, 籀文遲从犀.
- (26) 商: 卷三上 冏部 商: 从外知内也.从冏, 章省聲.式陽切.商, 籀文.
- (27) 話: 卷三上 言部 話: 合會善言也.从言昏聲.《傳》曰:“告之話言.”胡快切.話, 籀文話从會.
- (28) 諄: 卷三上 言部 諄: 亂也.从言孃聲.蒲沒切.諄, 諄或从心.諄, 籀文諄从二或.
- (29) 旬: 卷三上 言部 旬: 駭言聲.从言, 勻省聲.漢中西城有旬鄉.又讀若玄.虎橫切.旬, 籀文不省.

- (30) 誕: 卷三上 言部 誕: 詞誕也。从言延聲。徒早切。𪔐, 籀文誕省正。
- (31) 讐: 卷三上 言部 讐: 失氣言。一曰不止也。从言, 讐省聲。傅毅讀若愒。之涉切。𪔑, 籀文讐不省。
- (32) 童: 卷三上 辛部 童: 男有皐曰奴, 奴曰童, 女曰妾。从辛, 重省聲。徒紅切。𪔒, 籀文童, 中與竊中同从廿。廿, 以爲古文疾字。
- (33) 𠂔: 卷三上 収部 兵: 械也。从升持斤, 并力之兒。補明切。𠂕, 古文兵, 从人, 升, 干。𠂖, 籀文。
- (34) 戴: 卷三上 異部 戴: 分物得增益曰戴。从異戔聲。都代切。𠂗, 籀文。
- (35) 耨: 卷三上 辰部 農: 耕也。从辰凶聲。徐鍇曰: “當从凶乃得聲。” 奴冬切。𠂘, 籀文農从林。
- (36) 爨: 卷三上 爨部 爨: 齊謂之炊爨。臼象持甌, 冂爲竈口, 井推林內火。凡爨之屬皆从爨。七亂切。𠂙, 籀文爨省。
- (37) 鞀: 卷三下 革部 鞀: 鞀遼也。从革召聲。徒刀切。鞀或从兆。𠂚, 鞀或从鼓从兆。𠂛, 籀文鞀从鼓, 召。
- (38) 鞀: 卷三下 革部 鞀: 引軸也。从革引聲。余忍切。𠂜, 籀文。
- (39) 鬻: 卷三下 鬲部 鬻: 大釜也。一曰鼎大上小下若甌曰鬻。从鬲炆聲。讀若岑。才林切。𠂝, 籀文。
- (40) 融: 卷三下 鬲部 融: 炊氣上出也。从鬲, 蟲省聲。以戎切。𠂞, 籀文融不省。
- (41) 𠂟: 卷三下 又部 𠂟: 老也。从又从灾。闕。穌后切。𠂠, 籀文从寸。𠂡, 𠂟或从人。
- (42) 燮: 卷三下 又部 燮: 和也。从言从又, 炎。籀文燮从羊。羊, 音飪。讀若溼。 臣鉉等案: 燮字義大孰也。从炎从又。即孰物可持也。此燮蓋从燮省。言語以和之也。二字義相出入故也。穌叶切。𠂢, 籀文。
- (43) 肄: 卷三下 聿部 肄: 習也。从聿彘聲。羊至切。𠂣, 篆文。𠂤, 籀文。
- (44) 晝: 卷三下 晝部 晝: 日之出入, 與夜爲界。从晝省, 从日。陟救切。𠂥, 籀文。
- (45) 豎: 卷三下 𠂦部 豎: 豎立也。从𠂦豆聲。臣庚切。𠂧, 籀文豎从豎。
- (46) 臧: 卷三下 臣部 臧: 善也。从臣戕聲。則郎切。𠂨, 籀文。
- (47) 𠂩: 卷三下 皮部 皮: 剥取獸革者謂之皮。从又, 爲省聲。凡皮之屬皆从皮。符羈切。𠂪, 籀文。𠂫, 古文。
- (48) 𠂬: 卷三下 𠂬部 𠂬: 柔韋也。从北, 从皮省, 从𠂭省。凡𠂬之屬皆从𠂬。讀若栗。一曰若雋。臣鉉等曰: 北者, 反覆柔治之也。𠂭, 營也。而亮切。𠂮, 籀文; 𠂯, 古文。
- (49) 𠂰: 卷三下 支部 𠂰: 毀也。从支, 貝。𠂰, 賊皆从貝, 會意。薄邁切。𠂱, 籀文𠂰从貝。
- (50) 𠂲: 卷四上 隹部 𠂲: 今閩。似雉而黃。从隹, 𠂳省聲。良刃切。𠂴, 籀文不省。
- (51) 雞: 卷四上 隹部 雞: 知時畜也。从隹奚聲。古兮切。𠂵, 籀文雞从鳥。
- (52) 雛: 卷四上 隹部 雛: 雞子也。从隹芻聲。士于切。𠂶, 籀文。
- (53) 雛: 卷四上 隹部 雛: 雛也。从隹周聲。都僚切。𠂷, 籀文雛从鳥。
- (54) 雁: 卷四上 隹部 雁: 鳥也。从隹, 疒省聲。或从人, 人亦聲。徐鍇曰: “鷹隨人所指輒, 故从人。” 於凌切。𠂸, 籀文雁从鳥。
- (55) 雛: 卷四上 隹部 雛: 雛也。从隹氏聲。處脂切。𠂹, 籀文雛从鳥。

- (56) 隹：卷四上 隹部 隹：九隹。農桑候鳥，隹民不姪者也。从隹戶聲。春隹，鳩盾；夏隹，竊玄；秋隹，竊藍；冬隹，竊黃；釗隹，竊丹；行隹，啁啁；宵隹，嘖嘖；桑隹，竊脂；老隹，鷓也。侯古切。𪗇，隹或从隹。𪗈，籀文隹从鳥。
- (57) 隹：卷四上 隹部 隹：隹屬。从隹倉聲。恩含切。𪗉，籀文隹从鳥。
- (58) 鷓：卷四上 鳥部 鷓：鷓風也。从鳥亼聲。諸延切。𪗊，籀文鷓从塵。
- (59) 鷓：卷四上 鳥部 鷓：鼠形。飛走且乳之鳥也。从鳥晶聲。力軌切。𪗋，籀文。
- (60) 棄：卷四下 華部 弃：捐也。从井推華棄之，从去。去，逆子也。臣鉉等曰：去，他忽切。頡利切。𪗌，古文；𪗍，籀文。
- (61) 𪗎：卷四下 受部 𪗎：進取也。从受古聲。古覽切。𪗏，古文；𪗐，籀文。
- (62) 𪗑：卷四下 奴部 𪗑：深明也。通也。从奴从目，从谷省。以芮切。𪗒，古文；𪗓，籀文。
- (63) 𪗔：卷四下 肉部 𪗔：皮也。从肉盧聲。力居切。𪗕，籀文。
- (64) 𪗖：卷四下 肉部 𪗖：脣瘍也。从肉參聲。之忍切。𪗗，籀文𪗖从广。
- (65) 𪗘：卷四下 肉部 𪗘：贅也。从肉尤聲。羽求切。𪗙，籀文𪗘从黑。
- (66) 𪗚：卷四下 刀部 𪗚：刀劍刃也。从刀𪗛聲。臣鉉等曰：今俗作鐔，非是。五各切。
- (67) 𪗜，籀文𪗚从𪗛从各。
- (68) 𪗝：卷四下 刀部 則：等畫物也。从刀从貝。貝，古之物貨也。子德切。𪗞，籀文則从鼎。
- (69) 副：卷四下 刀部 副：判也。从刀畱聲。《周禮》曰：“副辜祭。”芳逼切。𪗟，籀文。
- (70) 𪗠：卷四下 刃部 劍：人所帶兵也。从刃僉聲。居欠切。𪗡，籀文劍从刀。
- (71) 觶：卷四下 角部 觶：觶實曰觶，虛曰觶。从角，觶省聲。式陽切。𪗢，籀文觶从爵省。
- (72) 箴：卷五上 竹部 箴：竹也。从竹微聲。無非切。𪗣，籀文从微省。
- (73) 籩：卷五上 竹部 籩：竹豆也。从竹邊聲。布玄切。𪗥，籀文。
- (74) 箕：卷五上 箕部 箕：簸也。从竹；𪗧，象形；下其丌也。凡箕之屬皆从箕。居之切。𪗨，𪗩，籀文。𪗪，𪗫，𪗬，古文。
- (75) 差：卷五上 左部 差：貳也。差不相值也。从左从叒。徐鍇曰：“左於事，是不當值也。”初牙切。楚佳切。𪗭，籀文从二。
- (76) 晷：卷五上 日部 晷：出氣詞也。从日，象氣出形。《春秋傳》曰：“鄭太子晷。”呼骨切。𪗮，籀文晷。一曰佩也。象形。
- (77) 乃：卷五上 乃部 乃：曳詞之難也。象氣之出難。凡乃之屬皆从乃。臣鉉等曰：今隸書作乃。奴亥切。𪗯，古文；𪗰，籀文。
- (78) 鼓：卷五上 鼓部 鼓：郭也。春分之音，萬物郭皮甲而出，故謂之鼓。从壺，支象其手擊之也。《周禮》六鼓：鼗鼓八面，靈鼓六面，路鼓四面，鼙鼓，皐鼓，晉鼓皆兩面。凡鼓之屬皆从鼓。徐鍇曰：“郭者，覆冒之意。”工戶切。𪗱，籀文鼓从古聲。
- (79) 虞：卷五上 虍部 虞：鐘鼓之柎也。飾為猛獸，从虍，異象其下足。其呂切。𪗲，或从金虞聲。𪗳，

篆文虞省。

- (80) 盧: 卷五上 皿部 盧: 飯器也。从皿虞聲。洛乎切。𩚑, 籀文。
- (81) 餽: 卷五下 食部 餽: 日加申時食也。从食甫聲。博狐切。𩚑, 籀文餽从皿浦聲。
- (82) 饜: 卷五下 食部 饜: 貪也。从食號聲。土刀切。𩚑 饜或从口刀聲。𩚑, 籀文饜从號省。
- (83) 侖: 卷五下 亼部 侖: 思也。从亼从册。力屯切。𩚑, 籀文。
- (84) 就: 卷五下 京部 就: 高也。从京从尤。尤, 異於凡也。疾僦切。𩚑, 籀文。
- (85) 覃: 卷五下 旱部 覃: 長味也。从旱, 鹹省聲。《詩》曰: “實覃實吁。” 徒含切。𩚑, 古文; 𩚑, 籀文。
- (86) 牆: 卷五下 嗇部 牆: 垣蔽也。从嗇另聲。才良切。𩚑, 籀文从二禾。𩚑, 籀文亦从二來。
- (87) 藁: 卷六上 木部 藁: 木也。从木藁聲。力軌切。𩚑, 籀文。
- (88) 樹: 卷六上 木部 樹: 生植之總名。从木對聲。常句切。𩚑, 籀文。
- (89) 枱: 卷六上 木部 枱: 耒耑也。从木台聲。弋之切。𩚑 或从金。𩚑, 籀文从辵。
- (90) 栝: 卷六上 木部 栝: 鬮也。从木否聲。布回切。𩚑, 籀文。
- (91) 槃: 卷六上 木部 槃: 承槃也。从木般聲。薄官切。𩚑, 古文从金。𩚑, 籀文从皿。
- (92) 爨: 卷六下 爨部 爨: 日初出東方湯谷, 所登榑桑, 爨木也。象形。凡爨之屬皆从爨。而灼切。𩚑, 籀文。
- (93) 囿: 卷六下 口部 囿: 苑有垣也。从口有聲。一曰禽獸曰囿。于救切。𩚑, 籀文。
- (94) 員: 卷六下 員部 員: 物數也。从貝口聲。凡員之屬皆从員。徐鍇曰: “古以貝爲貨, 故數之。” 王權切。𩚑, 籀文从鼎。
- (95) 贛: 卷六下 貝部 贛: 賜也。从貝, 贛省聲。臣鉉等曰: 贛非聲, 未詳。古送切。𩚑, 籀文。
- (96) 昌: 卷七上 日部 昌: 美言也。从日从曰。一曰日光也。《詩》曰: “東方昌矣。” 臣鉉等曰: 曰, 亦言也。尺良切。𩚑, 籀文。
- (97) 昔: 卷七上 日部 昔: 乾肉也。从殘肉, 日以晞之。與俎同意。思積切。𩚑, 籀文从肉。
- (98) 賁: 卷七上 夕部 賁: 敬惕也。从夕寅聲。《易》曰: “夕惕若賁。” 翼真切。𩚑, 籀文。
- (99) 鹵: 卷七上 鹵部 鹵: 艸木實垂鹵鹵然。象形。凡鹵之屬皆从鹵。讀若調。徒遼切。𩚑, 籀文三鹵爲鹵。
- (100) 稟: 卷七上 鹵部 稟: 嘉穀實也。从鹵从米。孔子曰: “稟之爲言續也。” 相玉切。𩚑, 籀文。
- (101) 秋: 卷七上 禾部 秋: 禾穀孰也。从禾, 爨省聲。七由切。𩚑, 籀文不省。
- (102) 秦: 卷七上 禾部 秦: 伯益之後所封國。地宜禾。从禾, 春省。一曰秦, 禾名。𩚑, 籀文秦从秝。
- (103) 稷: 卷七上 禾部 稷: 布之八十縷爲稷。从禾夔聲。子紅切。𩚑, 籀文稷省。
- (104) 糗: 卷七上 米部 糗: 以米和羹也。一曰粒也。从米甚聲。桑感切。𩚑, 籀文糗从晉。𩚑, 古文糗从參。
- (105) 泉: 卷七下 水部 泉: 麻也。从水台聲。胥里切。𩚑, 籀文泉从沝从辵。

- (106) 宀: 卷七下 宀部 宇: 屋邊也。从宀于聲。《易》曰:“上棟下宇。”王渠切。𡩺, 籀文字从禹。
- (107) 寢: 卷七下 宀部 寢: 臥也。从宀𠂔聲。𠂔, 七荏切。臥也。𡩺, 籀文。
- (108) 寢: 卷七下 寢部 寢: 寐覺而有信曰寢。从寢省, 吾聲。一曰晝見而夜寢也。五故切。𡩺, 籀文。
- (109) 疾: 卷七下 疒部 疾: 病也。从疒矢聲。秦悉切。𡩺, 古文。𡩺, 籀文。
- (110) 疔: 卷七下 疒部 疔: 腫。從疒童聲。《詩》曰:“既微且疔。”時重切。𡩺, 籀文从允。
- (111) 疔: 卷七下 疒部 疔: 皮剥也。从疒丹聲。赤古切。𡩺, 籀文从艮。
- (112) 癘: 卷七下 疒部 癘: 罷病也。从疒隆聲。力中切。𡩺, 籀文癘省。
- (113) 网: 卷七下 网部 网: 網。網所結繩以漁。从冂, 下象网交文。凡网之屬皆从网。今經典變隸作𦉳。文  
紡切。或從亡𦉳, 或從系𦉳; 𦉳, 古文; 𦉳, 籀文。
- (114) 𦉳: 卷七下 网部 𦉳: 兔网也。从网且聲。子邪切。𦉳, 𦉳或从糸。𦉳, 籀文从虛。
- (115) 仿: 卷八上 人部 仿: 相似也。从人方聲。妃罔切。𡩺, 籀文仿从丙。
- (116) 襲: 卷八上 衣部 襲: 左衽袍。从衣, 隴省聲。似入切。𡩺, 籀文襲不省。
- (117) 裘: 卷八上 衣部 裘: 衣帶以上。从衣矛聲。一曰南北曰裘, 東西曰廣。莫候切。𡩺, 籀文裘从楸。
- (118) 襄: 卷八上 衣部 襄: 漢令: 解衣耕謂之襄。从衣罷聲。息良切。𡩺, 籀文。
- (119) 屋: 卷八上 尸部 屋: 居也。从尸, 尸, 所主也。一曰尸, 象屋形。从至。至, 所至止。室, 屋皆从至。  
烏谷切。𡩺, 籀文屋从厂。𡩺, 古文。
- (120) 覓: 卷八下 兒部 覓: 晷也。周曰覓, 殷曰吁, 夏曰收。从兒, 象形。皮變切。𡩺, 籀文覓从升, 上  
象形。𡩺, 或覓字。
- (121) 歎: 卷八下 欠部 歎: 吟也。从欠, 省聲。池案切。𡩺, 籀文歎不省。
- (122) 頰: 卷九上 頁部 頰: 眉目之間也。从頁彥聲。五姦切。𡩺, 籀文。
- (123) 顛: 卷九上 頁部 顛: 顛也。从頁丁聲。都挺切。𡩺, 或从[頂去丁]作。𡩺, 籀文。
- (124) 頰: 卷九上 頁部 頰: 面旁也。从頁夾聲。古叶切。𡩺, 籀文。
- (125) 彪: 卷九上 鬼部 彪: 老精物也。从鬼, 彡。彡, 鬼毛。密祕切。𡩺, 或从末聲。𡩺, 籀文从彡首, 从  
尾省聲。
- (126) 岫: 卷九下 山部 岫: 山穴也。从山由聲。似又切。𡩺, 籀文从穴。
- (127) 厂: 卷九下 厂部 厂: 山石之厓巖, 人可居。象形。凡厂之屬皆从厂。呼旱切。𡩺, 籀文从干。
- (128) 仄: 側傾也。从人在厂下。阻力切。𡩺, 籀文从矢, 矢亦聲。
- (129) 磬: 卷九下 石部 磬: 樂石也。从石, 殷。象縣虞之形。殸, 擊之也。古者母句氏作磬。苦定切。𡩺,  
古文; 𡩺, 籀文。
- (130) 豨: 卷九下 豨部 豨: 脩豪獸。一曰河內名豨也。从彡, 下象毛足。凡豨之屬皆从豨。讀若弟。羊至  
切。𡩺, 古文; 𡩺, 籀文。
- (131) 彘: 卷九下 豨部 彘: 豨, 鬣如筆管者。出南郡。从豨高聲。臣鉉等曰: 今俗別作彘, 非是。乎刀

切。𩇛 籀文从豕。

- (132) 𩇛: 卷十上 馬部 馬: 怒也.武也.象馬頭髦尾四足之形.凡馬之屬皆从馬.莫下切.𩇛, 籀文馬與同, 有髦.𩇛, 古文.
- (133) 𩇛: 卷十上 馬部 駟: 黃馬, 黑喙.从馬𩇛聲.古華切.𩇛, 籀文.
- (134) 𩇛: 卷十上 馬部 駟: 馬小兒.从馬垂聲.讀若篁.之壘切.𩇛, 籀文从丞.
- (135) 𩇛: 卷十上 馬部 駕: 馬在軛中.从馬加聲.古訝切.𩇛, 籀文.
- (136) 麗: 卷十上 鹿部 麗: 旅行也.鹿之性, 見食急則必旅行.从鹿丽聲.《禮》: 麗皮納聘.蓋鹿皮也.郎計切.𩇛, 古文; 𩇛, 籀文.
- (137) 麤: 卷十上 麤部 塵: 鹿行揚土也.从麤从土.直珍切.𩇛, 籀文.
- (138) 𩇛: 卷十上 鼠部 鼯: 豹文鼠也.从鼠冬聲.職戎切.𩇛, 籀文省.
- (139) 𩇛: 卷十上 火部 𩇛: 以火乾肉.从火福聲.符逼切.𩇛, 籀文不省.
- (140) 𩇛: 卷十上 火部 𩇛: 天火曰𩇛.从火𩇛聲.祖才切.𩇛 古文从才.𩇛 或从𩇛.火.𩇛 籀文从𩇛.
- (141) 𩇛: 卷十上 火部 煙: 火氣也.从火堙聲.烏前切.𩇛 或从因.𩇛 籀文从𩇛.𩇛 古文.
- (142) 𩇛: 卷十下 炙部 炙: 炮肉也.从肉在火上.凡炙之屬皆从炙.之石切.𩇛, 籀文不省.
- (143) 奢: 卷十下 奢部 奢: 張也.从大者聲.凡奢之屬皆从奢.臣鉉等曰: 今俗作陟加切.以為夢厚之夢, 非是.式車切.𩇛, 籀文從多.
- (144) 𩇛: 卷十下 心部 𩇛: 忿也.从心𩇛聲.一曰憂也.於緣切.𩇛, 籀文.
- (145) 𩇛: 卷十一下 𩇛部 𩇛: 水小流也.《周禮》: “匠人為溝洫, 相廣五寸, 二相為耦; 一耦之伐, 廣尺, 深尺, 謂之𩇛.” 倍𩇛謂之遂; 倍遂曰溝; 倍溝曰洫; 倍洫曰𩇛.凡𩇛之屬皆从𩇛.姑注切.𩇛, 古文𩇛从田从川.𩇛 篆文𩇛从田犬聲.六𩇛為一畝.𩇛, 籀文.
- (146) 𩇛: 卷十一下 川部 𩇛: 四方有水, 自𩇛城池者.从川从邑.於容切.𩇛, 籀文.
- (147) 𩇛: 卷十一下 𩇛部 𩇛: 血理分袞行體者.从𩇛从血.莫獲切.𩇛 𩇛 或从肉.𩇛, 籀文.
- (148) 𩇛: 卷十一下 𩇛部 𩇛: 袞視也.从𩇛从見.莫狄切.𩇛, 籀文.
- (149) 𩇛: 卷十一下 雨部 𩇛: 陰陽薄動𩇛雨, 生物者也.从雨, 𩇛象回轉形.魯回切.𩇛, 𩇛, 古文; 𩇛, 籀文.
- (150) 𩇛: 卷十一下 雨部 震: 劈歷, 振物者.从雨辰聲.《春秋傳》曰: “震夷伯之廟.” 臣鉉等曰: 今俗別作霹靂, 非是.章刃切.𩇛, 籀文.
- (151) 𩇛: 卷十一下 雨部 𩇛: 地氣發, 天不應.从雨𩇛聲.臣鉉等曰: 今俗从務.亡遇切.𩇛, 籀文.
- (152) 𩇛: 卷十一下 魚部 鱗: 魚子已生者.从魚, 𩇛省聲.徒果切.𩇛, 籀文.
- (153) 𩇛: 卷十一下 魚部 鱗: 鯉也.从魚𩇛聲.張連切.𩇛, 籀文.
- (154) 𩇛: 卷十二上 西部 西: 鳥在巢上.象形.日在西方而鳥棲, 故因以為東西之西.凡西之屬皆从西.先稽切.𩇛, 西或从木, 妻.𩇛, 古文; 𩇛, 籀文.

- (155) 臣: 卷十二上 臣部 臣: 顛也.象形.凡臣之屬皆从臣.與之切.頤篆文臣.𠄎籀文从首.
- (156) 妘: 卷十二下 女部 妘: 祝融之後姓也.从女云聲.王分切.𡇗, 籀文妘从員.
- (157) 婚: 卷十二下 女部 婚: 婦家也.《禮》: 娶婦以昏時, 婦人陰也, 故曰婚.从女从昏, 昏亦聲.呼昆切.𡇗, 籀文.
- (158) 姻: 卷十二下 女部 姻: 壻家也.女之所因, 故曰姻.从女从因, 因亦聲.於真切.𡇗, 籀文姻从册.
- (159) 妻: 卷十二下 女部 妻: 婦與夫齊者也.从女从中从又.又, 持事, 妻職也.臣鉉等曰: 中者, 進也, 齊之義也, 故从中.七稽切.古文妻从尚, 女.尚, 古文貴字.𡇗, 籀文.
- (160) 妘: 卷十二下 女部 妘: 歿母也.从女比聲.卑履切.𡇗, 籀文.
- (161) 媧: 卷十二下 女部 媧: 古之神聖女, 化萬物者也.从女高聲.古蛙切.𡇗, 籀文媧从鬲.
- (162) 匚: 卷十二下 匚部 匚: 受物之器.象形.凡匚之屬皆从匚.讀若方.府良切.𠄎, 籀文.
- (163) 柩: 卷十二下 匚部 柩: 棺也.从匚从木, 久聲.日救切.匚, 籀文.
- (164) 甗: 卷十二下 甗部 甗: 黍也.从甗虎聲.讀若盧同.洛乎切.𡇗篆文甗, 𡇗籀文甗.
- (165) 𦉳: 卷十二下 瓦部 甗: 甗也.从瓦曾聲.子孕切.𡇗, 籀文.
- (166) 系: 卷十二下 系部 系: 繫也.从糸ノ聲.凡系之屬皆从系.胡計切.𡇗系或从穀, 處.𡇗籀文系从爪, 絲.
- (167) 緇: 卷十三上 糸部 緇: 帛也.从糸曾聲.疾陵切.𡇗, 籀文緇从宰省.楊雄以為漢律祠宗廟丹書告.
- (168) 紕: 卷十三上 糸部 紕: 衣系也.从糸今聲.居音切.𡇗, 籀文從金.
- (169) 緇: 卷十三上 糸部 緇: 紕也.从糸番聲.余聿切.𡇗, 古文; 𡇗, 籀文.
- (170) 𧈧: 卷十三上 虫部 强: 蜥也.从虫弘聲.徐鉉曰: “弘與强聲不相近, 秦刻石文从口.疑从籀文省.”巨良切.𡇗, 籀文强从虫从彊.
- (171) 𧈧: 卷十三上 虫部 𧈧: 蜥子也.从虫氏聲.《周禮》有𧈧醢.讀若祁.直尼切.𡇗, 古文𧈧从辰, 土.𡇗, 籀文𧈧从虫.
- (172) 虹: 卷十三上 虫部 虹: 蜺蝮也.狀似蟲.从虫工聲.《明堂月令》曰: “虹始見.”戶工切.𡇗, 籀文虹从申.申, 電也.
- (173) 𧈧: 龜𧈧也.从它, 象形.𧈧頭與它頭同.凡𧈧之屬皆从𧈧. 臣鉉等曰: 色, 其腹也.莫杏切.𡇗, 籀文.
- (174) 地: 卷十三下 土部 地: 元氣初分, 輕清陽為天, 重濁陰為地.萬物所陳列也.从土也聲.徒內切.𡇗, 籀文地从隊.
- (175) 塿: 卷十三下 土部 塿: 四方土可居也.从土與聲.於六切.𡇗, 籀文.
- (176) 垣: 卷十三下 土部 垣: 牆也.从土亘聲.雨元切.𡇗, 籀文垣从亘.
- (177) 堵: 卷十三下 土部 堵: 垣也.五版為一堵.从土者聲.當古切.𡇗, 籀文从亘.
- (178) 堂: 卷十三下 土部 堂: 殿也.从土尚聲.徒郎切.𡇗, 籀文堂从高省.𡇗, 古文.

- (179) 封: 卷十三下 土部 封: 爵諸侯之土也.从之从土从寸, 守其制度也.公侯, 百里; 伯, 七十里; 子男, 五十里.徐鍇曰:“各之其土也.會意.”府容切.  古文封省.  籀文从丰.
- (180) 璽: 卷十三下 土部 璽: 王者印也.所以主土.从土爾聲.斯氏切.  籀文从玉.
- (181) 城: 卷十三下 土部 城: 以盛民也.从土从成, 成亦聲.氏征切.  籀文城从章.
- (182) 壞: 卷十三下 土部 壞: 敗也.从土衷聲.下怪切.  古文壞省.  籀文壞.臣鉉等按: 支部有數, 此重出.
- (183) 銳: 卷十四上 金部 銳: 芒也.从金兌聲.以芮切.  籀文從厂刻.
- (184) 車: 卷十四上 車部 車: 輿輪之總名.夏后時奚仲所造.象形.凡車之屬皆从車.尺遮切.  籀文.
- (185) 輶: 卷十四上 車部 輶: 輶也.从車舟聲.張流切.  籀文.
- (186) 陸: 卷十四下 阜部 陸: 高平地.从自从坫, 坫亦聲.力竹切.  籀文.
- (187) 隄: 卷十四下 阜部 隄: 城上女牆俾倪也.从自卑聲.符支切.  籀文隄从章.
- (188) 隄: 卷十四下 隄部 隄: 隄 陋也.从隄, 紛聲.  籀文隄字.烏懈切.  籀文隄从自, 益.
- (189) 四: 卷十四下 四部 四: 陰數也.象四分之形.凡四之屬皆从四.息利切.  古文;  籀文.
- (190) 乾: 卷十四下 乙部 乾: 上出也.从乙, 乙, 物之達也; 軌聲.渠焉切.古寒切.  籀文.
- (191) 辭: 卷十四下 辛部 辭: 不受也.从辛从受.受辛宜辭之.似茲切.  籀文辭从台.
- (192) 辭: 卷十四下 辛部 辭: 訟也.从詞, 詞猶理辜也.詞, 理也.似茲切.  籀文.
- (193) 癸: 卷十四下 癸部 癸: 冬時, 水土平, 可揆度也.象水從四方流入地中之形.癸承壬, 象人足.凡癸之屬皆从癸.居誅切.  籀文从飛从矢.
- (194) 子: 卷十四下 子部 子: 十一月, 陽氣動, 萬物滋, 人以爲稱.象形.凡子之屬皆从子.(李陽冰曰: “子在襪緜中, 足併也.”) 卽里切.  古文子从厶, 象髮也.  籀文子凶有髮, 臂脛在几上也.
- (195) 申: 卷十四下 申部 申: 神也.七月, 陰氣成, 體自申束.从臼, 自持也.吏臣舖時聽事, 申旦政也.凡申之屬皆从申.失人切.  古文;  籀文.
- (196) 醜: 卷十四下 酉部 醜: 醜也.从酉參聲.關東謂醜曰酸.素官切.  籀文醜从峻.
- (197) 醜: 卷十四下 酉部 醜: 醜也.从肉从酉, 酒以和醬也; 另聲.即亮切.  古文;  籀文.
- (198) 醜: 卷十四下 酉部 醜: 肉醬也.从酉, 益. 臣鉉等曰: 益, 甌器也.所以盛醜.呼改切.  籀文.